

# 재외동포 문학의 창 2019

제21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작품집



# 발간사

올해도 어김없이 소중한 문학 작품들과 자기만의 이야기를 응모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갈 원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2019 재외동포문학상’에 응모한 작품들은 한국 문학사가 나아갈 길과 재외동포 문학의 현재를 조망해볼 수 있는 좋은 준거였습니다.

2019년 현재, 우리 재외동포는 750만 명이 전 세계 180개국에 흩어져 살고 있으며, 이들의 역경 극복 이야기와 정착·성공 비법은 글로벌 시대의 생존 경쟁력을 필요로 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를 초월하여 재외동포사회가 한반도 밖에서 겪고 있는 독특한 경험과 정서는 시와 단편소설과 체험수기와 글짓기 등의 다양한 창작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재해석되어야 하며, 동포 여러분의 삶과 생각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창구 역할을 재외동포문학상이 성실히 수행해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재외동포는 한반도를 떠나 새로운 세계에서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개척자들의 후예들이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서 거주국과 모국을 잇는 영웅들입니다.

앞으로도 재외동포재단은 우리 국민의 재외동포 인식 제고를 위해 그동안 수집되고 축적된 다양한 문학작품과 활약상이 우리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확대 수록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국력의 외연이자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의 주역인 재외동포사회가 거주국과 모국 모두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품격과 국민통합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0.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한 우 성

# 목차

시		심사평	7
	대상	오래된 풍경 심갑섭 (미국)	24
	우수상	옹이 김여름 (미국)	26
		달 장성희 (미국)	28
	가작	등 리련화 (중국)	30
		개과천선 최성은 (페루)	31
		개미들의 행진 이신명 (그리스)	33
		아버지와 가자미식해 이은주 (인도네시아)	35
		갯빛 대부 정선자 (이집트)	37
		피란 2012 신동규 (스웨덴)	40
		중착역 전엘레나 (카자흐스탄)	41

## 단편 소설

대상	오해 이태경 (카자흐스탄)	44
우수상	좋은 날 김미영 (스웨덴)	65
	하이웨이 씩스 정명숙 (캐나다)	86
가작	여름은 짧을수록 좋다 이미화 (미국)	110
	나는 이 땅의 식물이고 싶다 류일복 (중국)	133
	응급약 지병림 (카타르)	157

## 체험 수기

대상	전설처럼 살다 가신 할머니 박영희 (중국)	186
우수상	함께 걷기 박성일 (호주)	199
	에메랄드 섬의 옥돌 정착기 임세진 (아일랜드)	215
가작	케세라세라·희망은 늘 과제와 함께 이홍매 (중국, 일본 거주)	229
	적도의 땅 말레이시아에서 날개를 퍼다 김희정 (말레이시아)	242
	굴 캐는 여자 오진영 (뉴질랜드)	259

## 청소년 글짓기

중·고등 부문

<b>최우수상</b>	2019년이 1919년에게 홍세흔 (뉴질랜드)	274
<b>우수상</b>	3.1운동 정신과 일본 속의 나 남명지 (일본)	278
	중국에서 만난 안중근 의사 김정재 (중국)	282
<b>장려상</b>	우리 집, 24인의 독립 영웅 백재흠 (카자흐스탄)	286
	그 날의 합성을 기억하며 유다은 (태국)	290
	대한민국과 나 정유진 (중국)	297

## 청소년 글짓기

초등 부문

<b>최우수상</b>	지구 반대편까지 들리는 평화의 만세 소리 박동하 (뉴질랜드)	316
<b>우수상</b>	34번째 민족 대표 스코필드 박새미 (캐나다)	319
	의지로 이어진 과거와 현재 이아론 (아르헨티나)	322
<b>장려상</b>	나의 마음의 멋진 포수 홍범도 장군 조다윗 (뉴질랜드)	325
	한글학교 수업 시간에 배운 역사 이야기 김정현 (호주)	328
	자랑하고 싶은 우리나라 이우주 (독일)	332

---

<b>수상소감</b>	335
-------------	-----

# 심사평

## 시 부문



심사위원 신경림



심사위원 신달자



심사위원 유자호



심사위원 정호승

이번 심사를 통해 재외동포문학상에 대한 재외동포들의 관심의 열기가 무척 뜨겁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다. 모국을 떠나 해외에 살면서 모국어로 시를 쓴다는 것 그 자체가 모국에 대한 깊은 애정과 그리움의 발로가 아니고 무엇이랴. 보다 많은 투고자들이 수상의 기쁨을 나누지 못해 심사위원들은 모두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을 금치 못했다. 해마다 작품 수준이 향상되고 해외동포가 아니라면 쓸 수 없는 작품 또한 많아 심사 숙고를 거듭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상 「오래된 풍경(심갑섭)」은 시적 형성력에 빈틈이 보이지 않는 작품이다. 오래된 모국의 고향 풍경이 군더더기 없이 표현돼 있다. 무엇보다 구태의연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적 모성의 정취를 단아하게 느끼게 해준다는 점에서 그 작품성을 높이 샀다.

우수상 「옹이(김여름)」는 노숙자와 같은 해외에서의 비애적 삶을 장작 더미에 단단히 박힌 옹이에 빗대어 나타내었다. 옹이에서 고통과 인내의 삶을 엿보고 ‘슬그머니 도끼를 내려놓고 그의 곁에 앉는다’고 표현함으로써 고통에 대한 긍정적인 삶의 자세가 엿보였다. 나아가 옹이가 ‘이방인의 방을 따듯하게 데우며/ 이제 깊이 잠들 수 있는 고단한 자세에 이르렀다’는 데에서도 옹이로 은유된 우리 삶의 인고와 희생의 가치에도 공감할 수 있었다.

우수상 「달(장성희)」은 달의 생명성을 통해 여성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나아가 모성의 본질을 깨닫게 했다. 달이 지닌 동양적 이미지를 통해 생명 탄생의 과정과 신비를 표현한 것은 이 시를 쓴 시인이 한국이라는 동양의 여성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 외 가작 「등(리련화)」은 산봉우리와 낙타의 등과 인간의 무덤을 동일한 곡선으로 인식했다는 점이, 「개과천선(최성은)」은 인생의 중요한 것은 결국 마음의 눈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점이, 「개미들의 행진(이신명)」은 개미와 인간의 삶을 동일시하고 개미를 통해 인생의 고난의 의미를 깊게 성찰했다는 점이 돋보였다. 「아버지와 가자미식해(이은주)」, 「젯빛 대부(정선자)」, 「피란 2012(신동규)」, 「종착역(전엘레나)」 역시 등외로 두기에는 아까운 작품들이었다.

시는 우리 삶의 소산이다. 시는 인간의 삶을 위안해준다. 해외에서 모국어를 잃지 않고 시를 쓴다는 것은 그 시를 통해 삶을 위안 받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재외동포문학상은 작품의 우열을 가리는 의미로서가 아니라, 모국어의 잔치를 벌이는 마당으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고 여겨진다.

## 단편소설 부문



심사위원 오정희



심사위원 구효서



심사위원 우한용

해외에 살면서 모국어로 글을 쓴다는 것은 눈물겹고 거룩한 일이다. 이는 모국어를 지키는 일일 뿐만 아니라, 모국어를 더욱 풍성하게 가꾸는 실천이다. 사는 지역의 문화적 환경에 따라 언어가 조금 달라지는 것이야 닳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언어적 변이가 한국어를 풍성하게 하는 길이 되기도 한다. 나아가 해당 지역 언어를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특히 소설은 그 언어의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모국어를 지키는 성이요, 모국어를 키워나가는 에너지원이다. 소설은 인간이 운용하는 언어행위의 전반을 포괄한다. 작중인물의 계층, 의식, 개성이 드러나는 소설의 언어는 일상에서 운용되는 언어의 총체상, 그 이상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재외동포가 사는 지역의 한국어가 제 모습을 유지하고 발전하기 위해

서는 소설문학의 활성화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어느 지역의 언어로 소설을 쓸 수 없다면, 그 언어의 역량은 매우 제한적이다.

재외동포가 사는 지역에서 소설을 실을 수 있는 잡지까지 발간된다면 더 없이 바람직한 일이다. 잡지를 통해 문자언어로서 한국어의 소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어로 된 신문이 발간되고 그 매체를 통해 한국어로 언어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바람직한 일이 달리 없다.

‘재외동포문학상’에 응모한 여러분들은 모국어를 지키고 키워가는 문화 주역이다. 소설을 쓰는 여러분들은 한국어 정련의 주역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작품이 얼마나 우수한 문학적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는 나중에 따져도 늦지 않다. 언어적 실천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학은 일상어를 바탕으로 하지만, 일상어 그 이상의 예술적 자질을 지향한다. 작가가 자신의 언어를 정교하게 다루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번 재외동포문학상 소설 분야에는 60명 가까운 분들이 80편이 넘는 작품을 투고해 주었다. 풍성한 수확이었다. 따라서 이번 심사는 해외에서 한국어로 소설 쓰는 작가 60분을 만나는 일이었고, 그분들의 작품 80편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다. 기쁘고 보람된 일이었다.

심사 과정에서 응모작의 특징 몇 가지가 발견되었다. 응모작의 ‘특징’이기 때문에 좋고 나쁘고를 따지는 가치평가를 벗어난다. 그러나 그 특징이 소설의 질적인 문제를 말해주는 것이라면 성찰과 모색이 뒤따라야 하리라. 작품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해 두고자 한다.

첫째, 소재 문제. 해외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곳 환경에 적응하는 일이 일차적 과업이 된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일은 새로운 체험이기 때문에 선명한 인상으로 각인된다. 새로운 경험은 그 자체로 기록하고 싶은

의욕을 불러온다. 그러나 그 새롭다는 것이 해외체험이 있는 사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면, 읽는 편에선 그다지 새롭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기도 한다. 새로운 체험이 어떻게 새로운 생각을 촉발하고, 삶의 방향을 어떻게 돌려놓는가 하는 문제를 깊이있게 성찰하고 그려야 소설적 형상화에 이르게 된다.

둘째, 인물의 문제. 소설은 새로운 인간상을 발견하는 작업이다. 새로운 인간상이란 자신을 포함하여 인간의 본원적 모습을 보여주는 행동, 언어, 의식 등을 통해 드러나는 인간의 특성이다. 새롭되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특성이 함께 드러나야 한다. 평소 인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치밀한 관찰을 통해 새로운 인간형을, 인간의 속성을 발견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좋은 소설을 쓸 수 있다.

셋째, 언어 문제. 소설은 언어운용의 총체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소설의 언어는 층위가 복잡적이고 다양한 게 특징이다. 그러나 소설언어의 기본은 서술과 대화를 적절하게 교합하는 데에 있다. 일상 대화를 소설 맥락에 맞게 조정하고 변형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작가자신의 어법을 벗어나 작중인물의 의식과 행동 특성에 맞는 언어로 소설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 일상에서 주고받는 말을 그대로 옮긴다면 소설의 언어로서는 적절치 않다. 작품에 설정된 인물과 환경에 어울리는 언어의 개발은 작가의 성장과 맞물려 있다.

위에서 이야기한 조건을 비교적 무리없이 지켜나간 작품을 수상작으로 결정하였다. 소설이 갖추어야 할 자세한 사항을 함께 고려한 것은 물론이다.

대상으로 결정한 이태경의 <오해>는 인간의 만남과 헤어짐의 문제를 글쓰기라는 구도에 담아낸 작품이다. 액자형식을 중첩한 것은 읽는 데

다소 부담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작가가 그리고자 하는 '사랑'과 '인간 이해'라는 문제를 객관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데는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주요 배경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설정함으로써 소설의 무대를 넓힌 것은 물론 그런 낯선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현실감 있게 드러나도록 하였다. 상징성을 띤 색채이미지는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데 기여한다. 어머니를 모델로 소설을 쓰는 남자, 즉 아들이 바라보는 어머니의 사랑, 자신의 아버지가 쓴 소설과 자신의 소설을 겹쳐가면서 가족사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자신의 소설과 아버지의 소설을 겹쳐 놓음으로써 의미화하는 기법은 상당한 훈련을 거친 결과로 읽힌다.

우수작으로 뽑힌 김미영의 <좋은 날>과 정명숙의 <하이웨이 씹스>는 대상을 주어도 손색이 없는 작품들이다. 두 작품은 자연스럽게 전개되는 이야기와 '갈등'을 풀어가는 과정이 무리가 없어 잘 읽힌다. 어떤 작품이 잘 읽힌다는 것은 그 작품이 높은 성취를 이루었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 먼저 말해두건대, 두 분은 응모가 아니라도 지속적으로 작품을 써서 등단하는 절차를 거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김미영의 <좋은 날>은 스웨덴으로 이주해 사는 두 가장의 만남에서, 사는 지역 환경을 평가하는 이야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 남편들이 만든 갈등을 아내들이 풀어가는 과정을 스웨덴 특유의 환경인 숲을 배경으로 플롯을 구성하고 있다. 갈등을 일으킨 집안 아내가 친구를 찾아와 숲에 가서 버섯을 따는 과정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은 아주 자연스럽게. 버섯 포자가 붙은 뿌리를 버섯을 딴 자리에 심어 놓는 행위는 환경론적 상징의 기능을 넘어 인간관계의 한 측면을 웅숭깊게 보여준다. 대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각은 문학을 계속할 수 있는 저력으로 평가될 만하다.

캐나다에 이주해서 식당 겸 술집을 운영하는 남편과 아내가 겪는 인간

사를 그린 작품이 〈하이웨이 씹스〉이다. 밤이면 꿈이 나타나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하고 집 안에 들어와 냉장고를 열어젖히는 환경 속에서, 인디언 원주민 취급을 당하기도 하면서 살아야 하는 형편이다. 남의 집 개똥을 치워주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샘을 만나 갈등상황에 빠지게 된다. 그런 중에 샘이 빚어내는 갈등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 이해의 깊은 경지를 체험한다. 인간 이해의 특수성과 보편성이 인간의 신뢰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의미있게 그려진 수작이다.

가작으로 뽑은 작품은 세 편이다. 이미화의 〈여름은 짧을수록 좋다〉, 류일복의 〈나는 이 땅의 식물이고 싶다〉, 지병림의 〈응급약〉 등이 해당 작품이다. 〈여름은 짧을수록 좋다〉는 미국에서 미국인 남성과 사는 한국인 여성이 느끼는 근원적 거리감을 ‘한국어로 말하고 싶은 욕구’가 실현되는 과정을 통해 그려냈다. 보다 진전된 작품을 쓰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벗어나는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 〈나는 이 땅의 식물이고 싶다〉는 중국에서 일하던 사람이 간암에 걸려 한국으로 돌아와 농촌 체험을 통해 자연과 자아를 동일시하는 과정을 소설로 다루고 있다. 자연 체험의 섬세함을 계속 살려나가기 바란다. 〈응급약〉의 작중인물은 폭압적인 아버지를 견디지 못한 어머니가 출분하자 아버지 밑에서 고모들 도움으로 자란다. 엄마를 찾기 위해 항공사에 입사한다. 기내에서 통증을 호소하는 산모에게 ‘응급약’을 투여하면서, 어머니의 삶을 용허하고, 자신의 배우자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자신의 업무와 연관지어 플롯화한 기법이 뛰어나다. 작품을 제출할 때는 차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 편 모두 가능성이 엿보이는 작품들이다.

이번 재외동포문학상이 21회에 이르렀다. 사람의 나이로 친다면 성년에 들어선 셈이다. 이 문학상을 출발점으로 해서, 재외동포들의 한국어

문학작품이 한국문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 수상 여부를 떠나 자신의 문학영토를 넓혀나가고 문학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분투하여 ‘재외동포문학’이 한국문학을 풍요롭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체험수기 부문



심사위원 이경자



심사위원 유현경



심사위원 박인기

제21회 재외동포문학상 체험수기 부문에는 모두 91편의 글이 투고되어, 예선을 거쳐 최종 본심에 올라온 작품은 14편이었다. 재외동포로서 지구촌 각지에서 이산(離散, diaspora)의 시공(時空)을 살아가고 있는 삶을 ‘체험의 실록’으로 증언하는 데에 손색이 없는 글들이었다. 심사위원들은 우수작품 선정의 중요한 조건으로 다음 세 가지를 의미 있게 고려하였다.

첫째, ‘체험수기’라는 장르의 특성을 고려하였다. 즉 체험의 사실성과 진실성을 고려하였다. 체험의 사실성은 체험 그 자체가 구체적으로 여실히 드러남을 뜻하며, 체험의 진실성은 체험의 생생한 증언과 그 정직성이 주는 어떤 효과, 즉 ‘체험의 감동’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재외동포로서의 정체성(正體性, identity)이 잘 드러난 글을 주목

하였다. 재외동포문학상의 체험수기는 재외동포로서의 삶에 대한 특별한 의미론적 울림을 줄 수 있는 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체험이면서, 동시에 재외동포의 사회적 삶과 공동체적 현실이 체험 속에 잘 녹아든 글을 선정하려 하였다.

셋째, 재외동포의 삶과 위상을 대한민국 내의 국민이 더욱 의미 있게 이해하고 각성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글을 찾았다. 재외동포문학상이 발굴한 작품들이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드높이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가 국내·외에 높아질수록 미래 한민족 공동체 번영의 토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준들에 비교적 잘 부합하는 글들로 다음의 수기들이 두드러진 수준을 보여주었다.

대상을 받은 박영희(중국)의 ‘전설처럼 살다 가신 할머니’는 기록 증언으로서의 가치가 돋보였다. 이국땅에서 겪는 고난의 절절함과 그것을 정서적으로 감응하는 점을 잘 표현하였다. 구사된 어휘도 재중동포 사회에서 지켜 온 것들이어서 이채로웠다. 이 글이 다루는 시간과 공간이 상당히 하여서 이 글은 어떤 역사성과 시대성을 잘 보여주기도 한다. 따라서 개인 체험으로서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재외동포 사회의 공동체적 체험으로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우수상을 받은 박성일(호주)의 ‘함께 걷기’는 두 가지 장점이 있다. 하나는 체험의 구체성이 두드러진다는 데서 오는 미더움이다. 그만큼 체험 내용이 정교하고 기록의 충실성이 독자에게 매력을 준다. 다른 하나는 주인공의 인내, 도전, 좌절, 재도전, 극복 등의 과정을 ‘감동 있는 이야기 구조’로 보여준다는 점이다. 다만 성공을 지나치게 주제화하기보다는 체험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방식을 권해 본다.

우수상을 받은 임세진(아일랜드)의 ‘에메랄드 섬의 옥돌 정착기’는 아일

랜드인의 아내로서 작가가 겪는 체험 자체가 소재로서의 희귀성을 보여주었다. 잘 정제된 분석력과 차분하고 진지한 서술 태도는 성실하게 작성한 보고서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문장과 문단을 반듯하게 구사한 점도 작가의 진지한 글쓰기 태도를 느끼게 한다. 무엇보다 여린 듯 강한 작가의 자아와 함께, 한민족의 정신적 정체성을 단단하게 지닌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가작에 입선한 이흥매(중국, 일본 거주)의 ‘케세라세라·희망은 늘 과제와 함께’는 재외동포의 정체성 문제를 잘 조명하면서 미래 세계화 환경에서의 삶의 조건을 시사한다. 작가는 조선족 재외동포이면서, 중국 국적 소지자로서, 일본에서 살아가고 있는, 작가 자신의 다중적 정체성을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는 이야기 속에서 잘 풀어내고 있다.

가작에 입선한 김희정(말레이시아)의 ‘적도의 땅 말레이시아에서 날개를 퍼다’는 이국의 생활 환경에 적응하려는 노력의 과정을 진솔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국어교사로서의 역할을 핵심이야기로 삼아서, 꾸준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려는 재외동포의 자화상을 증언한다. 이국에서의 시련과 더불어 강해지는 자아를 잘 보여준다.

가작에 입선한 오진영(뉴질랜드)의 ‘굴 캐는 여자’는 굴곡 많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차분한 관찰자 시점으로 전한다. 체험의 직접 고백은 아니지만, 문제 인물을 발견하고 관찰·기술하려는 태도와 몰입이 진지하다. ‘영주권’이라는 키워드로 불안정한 이민자 삶의 고단한 기복을 국내의 독자들에게 전해 준다. 이 또한 재외동포 이해의 일단이 되리라 믿는다.

수상하신 분들의 문학적 성취가 날로 빛나기를 기대한다.

## 청소년 글짓기 부문



심사위원 박상우



심사위원 권지혜

재외동포문학상 청소년 부문을 심사한 지도 거의 10년이 다 되어간다. 이 심사를 처음 맡았을 때 개인적으로 남다른 감회가 있었다. 90년대에 8년간 유학 생활을 하면서, 나 또한 아이를 일주일에 한 번 한글학교에 보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토종의 연약한 모종을 낫선 땅에 옮겨 심고 뿌리는 잘 내릴까, 제 나라에서만큼 늠름하게 잘 자랄까. 늘 그런 애뜻한 마음이었다. 그러니 응모한 아이들의 원고를 작가로서 또 엄마로서 읽게 되곤 했다.

우선 그동안 매해 전반적으로 한글 실력이 매우 높아졌고, 비슷한 패턴의 글에서 벗어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진지한 성찰을 하는 글이 많이 늘었다. 이 상이 한글 교육뿐 아니라 멋진 성장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그러나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기 위해 정한 주제로 글을 써야 했기 때문일까. 예년에 비해 응모작이 많이 줄었고 내용도 제한적인 정보로 대동소이해서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나 지식은 누구나, 또 세계 어디서나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위주의 길게 쓴 글보다 진솔한 생각이 든 글을 심사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런 의미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중고등부 홍세흔의 <2019년이 1919년에게>는 2019년의 자신과 100년 전 비슷한 나이의 유관순 열사를 하나하나 매우 구체적으로 비교 서술함으로써 100년간의 역사적인 간극을 통해 감상에 젖지않는 절제미를 보여준다. 오히려 그 대비로 소녀인 유관순 열사의 희생과 애국심을 더 강렬하고 가슴 아프게 느끼게 하는 효과를 보여준다.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3.1운동 정신과 일본 속의 나>를 쓴 남명지는 일본 교과서의 3.1운동과 한국사 수업에서의 3.1운동이 다른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진실을 알기 위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로 역사의 관점을 비교하며 고민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중국 장춘에 살고 있는 김정재는 안중근 의사의 발자취를 따라 여러 역사적 장소를 찾다가 3.1운동의 기폭제가 된 중국 만주지역에서 세계각지의 대표 39명이 선포한 무오독립선언을 소개한다. 무오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식의 낭독자로 참여하며 자신이 살고있는 역사적 장소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보여준다. 두 편을 우수작으로 선정했다.

초등부의 응모작 중 박동하의 <지구 반대편까지 들리는 평화의 만세소리>는 '3.1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이라는 가정하에 현재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의 소중함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박새미의 <34번째 민족 대표 스코필드>에서는 33인의 3.1운

동의 주역들 뒤에서 현장의 기록 사진을 찍고 독립운동을 도왔던 캐나다인 스코필드의 존재를 조명하는 글이라 인상적이었다. 같은 주제로 천편 일률적인 내용 속에서 이런 글들은 굳이 일화처럼 돋보였던 터라 수상자로 선정했다. 특히 올해처럼 똑같은 주제로 글을 쓰기 전에는, 항상 주제 의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지 고심하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수상자들에게 축하를 전하며, 수상하지 못한 응모자들도 모두 한국 역사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애국자들임을 글에서 느낄 수 있어서 반갑고도 고맙다.

# 시

대상	오래된 풍경	심갑섭 (미국)
우수상	옹이 달	김여름 (미국) 장성희 (미국)
가작	등 개과천선 개미들의 행진 아버지와 가자미식해 젓빛 대부 피란 2012 종착역	리련화 (중국) 최성은 (페루) 이신명 (그리스) 이은주 (인도네시아) 정선자 (이집트) 신동규 (스웨덴) 진엘레나 (카자흐스탄)

## 오래된 풍경

심갑섭 (미국)

긴 그림자 들판에 누워있고  
시골길이 소결음보다 느리게 어슬렁거린다  
새 한 마리 없는 눈에  
벼나락은 하릴없이 고개 숙이는데  
텅 빈 마을 어귀를 바라보는 낡은 집이  
귀를 쫓긋 세우고 수심에 잠긴다

뜨락에 쌓이는 고요  
떠난 사람 바라보던 짜리문은  
달힌 적이 없다  
아궁이 구들장은 허기가 지고  
피어오를 연기도 없는 굴뚝엔  
바람만 서성인다

어두운 샛길로 새벽이 스며들고  
어찌다 문이 흔들리면  
꺼져가는 불씨에 불을 지피듯  
다시 피어나는 그리움  
밤새 뒤척이는 노인의 잔기침에  
봄이 머뭇거린다.

우수상

## 옹이

김여름 (미국)

장작더미 속 깊이 잠들어 있는 노숙자와 마주쳤다.  
태풍의 눈매로 최선의 침묵을 품은, 그러나 내려찍으면 금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활활 광기를 드러낼 듯, 옹이 박힌,  
슬그머니 도끼를 내려놓고 그의 곁에 앉는다.  
아마도 수많은 푸른 입들로 엮은 얼룩의 말을 타고 평원을 가르며  
한평생을 달려 마침내 도달한 내생의 일기 일 거다.  
침침하고 딱딱한 고립의 껍질을 벗어나 불새처럼 날아가는 꿈을 꾸며  
푸른 새벽의 입김으로 일어나던 자리,  
한 번의 수직으로 횡을 긋고  
잠시 나의 척추를 접어 탁자에 앉히는  
이 우주의 진동은  
지난겨울과 여름의 틈으로 그가 써 놓은 바람의 밑줄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간이거나  
산의 동맥을 접속시키던 실핏줄 자국이거나

중력으로 부서져 내리다 등 굽은 빛의 조각이거나  
저 망망대해에서 내 안으로 견인되던 폐선의 표류 목이거나  
하여,  
그는 신원을 알 수 없는 계절을 만나 잠시 기거하던 이방인의 방을  
따뜻하게 데우며  
이제 깊이 잠들 수 있는 고단한 자세에 이르렀다.

우수상

## 달

장성희 (미국)

열일곱에 찾아온 달이 심통 한 번 안 부리고 서른세 해 내 몸에서 곱게 살아 주었다. 한 번 거른 달의 얼굴을 열흘째 찾고 있다. 머리카락이 우수수 떨어지고 애액이 마른다. 두 번 거르고 또 어느 달에 세 번 거르면 그때 몸의 소리를 다시 써야겠다. 마흔다섯에 들었던 소리는 거짓이 될 것이다.

애액이 마르는 이유를 알겠다. 전혀 나만의 방식으로. 식은땀 때문이다. 흰 새벽 식은땀. 없던 일을 매일 경험한다. 가슴골을 흐르는 끈끈함과 미끈함과 뜨끔함에 잠을 깬다. 깨고 나면 끔찍하다. 사랑으로 가야 할 물이 다 땀으로 간다는 말이다. 나 낮 땀 많이 흘리며 산 사람이야. 밤 땀이 어디에서 온단 말이냐. 물 두 병을 네 병으로.

울컥, 뜨거운 것이 다리 사이로 쭈욱 빠져나온다.

또 한 번 달의 허기가 밀려 나올 때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했다.

떨어진 아이처럼 무력하여. 아직 해가 있는 창으로 눈이 간다. 초승달이 얼마큼 부풀었나. 꼭 두 번 아이가 섰고 삼백일흔다섯 번 아이가 되지 못한 피가 흘렀다. 사백을 세기 전에 단 두 번이라니. 단 두 번의 수정이라니.

한 번만 더 오라. 뱃속으로 못 오면 혈관을 타고 심장으로.

이 물큰거리는 피를 짚어 쓰고 싶다. 당신.

# 등

리련화 (중국)

1

깊은 호수를 품은 산이 모로 누워있다. 산봉우리 몇 점의 흰 구름을  
떠올리고 열대를 품은 땡볕은 붉게 타고 있다. 능선이 굽이치는 건장한  
육체는 거뜬히 천둥 번개 벼락 물리친다.

야생 날것들의 횡포에도 그 뿌리는 끄떡없다. 녹음을 머금은 깊은 계곡  
물소리가 청아하다.

2

산허리 위로 휘어진 곡선은 낙타의 등을 닮아있다. 햇살 한 움큼,  
부드러운 숨결이 스민 그곳, 주렁주렁 열매들을 맺고, 시든 가지에  
목화꽃 한 송이 고이 피어 있다. 열악한 사막지대를 견디며 살아든 등,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불덩이를 얹은 채 덕지덕지 그을린 흔적 남아  
있다. 마지막 그늘을 세우고 나면 하늘의 등결에 기대 편히 쉴 수  
있을까. 앙상한 등, 희미한 돋보기는 외롭다. 기울어 가는 능선, 시름을  
내려놓은 무덤으로 이슬이 피어오른다.

# 개과천선

최성은 (페루)

중요한 것은 두 눈으로 볼 수 없다 했나요?

그런데 왜 우리는 마음보단 눈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죠?

익숙지 않아서 서툴러서 실수하는 것뿐인데

왜 지금은 한 번뿐인가요?

누구의 딸로, 누구의 손녀로,

누구의 언니로, 누구의 친구로

살아가기도 모자란 시간인데

소중한 것을 마음으로, 낯선 것을 익숙함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언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소중한 것을 잠시 후로 미루고 있지 않은지

아닌 것들을 보고 목매어 살고 있지 않은지

가짜가 더 요란한 세상에

내가 보고 듣는 것만으로 휩쓸려 가고 있지 않은지

허리를 굽히고 삶을 구걸하는가  
고개를 숙이고 회개하기 전에  
조용한 것들을, 잔잔한 것들을  
진리를, 소중한 것을 돌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고  
저 새들이 무엇을 속삭이는지 귀 기울여보고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며  
놓치고 있던 곳을 향해  
우리 함께 날개를 펼쳐보아요.

## 개미들의 행진

이신명 (그리스)

눈에 띄지 않아도  
가까이 다가서면 보이는 선명한 한 줄,  
하나일 때는 보이지 않던 줄,  
함께이기에 선명해지는 줄,  
그들의 삶을 닮았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봐주지도 않는  
때로는 고단해 보이고  
한순간 허물어질 수도 있는  
허무한 길 같아 보여도  
함께하는 이 길이기에  
그들은 그렇게 당당한 것일까?

이 땅을 디딘 흔적을 남기기 위해  
함께 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의미를 부여하듯  
오늘도 그들은 선명한 줄을 만든다.

마치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왔다는 듯.

그 뭔가를 가진 것 같은  
우리네 인생들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보면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들

그래서 희미하다 못해  
홀어져 버린 여러 점만  
남기고 가버리는 우리들

그런 우리에게  
가르침을 남기고자  
오늘도 개미들의 여정은 계속된다.  
선명한 줄만큼이나  
선명한 교훈을 우리 가슴에 남기며  
개미들의 몸짓은 강렬한 언어로  
우리에게 부딪혀 온다.

## 아버지와 가자미식해

이은주 (인도네시아)

고향 바다 그리워지는 날  
물 좋은 가자미를 소금에 재워  
무와 메조 밥에 그리움을 다독거린다.

북청 물로 가자미식해를 만들고 싶었던  
아버지의 소망은 망향가 눈물 속에 텅없이 익어버리고

철조망 비릿하게 삭힌 냄새에  
코를 막던 철부지 어린 딸은  
대서양 건너 적도 아래, 햇볕 좋은 마당에 앉아  
아버지의 그리움을 가자미식해 향아리에 재운다

희미하게 남아있던 고향의 노래는  
헐거워진 추억 속에 되감기만 계속되고  
빈 그릇 안고 걷는 옛 고향길엔  
겨울밤 꺼내먹던 가자미식해만 익어간다

해묵은 빈 보자기를 밟고 다지며 돌아오는 꿈속 고향길  
보고 싶은 아버지의 얼굴에는 적도의 노을처럼  
붉은 홍조를 띠고 있다.

## 젯빛 대부

정선자 (이집트)

젯빛 먼지 풀풀 날리는 황량한 도시  
투둑투둑 반갑게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타는 목마름으로 메말라버린 영혼까지 적셔주는 단비  
회색빛 세상을 걷어내려고 기다린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

풀도, 나무도, 꽃도, 건물조차도 재색으로 덮여있는 젯빛 나라  
갑자기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에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반갑게 마중  
나가는 이들  
긴 사계절을 돌아 우리만의 하늘 아래서 마주한 눈물의 해후  
해바라기가 되어 한 해 동안 하늘만 바라보며 기다렸던 속절없는 시간

흙먼지만 날리는 갈라진 땅도, 기다림에 지쳐 말라버린 마음도 다독이며  
살아가던 숨 가쁜 삶  
긴 기다림 끝에 찾아온 겨우 고개만 내밀다마는 비 그림자  
무엇이 그리도 바쁠까  
무엇이 그리도 인색할까

달리는 자동차 너머로 반짝 흐르는 빗물이 그저 안타까울 뿐  
 사라져가는 빗방울 소리에 성큼 달려 나가서 하늘을 향해 악수를  
 청해보는 애절한 마음  
 탁 탁 탁, 툭 툭 툭 잿빛 나라에 내리는 재색 비와의 황홀한 사랑의 인사  
 회색 하늘조차도 만면에 웃음을 지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시간

비에 쓸려 밀려나는 잿빛 먼지를 한 꺼풀 벗어보니 보이는 그리운 세상  
 새 단장을 마치기엔 턱없이 부족한 녹색 팔레트  
 싱그러운 대지의 푸르른 젊음이 보일 듯 말 듯 그려지네  
 우중충한 회색 도시가 짙은 단비에 젖어 낭만의 파리로 변해가네

불같은 갈증을 겨우 축인 사막나라의 잿빛 수목들  
 짧은 만남 속에서도 온몸으로 화답하는 비루한 초목들의 우레 같은  
 환영  
 장밋빛 도시보다도 더 큰 행복을 주는 잿빛 단비  
 두근두근 설렘 속에서 가슴 벅차게 다가오는 잿빛 대부와의 뜨거운 만남

오늘만 살 것처럼 망부석이 되어,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나  
 온기 어린 찻잔을 입에 대며, 세상을 품고 있는 마른 대지를 적시는 잿빛  
 단비를 느껴보는 나  
 이 물 저 물에 흠뻑 취한 체 빗방울들의 행진 소리에 빠져 달콤한  
 행복에 젖어 드네

입가에 한가득 미소 담고 둘러보는 고즈넉한 풍경소리 너머로 사랑이  
 퍼져나가네

나를 깊이 보듬어주는 따스한 차 한 잔보다도  
 찰나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차디찬 빗방울이 더 좋은 것은 무슨 이유일까  
 사랑이 다가오는 모습이 비가 내리는 모습으로 보여서일까  
 잠시 나 혼자만의 독백 속에 빠져드네

잿빛 단비에 물든 부스스한 무채색 도시를 바라보며  
 텅 빈 찻잔에 아름다운 평화를 담아 삼켜 보리  
 작별 인사도 없이 허둥지둥 떠나는 냉랭한 그 뒷모습  
 슬픔에 젖은 초라한 나를 위로하며 빗물 같은 눈물이 고이는 나

오늘도 갑작스레 말없이 내리던 꽃잎 비처럼 아름다웠던 잿빛 단비를  
 바라보며  
 식은 찻잔에 뜨거운 사랑을 담아 들이켜 보리  
 올 수 없는 먼 곳에서 돌아오는 사랑하는 입을 만나는 것처럼 마음이  
 애달 뿔던 시간  
 하늘을 향해서 솟아오르는 분수처럼 마음 가득 사랑이 피어나는 계절

이리저리 갈라진 내 마음도 뜨겁게 하나로 이어준 차가운 대지의 대부  
 그 잿빛 대부가 방문하는 행복한 날  
 사방에서 후드득거리는 그 발자국 소리에 경이로운 장엄함까지 느껴지네  
 지친 우리 세상을 위로해주는 잿빛 대부의 그 큰 사랑이 참 고마워라

## 피란 2012

신동규 (스웨덴)

아드리아해 물빛은 올리브나무를 닮았고  
 바다 건너 이탈리아 소나무 숲이  
 바람을 보내주는지  
 파도는 아쿠아블루로 물들었다

그 초록의 바람 속엔  
 로마인들의 함성과  
 콜로세움의 웅장함  
 그리고 검투사들의 절규(絶叫)

파도의 푸름은 변치 않고  
 바람은 이천 년 세월을 넘나드는데  
 물놀이하는 아이들의 재잘거림 너머  
 오렌지빛으로 물드는 피란(Piran)의 저녁

## 종착역

전엘레나 (카자흐스탄)

연해주  
 “엄마, 엄마” 어둠 속에 외친다.  
 돌아가고 싶다고, 우리 집 그 동네  
 “아빠, 아빠” 힘차게 부른다.  
 바람 속에 바다 건너 사라지네. 목소리  
 들리던 그 소리, 할머니 품에서 잠들어 들리던 그 소리.

강제 이주  
 기차 안, 어둠 속에 들리는 통곡의 눈물이  
 어머니, 영원히 사라져버린 어머니  
 눈물로 언제일지 모를 재회를 꿈꾼다.  
 종착역,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들리지 않는다.  
 이곳의 갈대밭. 그 추위. 기억한다! 나는 영원히

종착역  
전엘레나 (카자흐스탄)

겨울이 지나 봄이 오듯이  
아버지가 피눈물로 키운 씨앗이 새싹이 되어 자라나  
우리도 어느새 새싹처럼 어른이 되어 새로운 삶을 꿈꾸어 본다.

우리를 품어준 이곳이 새로운 엄마가 되고  
새로운 언어, 낯선 사람들이 이웃과 형제가 되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꿈속에 어머니의 아리랑과 기차 소리가 들린다.

그리움의 한이 서린 바다 건너 저 먼 곳,  
내 꿈속에 꽃이 피어나는 그곳  
저 멀리 할아버지가 손을 잡아주던 곳  
영혼이 그곳으로 돌아가리라.

## 단편 소설

대상	오해	이태경 (카자흐스탄)
우수상	좋은 날 하이웨이 씹스	김미영 (스웨덴) 정명숙 (캐나다)
가작	여름은 짧을수록 좋다 나는 이 땅의 식물이고 싶다 응급약	이미화 (미국) 류일복 (중국) 지병림 (카타르)

## 오해

이태경 (카자흐스탄)

## 남자의 이야기

내가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30대 초반이었다. 어린 나이도, 그렇다고 많은 나이도 아니었던 그녀는 마치 한 떨기 프리지어꽃 같았다. 그리고 남자인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녀에게서 나는 상큼하고 부드러운 꽃향기 때문이었다. 나중에 그 향기의 정체가 그녀가 제일 좋아하는 향수라는 것을 알고는 조금 실망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내가 단지, 향기만으로 그녀를 '프리지어꽃 같았다'라고 표현했다면 좀 과한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그날, 그녀가 우연히도 샷노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가 서 있던 뒤편으로 봄 햇살이 비추고 있었다면, 내 표현이 과장된 것은 아닐 것이다.

하얀 그녀의 얼굴을 화사하게 받쳐주고 있던 원피스는 과하리만큼 노랬고, 내 눈동자가 중심을 잃고 흔들릴 만큼 봄바람에 이리저리 하늘거렸다. 그녀는 눈이 부시도록 빛났다. 생각을 더듬어보면 그녀는 그저 나를 스쳐 갔던 여성 중 한 명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만이 내 곁에 남아

있는 유일한 여성이 되었다.

그녀와의 첫 나들이에서 먹었던 돈가스는 지금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다. 그녀는 돈가스를 먹을 때, 긴 머리를 고무줄로 질끈 묶고, 양 볼 가득 돈가스를 넣은 후 힘껏 씹었다. 그게 얼마나 복스럽게 보이던지. 나도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지만, 돈가스를 먹을 때는 그녀같이 양 볼 가득 돈가스를 넣고 씹어 먹는다.

우리의 데이트 장소는 정말 소박했다. 재래시장도 좋았고, 동네 작은 골목길을 걷는 것도 좋았다. 그녀는 나와 걸을 때면, 혹시나 나를 잃어버릴까, 따뜻하고 보드라운 손으로 내 손을 꼭 쥐었다.

그녀가 즐겨 입던 옷은 원피스였으며, 그녀가 즐겨 사던 것은 퍼즐이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나를 위한 그녀만의 사랑 표현이었다. 나와 함께 있을 때, 그녀의 얼굴은 늘 미소로 가득했고 아름다웠다.

나는 세상의 모든 여자가 나의 첫사랑, 그녀와 같은 줄 알았다.

나와 그녀의 첫 이별은 내가 군대에 갔을 때고, 두 번째 이별은 내게 그녀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여자가 생겨서였다. 그녀는 첫 번째 이별도 그리고 두 번째 이별도 나를 담담히 떠나보냈다. 하물며 따뜻하게 포옹까지 해줬다. 그녀에게서 슬픈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서 난, 이별이라는 게 다 그렇게 담담한 것인 줄 알았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나도 이별이란 것을 겪어 보니, 그것만큼 아프고 견디기 어려운 것이 없었다.

그렇다면 그녀의 그 반응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였을까? 우리의 인연이 여기까지인 것을 알아서였을까? 시간이 지난 후, 많은 생각을 해 봤다.

노트북 화면에 '배터리 충전'이라고 뜨자, 남자는 책상 위 어지러워져

있는 책들을 한쪽으로 치우며 충전기를 찾기 시작했다. 책상 밑에 떨어져 있는 충전기를 집어 노트북에 연결했다. 남자는 노트북에 써 놓은 글이 ‘혹시 날아가지나 않을까.’ 저장 버튼을 여러 번 눌러 저장했다.

손가락이 피곤했는지 열 손가락을 개구리가 헤엄칠 때 뒷다리를 펼치듯 ‘짜~악’ 폼 오므리기를 여러 번 하고는 머리 위로 팔을 올려 기지개를 폈다. ‘투두둑’ 관절들이 소리를 냈다.

그가 앉아 있는 회전의자는 가죽이지만, 이미 오래전 낡아 버린 의자였다. 멋진 가죽 빛깔은 찾아 볼 수 없었다. 회전을 담당하는 부품에서는 ‘키-끼익, 키-킉’ 회전할 때마다 괴이한 소리를 냈다. 오래되고 커다란 책상 위에는 어울리지 않는 신형 노트북이 충전되고 있었다.

목이 말랐던 남자는 회전의자에서 힘겹게 일어나 침대 옆 작은 테이블로 갔다. 물이 반쯤 남아 있는 종이컵에 생수를 가득 더 붓고서 한 번에 다 마셔버렸다.

목구멍으로는 물이 넘어가고, 시선은 침대 위에 누워 있는 여자에게로 내려쬐혔다. 종이컵을 소리 나지 않게 구겨 휴지통에 조용히 넣었다. 다시 돌아가 앉아야 할 회전의자에 그는 앉지 못했다.

‘앉을 때마다 나는 회전의자의 괴이한 소리, 잠들어 있는 여자를 깨워 지나 않을까?’ 남자는 의자에 앉기를 포기하고 몸을 벽에 기대고 살며시 앉았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작가인 남자는 소설을 쓰고 있었다. 소설의 주인공은 침대에 누워 있는 남자의 어머니였다. 소설을 쓸 때, 그는 코끝 어딘가에서 프리지어꽃 향기가 풍기는 상상을 했다. 상상은 길지 않았지만, 방안 가득 채워져 있는 오래된 어떤 냄새들로부터 남자를 어머니와 함께했던 어린 시절, 과거로 데려다줬다.

작가가 되겠다는 생각은 꿈에서도 한 적 없었던 남자가 작가가 된 것은 우연한 기회였다. 방송작가를 하고 있던 옛 여자친구는 마감 날짜로 허둥거렸고, 여자친구를 돕겠다며 몇 자 적은 글이 남자를 이 길로 접어들게 했다. 남자는 글을 써 보니 재미가 났고, 재미가 나니, 더 많은 글을 쓰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그리고 책을 냈고, 몇 권의 책을 쓰고 나니, 인기 작가가 되어있었다.

경제학과에 보내 남자를 CEO로 만들려 했던 어머니의 계획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이다. 물론, 남자는 경제학과를 졸업했지만, 작가가 되어있었다. 현명한 어머니는 뜬금없이 작가가 되어버린 아들을 말리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다. 남자가 웬만한 중소기업 사장보다 돈을 더 버는 유명 작가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남자의 어머니는 남자가 매달 건네는 많은 용돈을 꼬박꼬박 세워봤지만, 아들이 쓴 책은 한 번도 읽어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이 마치, 남자에게는 어머니의 작은 반항같이 보였다. 하물며 자신을 글 쓰는 작가가 아닌, 중소기업 사장이라며 지인들에게 말하는 것도 들은 적 있었다. 모두가 아는 거짓말이었다.

어머니의 행동을 보며 남자는 둘 중 하나려니 생각했다. CEO가 되기를 원했던 엄마의 꿈을 이루어주지 않은, 아들에 대한 소심한 복수이거나, 죽은 남편처럼 글 쓰는 재주가 있는 아들이 꼴 보기 싫어서였다.

남자의 아버지는 지금 남자의 나이보다 15년이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주름도 없고, 흰 머리도 없는 젊고 패기 가득한 청년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사라졌다. 남자는 나이 들어 우연히 어머니 서랍 안에 있는 젊고 잘생긴 흑백사진의 남자를 본 적이 있었다.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내 아빠구나! 참 치사한 일이다! 아들은 이렇게 희끗희끗 흰머리가 나

고 노인이 되어 가는데, 아빠라는 사람은 아직도 청년의 모습 그대로라니.’

남자는 아버지가 글쟁이었다는 이야기를 고모에게서 들었다. 유일하게 남자가 작가가 된 것이 아버지의 재주를 물려받은 까닭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었다. 남자를 5살 때까지 키워줬던 착한 고모였다.

남자의 어머니가 꽃 같다면 고모는 마치 소나무 같았다. 고모는 단단하고 큰 뼈 위에 건강하고 까무스름한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

남자가 간직하고 있는 고모에 대한 어릴 적 기억은 자신이 늘 고모의 뒤를 졸졸 따라다닌 것과 어머니를 다시 만나기 전까지 고모가 자신의 엄마인 줄 믿었다는 것이었다.

국숫집을 하는 할머니를 대신해 18살이었던 고모는 오라버니의 아들인 남자를 키웠다. 가족 중에서도 가장 많이 좋아했던 둘째 오라버니를 꼭 닮은 조카는 고모에게는 둘째 오라버니였다. 가난 때문에 밀려간 외국에서 돈도 벌고, 공부도 해낸 똑똑한 오라버니였다. 고모에게는 잡지에 실린 여느 영화배우보다 더 잘생긴 둘째 오라버니였다. 고모는 남자에게는 기억조차 없는 아버지를 느끼게 해 주는 존재였다.

남자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지금은 이혼한 아내를 데리고 고모에게 인사차 찾아왔을 때, 고모는 ‘자신에게까지 찾아와 인사할 필요는 없다.’ 하며 손사래를 쳤었다. 그리고는 조카와 조카며느리의 손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와 쓰다듬으며 ‘불쌍한 이 남자를 잘 부탁한다’하며 남자를 인계하는 비슷한 모양새를 했었다. 남자는 그 상황이 하도 민망해, 애꿎은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결혼반지만 만지작거렸었다.

남자는 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휴~휴’ 쉼 소리를 내며 자는 어머니의 흐트러진 이불을 매만졌다.

‘그 어려웠던 시절, 신여성이라 불리며 듣도 보도 못한 나라를 다니며

공부했던 여성이 맞는가? 지금은 어디에서도 그 패기와 영특함은 찾아볼 수 없다. 어머니를 위해 쓰는 내 소설의 마지막 장을 다 쓸 때까지, 어머니가 살아 있어 주기를 바라는 내 마음을 어머니는 알까?’

새로운 소설을 시작할 때마다 늘 첫 시작이 고민이었던 남자는 이번 소설의 첫 부분을 어머니를 다시 만났던 5살의 어느 봄날로 결정했다.

남자는 조용히 회전의자에 다시 앉았다. 그리고 노트북 자판기를 다시 치기 시작했다.

남자와 남자의 어머니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살기 시작한 지는 이제 한 달이 되어간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남자는 어이없는 어머니의 고집스러움을 수용해 드렸다. 50세의 아들은 그렇게 어머니를 저드렸다.

80세 노모를 모시고 이국땅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남자의 지인들은 모두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했다. 나이 든 부모를 대형병원과 가까운 곳에 모시려는 자식은 많아도 언어, 문화가 다른 곳으로 모시고 나가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그러다 외국에서 노인이 아프기라도 하면 어찌고, 혹여나 죽기라도 하면 그런 불효는 없다며 다들 말렸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이 불효자가 되는 것 따윈 상관조차 없는 사람이었다. 자신이 결정한 일을 꼭 하는 사람이었다.

80세 노인을 혼자 보낼 수 없어 남자는 어머니와 함께 집을 샀다. 그래서 자신이 출강하고 있는 강의를 그만둬야 했고, 출판사와의 계약도 바꿔야 했다. 살고 있던 집도 전세를 주었다. 남자는 어머니의 결정으로 자신의 삶에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정리해야 했다. 이혼해 지금은 혼자인 남자는 자신이 혼자라는 게 다행이라 여겼다.

남자의 어머니는 20대 초반 이곳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대학을 다녔

다. 그리고 여기서 남자의 아버지를 만났다. 대학교에서 청소부로 일하던 가난한 한국 남자와 가난한 나라에서 온 부잣집 신여성은 한국이었다면 서로 마주칠 일이 없었다. 그러나 이곳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달랐다. 러시아인들에 비해 작은 키,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은 그들 둘뿐이었다. 노란 머리, 갈색 머리에 섞여 있는 검정 머리는 당연히 눈에 띄었고, 그 두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석처럼 서로에게 끌렸다.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었다.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두 사람은 함께 살게 되었고 아이를 갖게 되었다. 남자의 어머니는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학교를 졸업했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리고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출산 후, 아이가 한 살이 되던 해, 남자의 어머니는 아이를 아이의 아버지 고향 집으로 보냈다. 만약, 남자의 아버지가 죽지 않았다면, 남자가 어머니를 다시 만날 일은 없었을 것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배려해 남자는 1층에 방 2개짜리 아파트를 빌렸다. 일단은 6개월을 계약했다. 이곳에서의 생활비는 남자의 어머니가 부담하기로 했다. 어차피 남자에게 남겨질 유산도 아니었다. 자신의 재산을 절반은 사회에 환원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다 쓰고 죽을 거라고 했었다. 남자의 어머니다운 결정이었다.

어머니의 젊음이 녹아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의 시간은 남자에게는 단조로움 그 자체였다. 그러나 이 단조로움이 가끔은 남자의 창작적 감성을 깨우기도 했다.

어제 늦게까지 글을 쓰고 잤던 남자는 다음날 어머니의 인기척에 눈을 떴다. 남자의 어머니는 매일 일어나자마자, 소금물로 입가심을 한 후 발성 연습을 하는 것으로 아침을 시작했다.

“일어나셨어요?”

“응”

“오늘은 날씨가 어때요? 어젯밤에 바람이 차가웠어요!”

“여기는 늘 그렇지. 지금은 날씨가 좋네. 오늘은 나랑 같이 음악회에 가자!”

“네”

특별히 할 일도 없는 남자는 음악회에 안 갈 이유가 없었다. 이곳에 머문 한 달 동안 남자와 남자의 어머니는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음악회에 갔었다. 예술의 도시답게 셀 수 없이 많은 공연과 연주회가 있었다.

오늘 공연은 작은 지하 소극장에서 하는 피아노와 비올라 연주였다. 아직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연주라 실력이 수준급은 아니었다.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남자는 어머니의 귀에 속삭였다.

“어때요? 너무 어린 학생들이예요!” 아마추어라는 말이었다.

“.....”

“안 피곤하세요? 일어날까요?” 어머니는 조용히 남자의 손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계속 연주를 감상했다.

한 시간 반의 연주가 끝나자, 힘들었는지 남자의 어머니는 남자에게 부축해 달려와 남자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이 소극장을 나왔을 때 거리는 한산했다. 50대의 아들과 80대의 노모는 서로를 의지해 익숙지 않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밤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남자는 뉘스킨의 밤거리를 좋아했다. 왜냐하면, 낮에 보였던 더러운 것들을 어둠이 가려주기 때문이었다.

어머니의 걸음에 맞춰 느리게 걷고 있던 남자는 배가 고팠다.

“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 어머니 식사하고 들어가죠!”

남자의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뱀스킨 거리 모퉁이에 있는 식당으로 들어갔다. 마치, 여러 번 와 봤던 식당인 듯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 두 사람은 창가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남자는 돈가스를 먹고 싶었지만, 있을 리가 없었다.

남자의 어머니는 예전 배웠던 러시아어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은 이곳 생활에서 꽤 도움이 되었다. 남자의 어머니는 음식을 주문했다.

남자는 어머니가 주문한 음식이 모두 마음에 들었다. 맛있는 음식들이었다. 따뜻한 수프와 무겁지 않은 샐러드 그리고 감자와 곁들여 나온 스테이크. 배가 고팠던 것도 있었지만, 어머니의 선택은 늘 실패가 없다고 남자는 생각했다. 단지, 샹트페테르부르크로 온 것만 빼고.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디저트를 사이에 두고 오랜만에 긴 시간을 마주 앉아 있었다.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다. 눈은 조용히 조용히 도시를 덮고 있었다. 그리고 남자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하고 있었다. 남자는 오랫동안 묻고 싶었던 질문을 어머니에게 했다.

“어머니! 왜 여기서 살고 싶었어요?”

‘프리지어꽃처럼 아름다웠던 어머니가 다 시들어가고 있다.’

“고맙다. 함께 와 줘서.”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말에 남자는 쑥스러워 홍차와 함께 나온 케이크만 바라봤다. 기대한 적도 없는 어머니의 말이 었다.

“살면서 이곳에 있던 2년의 세월이 엄마에게 가장 가치가 있었어. 미치도록 외로웠고, 죽도록 행복했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숙제를 마치고……. 그게 맞는 것 같아서.”

남자 어머니의 손은 쪼글쪼글했다. 남자의 어머니는 오랜 수전증 때문에 떨리는 손으로 케이크를 집어 입에 넣었다.

“여기 대학교에 제출하지 못한 숙제라도 있나 보죠?”

남자가 웃자고 한 이야기에 남자의 어머니는 웃지 않았다.

그리고 남자는 한 번쯤은 하고 싶었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말을 건넸다.

“어머니는 여기서 아버지를 떠났죠. 난 어머니가 이해가 가요.” 남자의 이해한다는 말은 진심이었다. 어머니에 대한 아무런 원망이나 힘든 마음은 없었다. 남자의 어머니는 늘 당당했고,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일은 해냈다. 음대 교수로 40년을 일했고, 남편 없이 아들을 키우면서도 한 번도 기죽지 않았었다. 남자는 자신에게 없는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동경했었다.

남자의 어머니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눈이 더 많이 내리기 시작했다. 남자는 집으로 돌아갈 길이 걱정됐다.

남자는 자신이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했었는지도 잊은 채, 눈이 쌓인 길을 헤치고 집으로 돌아갈 길이 까마득했다. 더 늦기 전에 집으로 나서야 했다.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는 눈 내리는 거리는 정말 고요했다. 300년이 넘은 고혹적인 건물들은 이 고요함과 잘 어울렸다. 눈은 내렸지만 바람은 차지 않았다. 남자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다. 두 사람이 하얀 눈 위를 걸을 때마다 ‘사~각 사~각’ 눈은 소리를 냈다. 쌓인 눈이 보석처럼 반짝였다.

크리스마스를 알리는 음악 소리가 들리고 대형 트리가 광장에 세워져 있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밤 11시가 훌쩍 넘긴 시간이었다. 오늘 오랜 시간 밖에 있었던 어머니가 남자는 걱정됐다. 지쳐 쓰러져 있는 어머니를 정성스

레 남자는 마사지했다. 굳어가는 어머니의 팔다리를 주무르는 것은 남자가 하는 매일의 일과였다. 남자도 나이 들어 성한 곳이 없었지만, 어머니 앞에서 남자는 젊은 청년이었다. 점점 더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가는 어머니의 몸을 만질 때면 남자는 소설 쓰기에 속도를 더 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남자는 어느새 잠들어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봤다. ‘어머니는 언제까지 이곳에 있을 작정일까? 아들놈을 기어코 불효자를 만들려는 걸까?’ 남자는 마음이 무거웠다.

### 여자의 이야기

오늘 여자는 아들의 메모를 봤다. 아들이 새로 소설을 시작했는지, 소설에 필요한 자료들이 여기저기 적혀있었다. 여자는 작가인 아들의 글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었다.

자신에게 용돈을 아끼지 않는 것을 보고, 배고픈 가난한 예술가는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다. 가끔 들렸던 서점에서 아들의 얼굴이 인쇄된 책을 봤을 때, 여자는 책 표지만 정성스레 쓰다듬었을 뿐이었다. 어떨 때는 아들의 책이 다른 작가들의 책을 제치고 가장 상단에 전시되어있기도 했다.

아들이 쓴 책을 왜 읽지 않았는지 묻는다면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구태여 찾자면, 아들의 글을 읽는 것이 쑥스러웠다. 아들의 속내를 다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 때문이었다. 내가 낳은 아들이고, 키운 아들이지만, 아들의 속내를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는가? 여자가 모르고 있는 아들의 속내를 구태여 알고 싶지 않았다. 그럴 권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아들에게 어미로서 반칙 행위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남들이 그게 무슨 반칙 행위냐고 해도, 여자는 그게 아니었다. 그냥 아들의 세계에 침범하고 싶지 않았다.

여자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간다고 했을 때, 아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따라와 주었다. 함께 가자고 한 적도 없었다. 그런데 함께 와주었다.

여자의 인생 중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의 시간은 가장 찬란했던 순간이었다. 뛰어나게 노래를 잘 부르는 것도 아닌데도 여자의 부모는 딸이 천재라고 믿었고, 부모를 실망케 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던 여자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나라로 유학이라는 것을 왔었다.

여자가 도착한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너무도 아름다웠고 그래서 여자의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미치듯이 외로웠다. 그래서 미친 듯이 공부를 했다. 그리고 이곳에서 글 잘 쓰는 가난한 한국 남자를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했고, 살림을 차렸다. 물론, 여자의 부모는 이 사실을 알리 없었다. 부모와는 3개월에 한두 번 주고받는 편지가 전부였다.

두 사람은 아무도 자신들을 모르는 아름답고 고혹적인 도시에서 낭만적인 사랑을 했다. 그리고 여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기가 되자, 미련 없이 남자는 여자를 놔주었고, 여자도 당연한 듯, 당당히 한국으로 돌아갔다. 그들의 헤어짐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여자의 시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 이미 배 속에 있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여자는 죽을힘을 다 했다. 그리고 여자는 아이를 지켜냈다. 조건은 아이가 한 살이 될 때까지만 함께 있는 것이었다. 여자는 그 약속을 지켰다.

다행 중 불행인지, 불행 중 다행인지 갑자기 아이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제야 5살이 된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아들을 다시 만나던 그날, 급하게 빌려 입은 노란 원피스가 여자는 마음에 들지 않아 신경에 거슬렸고, 평소엔 잘 하지 않던 화장을 한 탓에 얼굴은 하얗게 들떠 있었다. 그러나 아들을 보는 순간, 여자는 있는 힘을 다해 웃었다. 여자는 미친 듯이 행복했었다. 자신의 품으로 돌아온 아이

는 아버를 똑 닮아 있었다.

아들과 함께 처음 돈가스를 먹던 그 날, 아이들은 모두 돈가스를 좋아한다는 말에 여자는 아들의 손을 잡고 경양식집으로 갔었다. 돈가스를 좋아하는 아들을 위해 못 먹는 돼지고기를 꾸역꾸역 빨리 씹어 넘겼다.

여자는 아들이 자라는 동안 그 흔한 말썽 한번 부리지 않고 키 준 것이 고맙기보다는 안쓰러웠다. 어떻게 해야 아들이 행복할지 몰라, 여자는 계속 퍼즐만 사 줬었다. 가난 때문에 자신의 꿈도 펼치지 못한 아들의 아버지가 생각이 나, 여자는 아들은 무조건 돈 많이 버는 일을 하길 원했다. 똑똑했던 아들은 여자의 꿈을 이뤄주는 듯싶더니 글을 쓰기 시작했다. 시대가 변해 작가도 돈을 벌 수 있어 다행이란 생각을 했다.

어느 날은 결혼한 아들이 이혼했다는 말을 해 왔을 때, 여자는 마음이 어렵기보다는 잘한 일이라 생각했다. 왜냐하면, 며느리가 꼭 자신과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자는 오늘 아들과 함께 대학생들이 연주하는 졸업 연주회에 가려는 계획을 세웠다. 예전 이곳 대학 다니던 생각이 나서였다. 약간은 어설피도 푹푹하고 생기 있는 그들의 음악을 듣고 싶었다. 연주회가 끝나면 저녁 먹을 시간이 되고, 그럼, 아들과도 자연스럽게 외식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다. 이곳에 온 지 한 달이 되어 가지만, 아들과 단둘이 외식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연주는 아마추어였지만, 아들이 옆에 있어 여자는 좋았다. 공연이 끝나고 아들과 함께 식당을 찾아 들어갔다. 아주 오래된 식당이었다.

여자가 유학 시절 와 보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 들어 와 보지 못했던 곳이었다. 여자는 이 식당에 아들과 꼭 와 보고 싶었다. 그래서 미리 주문할 음식도 결정하고 러시아어로 주문 연습도 했다.

여자가 이 식당에 오고 싶었던 이유는 알렉산드르 푸시킨 (1799-1837/시인, 소설가) 이 자주 왔던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푸시킨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들러 차를 마신 곳이기도 했다. 아내의 불륜을 모욕한 군인과의 결투를 위해 결투장으로 출발하기 전이었다. 그는 몰랐을 것이다. 그 잔이 살아서 마시는 마지막 잔이 되리라고. 결국, 그는 결투에서 총상을 입었고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이카 강변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며 자신의 서재에 꽂혀 있던 책들을 향해 ‘나의 친구들 안녕’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세계적인 문학가는 한 발의 총성과 함께 사라졌다.

‘결투장으로 떠나기 전 그는 이 식당 창가에 앉아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 알렉산드르 푸시킨 (1799-1837) 시인, 소설가

결론을 본다면 그의 삶은 그를 속인 셈이 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쓴 시처럼 삶이 자신을 속였지만 슬퍼하거나 노하지 않은 것 같다.’

여자는 디저트를 먹으며 복잡한 생각이 들었다.

‘푸시킨은 자신에게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느꼈을까? 만약 나에게 죽음이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면 나도 것처럼 슬퍼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나 여자는 자신에게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여자는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지 못했다. 이제 80살이 된 여자는 숙제를 마무리할 때라는 것을 알았다. 자신에서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 남자의 이야기

남자는 오늘 몸이 더 좋지 않은 어머니를 혼자 집에 두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의 성화에 집 밖으로 쫓겨나갈 수밖에 없었다. 남자가 집에서 쫓겨난 이유는 단, 하나였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 오라는 것이었다.

거리에는 눈이 쌓여있었고 상당히 추웠다. 남자는 어머니께 드릴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기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가장 크다는 갈릴레이 백화점을 찾아갔다. 추운 날씨에도 백화점 안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선물을 고르는 일은 남자에게 글쓰기보다 몇 배는 더 어려운 일이었다. 백화점 2층에 도착하자, 매장 한가운데 전시되어있는 옷이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고민하지도 않고 남자는 노란색 스웨터를 샀다. 요란하지 않은 우아한 노란색이 남자의 마음에 딱 들었다.

선물을 사고 돌아오는 길에 남자는 도스토옙스키의 박물관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남자는 집에 혼자 있을 어머니가 마음에 걸렸지만, 백화점에서 10분도 채 안 걸리는 박물관을 지나치고 싶지 않았다. 도스토옙스키는 남자가 좋아하는 작가 중 한 사람이었다.

도착한 도스토옙스키의 박물관(1821-1881 소설가)은 작가가 생을 마감한 집이기도 했다. 아내와 아이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냈던 곳, 많은 문인과의 만남이 있던 곳이었다. 오랜 지병을 앓고 있던 도스토옙스키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감았다. 그는 자신에게 곧 죽음이 닥칠 것을 알았고, 미리 죽음을 준비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어린 자녀들은 아빠가 죽던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해 아빠가 사용하던 종이 담배 상자 위에 날짜를 적어두었고 그것이 전시되어있었다.

‘내게도 아이들이 있었다면, 또 다른 세상을 살았겠지?’

남자는 갑자기 자신에게 아내도, 자식도 없는 것이 외로웠다. 그리고 것처럼 자신도 죽음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다면 그것도 참 행복하리

라. 생각했다.

도스토옙스키의 마지막 작품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를 집필했던 책상 위 탁상시계도 그가 죽은 날짜와 시간에 멈춰 있었다.

그가 사용했던 의자, 책상, 그의 필체가 남아 있는 원고들, 그가 다니던 복도, 그가 바라봤을 창문, 이 모든 것이 남자의 마음에 파고들었다. 자신이 도스토옙스키처럼 세계적인 작가는 아니었지만, 박물관을 방문 후 소설가가 된 것이 잘한 결정이란 생각이 남자에게 들었다.

남자가 집에 돌아와 보니, 그새 남자의 어머니는 잠들어 있었다.

대부분 시간을 침대 위에서 보내는 어머니의 모습은 남자의 마음을 아리게 했다.

세월이 지나 내가 이별이란 것을 당하고 나니, 그녀가 생각났다.

나에게 이별을 당한 그녀는 참으로 담담했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원망하는 말 한마디도 없었고, 드라마 이별 장면에서 흔히 등장하는 눈물도 없었다.

떠나보내는 사람의 감정은 좀 다른 것일까?

남자는 글을 쓰다 말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 나도 도스토옙스키의 아이들처럼 어머니의 돌아가신 날과 시간을 적어 기념하리라. 내가 어머니를 위해 쓴 책 위에.’

## 그들의 이야기

오늘은 크리스마스이브이었다. 어머니에게 드릴 선물을 남자는 네바강이 보이는 창가에 올려두었다. 남자의 어머니도 언제 준비했는지, 아들에게 줄 선물을 창가에 놓았다.

크리스마스이브는 두 사람에게 너무 길었다. 선물을 교환하는 크리스마스이브 밤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겐 다 그럴 것이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한식을 만들어 먹었다. 이혼하고 혼자 지낸 시간이 길었던 남자에게 요리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단지, 이곳에서는 재료를 구하는 것이 어려울 뿐이었다. 남자는 시장을 다녀와 한국에서 가져온 양념으로 된장찌개와 불고기를 만들었다. 남자가 가장 자신 있는 음식들이었고, 남자의 어머니도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남자의 어머니는 맛있다며 좋아했다. 그건 남자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늦은 점심을 먹은 후, 어머니는 클래식을 듣고 아들은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음악은 흐르고 있었지만, 남자의 어머니가 음악을 듣고 있는지 잠들어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남자의 컴퓨터 자판기 소리가 어머니가 듣고 있는 클래식 음악 소리보다 크게 방안을 울리고 있었다.

어느새 늦은 밤이 되자, 어머니는 아들을 창가 곁으로 불러 선물을 건넸다. 그리고 남자도 준비한 선물을 어머니에게 건넸다. 둘만 하는 선물 교환식은 조금은 초라하고 허전했다. 다행히도 창밖 트리들에 매달려있는 전구들이 열심히 불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먼저 선물을 열어 본 사람은 남자의 어머니였다. 선물을 본 어머니의 얼굴은 마치 어린아이 같았다. 그리고 아주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수줍음이 묻어져 있었다. 남자의 어머니는 받은 노란 스웨터를 남자가 보는 앞에서 입어 보였다.

“어때? 나한테 잘 어울리지?”

스웨터는 남자의 어머니에게 컸다. 남자의 어머니는 그사이 더 말라 있었다.

“아주 잘 어울려요.” 남자는 어머니를 향해 어색하게 웃었다.

고급스럽고 화사한 노란 스웨터는 더는 어머니의 얼굴을 화사하게 만들어 주지 못했다. 나이 들어 처지고 주글주글한 어머니의 얼굴은 이제

더는 봄에 피는 꽃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초라해 보이지는 않았다. 그저 시들어갈 뿐이었다.

남자도 어머니가 준비한 선물을 열었다. 낡고 오래된 책이었다. 진한 남색의 형짚으로 싸여있는 나무표지였다. 겉표지엔 아버지의 이름이 황금색의 한자로 박혀있었다. 남자의 아버지가 쓴 책이었다.

“아버지 이름 맞아요? 이거 아버지 이름이죠?”

고향에서나 유명했던 아니, 고모가 유일한 애독자였던 아버지에게 책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조차 못 했다.

“아버지가 쓴 글을 모아서 내가 만들었어. 많이는 만들 필요가 없겠다 싶어 2권 인쇄했는데 지금은 이거 한 권 남았어. 너에게 주려고 남겨놨다.”

종이는 누렇게 변해 있었다.

“언제 인쇄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일찍 주시네요.”

남자는 어머니가 자신을 속인 것 같아 약간은 투명스레 한 마디 던졌다. 그냥 봐도 오래된 책이었다. 깨끗하게 보관된 것이 한눈에 보였지만, 세월의 흔적은 가리지 못했다.

진작에 자신에게 주지 않은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답을 듣는다 한들, 자신에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 입을 다물었다.

“지금이 너에게 줄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자는 어머니의 이 말에 대꾸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남자가 이리저리 책을 살펴보니 많은 분량의 책은 아니었다. 아버지라는 사람이 쓴 책을 손에 쥐었는데도 남자는 기쁨, 설렘, 애뜻함과 같은 느낌은 느껴지지 않았다. 자신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존재하고 있는 아버지는 단지,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사진 속 어떤 남자일 뿐이었다.

어쩌면 죽은 아버지보다 훌쩍 나이 들어 있는 자신이, 자신보다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사람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어색했는지도 몰랐다. 아버지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고모의 말처럼 자신이 글쟁이가 된 이유가 아버지 때문이라는 말도 남자는 믿지 않았었다. 헛소리로 밖에는 들리지 않았다.

남자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아버지란 존재 앞에 서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인지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아버지의 책도 실제 같지 않았다. 아버지를 외면하고 싶었다.

남자의 어머니는 자신이 건넨 선물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남자를 그저 바라만 봤다.

약간은 쓸쓸하고 미묘한 선물 교환식이 끝난 후, 남자의 어머니는 노란 스웨터를 입은 채, 남자는 아버지의 낡은 책을 외면한 채, 크리스마스이브의 밤은 잠들었다.

다음 날, 많은 사람의 걱정은 걱정으로만 끝나지 않았다. 아침이 되었지만, 어머니의 발성 소리는 남자에게 들리지 않았다. 남자는 자타공인 불효자가 되었다. 남자의 어머니는 그토록 오고 싶었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눈을 감았다.

어제 크리스마스이브 밤이 어머니에게 아들과의 마지막 밤이 된 것이다. 남자에게도 어머니와의 마지막 밤이 되어 버렸다.

어머니는 노란 스웨터를 입은 채로 작고 노란 새처럼 침대 위에 잠들어 있었다.

남자는 어머니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어머니와의 이별을 준비했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갑작스레 찾아올 줄은 몰랐다. 남자의 소설 속 주인공은 남자를 이곳에 혼자 남겨 둔 채 떠났다.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훌훌 새처럼 떠난 것이다.

남자는 사랑했던 어머니의 죽음 앞에 울지 못했다. 아니, 울지 않았다. '영원한 이별이라는 게 있을까?' 남자는 영원한 이별은 없다고 믿고 싶어졌기 때문이었다. 어머니가 예전 자신과의 이별에서 보였던, 담담하고 따뜻한 이별로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싶었다. 남자는 늘 어머니에게서 떠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남자가 떠나보내는 사람이 되어있었다.

어머니의 시신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며칠을 기다려야 했다. 남자는 어머니가 떠난 빈방에 홀로 앉아 아버지의 책을 읽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지금이 아버지의 책을 읽어야 할 때라는 생각에서였다. 인쇄 날짜는 1974년이었다. 몇 편의 단편 소설과 시로 엮어진 책이었다.

읽기 시작한 부분은 소설이었다. 아버지의 문체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한 여인을 그리워하며 자신과 다른 운명에 대한 초연함이 소설 곳곳에 표현되어 있었다. 남자는 소설 속 주인공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아버지에게 어머니는 붙잡을 수 없는 영원한 여인이었다. 누가 누군가를 버린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내주는 사람이었다.'

아버지가 만약 더 긴 삶을 사셨다면 더 많고 훌륭한 글을 썼을 것이 분명했다. 아버지는 훌륭한 글쟁이였다. 아버지를 닮아 글을 잘 쓴다는 고모의 말은 남자에게 과분한 칭찬이었음을 남자는 깨달았다.

아버지의 책을 다 읽은 남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책 겉표지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짜와 시간,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을 적었다. 단지, 어머니의 죽음을 기념하고자 함이 아니었다. 50년 세월을 뛰어 넘어 두 사람이 다시 만났음을 기념하고 싶었다.

## 좋은 날

김미영 (스웨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완성하려 했던 남자의 소설은 끝마치지 못했다. 그러나 남자는 그 소설을 영원한 미완성으로 남기로 했다.

어머니가 아들이 쓴 소설 속 주인공으로 남기보다는, 함께 하지 못했지만, 영원히 사랑했던, 아버지의 소설 속 주인공으로 남아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네바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살짝 열린 창문 틈으로 들어왔다. 한참, 추운 겨울의 바람인데도 남자에게는 참으로 따뜻하게 느껴졌다. 마치, 봄이라도 온 것처럼. 그리고 그 바람을 타고 프리지어꽃 향기가 방 가득히 퍼졌다. 남자는 5살이던 그때처럼 미소 짓고 있었다.

노랗게 물든 자작나무 잎들이 도로 위에서 나풀거렸다. 순영이 차창 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다.

“오늘 같은 날은 무슨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집에서 출발하면서부터 굳어 있던 경수의 표정은 운전을 하는 삼십여 분 동안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었다. 순영이 몇 번이고 혼잣말을 하는 동안 아무 대꾸가 없던 경수가 쇼핑몰 주차장으로 들어설 때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이렇게 멀리까지 물건을 사러 오는 것이 과연 경제적인가 생각해 봐야 해.”

순영은 경수의 다음 말이 어떻게 이어질지 듣지 않아도 알 것 같았다. 순영이 좀처럼 움직이려 하지 않던 경수를 몇 번이고 졸라 이곳으로 오자고 했을 때 순영도 경수와 마찬가지로 이런 외출이 낭비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경수의 아파트에는 비록 낡은 것들이기는 했지만 세 식구가 살았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순영이 그곳에 짐을 풀었을 때부터 무게나 값이 나가는 물건으로는 딱히 더 필요한 것도 없었다. 오

늘 설사 무엇을 산다고 해도 식료품이거나 작은 생활용품들이 텐데 동네 슈퍼마켓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산다면 어느 정도 할인을 받는다 해도 그건 낭비임이 틀림없었다.

순영이 알고 지내는 사람들 중에는 더러 순영에게 이왕 나이 든 사람과 재혼할 것이면 좀 더 부유한 사람과 했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린 시절부터 익숙했던 가난이 스웨덴에 왔다고 해서 갑자기 못 견딜 일이 돼 버리는 것은 아니라 순영에게 이곳에서의 생활이 크게 불편할 것은 없었다. 그러나 가끔 순영은 경수가 경제적인 문제를 염두에 두는 것에서 어쩌다 한 번쯤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불필요할 정도로 내내 굳히고 있는 경수의 표정으로 봐서는 쇼핑물 안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았다.

순영이 오늘 남편 경수와 아들 상현과 함께 집을 나서고 싶었던 것은 며칠 동안 이어진 너무 좋은 날씨가 순영에게 공연히 평소와 다른 것을 기대하게 하고 마음을 들뜨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스웨덴에서 가을을 처음 맞이하는 순영으로서는 이토록 청량한 날씨라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다. 티끌 하나 없이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단풍에 물든 나뭇잎이 투명하게 일렁이고 나무와 잔디와 꽃은 물론이고 건물과 사람들까지 햇빛을 반사하며 빛나 보이는 때 순영은 이런 날을 어떻게 보내야 좋을지 몰라 오히려 안전부절못하는 심정이 되고 말았다. 며칠 내리 빨라져 해서 말리고 이불을 내다 널어도 좋은 날이 계속되자 어디로든 집 밖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그렇다고 갈 만한 곳을 딱히 아는 것도 아니라서 어제부터 거실 소파 위에 놓여 있던 전단지 광고에 보이는 새로 생긴

쇼핑몰로나 가보자고 했던 것이다.

‘은숙 씨와 이전 같았더라면...’

은숙이라면 이렇게 좋은 날에 순영이 의욕 없는 남편의 눈치를 살피면서 고작 쇼핑몰로나 향하기 전에 이미 뒷자리와 보온병 그리고 도시락 등을 차에 싣고 순영의 집을 향해 출발했을 것이고 차 안에서 순영에게 전화를 걸어 서둘러 외출 준비하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면 순영은 서둘러 상현이를 준비 시켜 아파트 앞에서 기다다가 매끈한 은숙의 차에 재빠르게 올랐을 것이다. 그래서 상현과 지섭이 자동차 뒷자리에서 재잘거리고 은숙과 순영은 앞자리에서 한국의 최신 유행 가요를 들으며 함께 흥얼 흥얼거리며 가을 풍경 속을 달렸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바다나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곳에 자리를 깔고 앉아 한가로이 가을 햇살을 쬐며, 아이들 노는 모습을 바라보았을 것이다. 아마도,라고 순영은 생각했다.

은숙은 개학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고 순영은 은숙이 순영 자신 때문에 학교에 오지 않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면서도 은숙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순영이 앉아 있는 자리 아래쪽에서 들리던 툼툼 거리는 소리는 쇼핑몰의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동안 더욱 크게 들렸다. 경수가 차를 주차하는 순간 맞은편 주차 자리에 눈에 익은 날렵한 은색 BMW가 미끄러지듯 멈추어 섰다. 경수가 쫓 하고 혀를 찼다.

“하필이면!”

맞은편 은색 BMW에서 은숙이 내렸다. 은숙은 웨이브 진 긴 머리를 뒤로 쓸어 넘기며 순영이 타고 있는 차 안을 뚫히 들여다보았다.

“그러게 오지 말자고 했잖아.”

경수가 미간에 주름을 잡으며 주차 시간표를 꺼내 시간을 맞춘 다음

계기반에 던지듯 올려놓고 차에서 내렸다. 은숙이 경수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웃어 보였고 경수는 인사를 받는 등 마는 등 하고는 은숙의 앞을 뺏하니 지나가 버렸다.

상현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모”하며 은숙을 향해 폴짝폴짝 뛰어갔다. 은숙이 크게 웃어 보이며 두 팔을 벌려 상현을 꼭 안았다. 상현이가 은숙에게 지겹이는 어디 있는지 물었고 은숙이 지겹이는 피아노 선생님과 함께 있다고 대답했다. 은숙과 상현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순영이 상현의 곁으로 다가가 상현의 손을 잡았다. 상현이 다른 쪽 손을 은숙에게 내밀었고 은숙이 상현의 손을 잡고 걸음을 맞추며 순영에게 말했다.

“너무 오랜만이네요. 전에 한 번 연락했었는데 답이 없었지요?”

순영은 은숙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대신 은숙이 무슨 이유로 그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았는지 묻고 싶었다. 그러나 은숙의 질문에 대답을 하거나 은숙에게 질문을 하는 대신 은숙을 슬쩍 보며 어색하게 웃기만 했다.

“요 며칠 동안 순영 씨에게 연락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 바람이 컸나 이렇게 딱 마주쳐 버렸네요.”

여느 때처럼 은숙은 말끝에 잔잔하게 웃었다.

저만큼 앞서가던 경수가 뒤돌아보며 소리쳤다.

“빨리 안 오고 뭐 하고 있어?”

얼떨결에 순영이 걸음을 빨리하려 하자 상현의 다른 쪽 손을 잡고 있던 은숙의 걸음도 빨라졌다.

“오늘 이렇게 만난 김에 우리 얘기 좀 해요. 솔직히 순영 씨 나한테 불편한 것이 있지요? 만약 그렇다면 풀어 주기 바라요. 내가 그날 문자를 보냈는데 읽지 않은 것 같아서… 그날은 내가 너무 미안했고…”

문자를 보냈었다고 하는 은숙의 말이 순영의 마음에 걸렸다. 쇼핑몰의 회전문 입구로 들어설 때도 은숙이 상현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해서 회

전문 한 칸 안에 셋이 끼듯이 비좁게 서서 가까스로 빠져나오게 되었는데 건물 안으로 먼저 들어가 있던 경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미간을 찌푸렸다.

“쫓쫓 당신이 그렇게 물렁해 보이니까 개나 소나 당신을 우습게 보는 거야.”

은숙이 어색한 웃음을 지어 보이며 경수를 바라보았다.

“혹시 그 개나 소가 저는 아니겠지요? 아닐 거예요. 그리고 순영 씨는 누가 그렇게 우습게 볼 사람이 아니잖아요?”

순영은 짧은 순간 불만이 담긴 눈빛으로 경수를 바라보았다. 가끔 순영은 경수의 무례한 말투를 견디기 어려웠다. 그러나 그 순간 순영에게 은숙도 못마땅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은숙은 이전에도 경수와 더러 부딪힐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경수 앞에서 굽히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또박또박 잘 꺼내 놓았다. 그런데 왜…

순영의 눈총 세례를 받고 나서도 경수는 은숙을 향한 불평을 멈추지 않았다.

“은숙 씨와 은숙 씨 남편이 우리에게 얼마나 함부로 했는지 그걸 잊어버려서 지금 그렇게 웃고 있는 겁니까?”

은숙이 무안한 표정으로 경수와 순영을 번갈아 보았고 순영이 상현을 잡고 있던 손을 놓고는 경수 쪽으로 상현의 등을 살짝 떠밀었다.

“나 잠깐만 얘기하고 갈게요. 당신은 상현이 데리고 먼저 들어가 주세요. 아주 잠깐이면 돼요.”

상현이 경수의 곁으로 가서 쭈뼛거리며 손을 내밀었다. 은숙이 살짝 붉어진 얼굴에 여전히 미소를 띠며 상현에게 말했다.

“그래 상현아, 엄마는 이모랑 잠깐 커피 마시고 들어가실 거야. 상현이 먼저 들어가서 재미있는 거 구경하고 있어. 나중에 이모가 피자 사 줄게.”

경수가 상현의 손을 잡고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가게들을 향해 돌아서  
는 것을 보고 나서 은숙이 카페를 찾아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순영이 빠  
른 투로 말했다.

“아니, 카페에 앉아 있을 시간이 없을 거예요. 나 빨리 상현이한테 가  
 봐야 하고요.”

은숙은 항상 그렇듯 여유 있는 표정으로 순영을 보았다.

“상현이가 새아빠랑 친해질 수 있도록 둘이서 시간을 좀 보내게 되도  
 좋지 않을까요?”

은숙이 순영의 처지를 드러내 놓고 말하는 것이 순영에게 새삼 불편하  
 게 느껴졌다.

“벌써 팔 개월이나 됐는데요 뭐. 지금은 많이 친해졌어요. 은숙 씨 굳  
 이 그런 것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은숙이 금세 풀이 죽은 표정을 지어 보이며 순영을 바라보았다.

“순영 씨는 정말 나하고 말하고 싶지 않은가 보네요. 우리 집에서 저녁  
 식사했던 날 이후로 내가 보낸 문자도 안 읽고…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풀리겠지 했는데… 벌써 두 달이나 지났잖아요. 순영 씨와 경수 씨 모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화가 나 있는 거였네요.”

순영은 지난 두 달 동안 대체 은숙의 잘못이 무엇이길래 자신이 은숙  
에 대하여 마음이 맺혀 있는지 몇 번이고 생각해 보았었다. 은숙의 잘못  
이라는 것은 사실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순영은  
어쩌면 그동안 자신이 울고 싶은 대신 화를 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다. 조금 전 주차장에서 은숙이 차에서 내리는 것  
을 보았을 때 순영은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로 반가웠다. 그런  
데 그 반가움을 감추고 굳이 상대에게 불편한 내색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날 저녁 무참히 내려앉았던 자존심을 그렇게라도 지탱해 보려고 하는 것

인지 아니면 앞으로 다시 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처로부터 미리 도망치려  
는 것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은숙 씨, 나로서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지금 대화를 나눈다  
 한들… 저나 남편이나 기분이 많이 상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경수 씨도  
만만치 않았으니 기분이 상했던 것은 은숙 씨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  
데 그 상한 기분이 풀어진다고 한들 우리 사이에 달라질 것이 뭐 있겠어  
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순영은 자신의 목 안으로 뭔가 묵직한 것이 밀고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은숙은 말하자면 순영에게 스웨덴에서 만난 최초의 지인이자 친구였  
다. 순영은 은숙을 처음 보는 순간부터 은숙이 자신과 생활 수준에서 차  
이가 많이 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은숙이 자신과 순  
영의 경제적인 차이를 염두에 두지 않았으므로 순영도 그런 것들을 마음  
에 두지 않으려고 했다. 가끔 은숙이 너무 세상 물정 모르는 것 같은 소  
리를 해서 순영의 속을 헤집어 놓을 때도 있었지만 순영은 그런 것들을  
그저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살아온 은숙의 천진함에서 비롯된 것들이라  
고 가볍게 여기곤 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난 순간부터 가까워졌다. 학생  
들의 수준에 따라 몇 학급으로 나누어져 있는 스웨덴어 학교를 통틀어  
한국인이라고는 순영과 은숙 두 사람뿐이었으므로 두 사람이 가까워졌  
던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했다. 순영은 스웨덴에 도착하자마자 스웨  
덴어를 무조건 배워야 한다는 경수의 주장대로 집에서 슈퍼마켓까지 가  
는 길조차 제대로 익히지 못한 때부터 스웨덴어 학교로 향해야 했다. 반  
면에 은숙은 스웨덴에 온 지 십 년이나 되었지만 이제 처음으로 스웨덴  
어 기초 과정을 배우기 시작했다. 순영의 스웨덴어를 배우는 목적이 빠

른 취업이었다면 은숙은 아이를 어느 정도 키우고 난 후 슬슬 무료해지기 시작한 시간을 나름대로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대학원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로써의 언어를 공부하는 것이었다. 은숙에게서는 삼십 대 후반에 이미 순영의 얼굴에 새겨진 수많은 고민과 생활고의 흔적 같은 것들 아예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어려움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음직한 여유와 배려가 있었다. 서로 간의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순영에게 은숙은 좋은 친구였다.

순영이 스웨덴에 오고 나서 만났던 몇 안 되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은숙의 남편을 비난했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은숙의 남편이 무척 거만하고 뻔뻔해서 다른 사람들을 자주 불쾌하게 만든다고 했다. 말 많은 사람들이 말끝에 꼭 덧붙였던 것은 정말 미스테리한 존재는 바로 은숙이라는 것이었다. 그렇게 거만하고 탐욕스러운 사람 옆에서 세상 순수하고 천진난만해 보이는 은숙도 알고 보면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언젠가는 오만한 본색을 드러낼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경수도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경수는 다른 이유로 은숙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은숙 남편의 잦은 출장 때문에 은숙은 아들 지섭을 데리고 순영의 집에 놀러 올 때가 많았다. 경수는 은숙이 눈치 없는 사람이라고 자주 말했다. 경수가 아무 때나 자신의 집으로 불쑥 찾아오는 은숙 모자를 달갑지 않아 하며 꼬부장한 눈으로 볼 때도 있었지만 은숙은 크게 개의치 않았다. 은숙은 순영이 차려 주는 밥상을 좋아했다. 경수는 몇 번 은숙이 그렇게 자주 아들을 데리고 와서 좁은 식탁에 끼어 앉아 식사를 했으면 자신의 집으로도 한 번쯤은 초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했다. 경수의 바람대로 은숙은 스웨덴어 학교가 여름 방학을 하고도 한참 지난 팔월에 순영 가족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은숙의 집은 멜라렌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다. 그것은 집이라기보다는 작은 성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았다. 순영은 은숙의 현관문 앞에서 자신이 마치 비현실적인 세계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이런 집에 살고 있는 은숙이 스톡홀름 변두리 자신의 아파트로 드나들며 무슨 생각을 했던 걸까 잠깐 생각해 보았다. 은숙의 남편 기철은 듣던 것과 다를 바가 없이 처음 마주치는 순간부터 거들먹거리는 태도를 보였다. 그냥 보아도 경수가 기철에 비해 열 살은 족히 많아 보이는데도 기철은 한쪽 손을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경수에게 건성으로 악수를 건넸다. 기철은 은숙이 주방에서 상을 차리는 동안 몇 번이고, 나 같은 사람에게 안내를 받다니, 라고 말하며 순영과 경수에게 집을 구경시켜 주었다. 은숙의 집은 대체로 박물관과 성을 절반씩 섞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기철은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이 그렇지만 특히 벽에 걸려 있는 그림 몇 점은 각각이 시내 아파트 한 채 값은 족히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로처럼 방과 복도가 이어져 있는 지하에서 삼 층까지 둘러보는 동안 순영은 기철의 설명에 진지하게 귀 기울였고 심지어 어떤 부분들은 기억하려고 애쓰기까지 했다. 사람이 생활하고 있는 곳으로써 그런 수준의 집을 처음 보기는 경수도 마찬가지라 가끔 경수의 입에서 절로 감탄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순영은 사람을 대하는 기철의 태도에 대한 말을 심심찮게 들어 왔기 때문에 그가 시종일관 순영 부부를 알잡아 보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크게 개의치 않았다.

문제가 터졌던 것은 식탁에서였다. 식사를 하던 중에 기철이 갑자기 순영이 사는 동네를 거론했다.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집을 사고파는 사람이라는 건 들어서 알고 있었죠? 다른 나라를 다니다 보면 스웨덴만큼 지역 간 격차가 적은 나라

가 정말 드물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스웨덴 안에서도 확실히 차이가 있기는 있죠. 지금 사시는 동네 말이예요.”

조심스럽게 식사를 하던 순영이 잠깐 젓가락질을 멈추고 기철을 바라보았다.

“아, 상현이네 그 동네 산다는 얘기 집사람 통해서 들었어요. 상현 엄마,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 동네에서 빨리 벗어나야 할 거예요. 지금 사시는 곳이 스웨덴에서 가장 학군이 안 좋은 지역이라는 거 알고는 있지요?”

순영은 스웨덴에서 생활한 지난 몇 달 동안 학군이라는 단어 자체를 잊고 있었다는 걸 그 순간 깨달았다. 한국에 살 때조차도 감히 학군 같은 것을 염두에 둘 여유는 없었다. 순영으로서는 그저 상현을 대학까지 무사히 공부시키고 싶다는 마음뿐이었고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 눈에도 알아보겠는 경수를 소개받았을 때 이제 앞으로 상현이 공부시키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만 했었다. 순영에게 나머지는 중요할 것이 없었다.

모욕감 때문이었는지 경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려 나왔다.

“스웨덴에 학군이 좋고 나쁘고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둘 다 지금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녔지만 좋은 대학에서 좋은 성적으로 아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기철의 입가에 묘한 웃음이 번졌다.

“여기는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과가 중요한 거고요. 내 직원들은 그 동네를 게토라고 불러요. 우리는 거기는 건드리지도 않거든요. 아무리 번드르르하게 수리해 놓으면 뭐해. 투자 가치가 아예 없는걸. 상현 엄마, 얼른 그 게토에서 스톡홀름 좋은 구역으로 이사하세요.”

경수는 아예 젓가락을 상 위에 내려놓았다.

“제 아이들 학과 좋고요 우리 동네 사는 데 아무 문제 없을 뿐만 아니라 이사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지요.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스톡홀름 집값을 무슨 수로 따라잡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점점 인구가 몰리는 데다… 집으로 장난질 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마당에.”

경수는 이미 벌게진 얼굴에 숨소리도 거칠게 나올 지경이었지만 기철은 오히려 재미있는 듯 빙글거렸다.

“그게 부자와 가난뱅이의 차이거든요. 부자들은 그런 걸 기회로 이용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앉아서 불평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순영은 좋은 집의 훌륭한 식탁에 모여 앉아 서로에게 이토록 공격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두 사람을 이해할 수 없었다. 순영이 도움을 구하는 눈빛으로 은숙을 보았을 때 은숙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인 것처럼 예의 우아하고 평온한 자태로 식사를 계속하고 있었다. 경수와 기철은 그러고도 몇 마디 말을 더 주고받았다. 경수는 불필요할 정도로 자신이 이사회에서 공짜나 불로 소득 바라는 법 없고 타인에게 손해 끼치는 일 없이 얼마나 착실하게 일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강조했다. 경수가 사회 구조에 대한 자신의 이상에 대해 말했을 때 기철은 그렇게 공평 공평하다가 다 함께 망하는 수가 있다고 했고 경수는 기철에게 이기적인 자본가들 때문에 서민들 등골이 더 빠진다는 말을 했다. 순영이 일상적인 화제로 대화를 돌려 보려고 몇 번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다. 경수는 화가 단단히 나 있었고 기철은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악취미가 있는 사람처럼 계속해서 경수를 자극했다.

은숙이 다과를 준비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기철이 말했다.

“뭐 더 나눌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 별 재미도 없고.”

쫓겨나는 것 같은 기분으로 은숙의 집에서 나와 기철이 게토라고 부르는 순영의 동네로 돌아오는 길에 경수는 쉬지 않고 기철을 욕했고 순영

은 내내 고개를 돌리고 앉아 밤 아홉 시에 겨우 어두워지기 시작한 창밖을 내다보았다.

은숙이 순영에게 팔짱을 끼듯이 하며 순영을 살짝 끌었다.

“그래도 우리 여기 서서 이럴 게 아니라 어디 잠깐 들어가요.”

순영이 손을 내밀어 자신의 팔에서 은숙의 손을 떼어 내었다.

“나 정말 가 봐야 해요. 우리가 얘기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좀 전에 말했잖아요.”

“그럼 차라리 우리 밖으로 나가요.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지금은 그냥 뭔가 가슴을 탁 트이게 하는 곳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뇨. 고집부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시간이 나면 좀 더 여유 있게 얘기해요.”

순영이 잠깐 생각하는 듯하다가 다시 말했다.

“그런데 나중에라도 정말로 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그만 가 볼게요.”

순영은 은숙을 뒤로하고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경수에게 전화를 걸며 걸음을 옮겼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상현이 몇 번이나 은숙 이모가 피자 사 주기로 했는데 왜 그냥 가는 거냐고 물었다. 운전을 하던 경수가 시무룩해져 있는 순영을 곁눈으로 보면서 말했다.

“그냥 집에 있었으면 그 사람들 때문에 다시 기분 상할 일 없었잖아.”

순영의 목소리가 느닷없이 높아졌다.

“집에 있었으면 집에 있었으면! 아 그래요. 앞으로는 꿈쩍도 하지 말고 날이 좋은 말든 집에만 콕 처박혀 있자고요! 누구 만나지도 말고 절대 어

디 가지도 말고! 그놈의 기름값도 너무 아까운데.”

울컥한 심정에 급하게 화를 내고 나서 순영은 뒷자리에 앉아 있는 상현을 재빨리 돌아보았다. 경수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표정으로 잠깐잠깐 고개를 돌려 순영을 보았다. 순영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경수를 주방으로 불렀다. 경수에게 할 말이 있을 때면 언제나 그렇듯이 순영은 냉장고에서 채소를 꺼내 수도물을 틀어 놓고 씻기 시작했다. 그러고도 순영은 거실에서 놓고 있는 상현이에게 말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최대한 목소리를 낮췄다.

“두 달 전에 말이에요. 우리가 은숙 씨 집에서 돌아왔던 날, 당신이 내 핸드폰 가져가서 은숙 씨를 내 카톡에서 차단해 버렸었죠. 당신 마음대로 전화 주소록에서 이름도 삭제하고.”

“그 얘기를 새삼스럽게 왜 해?”

“당신은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당신의 행동에 대해서?”

“아 글썸 그 얘기를 지금 왜 하냐고? 차단한 거야 나중에라도 풀면 되는 거지.”

“차단 풀어도 지나간 메시지는 다시 읽을 수 없다는 거 몰라요? 앞으로는 제 것 마음대로 가져가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사람 차단하는 게 뭐 어때서 그래? 알고 지내봐야 골치만 아프지.”

“그런 결정은 제가 해야 하잖아요.”

경수의 언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그게 당신만의 문제가 됐어? 나한테까지 영향을 줬던 거 아니냐고?”

순영도 물러나지 않았다.

“목소리 높이지 마시고요. 그때는 나도 정황이 없어서 당신 행동을 보

면서도 그냥 넘어갔지만 다시 한번 내 영역을 침범해서 함부로 하면 그때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어야 해요.”

“부부 사이에 니 영역 내 영역이라는 게 어딴거? 그러게 나가지 말자니까 괜히 졸라서 나가 가지고는 공연히 나한테 화풀이야 화풀이가.”

경수가 주방을 나가려던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경수가 순영을 돌아보며 말했다.

“혹시 그 눈치 없는 여자가 쳐들어온 거 아니야? 그 여자라면 당장 쫓아버릴 거야.”

순영이 주방을 나서려는 경수의 팔을 잡고 빠른 속도로 말했다.

“당신, 그 눈치 없는 여자는 내가 이 낯선 곳에서 힘들어하는 동안 나에게 위로가 돼 줬던 유일한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이 보자 보자 하니까 오늘 왜 이래 정말?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럼 나는 당신한테 뭐였단 말이야? 그리고 그 여자가 정말 당신이란 잘 지낼 생각이었으면 문자 몇 번 하고 말았겠어? 전화라도 했겠지. 안 그래?”

순영이 한숨을 크게 한 번 내쉬고 나서 말했다.

“어쨌든... 만약 정말로 은숙 씨가 온 거라면 오늘은 제발 좀 가만히 계셔 주세요. 제가 부탁할게요.”

순영이 빠른 걸음으로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다. 은숙이 현관문 앞에서 있었다. 은숙이 답다고 순영은 생각했다. 은숙은 세 개의 피자 박스를 들고 있었고 지섭이 은숙의 곁에서 방실방실 웃고 있었다. 순영이 지섭에게 다가가 지섭을 안았다.

“아유 우리 지섭이 못 보는 새 많이 컸네. 어디 한번 보자. 아이구...”

순영이 지섭의 등을 토탕토탕 두드리는 동안 상현이 달려 나왔다. 상현과 지섭은 공연히 깔깔 웃으며 마주 보고 소리를 질렀고 지섭이 순식간에

에 신발을 벗어 던지고 상현을 따라 거실로 뛰어 들어갔다. 은숙이 피자 박스를 그대로 들고 서서 말했다.

“불쑥 찾아와서 미안해요. 아까 상현이한테 피자 사 주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하겠어서... 아이들이 만나니 저렇게나 좋아하네요.”

순영이 현관을 향해 나오는 경수를 돌아보았다. 은숙이 미안한 표정을 과장되게 짓고 경수를 보며 말했다.

“저... 죄송한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제가 순영 씨랑 잠깐 나갔다 들어오려고 하는데요 아이들 좀 봐줄 수 있으세요?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경수가 엉거주춤한 자세로 은숙이 들고 있던 피자 세 판을 받아 들고는 마지못한 듯 말했다.

“그러지요, 뭐.”

경수가 피자를 들고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거실로 갔고 순영이 주방으로 들어가 주방 의자 위에 걸쳐두었던 스웨터를 재빨리 들고나와 현관문을 나섰다.

두 사람은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아파트 밖으로 나오자 은숙이 자동차 리모컨을 눌러 트렁크를 열었다. 은숙이 자동차로 다가가더니 트렁크 안에서 바구니 하나를 꺼내 순영에게 내밀었다.

“여기에서 도보로 오 분도 안 걸리는 곳에 숲이 있거든요.”

순영이 엉겁결에 받아 든 바구니를 다시 은숙 쪽으로 밀었다.

“이걸 들고 뭘 하라고요?”

“날이 너무 좋아서요. 이런 날을 그냥 보내기는 아깝잖아요.”

은숙이 아파트를 올려다보며 웃는 얼굴로 손을 흔들어 보였다. 순영이 돌아보자 순영의 주방 유리창 앞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웃는 상현과 지

섭의 모습이 보였다. 경수의 얼굴마저 나타난 후에는 세 얼굴이 모두 창가에서 사라졌다. 순영이 은숙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은숙이 바구니 하나를 더 꺼내고 나서 자동차 트렁크를 내린 다음 한 손으로 해를 가리고 서서 웃었다.

“그냥 숲에 들어가서 잠깐 걸어요. 걷다가 버섯을 보게 되면 따는 거고요.”

순영이 바구니 속을 들여다보았다. 한쪽 끝에 솔이 달린 작은 칼이 바구니 안에 놓여 있었다.

“순영 씨는 아직 버섯 따기 안 해봤지요? 그게 생각보다 아주 재미있어요. 뭐 꼭 버섯 때문이 아니더라도 바구니 하나 들고 숲에 가서 걷다 보면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질 테니 그냥 절 따라와 보세요.”

순영은 아파트 도로 건너 띄엄띄엄 놓여 있는 건물들 뒤쪽으로 보이는 숲으로 들어서는 것이 썩 내키지 않았다. 제멋대로 자란 나무들 사이로 나 있는 좁은 입구 앞에 섰을 때는 은숙에게 그냥 돌아가자고 말하고도 싶었다. 그런데 좁은 길을 따라 잠시 걷다가 모퉁이를 돌고 나자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숲속에 호수가 있었고 그 호수를 중심으로 산책로가 단정하게 조성되어 있었으며 길가로 가로등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져 있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숲에서 산책도 하고 조깅도 하고 그럴 거예요. 길이 평평하고 넓게 잘 닦여 있잖아요.”

순영은 이 동네에서 살기 시작한 지 팔 개월이 지나도록 바로 길 하나 건너 이런 숲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 스스로 놀라웠다. 이곳에 눈길을 준 적도 별로 없었고 눈에 떨 때마다 그저 방치해서 내버려둔 땅이 저렇게 있나 보다고만 생각했었다. 자신은 그렇다치고 오랫동안 이 동네에서 살았던 경수가 이렇게 호수가 있는 숲을 가까이 두고도 이곳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려웠다.

“이런 길을 어떻게 알았어요? 나는 코앞에 두고도 몰랐는데.”

“놀랄 것 없어요. 동네마다 이런 숲이 한두 개쯤은 있으니까 그냥 곁에서만 봐도 대강 알 수 있는 거죠.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스톡홀름은 그냥 숲과 호수와 바다잖아요. 그렇게 보면 사람들은 자연 속에 그저 좀 깃들여 사는 존재일 뿐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아등바등 살고들 있지만.”

단풍 든 나뭇잎들이 바람에 나부꼈다. 은숙이 기분이 좋은 듯 들고 있는 바구니를 앞뒤로 흔들며 흥얼거렸다. 은숙의 곁에서 생각에 잠긴 듯 길을 걷던 순영이 입을 열었다.

“그런데 정작 은숙 씨는 아등바등 산다는 게 어떤 건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나뭇잎들이 나선을 그리며 천천히 떨어져 내릴 때 은숙이 손을 내밀어 떨어지는 나뭇잎을 잡는 시늉을 했다.

“생명 가진 존재치고 아등바등하지 않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다들 제각각의 형태로 그렇게들 살고 있겠지요. 그리고… 그날 일은 다 내 잘못이에요. 이제 그만 용서해 줘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순영 씨에게 문자 보냈었는데 아직도 확인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은숙이 손에 들고 있던 바구니를 팔목에 걸치고 외투 주머니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더니 무엇인가를 찾아 순영의 눈앞에 내밀었다.

“이거 봐요 이거. 내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이 일 자가 아직도 그대로 서 있잖아요. 이렇게 선명하게.”

순영은 핸드폰 화면에 떠 있는 메시지를 재빨리 읽어 내렸다.

**순영 씨, 오늘 기분 많이 상했지요? 남편이 그렇게 제멋대로 말하는데 말리지도 못하고…. 내가 무능한 사람이라서 순영 씨에게 정말 미안해요. 부디 용서해**

## 주시고 우리 이전처럼 잘 지내요.

순영의 입에서 픽, 하고 웃음이 새어 나왔다.

“아 이게 뭐야. 무능한 사람인 것을 용서하라니요? 무슨 말이 이렇담. 은숙 씨가 무능한 사람이라면 나 같은 사람은 뭐예요 대체?”

“순영 씨는 유능한 사람이잖아요. 잘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난 밖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남편 앞에서는 나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살아요. 남편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서지도 못하고…. 우리 집에서 나 사는 걸 누가 들여다본다면 저 여자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인가 할 거예요. 한심한 일이죠.”

순영이 아무런 말 없이 몇 걸음을 더 걷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날 아무 말도 안 들리는 것처럼 하고 있는 은숙 씨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래서 화가 났다기보다는… 우리가 생활 환경의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여러 면에서 친구가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걸 그날 너무 분명히 알아버린 것 같아서… 그래서 화가 났던 걸 거예요. 사실은 화가 났던 게 아니라 슬펐던 것이었지만 말이에요.”

순영이 말을 하는 동안 생각에 잠긴 듯 묵묵히 걷던 은숙이 말했다.

“우리는 원래 그런 경제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새삼스러웠던 게 아니죠. 그런 차이가 있었지만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는데요 뭘. 그날 우리 집에 와 봐서 알겠지만 우리 집의 그 썰렁함이란… 난 순영 씨 집이 좋더라구요. 경수 씨가 날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따뜻한 밥상과 몸에 꼭 맞는 집 그런 게 너무 좋아서 모르는 척 그렇게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순영 씨 말대로 나는 부유한 사람이지만 우리 두 사람 관계에서는 내가 순영 씨 도움을 더 많이 받고 사는 셈이죠.”

“에이, 그렇진 않죠.”

“정말 그래요. 사실은 미국에 가 있는 동안도 순영 씨 생각 많이 나고 음식도 그리웠어요.”

순영이 놀란 표정을 짓고 은숙을 보았다.

“언제 미국에 다녀왔어요?”

“미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순영 씨 우리 집에 왔다 가고 나서 며칠 안 있다 남편 출장 갈 때 동행했었죠. 거기 음식점이 얼마나 많아요. 한인 식당도 수두룩하고.”

“나야 모르죠.”

은숙이 소리 내 웃었다.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맛들에는 순영 씨 음식에 깃들여 있는 깊은 감동과 정서가 없는 거예요.”

순영이, 아니 뭘 또 그렇게까지 라고 말하며 웃었다.

산책로에서 연결된 좁은 오솔길에서 앞장서 걷던 은숙이 뒤에서 걷고 있는 순영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미국에 갈 때에는 남편이랑 같이 갔는데 올 때에는 지섭이와 둘만 돌아 왔어요. 남편의 탐욕은 끝도 없고, 남편은 어느새 가족보다도 사업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 버렸어요. 일을 하고 돈을 벌 때에는 그 목적이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린 거죠. 미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남편 하나 믿고 스웨덴으로 온 건데 막상 나는 언제나 혼자고…. 순영 씨마저 내게서 멀어지면 나는 여기서 그냥 섬처럼 혼자 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철 씨나 나한테 거부감이 크다는 거 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앞서 걷던 은숙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오솔길에서 벗어나 빠른 걸음으로 소나무 숲을 향해 걸었다. 순영은 이끼 사이로 무릎 높이까지 자라 있는 블루베리 가지에 바지가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며 은숙의 뒤를 따라 걸었다. 순영이 걷는 동안 이끼의 폭신한 감촉이 신발 밑에서 전해졌다. 은숙이 소나무 한 그루 앞에 쪼그리고 앉아 두 손으로 버섯의 밑동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갓이 두툼하고 밑동이 튼실한 버섯이 기다랗게 달려 올라왔다. 버섯 하나를 발견했을 뿐인데 은숙의 얼굴이 눈에 띄게 환해졌다.

“이걸 한국에서는 그물버섯 아재비라고 한대요. 여기 이름은 칼 요한인데 그 이름의 왕이 좋아했던 버섯이라고 하더라고요.”

“확실해요? 괜히 이거 먹고 나서 거품 물고 실려 가는 것 아니에요?”

은숙이 아무 걱정 마시라구요 라고 말하며 소리 내어 웃었다. 그리고 바구니 속에 있던 작은 칼을 꺼내어 버섯의 아랫부분을 잘라내 버섯을 뽑았던 자리에 눌러 놓았다.

“이렇게 해 줘야 이곳에서 다시 버섯이 자라거든요. 내년에 다시 찾아와도 이 버섯이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하고 든든해지지 않아요?”

은숙은 손질한 버섯을 순영이 들고 있는 바구니에 담고 기분이 좋은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햇빛을 받아 더욱 선명해진 초록의 이끼는 숲 전체를 아늑하게 덮고 있었고 넉넉한 간격을 두고 서 있는 나무들은 하늘에 닿을 듯 시원하게 뻗어 있었다.

“은숙 씨, 이제 버섯 하나 땀으니 그만 돌아가요. 점심도 못 먹고 걸었더니 배도 좀 고프고.”

“점심 나도 같이 먹어요?”

“그걸 말이라고!”

은숙이 어린아이처럼 손뼉을 치며 크게 소리 내어 웃었다.

“아아 이제야 살 것 같네요. 하하.”

숲에서 나오면서 순영은 날이 너무 좋은 탓에 자신에게 며칠 동안 계속되었던 초조가 지금은 말끔하게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대낮의 햇빛은 나뭇잎에 부딪히며 사방으로 빛을 뿌렸고 오늘같이 좋은 날 아침부터 공연히 기대되었던 좋은 일은 이것으로 이미 충분한 것 같았다.

# 하이웨이 씹스

정명숙 (캐나다)

1

25년간 직장에 다니며 딱 한 번만이라도 맘 편히 돌아보는 게 소원이었던 남편은 이민하고 일 년 동안 놀았다. 맘이 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면에서 소원 성취는 했을 것이다.

예전에 남편은 여름 양복으로 갈아입을 때마다 양복 주머니에 봄이 있더라도 한 것처럼 주머니를 뒤적거리며 언제 봄이 갔지, 했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어, 캐나다에도 개나리가 피네, 하며 걸음까지 멈추었다.

놀랍게도 남편은 하늘을 자주 보았고 구름의 모양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다. 연애 시절과 결혼 생활 30년을 통틀어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다. 이곳 하늘이 우리의 시선과 수평으로 맞닿아 굳이 올려다볼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나는 맘대로 생각했다.

남편을 따라 구름을 보면 아닌 게 아니라 구름은 생각보다 빨리 움직였다. 바람을 느끼지 못하는 날에도 모양이 금세 바뀌었다. 토끼 모양의 구름을 보며 귀와 꼬리 모양이 점점 다람쥐처럼 변한다고 말하는 사이에 그것은 이미 토끼도 다람쥐도 아닌, 전혀 다른 형태가 되어버렸다.

- 되게 빨리 변하네.
- 움직이는 건 원래 변하는 거야.
- 나는 갑자기 철학자 모드로 바뀐 남편이 생경했다.
- 분위기 왜 이래. 영 적응 안 되네.
-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다.
- 옛날에 형이 해준 얘기야.

남편이 노는 걸 끝내고 슬슬 뭔가 해보려는 찰나, 부동산, 주식, 환율, 세 개의 폭탄이 남편의 평생 성취에 무차별 용단 폭격을 가했다. 천천히 정리할 생각으로 한국에 남겨둔 자산이 절반으로 줄었다. 아들과 딸이 각각 토론토와 밴쿠버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었으므로 당장 돈이 필요했다. 결국 반토막 난 주식을 팔아 삼십 퍼센트 떨어진 환율로 돈을 들여왔다.

나는 어디 가서 알바라도 뛰자고 했다. 하지만 남편은 종일 돈보기를 쓰고 식탁에 앉아 신문을 뒤적거리었다. 기왕 비즈니스 이민 온 거 하루라도 빨리 착수했어야 했는데, 라고 중얼거리며. 어쩌면 봄꽃을 만끽했던 시간을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남편은 비즈니스 매물 광고를 스크랩했고 하루가 멀다 하고 계산기를 두드렸고 수첩에 뭔가 열심히 끄적였다. 그러곤 이 궁리 저 궁리 하더니, 괜찮은 곳을 찾았다며 내게 사전 답사를 하러 가자고 했다. 도시의 북쪽에 있는 레스토랑과 펍이었다.

나는 콜라만 마셔도 취하는 남편이 술집을 하겠다는 발상이 마뜩잖았다. 그곳의 위치와 모자란 불빛도 싫었다. 따라나설 때마다 얼굴을 구겼다.

지도에서 언뜻 보면 그곳은 남북으로 뻗은 도로변에 위치했다. 남쪽으로 세 시간 거리에 인구 육십만의 도시가 있고 북쪽으로 인구 오천 명의 C시가 있었다. 하지만 C시까지 거리는 알 수 없었다. 구글 지도는 그곳에

서 C시까지 몇 킬로미터 떨어졌는지, 자동차로 몇 시간 걸리는지, 표시할 수 없다고 했다. 길이 없기 때문이었다. 비행기가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다.

그곳과 C시 사이에는 무수한 호수와 습지가 산재했고 원주민 마을이 중간중간 박혀 있었다. 도로 건설에 막대한 비용이 들었고 정부는 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지도상의 위치와 달리 그곳은 막다른 골목인 셈이었다. 남편이 굳이 그곳을 고집했던 이유는 순전히 돈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그랬다. 수중의 돈으로는 도시에서 마땅한 비즈니스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나는 머리로는 이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도시에서 해결하기를 바랐다.

충청도 산골 출신인 남편과 달리,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 평생을 서울에서 살았다. 그것은 불빛에서 태어나 평생을 불빛에서 살았다는 말과 같았다. 물리학에서 질량과 에너지가 등가를 이루는 것처럼 내게 있어 서울과 불빛은 등가를 이루었다. 내 생활은 언제나 불빛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페트로 캐나다 주유소와 하이웨이 씹스 간판 두 개가 불빛의 전부인 도로변에 산다는 건, 화성에서 감자를 키우며 산다는 말보다 더 막막하게 체감되었다.

구겨진 내 얼굴을 보며 남편은 말했다.

-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거, 얼굴 좀 펴라.

- 내 표정 신경 쓰지 마. 이 정도면 애교나 다름없으니까.

- 이참에 불면증 고치면 되겠네, 완전 캄캄해야 멜라토닌인가 뭔가 생긴다며.

남편은 알밋게 말했다.

몇 년째 생리가 오락가락하면서 불면증에 시달렸다. 날이 흰히 새는 걸 보고 잠이 들 때가 많았다. 나는 도로 양옆으로 언덕처럼 높이 쌓인 눈을 보며 입이 찢어져라 하품을 했다. 눈에 물기가 생겨 드문드문 있는 집

들과 나무들이 여러 개로 겹쳐 보였다.

- 자동차로 세 시간 거리면 캐나다에선 바로 옆집이나 마찬가지로야. 답답하면 잠시 도시로 내려와 코에 바람 넣으면 되지.

남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속에서 열이 확 올랐다. 얼굴이 별경계 달아오르고 목덜미와 등에 녹진하게 땀이 났다. 나는 자동차 창문을 끝까지 쪽 내렸다. 차가운 바람이 안으로 훑 들어왔다. 남편이 애지중지 수첩 갈피에 끼어 놓은 신문 광고의 스크랩이 바람에 흩어졌다.

자동차는 8차선 외곽 순환도로에서 빠져나와 2차선 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지루하게 달렸다. 페트로 캐나다 간판 뒤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 하이웨이 씹스 간판을 아차, 하는 순간 놓치고 몇 분 더 달려 유턴해 돌아왔다. 나는 차에서 내려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 하이웨이 씹스가 뭐야. 촌스럽게.

남편도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 좋은데 왜. 길 이름이랑 같아서 외우기도 쉽고.

우리는 지붕이 불그스름하고 외관이 허름한 직사각형 건물의 메인 출구로 들어갔다. 조그만 공간에 식당과 펍의 출입문이 분리돼 있었다. 중간 벽면에 오크 나무 게시판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 간이 게임기가 놓여 있었다.

게시판에는 사냥 협회 모임, 결혼식 피로연, 컨트리 가수 공연에 대한 공고와 송유관 건설 반대 집회 포스터가 붙어있었다. 팀홀튼 종업원과 간병인과 건설 노무자 구인 광고도 있었다. 중고 소파와 티 테이블 판매 광고, 방 두 칸짜리 지하실 렌트 광고, 가라지 세일 광고, 고양이 페트리샤를 찾는 광고까지 다양했다. 설록 홈스가 아니더라도 마을의 일을 손바닥 보듯 흰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식당 벽에는 북극곰과 들소의 흑백사진이 걸려있었다. 유니크했으나

보고 있자니 웬지 식욕이 떨어졌다. 식당은 작고 평범했다. 4인용 테이블이 여섯 개 있었고 메뉴판의 음식 가짓수는 단출했다. 그러나 오픈식 주방은 완전 판판이었다. 널찍한 냉장 저장고가 보였고, 업소용 대형 냉동고의 모터 소리가 거인의 신음 소리처럼 주방에 울려 퍼졌다. 벽에는 다양한 조리기구들이 일렬로 걸렸고 선반에는 깡통과 식재료가 수북이 쌓였다. 어디에 쓰는 건지 도통 가늠도 되지 않는 것들 천지였다.

남편은 조금 상기된 얼굴로 고개를 길게 빼고 주방을 기웃거렸다. 낯선 동양인 부부가 여기저기 기웃거리자 서빙하던 종업원이 May I help you, 했다. 남편은 너스레 좋게 The kitchen is very nice, 했다. 머리를 양 갈래로 예쁘게 땀은 중년의 종업원이 땀큐, 하고 나서, 혹시 펴를 찾는 거라면 쪽 가면 된다고 주방 옆 통로를 손으로 가리켰다. 종종 식당으로 들어와 펴의 입구를 찾는 손님들이 있는 모양이었다.

통로를 따라 걷던 남편이 걸음을 늦추며 벽에 걸린 그림을 턱으로 가리켰다. 푸른색과 붉은색으로 형상화된 연어 두 마리가 물살을 타고 올라가는 그림이었다. 연어는 당장이라도 하늘을 뚫을 기세였다. 남편은 고개를 약간 기울인 채 손가락을 턱밑에 대고 그림을 감상했다.

통로를 빠져나오자 위스키, 와인, 맥주 등의 술병과 칵테일 잔이 놓인 진열대가 한눈에 들어왔다. 긴 스탠드에 스텔 예닐곱 개가 배치되었고, 대각선으로 맞은편에 대형 스피커와 마이크 장치가 구비된 공연 무대가 있었다. 식당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홀이 넓었다.

남편은 대형 스피커 앞 테이블의 의자를 뒤로 뺐다. 나는 창가 구석 자리로 가려다 말고 남편을 따라 스피커 앞 테이블에 앉았다. 홀에 있는 손님들이 미어캣처럼 일제히 우리를 쳐다보았다. 뒤통수 옆통수 앞 통수까지 따라왔다. 밴쿠버에서는 싸이가 공연도 하고 관객들이 칼춤까지 따라한다는데. 외지인이라 경계를 하는 건지 동양인이라 신기해하는 건지. 나

는 역주행하는 수레바퀴에 꼭 끼어 버린 기분이 들었다.

얼굴이 퉁퉁하고 무뚝뚝한 중년의 남자가 주문을 받으러 왔다. 내가 메뉴판을 들여다보며 스텔라 아르투아를 찾고 있는데, 남편은 자기가 마실 것도 아니면서 캐나다 맥주를 마셔야 한다며 코카니를 시켰다. 그리고 어디서 주워들었는지 코카니는 코카니 빙산에서 흐르는 빙하수로 양조한 맥주이므로 청정한 빙하 결정체를 생각하면 건강에 무지 좋을 거라는 이상한 소리를 했다.

남편은 음식 맛이 궁금하다며 북미 음식의 대표 격인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시켰다. 음식은 먹을 만했다. 두어 시간 앉아 있는 동안, 손님도 그럭저럭 있었다. 남편은 감자튀김을 케첩에 찍어 먹으며 이 정도면 괜찮아. 나쁘지 않아, 했다.

겨우내 우리는 하이웨이 썬스에 갔다. 제설용 소금으로 얼룩덜룩 허영계 바랜 별로 예쁘지 않은 북위 48도의 도로를 세 시간씩 달려서. 코카니, 쿠어라이트, 몰슨 같은 캐나다 맥주를 시켰고, 특별할 것 없는 메뉴판 음식들을 섭렵했다. 사전 답사치고는 꽤 긴 시간이었다.

어느 날 무뚝뚝한 주인 남자가 미소 비슷한 것을 띠며 알은체를 했다. 새로 이사 오셨습니까? 남편은 노우, 하며 뜬금없이 악수를 청했다. 리, 라고 합니다. 노우, 라는 대답에 순간 의아한 표정을 짓던 남자가 금세 표정을 풀고 남편의 손을 맞잡았다. 빌이라고 합니다. 자주 오시네요. 고맙습니다.

하이웨이 썬스에 가는 일이 루틴이 되어갈 즈음, 5월이나 되어야 온다는 봄은 아직 멀었는데 갑자기 기온이 올라갔다. 빙하처럼 켜켜이 얼어붙은 눈이 한꺼번에 녹아 물난리가 났다. 6번 고속도로 일부가 물에 잠겼고 마을이 고립되었다. 남편은 종일 티브이 날씨 채널을 켜놓은 채 밥을

먹고 신문을 읽고 소파에 웅크리고 선잠을 잤다.

보름 만에 길이 뚫리자 남편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하이웨이 씩스에 갈 채비를 했다. 짧은 이별 동안 연인을 향한 마음을 확인하고 고백하러 가는 사람처럼 조바심치며 흥분했다. 이제 겨우 뜨뜻미지근한 상태가 된 나도 조바심이 났다. 남편이 당장 계약서라도 쓰자 하면 어찌나, 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홀에 들어서자, 빌의 무뚝뚝한 얼굴에 반가움이 드러났다. 남편은 오른손을 높이 들어 올리며 경쾌한 목소리로 We are back, 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아니면 물난리의 후폭풍 때문인지 홀에는 손님이 한 명밖에 없었다. 피죤피죤하고 눈이 쾅한 게 낯익은 얼굴이었다. 남자는 카운터로부터 멀찌감치 앉아 맥주를 훌쩍이며 눈동자를 굴렸다. 재는 뭐 하는 앤데 맨날 저리고 있어. 나는 남자의 쾅한 갈색 눈을 흘끗 보며 말했다.

빌은 코카니 한 병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for free. 남편은 대단히 감동받은 얼굴로 점심은 먹었습니까?, 했다. 빌이 아직, 이라고 하자 남편은 하이웨이 씩스 시그니처 햄버거 세 개를 주문했다. 다른 햄버거보다 값이 비싸서 맛보기로 시킨 후 한 번도 주문하지 않았던 햄버거였다.

빌이 주문 전표를 주방에 갖다주러 간 사이에 쾅한 눈의 남자가 우리 테이블로 오더니 대뜸 물었다.

- 니네 어디 리저브에서 왔니?

- 리저브?

나는 남편을 봤다. 남편은 휴대폰과 돋보기를 주머니에서 꺼냈다.

- spelling, please.

- r..e..s..e..r..v..e...

입 속에서 반쯤 녹은 알파벳이 헤벌어진 이빨 사이로 흐물흐물 비어져 나왔다.

- 리저브가 예약하다 보류하다 말고 뭐 다른 뜻이 있나.

남편은 휴대폰의 네이버 영어사전을 맨 아래까지 내렸다.

- 마땅한 뜻이 없네.

- 없을 리가 있어? 어디 구석에 쪼그맣게 있겠지.

- 없어. 안 보여.

- 아, 답답해.

나는 남편의 휴대폰을 낚아챘다.

- 자기 거 보면 되지. 꼭 이러더라.

남편이 툭툭했다. 나도 남편처럼 스크린을 위아래로 터치했다.

- 이상하네, 왜 없지.

나는 휴대폰을 남편에게 돌려주었다.

주방에서 돌아온 빌이 남자를 불렀다. 샘.

- 이 커플은 아시안이야. 리저브 사람 아니야, 신경 쓰지 말고 니 자리로 돌아가.

- 리저브 사람 아니야? 비슷하게 생겼는데.

빌은 다시 한번 샘, 하고 단호하게 부르며 손가락 두 개를 나란히 붙여 남자의 테이블을 향해 까딱했다. 샘은 딱진 머리를 굽적이며 자리로 돌아갔다.

- 리저브가 뭘니까?

남편이 빌에게 물었다.

- 원주민만 모여 사는 곳이에요. 옛날에 정부에서 만든 거죠.

- 그건 레저베이션 아닌가요?

남편은 인디언 레저베이션이라는 팝송이 기억난다면서 물었다.

- 미국에선 그렇게 부르죠. 여기선 리저브라고 해요.

빌은 마을의 토박이 중 토박이였다. 빌의 증조부는 1860년대 비버 모피 상인으로 캐나다에 온 영국인이었다. 증조모는 원주민이었다. 두 분이 결혼해서 이 마을에 정착했는데, 라고 말하다 빌은 결혼해서 정착했다는 표현이 실은 적절하지 않다고 정정했다. 당시 영국 법이 원주민과의 결혼을 금지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빌의 증조부는 마을의 유일한 백인이었다. 그가 마을에 눌러살게 된 건, 마을이 강과 숲으로 둘러싸여 외지인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았고 사냥과 낚시로 생계를 꾸리기에 충분한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하이웨이 씹스는 빌의 조부가 시작한 비즈니스였다. 조용했던 마을에 사냥꾼들이 몰려들었을 때였다. 사냥꾼들은 비버, 사향쥐, 여우, 스라소니 등을 무차별적으로 사냥했고, 전리품을 싣고 가는 길에 하이웨이 씹스에 들러 밥을 먹고 술을 마셨다. 사냥이 법으로 규제될 때까지 비즈니스는 엄청나게 번창했다.

그러나 빌의 조부가 떼부자가 됐을 거라는 우리의 예상은 안타깝게도 빗나갔다. 자세한 연유는 모르지만, 비즈니스를 갑자기 백인에게 넘겨야 했었는데, 조부가 원주민이어서 그랬을 것이라고 빌은 짐작했다. 사냥 규제법이 시행되어 더 이상 떼돈을 벌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이웨이 씹스는 조부에게 도로 넘겨졌다. 백인들이 떠난 후 마을 사람들은 마을과 사냥터를 되찾은 기쁨에 축제를 열었다. 축제가 끝난 뒤, 사냥 시즌을 제외하고 마을은 원래의 모습대로 다시 조용해졌다.

빌이 조부 때부터 이어온 가업을 처분한 이유는 식당을 도맡아 했던 그의 아내가 몇 년 전 유방암으로 죽었기 때문이었다. 빌의 비즈니스 운

영 방식과 사람을 묘하게 휘어잡는 카리스마를 고려하면 어떻게든 꾸려 나갈 수 있었지만, 빌은 아내의 부재가 참기 힘들다고 털어놓았다. 벽에 조리 기구가 매달린 순서, 식재료가 놓여있는 모양, 테이블보가 깔려있는 방식, 바닥의 대결레질 자국, 심지어 싱크대에 낀 물때조차도 아내의 부재를 상기시켜 준다고 했다.

술집이라고 별달라.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자세로 일관했던 남편은 몇 달 동안 비즈니스가 돌아가는 걸 지켜보고는 은근히 걱정하는 눈치였다. 특히 손님들 나사가 한두 개쯤 풀리는 주말이 그랬다. 손님들 사이에서 서로 시비가 붙다가도 빌이 눈에 보이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다른 술집처럼 입구에 경비 요원을 배치할 필요가 없었다. 술집이 그렇듯, 자잘한 사건 사고는 있었지만, 빌이 하이웨이 씹스에 버티고 있는 한, 역주행이든 뭐든 바퀴가 수월하게 굴러갔다.

남편은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만 했다. 쌀쌀한 날씨에 티셔츠 바람으로 아파트 발코니를 왔다 갔다 하더니 밤에 기침까지 콜록거렸다.

- 그렇게 부담되면 안 하면 되지. 도대체 뭣 땀에 그렇게 집착해, 거기에.

- 그러게 말이야. 안 하면 그만인데... 나도 잘 모르겠어. 이 마음을.

- 그 마음이 뭔데?

- 생김새 비슷한 사람도 많고.

- 마음이 뭐냐니까. 웬 생김새 타령이야.

남편이 조금이라도 허튼소리를 하면 이번에는말로 강하게 밀어붙일 작정으로 나는 입술을 앙다물고 팔짱을 낀 채 남편의 뒷말을 기다렸다.

- 눈동자 색깔도 그렇고. '한국인의 밥상'에 나오는 노인들 눈 같잖아.

남편은 그곳에 있으면 맘이 느슨하게 풀어져 좋다고 했다.

- 아니 그럼, 뭐 하러 이민을 왔어. 그냥 한국에서 살지.

- 그 얘기가 아니잖아. 이민은 이민이고.

- 아니긴 뭐가 아니야. 백인처럼 말 안 통하는 건 똑같은데, 생김새가 좀 비슷해서 종단 말이잖아. 그러니까 말도 통하고 생김새도 같으면 훨씬 좋을 거 아냐. 그럴 바엔 이민을 왜 왔어, 한국에서 그냥 살지.

솔직히 말하면, 처음 하이웨이 씹스에 갔을 때 나는 막연한 두려움을 느꼈었다. 도시의 다운타운에서 구걸하고 술에 취해 배회하는 사람들이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백인에 비해 그들이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증거는 없었지만, 이민자들 사이에서 그들은 피해야 할 사람들로 인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면 맘이 느슨해진다는 남편의 말에 나는 적극적으로 반박할 수가 없었다. 사실 그들의 생김새는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 백인에 가까웠다. 그러나 이민 후 쪽 그래왔던, 영어가 모국어인 백인에게서 느끼는, 뭐랄까, 기본적으로 한 수 지고 들어가는 느낌. 그런 게 하이웨이 씹스에선 없었다. 샘의 쾡한 눈을 보고 있으면 오히려 한 수 위에 있는 느낌마저 들었다. 갑자기 나는 머리가 아팠다. 그만두자고 계속 밀어붙여야 하는 건지.

## 2

지역 신문에 실린 곰 이야기로 마을이 떠들썩했다. 아침에 부엌으로 들어가던 한 삼십 대 주부가 냉장고 문을 여는 블랙베어를 목격했다는 기사였다. 기겁한 그녀는 후다닥 이 층으로 올라가 곰이 떠나기를 기다렸다. 곰이 뒷마당을 통해 사라지는 걸 확인하고 부엌에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티라미수 케이크와 과일 타르트가 없어졌다는 것이었다.

시 당국은 블랙베어들이 먹을 것을 찾아 주택가 쓰레기통 뒤지는 사례가 많으니 뚜껑을 꼭 닫으라고 당부했다. 남편은 곰이 냉장고 문을 열어 케이크까지 꺼내어 먹는 판국에 쓰레기통 뚜껑 운운하는 것이 어처구니

없다며 코미디네, 했다. 그러면서도 쓰레기통 뚜껑만큼은 열심히 닫았다. 그것이 마치 초보 이민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이라도 되는 것처럼.

편에 오는 손님들 중에도 곰과 마주쳤다는 이들이 더러 있었다. 샘은 아무개네 집 마당에서 개똥을 줍다가 덩치가 하키 선수 두 배만 한 블랙베어와 맞닥뜨렸다면서 남편을 붙잡고 놔주지 않았다. 남편이 신기해하며 감탄사를 연발하자, 그는 흐물거리는 발음으로 공기 빠진 타이어처럼 푸식푸식, 소리를 내며 주워섬기지도 못할 말을 지껄었다.

남편이 칵테일을 만드느라 여념이 없을 때도 샘은 쾡한 눈을 남편 코 앞에 들이대고 곰 얘기를 했다. 그러다 빌에게 들리면 마지못해 스투에서 내려와 최대한 멀찌감치 떨어진 자리에 엉덩이를 반쯤 걸친 채 눈치를 살폈다. 빌은 칵테일 잔에 스트로를 꽂으며 남편에게 말했다.

- 적당히 무시해요. 금방 제풀에 꺾이니까. 다 받아 줬다간, 사우스 코리아는 물론이고 노스 코리아까지 쫓아가 곰 얘길 해댈 거예요.

빌은 무뚝뚝한 표정 그대로인데 남편 혼자 껄껄 웃었다. 빌과 남편의 눈치를 보며 맥주를 홀짝이던 샘이 태평양만큼이나 벌어진 앞니를 드러내며 히죽히죽 웃었다.

동네 사람들 마당에서 개똥 줍는 일을 하는 샘은 오후 두 시면 개똥 치우는 일을 끝내고 하이웨이 씹스로 퇴근했다. 그는 저녁까지 맥주 한 병을 들고 홀을 어슬렁거리며 다른 손님에게 말을 걸거나 남편을 줄줄 쫓아다니며 횡설수설 지껄었다. 개 짖는 소리만 들어도 뉘 집인지 헷히 꿰고 있는 마을에서 샘의 얘기는 새로울 것 없었고, 설사 새로운 것이 있다 해도 아무도 귀담아듣지 않았다.

오직 남편만이 놀랍다 대단하다 멋지다, 등의 추임새를 넣으며 맛장구를 쳐주었다. 샘의 창백하고 시들시들한 얼굴은 남편을 마주 대했을 때

활짝 폈다. 그는 폼에 오기가 무섭게 두리번거리며 남편을 찾았고, 갈색 눈을 웃어 보이며 하이 리, 하고 정답게 인사했다. 남편을 도와준답시고 테이블의 빈 술병도 치웠다. 그때마다 고개를 한껏 뒤로 젖히고 빈 술병에 깔린 마지막 한 방울의 술까지 툭툭 털어 마셨다. 가끔 창틀 먼지나 의자에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를 자신의 기름때 찌든 옷소매로 닦다가 남편과 눈이 마주치면 씩씩 웃었다.

샘은 여섯 살 때 조부모와 강제로 떨어져 백인 가정에 입양되었다. 그러다 양부모가 이혼하는 바람에 열 살 때 고아원으로 보내졌다. 그는 고아원에서 뛰쳐나와 약물에 절어 십 대와 이십 대 초반을 거리에서 보냈다. 샘의 조부가 수소문하여 샘을 찾아냈을 때, 그는 자기 부족의 언어도 가족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한 채 보호 시설에서 지내고 있었다. 재활 시설에서 치료를 받은 뒤 조부 곁으로 돌아왔을 때 샘의 나이 서른다섯이었다. 조부가 죽은 뒤, 그의 생전 부탁으로 먼 친척 형인 빌이 샘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 개똥 치우는 일은 빌이 소일거리로 주선해 준 것이었다.

한 달에 두 번 정부 보조금이 나오는 날이면 샘은 맥주 세 병을 한꺼번에 시켰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이것은 샘이 하이웨이 씹스에서 마실 수 있는 일일 최대량이었고 남편과 빌의 계약 조건 중 하나였다. 빌의 카리스마가 절실했던 남편은 최소 삼 개월 동안은 빌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계약 조건을 내걸었다. 빌은 흔쾌히 받아들이는 대신, 샘에게 하루 맥주 세 병 이상 주지 말 것, 같은 매우 사적인 조건 몇 가지를 제시했다.

빌이 계약 파기까지 언급하면서 심하게 화를 낸 적이 있었다. 보조금이 나오면 값을 테니 맥주 한 병만 달라는 샘에게, 맥주 한 병에 야박하게

굴 거 있냐면서 남편이 외상술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 이런 식으로 운영할 거면 계약은 없던 일로 합시다. 위약금은 물겠소. 남편은 고작 맥주 한 병에 터무니없이 화를 내는 빌을 이해할 수 없었다. 빌은 황당해하는 남편을 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 이민자들은 원주민을 안 좋게 생각한다면서요. 마약에 알코올에 일은 안 하고 세금이나 축내고 더럽고 구걸이나 한다고요. 신문 오피니언에서 그러더군요. 원주민 때문에 새로운 이민자들이 다운타운을 맘 놓고 다닐 수 없으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빌은 혀로 입술을 적셨다.

- 리저브가 뭐냐고 물었었죠.

빌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다.

- 거기선 통행증이 있어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자식 결혼식도 부모 장례식도 생필품을 사러 갈 때도 백인 관리인에게 통행증을 발급 받아야 했었죠. 백인 관리인에게 밍보이면 아무 데도 못 갔어요. 다 지난 일이라고 하지만, 그 일을 겪은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으니 무조건 옛일이라 치부할 순 없겠죠.

북한의 통행증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리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백인과 원주민의 갈등은 '늑대와 춤을' 이나 '라스트 모히칸' 같은 영화에서 본 게 고작이었다. 그것도 온전히 미국 얘기인 줄 알았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투명한 푸른빛 하늘에 한 무리의 캐나다 구스가 브이 모양을 이루며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 리에게는 그저 맥주 한 병일 뿐이지만, 우리에게겐 알코올 중독이라는 오명을 안겨주죠. 맥주 한 병이든 뭐든, 사람들은 그런 거 따윈 신경 안 써요. 외상술 마시는 원주민이라는 것에만 관심을 두죠.

빌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남편의 어깨를 지그시 눌렀다.

- 부탁드립니다. 샘뿐 아니라 동네 사람 누구에게든 외상술은 절대 안 돼요.

남편은 여러 번 고개를 끄덕였다. 빌은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했다.

그때 건물 모서리의 쪽창으로 샘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유리창에 코를 대고 눈동자를 굴리며 홀을 들여다보았다. 남편과 눈이 마주치자 한 손을 치켜들어 줄에 매달린 물고기를 흔들었다. 빌이 힐끗 쳐다보자 재빨리 물고기를 아래로 내렸다. 빌은 못 본 척 밖으로 나갔다.

빌이 떠나자마자 샘은 물고기를 흔들며 안으로 들어왔다. 자신이 직접 잡았다면서 역도 선수 장판지만 한 물고기를 남편에게 들이밀었다.

- 가져. 리에게 주는 거야.

샘은 손으로 자신의 허벅지 중간을 가리키며 요만할 때 할아버지가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었다고 말했다. 샘이 자랑스럽게 물고기를 건네자 남편은 물고기를 받아 요리조리 보았다.

- 어이구, 크네. 아주.

남편은 샘에게 엄지척을 해주었다. 그러고는 받아도 되나 모르겠네, 하고 중얼거리며 뒷마당으로 나가 숯불 바비큐를 피웠다. 남편은 물고기를 통째로 얹은 뒤 지글지글 타는 연기를 보며 입맛을 다셨다.

- 어릴 때 냇가 가서 물고기 참 많이 잡았는데. 나뭇가지에 불 피워 구워 먹고 나면 입 주위가 까매서 형이랑 서로 많이 놀리기도 하고... 다 옛날 일이지 뭐.

남편은 일 년 전 형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후 처음으로 형 얘기를 꺼냈다.

- 내가 중학생 때 형이 서울로 대학을 갔는데, 어쩌다 고향 내려오면 꼭 딴 사람 같았어. 개울가에 누워 구름만 보더라구. 그러더니 어느 날인가 그랬어. 흐르는 건 저 구름처럼 다 변하게 되어있다고. 내가 강물은 매일

똑같던데, 했더니, 어려서 그렇다는 거야. 어제의 강물은 오늘의 강물이 아니고 내일의 강물과도 다르다면서. 겉으로만 똑같아 보일 뿐이라고.

남편은 잘 타고 있는 숯을 괜히 이리저리 쭈시더니 연기가 맵다며 눈을 비볐다.

물고기는 제법 맛있었다.

- 금방 잡아서 구워 먹는 물고기 맛은 여전히 좋네.

- 좋으면 됐지, 뭐.

남편은 생선 살 몇 점을 발라 접시에 담았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외상술도 아닌데 뭐, 하면서 맥주 한 병을 꺼내어 생선 접시와 함께 홀에 있는 샘에게 갖다주었다. 샘은 입을 귀까지 걸며 좋아했다. 그는 생선 접시는 손도 안 댄 채 술병만 훑다시피 깨끗이 비웠다.

샘은 잠만 나면 물고기를 남편에게 들이밀었다. 그리고 공짜 맥주에 한껏 행복해했다. 남편이 맥주를 주지 않을 때면 샘은 저공으로 선회하며 착륙 신호를 보내는 경비행기처럼 남편 주위를 맴돌았다. 아무런 사심 없이 증명된 선물이 어느 순간 대가를 바라는 교환으로 바뀐 것이었다. 남편은 더 이상 물고기를 받지 않았다. 샘의 애원하는 듯 처량한 눈동자를 외면했다. 샘은 남편의 등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축 늘어진 물고기를 들고 돌아섰다.

- 그러게, 술은 왜 줘가지고.

나는 물이 흥건한 바닥을 대걸레로 북북 문질러 닦았다.

### 3

강으로 이어지는 건물 뒤쪽은 사방으로 뾰족하게 팔을 벌린 침엽수와 서로 기묘하게 얽혀 손바닥만 한 이파리를 떨구는 활엽수들이 에두르고

있었다. 하늘 중간까지 쪽쪽 뻗은 나무들은 매일 밤 창에 그림자를 드리우며 우리가 침실 겸 거실로 쓰는 열 평 남짓 공간을 기웃거렸다. 바람이 검객처럼 나뭇가지 사이를 수평으로 수직으로 휘휘 가르는 소리에 나는 뒤척뒤척 부대끼다 잠이 들었다.

이민 생활의 시작은 당연히 녹색 잔디가 깔린 이층집에서 하게 될 거라는 기대에서 '당연히'라는 단어를 지우고 나니, 불빛이 없어도 길이 없어도 그러저럭 살 만해졌다. 바람의 칼날에 뒤척뒤척 부대끼는 밤의 횡수도 줄었다.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도 꿈인가 싶어 아주 잠깐 쓰레기통 뚜껑을 걱정하다 금세 다시 잠이 들었다. 유일하게 잠을 깨우는 게 있다면 그건 테니스 엘보우 증세로 시큰거리는 팔꿈치뿐이었다.

주말 사냥 협회 모임에서 잡채를 서비스로 선보일 요량으로 당근 수십개를 채 썰었다. 양 갈래머리 아줌마는 이십 년 베테랑이라 허드렛일을 시킬 수 없었고 다른 종업원들은 햄버거는 잘 만들었지만 칼질이 서툴렀다. 야물지 못하고 어눌한 손놀림으로 당근채 썰는 걸 보고 있자니 저러다 손가락 자르지 싶어 보는 내내 애가 탔다. 내가 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팔꿈치를 쿡쿡 누르며 잠에서 깼다. 밖에서 쓰레기통 뚜껑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곰이 내려온 모양이었다. 이제 남편은 쓰레기통 뚜껑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곰도 먹고 살아야지, 너스레만 떨었다. 남편은 푸우, 푸우, 팔죽 쑤는 소리를 내며 요란하게 코를 골았다.

나는 남편의 코를 살짝 잡았다 놓으며 모로 돌아누웠다. 코 고는 소리가 잦아든 순간 건물 입구 쪽에서 우당탕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잠결에 놀라서 눈을 번쩍 떴다. 또르르르. 타일 바닥에 금속성 물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남편이 손전등을 짝 쥐고 식당을 가로지르는 동안 나는 등 뒤에 바짝

붙어 따라갔다. 남편이 식당 문을 열고 손전등을 비추자, 새우처럼 웅크린 시커먼 물체가 불빛에 잡혔다. 엎어진 게임기와 아무렇게나 흩어진 동전들이 보였다. 검은 물체가 움찔하며 형광 불빛에 창백하게 얼어붙었다. 푸석한 손등에 기름때 찌든 낡은 옷소매가 보였다.

- 거기 누구냐.

남편이 소리쳤다.

검은 물체가 고개를 우리 쪽으로 돌렸다. 남편은 손전등 불빛을 얼굴에 비췄다.

- 샘? 여기서 뭐해?

남편이 놀라서 물었다.

샘은 눈이 부신지 양 손바닥을 이마개로 올려 짝 찢었다. 눈가와 입가에 주름이 짜글짜글했다. 노인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것 같았다. 여러 갈래로 뻗은 손바닥 주름에 때 같은 게 까맣게 끼었다. 샘은 멧쩍게 한번 씩 웃더니 이마에 얹었던 양손을 내려 다시 더듬더듬 바닥을 훑었다. 손마디마다 허연 각질이 피었다. 그는 동전을 주워 샌드위치용 비닐봉지에 넣었다.

- 너, 뭐하니? 게임기 털었니?

남편이 언성을 높였다.

- 돈 훔치는 거야?

- 아니야, 훔치는 거. 보조금 나오면 갚을 거야. 잠시 빌리는 거야.

마치 남편이 꾸어 준 돈을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것처럼 샘은 천연덕스럽게 동전을 주웠다. 남편이 눈을 가늘게 뜨고 샘을 노려보았다.

- 갚는다니까. 걱정 마. 근데 말이야, 니네, 쓰레기통 뚜껑 안 닫았드라.

중대한 얘기라도 하는 것처럼 샘은 목소리를 깔고 남편과 나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 너, 알지. 저기 삼거리, 빨간 대문 집. 내가 그 옆집에서 개똥 줘잖아. 그, 왜, 배 뽕룩하구, 성질 드러워서 소리만 지르는 늙은이 말이야.

모를 리가 있나. 하이웨이 썩스를 인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반쯤 마신 술병을 카운터에 툇 하니 내려놓더니 값이 리커 스토아보다 두 배나 비싸다고 환불을 요구했던 노인이었다. 남편이 도시에 있는 술집은 세 배나 비싸다고 달랬으나 노인은 막무가내였다. 손님들은 또 시작이군, 하는 표정으로 쳐다볼 뿐 관여하지 않았다. 샘만 노인에게 어눌하고 웅얼거리는 말투로 뭐라 뭐라 했다. 노인은 콧방귀도 안 끼었다. 이놈아, 너는 개똥이나 치워.

결국 남편의 전화를 받고 달려 온 빌이 사태를 종결시켰다. 빌은 맥줏값의 절반을 노인에게 돌려주며 앞으로 펍에 오지 말고 리커 스토아에 직접 가서 사 마시라 했다.

- 그 늙은이가 쓰레기통 뚜껑 안 닫아서, 맨날 꿈이 내려왔대. 그래서 누가 신고했나 봐.

남편은 현행범을 잡은 자신의 본분을 까맣게 잊은 채 샘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다.

- 어떻게 됐는데?

- 니들도 알지. 벌금 무지 썰다는 거.

알다 뿐인가. 남편은 이민 온 지 두 달 만에 교통 신호를 세 번 위반했고 백만 원 상당의 돈을 범칙금으로 냈다. 한 달 생활비를 그렇게 날리고 남편은 한동안 운전대만 잡으면 새가슴이 되었다.

- 늙은이가 벌금 고지서 들고 옆집 가서 길길이 날뛰었대. 경찰이 오고, 막 난리가 났었어.

- 옆집에서 신고했나?

샘이 어깨를 으쓱했다. 나는 상황이 요상하게 돌아간다 싶어 팔꿈치로

남편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정신 차려. 어물쩍 넘어가면 안 돼. 남편이 갑자기 정색하며 샘에게 말했다.

- 아무튼 그건 그거고. 이건 도둑질이야, 샘.

- 값을 거야. 보조금 나오면 갚는다니까. 꼭 쓸 데가 있어서 그래. 내일 당장.

남편은 나를 보며 갚는다는데?, 했다. 나는 남편의 팔을 툇 쳤다. 무슨 소리야. 단단히 단도리를 해야지.

- 갚는다잖아. 몇 푼 되지도 않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괜히 번거롭기만 하고. 그리고 얼마나 급하면 게임기 털 생각을 했겠어, 저 순한 애가. 내일 꼭 쓸 데가 있어서 그랬다고 하니깐 이번만 봐주자.

- 아유, 못 살아 내가. 부처님 가운데 토막 나셨어.

나는 가자미눈으로 남편을 흘겼다.

- 그럼, 빌한테 전화라도 해. 다신 이런 일 없게.

- 알았어. 내일 오전에 할게.

샘은 동전을 다 줍고 동전 통을 게임기에 끼운 뒤 얽어진 게임기를 바로 세웠다. 그는 불룩한 샌드위치 봉지를 들고 더러운 바지에 손바닥을 쓱쓱 문지르며 일어섰다.

- 니네 쓰레기통은 걱정 마. 내가 아까 닫았어.

샘의 목소리가 칭찬을 바라는 아이처럼 해맑았다. 그는 샌드위치 봉지를 남편에게 주며 세어보고 도로 달라고 했다. 남편은 비닐봉지를 받아 들고 어이가 없는 듯 웃었다. 동전은 한국 돈으로 삼만 원 남짓 되었다. 샘은 동전 봉지를 들고 아이처럼 좋아하며 돌아갔다.

남편은 냉장고에서 맥주 한 병을 꺼내어 한 모금 마셨다.

- 웬 술이야. 자야지.

- 맥주 반병 정도는 괜찮아, 이제.

남편은 식탁에 앉아 손가락을 병 주둥이에 대고 계속 원을 그렸다.

- 그때 형이 나를 믿어줬으면 여기까지 안 왔겠지.

- 글썄... 그랬겠지 아마. 근데 누가 알겠어. 일이 어찌어찌 흘러서 결국 왔을지도 모르지.

남편은 도시에서 스시 레스토랑을 인수할 계획이었다. 뜻하지 않은 외적 변수로 자금이 부족했을 때 남편은 형이 있어 다행이라고 했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했던 형의 말을 한 톨도 의심하지 않았다.

- 집이세요?

- 박이야. 영수가 와서 밥 먹으러 나왔다.

몇 년째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막내 조카였다. 남편이 유난히 예뻐했던 조카는 용돈이 필요할 때마다 남편에게 연락했었다. 재수할 땐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다며 남편에게 이백만 원을 부탁했었다. 형과 형수에게는 영원히 비밀이라며 남편은 그 돈을 해주었다. 중학생인 딸 아이에게 한달 용돈으로 삼만 원을 줄 때였다.

- 잠깐 영수랑 통화 좀 해도 돼요? 목소리라도 듣게요.

야, 삼촌이다. 인사해. 형이 말했다. 삼촌,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데면 데면했다. 응 그래. 잘 지내지. 공부는 잘되고. 네. 잠시 침묵 후 수화기가 형에게로 건너갔다. 남편이 소심하게 물었다.

- 나중에 다시 걸까요.

- 아냐, 괜찮아. 말해.

-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 지난번에 말한 거?

- 돈... 말이에요.

- 아, 그거.

형은 잠시 뜬눈을 들었다.

- 그게 말이다. 안 되겠다. 여기도 형편이 좀 그래서.

누가 이민을 가래. 아니, 왜 이민을 가서 돈을 해 달래, 해 달래길. 수화기 너머에서 형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야, 핸드폰만 보지 말고 푹푹 좀 먹어. 이게 얼마짜리 장어인 줄 알아.

형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거참 시끄러워 통화를 못 하겠네. 너도 그 핸드폰 치우고 어서 푹푹 먹고. 남편은 내 눈치를 보며 얼른 스피커폰을 껐다.

- 아버지가 물려주신 집으로 담보 대출만 해주세요. 이자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장사가 잘되는 가게니까 원금도 금방 갚을 수 있어요. 갑자기 환율이랑 주식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 거지, 무리해서 크게 벌리는 거 아니에요. 갚아요. 갚을 거예요.

남편이 맥주를 벌컥 들이켰다. 형은 미안하다, 한마디 한 뒤 아무 말 없이 수화기만 붙들고 있었다고 했다. 상대가 먼저 끊어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미안하다는 말이 그렇게 공허하게 들린 적은 없었다고 남편은 말했다.

이튿날 남편이 빌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다. 남편은 전날 밤의 일을 문자로 간단히 보냈다. 정오께, 샘은 kokanee가 파란색 물결 모양으로 새겨진 가방을 들고 나타났다. 리커 스토아 사은품인데 남편이 샘에게 준 것이었다.

- 손님 없네. 굿.

남편이 노란 플라스틱 박스에 빈 술병을 정리하며 한국어로, 녀석이 지

가게 아니라고 막말하네, 했다.

- 손님 없는 게 뭐가 곳이야.

나는 샘을 쳐다보기가 민망했으나, 두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듯했다.

샘은 카운터에 코카니 가방을 올려놓고 남편을 도와 술병을 박스에 넣었다. 술병 바닥에 깔린 술을 털어 마시면서.

- 야, 더럽다. 그것 좀 하지 마라.

남편이 술병을 빼앗아 박스에 넣었다. 샘은 히죽 웃으며 빈 술병이 가득 든 박스를 번쩍 들어 창고로 옮겼다.

- 이게 뭐야?

남편이 코카니 가방을 보며 샘에게 물었다.

- 어제 그 돈으로 산 거야.

샘은 가방 덮개를 열었다. 은색 포일로 된 가방 안에 낡은 낚시줄과 갈고리 같이 생긴 낚시바늘과 노네임 딸기잼 병이 들어 있었다. 요즘 물고기는 딸기 잼을 먹나 보네. 남편이 샘을 놀리며 딸기잼 병을 집어 올렸다. 병 안에서 미끼용 노래기가 꿈틀거렸다.

- 함께 갈래? 물고기 잘 잡히는 데 내가 알아.

- 함께?

- 물고기 맛있다고 좋아했잖아.

샘은 남편의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다 덧붙였다.

- 맥주 달라고 안 할게.

샘의 쾅한 갈색 눈을 바라보는 남편의 눈동자가 아련하게 젖었다. 나는 괜히 술병 진열대의 먼지를 떨며 말했다. 바람도 쐬 겸 다녀와. 바로 요런데 뭐.

한 시간 후 남편과 샘이 각각 물고기 한 마리씩을 들고 나타났다.

- 손님 없었어?

-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었어. 술집 주인 낚시 간 거 알았나 봐.

남편은 건물 입구가 보이도록 창고 문을 앞뒤로 활짝 열어젖히고 샘을 불러 함께 뒷마당으로 나갔다. 두 사람은 숯불 바비큐에 불을 피우고 물고기 두 마리를 나란히 석쇠에 올려놓았다. 물고기가 지글지글 익으며 기름이 숯불에 떨어지자 연기가 피어올랐다. 샘은 남편과 내 쪽으로 연기가 가지 않도록 손을 짹 펴고 부채질을 해댔다. 손이 큼지막했다. 할머니가 여름이면 부치던 한복 차림의 윤정희가 웃고 있는 타원형 종이부채만큼이나 컸다.

- 빌한테 고맙다고 문자가 왔어. 이따 저녁에 들른대.

남편이 냉장고에서 코카니 세 병을 꺼내오며 내게 말했다. 샘은 무슨 애기가 싶어 눈을 크게 뜨고 우리를 쳐다보았다. 맥주병을 애써 못 본 척하는 샘의 눈동자가 기쁨으로 반짝거렸다. 남편이 짓궂게 양손을 흔들어 연기를 샘 쪽으로 날렸다. 샘이 마른기침을 콜록, 하자 남편은 예구 뭐 좀 마셔야겠네, 하며 맥주병을 건네주었다.

흐르는 건 변한다고 형이 말했을 때 남편은 아니라고 부득부득 우겼다고 했다. 굵은 눈물을 툭툭 흘리며 그렇지 않다고 대들었다고 했다. 형은 남편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한번 쓰윽 훑더니 말했다고 했다.

- 그래, 너 편한 대로 생각해라. 결국 선택은 둘 중 하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든가. 그래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든가.

모처럼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다.

우리는 가볍게 맥주병을 부딪쳤다. Cheers.

## 여름은 짧을수록 좋다

이미화 (미국)

### 룩 앳 댓 이디엇!

그렇게 하면 죽어도 못 들어가.

꽂무니를 오른쪽으로 내밀고 후진을 하던 빨간 포드가 허리까지 잘 집어넣는다 했더니 이번에도 차머리를 그대로 둔 채 멈춰버렸다. 핸들을 반대로 풀어야지, 반대로. 운전석에 앉은 여자가 얼굴을 돌려 잠시 위쪽으로 시선을 주는 순간, 창문 앞에 서 있던 나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유리창에 바짝 얼굴을 대고 오른손 주먹을 왼쪽으로 빙빙 돌리며 원을 그렸다. 내 손동작을 못 본 것이 틀림없다. 포드는 후진하면서 왼쪽으로 펼쳐던 부채를 오른쪽으로 접으며 처음 자리로 돌아왔다. 벌써 세번째였다.

패럴렐 파킹에 익숙하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딱딱한 공간이 더 문제였다. 포드가 들어갈 자리 뒤에 주차된 검정색 토요타가 뒤차와의 간격을 널찍하게 띄어놓고 대신 포드 자리에 앞범퍼를 걸쳐놓았던 것이다. 여자는 그리 개의치 않는 듯했다. 포드 꽂무니에 다시 노란불이 들어오고 여자는 오른쪽으로 상체를 틀었다. 나는 얼음이 잔뜩 들은 냉커피를 꿀꺽 삼켰다.

나라면 진작에 다른 곳을 찾았다. 아니 애초에 저렇게 앞뒤 여유 없는 곳에다 차를 주차하겠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처음과 똑같은 표정으로 후진을 시도하고 있는 그녀를 보면 차를 집어넣기 전에는 자리를 뜨지 않을 것 같다.

포드 운전석에 있는 저 여자는 내가 살고 있는 스튜디오 바로 옆 218호에 산다. 자기보다 키가 30센티쯤 더 크고, 몸무게는 두 배쯤 더 나갈 것 같은 남자와 함께. 내가 한여름 수박만큼이나 혼한 빨간색 포드를 십분이나 넘게 지켜보고 있는 이유다.

그녀와 별나게 내세울 만한 친분은 없다. 꽤 가까워질 수 있었던 기회가 한 번 있었지만 말 그대로 그저 기회였을 뿐, 그녀와 나는 서로의 이름도 모르는 채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웃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낸다. 물론 땅 넓은 미국에서 같은 주, 같은 도시, 같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연이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나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고 있는 그녀는 나처럼 한국 여자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그냥 외워지는 얼굴이란 뜻이다. 그만하면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다. 원한다면 말이다.

달려오던 자동차 한 대가 후진하는 그녀의 포드를 보고 속도를 줄이며 다가오다가 중앙선 쪽으로 머리를 기울인 채 멈췄다. 반대편 차도에는 차들이 줄지어 달려오고 있었다. 포드의 엉덩이가 굼뜨게 움직이는 동안 기다리는 차는 세 대로 늘었다. 그 사이 반대편 차도에 차가 뜰해졌다. 기회를 놓칠세라 재빨리 노란 중앙선을 넘어 포드를 추월한 차들은 다시 중앙선을 넘어와 포드에 막혀 한산해진 도로를 달리며 멀어져갔다. 그녀는 브레이크를 밟은 채 꼼작도 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그만 그녀가 안쓰러워진다. 미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후 익숙지 않은 패럴렐 파킹 때문에 진땀을 흘렸던 기억 때문이다. 책에서 보고 외운 그대로 따라 해 보아도 어찌된 영문인지 차는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걸핏하면 도로변 턱에 뒷바퀴를 올려놓았고, 운 좋게 차를 집어넣은 때에도 다른 차들과 함께 일직선을 그리지 않고 몸통이 삼분의 일이나 튀어나와 도로에 요철을 그려놓았다. 주위에 사람이 없을 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후진등이 들어온 내 차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차들이 있을 때는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었다. 빨리 차를 주차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평소보다 더 허둥대기 일쑤였다. 기다리면서 경적 소리도 내지 않는 그 느긋함이 더 부담스러웠다.

언젠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 그 당시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던 42번가 블럭에서 일주일에 한두번씩 차선 하나를 막아놓고는 했는데, 그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다.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공사장 앞을 지나는데, 룩 옛댓 이디엇! 하는 소리가 들렸다. 바리케이드 앞에 모여서 잡담을 하고 있던 공사장 인부들이었다. 그들은 턱짓으로 누군가를 가리키며 쿵쿵거렸다. 그 턱을 눈으로 따라가 보니 어떤 운전자가 직진과 후진을 번갈아 하며 차를 돌리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트래픽콘으로 만들어 놓은 임시 차선을 무시하고 원래 차선을 따라가다가 길이 막혀서 결국 돌아나와야 했던 것이다. 우연일지는 모르지만, 그 운전자가 아시안이었기에 나는 내가 모욕을 받은 것처럼 불쾌했었다. 운전자는 어찌면 트래픽콘으로 그려놓은 차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을지도 모른다. 그때도 경적을 울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이다. 나는 차가 들어갈 자리 앞뒤로 충분한 여유가 있지 않는 한 그곳에다 차를 주차해 보겠다는 모험 따위는 하지 않는다. 경적을 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소리가 안 나는 건 아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손짓으로 차 한 대를 보낸 후 그녀는 차를 앞으로 조금 빼내었다. 얼음이 녹아 싱겨워진 커피를 흘쩍거리며 나도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다.

도로변에 차를 주차하는 걸 보면, 아파트 주차장에 빈자리가 없는 모양이다. 그녀는 분명 대기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놓고 주차장에 자리가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나도 이사온 지 육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자리를 얻었다.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월세에다 추가로 90달러를 더 지불해야 했다. 하지만 시간마다 주차 미터기에 꼬박꼬박 동전을 넣어줘야 한다거나,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몇 블럭 떨어진 곳에다 차를 세워야 하는 불편함을 생각한다면 그리 과한 금액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건 곧 패럴렐 파킹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했다. 이 아파트를 택한 이유 중의 하나였다. 육개월이 아니라 일년이라도 기다릴 수 있었다.

전에 살던 곳은 햇볕이 잘 들어 창가에 화분을 놓아두면 파란 잎이 쭉쭉 올라오고 대문앞 화단에 장미와 라벤더가 무더기로 피어있는 아담한 3층짜리 주택이었다. 공동세탁실이 일층에 있어서 빨래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 성가스러웠지만 오래된 예쁜 집이었다. 마음에 들어 몇년간은 이사를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런데 일층에 도둑이 들었다. 두 번이나. 불안해서 자다가 자꾸 잠이 깨었다. 재계약을 하면 현재 월세에서 50달러를 깎아주겠다고 집주인이 말했지만 사양했다. 근처에 주립대가 있어서 아파트는 많이 있었다. 하지만 막상 이사를 하려고 하니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찾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나도록 이사할 곳을 구하지 못해서 슬슬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다.

그날은 며칠째 내리던 비가 그쳐 모처럼 하늘이 맑은 날이었다. 나는

인터넷에서 찾아낸 임대중인 아파트 주소를 들고 아침 일찍 집을 나왔다. 첫번째, 두번째 모두 신축 아파트였지만 이상하게 내키지 않아서 세번째 아파트를 찾아가려던 참이었다. 횡단보도 건너편에 있는 한 낡은 아파트 입구에 붙어 있는 '임대중'이라는 사인이 눈에 들어왔다. 기대 없이 들어가 보았다. 입주자 대부분이 학생들입니다. 특히 유학생들이 많아 조용합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었지만 멀쩡하지요. 나이 많은 아파트 매니저가 말했다. 갑자기 어디선가 곰팡이 냄새가 나는 듯해서 나는 콧, 하고 헛기침을 했다. 하지만 매니저를 따라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선 나는 내 키만한 창문으로 가득 쏟아져 들어오는 햇빛을 보고는 단번에 계약을 했다. 새로 지은 근처 아파트보다 500달러나 싼 월세에 이미 반쯤 마음이 기울어져 있던 터였다. 게다가 아파트에 딸린 주차장까지 있다는데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월세가 100달러쯤 더 비쌌더라도 주저 없이 계약했을 것이다.

그녀의 포드에 다시 노란등이 켜지고 그녀가 비스듬히 상체를 틀었다. 바로 그때였다. 검정색 토요타 주인이 마치 백마의 기사처럼 깜짝 등장해서는 자신의 흑마를 몰고 말발굽 소리를 내며 사라졌다. 한자리에서 미련스럽게 버티다 보면 저렇게 행운이 찾아오기도 하기에 선조들은 우물을 파려면 한 우물을 파라는 속담을 남겼는지도 모른다. 덕분에 주차 공간은 갑자기 두 배로 넓어졌고 그녀는 미꾸라지처럼 매끄럽게 그 빈자리로 들어갔다. 한 우물을 파는 데 성공한 그녀는 만족한 얼굴로 차에서 내려 미터기에 동전을 넣은 뒤 네 개의 쇼핑봉지를 양손에 나눠 들고 횡단보도를 건넜다.

패럴렐 파킹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동병상련의 안타까움을 느끼는 나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더구나 그녀는 다른

사람도 아닌 218호 여자가 아닌가. 일주일 전쯤인가 느닷없이 찾아와서는 라면 한 그릇을 푹푹 비우고 간 바로 그녀.

### 경주마가 아플 리가 없다.

그녀가 이사를 오던 날, 나는 빵도 우유도 다 떨어지고 냉기만 있는 냉장고에 먹을 것을 넣어주기 위해 길 건너에 있는 슈퍼마켓에 가려고 막 나선 참이었다. 아파트 현관문을 잠그고 돌아서는데, 종이박스를 양손으로 들고 배가 불룩 튀어나온 가방을 어깨에 엮걸어 맨 그녀가 엘리베이터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나는 그녀가 한국인임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반가움과 어색함이 섞인 그녀의 눈길은 순식간에 내 얼굴을 훑고 지나갔다. 그녀 역시 내가 점심에 데워먹은 김치부침개 냄새를 맡았을 것이다. 서로가 공유한 용녀의 흔적을 확인한 후 시선을 외면하기까지는 눈 깜박할 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를 비껴가는 내 시선 속으로 서너걸음 뒤에서 그녀를 따라오던 남자가 들어왔다. 남자는 어깨에 더플백을 걸치고 양손에 큰 가방을 하나씩 들고 있었다.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싶은 순간, 하이! 하고 남자가 인사를 건넸다. 남자의 컷밥에 매달린 은빛 고리가 반짝였다. 하이! 무빙 인? 나는 의례적인 인사에다 이사오는 이웃에 대한 친절함까지 덤으로 보냈다. 남자의 눈이 웃고 있었으므로 나도 조금 웃어주었다. 세 달 전에 그녀와 나는 그렇게 첫 대면식을 치루었다.

그녀는 전체적으로 가늘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키에 군살없이 훌쭉한 몸매다. 얼굴은 볼살이 없어서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이긴 하지만 선이 가름해서 그녀의 서늘한 눈빛과 잘 어울린다. 스키니진이 험령할 정도로 볼품없는 그녀의 엉덩이를 보면 잠깐 기분이 좋아지지만, 소매 밖으로 빠져 나온 그녀의 매끈한 팔뚝을 볼 때마다 울퉁불퉁 살이 찢데다가 탄력

없는 날개까지 달고 있는 내 팔뚝이 떠올라 언짢아진다. 저렇게 말랐다니, 어디 아픈 거 아냐? 하고 뵈죽한 눈으로 흘겨보았지만, 턱을 치켜들고 빠르게 걷는 그녀의 걸음걸이는 ‘켄터키더비’에 참가한 늘씬한 경주마를 연상시킨다. 아플 리가 없다.

거리를 따라 줄지어 들어선 신축 아파트도 많은데 굳이 이곳을 택한 걸 보면 그녀도 커다란 유리창에 몸을 비비다가 비눗방울처럼 영롱하게 부서지는 햇별이 마음에 들었던 것이 틀림없다. 그녀의 아파트는 거리로 향한 창문이 하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스튜디오는 복도 끝에 있어서 남쪽과 서쪽으로 면한 벽 모두에 창문이 있다. 해가 지고 난 뒤에도 푸르스름한 빛이 가득 들어와 한여름에는 저녁 늦게까지 불을 켜지 않아도 환하다. 무엇보다도 마음에 드는 건 고개를 움직이는 대로 밖의 풍경이 훤히 보인다는 것이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소소한 재미는 물론이고, 듣기에도 민망한 욕이 난무하는 싸움이라도 벌어지는 때에는 창 너머로 그 광경을 훑쳐보며 한낮의 줄음을 쫓아내기도 한다. 옆 블럭에서 주말마다 열리는 ‘스트릿마켓’을 구경하는 재미는 더욱 쏠쏠하다. 팝업 레스토랑에서 새우꼬치와 테리야끼치킨으로 점심을 먹은 후, 얇은 밀가루 반죽으로 코끼리 귀를 만들어 기름에 튀겨낸 엘리펀드 이어를 손으로 떼어 먹으며 갖가지 수공예품들을 구경하다 보면 혼자 있는 오후도 금방 지나간다. 그녀와 스트릿마켓에서 마주친 적은 없지만 어쩌면 그녀도 코끼리 귀를 뜯어 먹으며 예전 시골 장터에서 사 먹었던 파배기를 그리워할지도 모른다.

### 우울할 때는 김치에 밥을 비벼 먹었다.

218호 여자가 이 아파트로 처음 이사오던 날도 그랬지만, 그 후로도 나는 그녀와 인사를 나눌 기회가 없었다. 물론 같은 층에 살고 있기에 한 달

이면 서너번씩 얼굴이 마주치기는 했다. 하지만 어쩌다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는 경우에도 멧쩍은 침묵을 견디기 위해 층수를 가리키는 노란 불빛을 신경질적으로 쳐다보고 있다가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둘 중 한 사람이 눈치껏 먼저 내려서는 화난 사람처럼 뒤도 안 돌아보고 걸었다. 모처럼 눈꼬리에 힘을 풀고 눈인사를 하려다가 그녀가 눈길을 피하는 바람에 머쓱해진 뒤로는 눈이 마주치기 전에 내가 먼저 피했다. 하지만 그 일 자체는 그렇게 신경쓸 만한 것이 못 된다. 일주일이면 두세번씩, 218호로부터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들. 내가 궁금한 것은 그 소리의 정체였다.

베니어합판으로 내벽을 처리한 이 아파트는 옆집 텔레비전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방음이 형편없다. 이사와서 한동안은 청각만 발달한 새처럼 예민해져서 잠을 설쳤다. 덕분에 위층 317호에 살고 있는 커플이 새벽 다섯시면 일어나고 매주 금요일이면 밤늦게 욕조에서 물을 빼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래층 117호에 살고 있는 아파트 매니저도 내가 한 밤중에 화장실 가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218호는 주로 스포츠 채널을 틀어놓았는데, 특히 텔레비전에서 야구 경기라도 보여주는 날이면 갑자기 터지는 함성에 깜짝깜짝 놀랐기에 핑곗감에 악- 하고 소리를 지르고 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 나는 쿠션으로 입을 틀어막고 괴성을 질렀다.

나는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다. 풋볼이나 아이스하키처럼 순식간에 공격과 수비가 바뀌는 긴장감도 없고 선수들끼리 벌이는 격렬한 몸싸움을 구경하는 재미도 없으니 금방 지루해진다. 한때 거액의 연봉을 주고 한국에서 영입된 야구선수가 있다길래 잠깐 눈여겨보기는 했지만 곧 시들해졌다. 수백억이라는 돈은 내게는 짐작조차 안 되는 액수이기에 숫자로만 다가올 뿐이어서 지루한 야구 경기가 재미있어지는 건 아니었다. 30평 정도 하는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십억이나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너무 놀라서 언제 그 많은 돈을 모으냐 하고 근심스러웠던 적은 있다. 동그라미 10개가 넘어가면 비현실적인 액수가 되니 그만큼 상대적인 상실감도 덜 느낀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날도 저녁 내내 218호 남자가 내지르는 환호성을 들으며 나는 무기력하게 귀를 내놓고 경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순간 갑자기 쿵! 하는 짹짹한 그러나 제법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그 소리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퍽! 소리와 함께 218호 남자의 목소리가 벽 너머로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단순히 뭔가 바닥으로 떨어진 거러니 했다. 소리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었고, 218호 남자의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사라진 것만으로도 기뻐서 다른 것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그 소리는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불규칙하게 지속적으로 쿵, 쿵, 주방벽을 때렸다. 218호에서 보자면 거실벽이었다. 그쳤는가 싶으면 또다시 벽을 울리는 그 둔탁한 소리는 결국 서서히 내 신경줄을 조이기 시작했다.

이런 경우 흔히들 하듯이 벽을 두세번 두드려 주의를 줄 수도 있었지만 웬지 내키지 않았다. 218호 여자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도 모르는 데다, 혹시 말다툼이라도 벌어진다면 그녀 뒤에 버티고 서 있을 218호 남자의 단단한 어깨가 떠올라 지레 겁이 났기 때문이었다. 그 뒤로도 벽을 때리는 소리는 몇차례 더 계속되었고, 내가 그들의 예의 없음에 화를 내는 대신 소리의 정체가 궁금해지기 시작할 무렵 어느 순간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끝내 소리의 정체를 파악해내지 못한 채 잠이 들었다.

그리고 정확히 이틀 뒤, 예의 그 낮고 둔탁한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주방벽이 아닌 그들의 거실 한가운데쯤인 것 같았다. 다시 이틀 뒤, 삼일 뒤. 정체불명의 소리는 일주일이면 두세번씩 늦은 밤 그렇게 주

방벽을 뚫고 들어와 내가 보는 앞에서 부서졌다.

한번 들리기 시작하면 오분에서 길게는 십분 정도 계속되는 그 소리는 벽에 못을 박는 소리가 아닌 것은 분명했다. 막연히 218호 여자와 남자가 부부싸움을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악을 쓰는 소리라든지 우당탕탕 하고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 같은 건 들리지 않았다. 방음처리가 형편없는 이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들키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두 사람이 싸우고 있을 거라는 상상은 그리 신통한 게 못되었다. 이웃에 대해 배려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벽 너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썩 유쾌하진 않았지만 그 불쾌감은 채 한달도 지나지 않아 흐지부지 사라졌고, 나는 서서히 무뎌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바로 일주일 전쯤, 나의 느슨해진 신경을 날카롭게 후비며 기습처럼 그녀가 들이닥쳤던 것이다.

열두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다. 레인지에 물을 올린 뒤에 1달러 99센트인 신라면 봉지를 뜯어 스프를 꺼내고 냉장고에서 시들어가는 파와 양파를 꺼내어 썰어 놓고는 꼬불꼬불한 라면 부스러기를 집어 먹으며 물이 끓기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누군가가 아파트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아파트 매니저인가? 하고 잠깐 생각했지만 그는 아파트에 관한 모든 업무는 이메일로 처리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후 이즈 잇?”

문밖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약간 긴장한 상태로 문 앞에 서서 문구멍에 눈을 붙이고 내다보았다. 렌즈 안에 들어온 사람은 뜻밖에도 218호 여자였다.

그녀는 내가 렌즈를 통해 내다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들어 보이기까지 했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마치 그녀가 온다는 것을 내가 깜박 잊은 건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들 정도였다.

나는 한 손으로 손잡이를 쥔 채 얼굴이 보일 만큼만 문을 열었다.

“나 알지요? 218호.”

당연하다는 듯이 한국말이었다.

“무슨 일이시죠?”

이런 식의 예기치 않은 방문을 좋아하지 않는 내 목소리는 투명스러웠다.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구…… 아직 점심 전이면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나 할까 하구요.”

그녀가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내밀었다. 비닐봉지에 SAKURA란 글자가 찍혀 있다. 전에 가 본 적이 있는 식당이다. 상호를 보고 일본식당인 줄 알았는데 막상 들어가보니 오징어볶음과 불고기, 고등어 등을 구워 파는 한국식당이였다. 그녀가 내미는 비닐봉지를 받지 않은 채 나는 잠시 멍한 채로 있었다. 그동안 그녀와 나는 수차례 얼굴을 마주쳤지만 형식적인 눈인사조차 나누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점심을 같이 먹자구? 얘기를 하자니? 편치 않은 속마음과는 달리 손잡이를 단단히 쥐고 있던 내 손에서 슬쩍 힘이 빠지려고 했다. 하지만 완전히 긴장을 풀어버리기에는 뭔가 미심쩍었다. 나는 손잡이를 쥔 손에 불끈 힘을 주었다. 시애틀의 한 낡은 아파트에서 나란히 붙어 살고 있는 한국 여자들이라는 그럴싸한 인연이 있을 뿐, 그녀와 나는 아직 서로의 이름조차 모르지 않는가?

“얘기요?”

“그냥 한국말이 하고 싶어서요. 이사 와서 아직 인사도 못 나눴고…… 아까 그쪽이 아파트로 들어오는 거 창문으로 봤어요.”

말을 마친 그녀는, 들어가도 되겠어요? 하는 표정으로 여전히 의심쩍어

하는 내 얼굴을 반히 쳐다보았다. 가까이에서 본 그녀의 눈빛은 의외로 순했다. 거절할 적당한 말을 찾지 못한 나는 어정쩡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하긴 이해 못할 것도 없다. 나도 그랬으니까.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아무라도 붙들고 되는대로 떠들고 싶은 그 채워지지 않는 갈증. 그건 체면이나 내숭 따위의 의례적인 걸치레를 미처 따져보기도 전에 찾아오는 참기 힘든 욕구였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가장 구체적인 모임 장소인 교회조차 나가지 않았던 내가 한국말로 수다를 떨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입 안에 가득 고여있는 한국말을 토해내질 못해서 미칠 것 같다가 우울해졌고 그럴 때면 냉면그릇에 김치를 잔뜩 넣고 밥을 비벼 먹었다. 번기통을 붙잡고 토하는 나를 보며 제이슨은 도대체 뭐가 문제야? 라고 물었다. 영어가 서툴게나마 입에 붙기 시작할 무렵이 돼서야 불쑥불쑥 찾아오던 수다에의 욕구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던 것이다.

난데없이 불쑥 찾아와서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218호 여자도 가슴속에 쌓여가는 말의 무게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워 나를 찾아왔을 거라는 생각에 나는 처음보다 한결 마음이 누그러져 있었다. 그녀와 함께 살고 있는 남자가 할 줄 아는 한국말이라고는 십중팔구 ‘안녕하세요?’가 고작일 것이다. 제이슨도 마찬가지였다.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제이슨입니다. 갈비 좋아합니다. 제이슨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그렇게 인사를 했다. 한국어로 세 문장이나 말을 했다는 게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제이슨의 한국말 실력은 거기서 한걸음도 더 나아가지 않았다. 내가 영어를 익히려고 아등바등하는 동안 제이슨은 한국어 세 문장으로 한국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를 이해하는 데 그 세 문장이면 충분하다고 믿었던 제이슨이 나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했다.

“여기 앉으세요.”

나는 그녀에게 소파를 권하고는 얼른 주방으로 갔다. 냄비뚜껑이 들썩 거릴 정도로 라면물이 펄펄 끓고 있었다. 나는 냄비에 라면 한 개 분량의 물을 더 붓고 나서 다시 거실로 나와 그녀에게 물었다.

“라면 드시겠어요? 라면을 끓이려던 참이었거든요.”

“그래두 되나요? 저, 라면 좋아해요.”

내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거리자 그녀는 소파에서 일어나 내 뒤를 따라와 주방으로 왔다. 거실에서 주방으로 자리를 옮겼다고는 불과 서너걸음에 불과하다.

“별로 준비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앉아 계세요.”

그러자 그녀는 주방 앞에 있는 식탁 의자에 앉아 잠시 실내를 둘러보았다.

“여기는 창문이 두 개 있어서 훨씬 더 좋네요.”

“네.”

나는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고 젓가락을 챙겼다. 컵에 찬물을 따라 그녀 앞에 놓아주었다. 그깟 라면도 음식이라고 거한 손님상을 차리는 것처럼 마음이 바빴다. 다시 물이 끓어오르자 나는 냄비 속에 라면 두 개를 넣고 도마 위에 썰어둔 파와 양파를 넣었다. 그러는 동안 그녀는 줄곧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꼬들꼬들 삶아진 라면을 그릇 두 개에 나눠 담아서 식탁으로 가져왔다. 그녀가 기다렸다는 듯이 봉지 속에서 테이크아웃 박스를 꺼냈다. 김밥과 떡볶이었다. SAKURA에서 이제 김밥하고 떡볶이도 파는 모양이었다.

드세요, 라고 하자 그녀는 나와 눈을 한번 마주친 다음 젓가락으로 라면을 건졌다. 라면을 먹는 동안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먹는 데만 열중했다. 가끔 김밥을 집어 입에 넣은 뒤 국물을 마셨고 매운 떡볶이를 먹으면서 연신 물을 들이켰다. 나는 처음의 어색함도 잊어버리고 떡볶

이 소스에 김밥을 찍어 먹으며 오랜만에 먹는 김밥이 맛있다는 생각을 했다. 마치 허물없는 사이처럼 그녀와 나는 라면을 먹던 젓가락으로 떡볶이를 집어 소스에 퐁퐁렸고 그녀가 사 온 김밥을 한 줄씩 나눠 먹었다.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군지, 미국에 온 지는 얼마나 됐는지, 뭐 그런 사소한 것들을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녀는 내게 그럴 틈을 주지 않았다. 다짜고 짜 물어볼 수는 없었다. 나는 그녀가 먼저 말을 꺼내주길 기다리며 그녀와 보조를 맞춰 젓가락을 놀렸다. 배가 고팠었는지 그녀는 빠르게 그릇을 비워갔다. 그릇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라면 부스러기까지 알뜰히 다 먹고 나서야 그녀는 젓가락을 놓았다. 김밥과 떡볶이가 들어있던 테이크아웃 박스도 깨끗이 비워졌다. 다 먹고 나서 보니 꽤 많은 양이었다.

“덕분에 잘 먹었어요.”

마지막으로 물컵을 비우고 나서야 그녀가 말문을 열었다. 그녀는 빈 그릇과 젓가락을 들고 싱크대로 향했다. 미처 말릴 틈도 없이 그녀는 벌써 거품이 잔뜩 묻은 스펀지를 손에 쥐고 있었다. 나는 빈 테이크아웃 박스를 비닐봉지에 담고 키친타월로 식탁을 닦았다.

“나 이번 가을이면 영주권 나와요. 말 그대로 진짜 영주권.”

“그럼 지금은……?”

“왜 있잖아요, 2년짜리 영주권. 그게 이번 가을에 정식 영주권으로 바뀌거든요. 그때까지만 여기서 살다가 엘에이로 갈 거예요. 거기서 아는 언니가 식당을 크게 하거든요. 주방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데요. 여기 네일숍에서 받는 돈보다 더 많이 주겠데요.”

“……”

“참, 나 네일숍에서 일하는 거 모르죠? 아는 사람 소개로 찾아간 건데, 월급이 너무 적어서 틀렸어요. 손님들이 팁을 주기는 하지만 내가 전부 갖는 것도 아니구. 여기 오기 전에도 그것보다 더 많이 벌었거든요. 남들

은 일주일에 하루 쉬니까 좋다고들 하는데, 좋을 것도 없어요. 쉬면 뭐 어디서 돈이 생기나요? 통장에 있는 돈 까먹기나 하지.”

그녀는 빠른 숨씨로 설거지를 끝내고는 바지 엉덩이께에다 물 묻은 손을 쓱쓱 문지르며 식탁 앞에 와 앉았다. 커피라도 끓이고 싶었지만 아침에 커피통 바닥까지 탈탈 털어 비운 터였다. 뭔가 디저트 할 만한 게 없을까, 하고 냉장고를 들여다보니까 그녀가 눈치를 챘는지 배불러서 더 이상 아무것도 못 먹는다, 고 손을 저었다.

“내가 주책이지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불쑥 찾아와서 점심까지 얻어먹고 이렇게 주절대고 있으니 말예요. 나 가끔 그런 짓 잘해요. 아무나 붙잡고 되는대로 떠들고 싶을 때. 그게 다 여기 와서 생긴 병이에요. 지난번에도 김치 사러 가서는 가게주인 붙들고 실컷 떠들다 왔어요. 갑자기 그놈의 병이 또 도진 거지요 뭐. 영주권 나오면 존하고 그만 살 거예요.”

“네?”

“내 남편 말예요, 존. 그쪽도 얼굴 봤잖아요, 왜? 여기 오기 전부터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어요. 영주권 나오면 헤어지기로. 그동안 생활비는 내가 내고, 서로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피임은 철저히 할 것. 그게 존이 나를 미국으로 데려와 주는 조건이었어요. 다른 건 바라지 않는다구.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하는 걸 해주고 싶다구…… 미국에 오자마자 이천달러 짜리 빗 하나를 갚아줬는데 너무 고마워 하더라구요.”

고마워하는 존의 얼굴을 상상해보았지만, 그의 껌밥에 매달려 있던 은빛 고리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내가 영주권을 받고 일년도 채 지나지 않아 제이슨은 혼자 한국으로 영어강사 자리를 찾아 떠났다. 육개월만에 돌아온 그에게서는 낯선 냄새가 났다.

“그깟 것도 정이랍시고 그 남자 요새 같이 살자고 부쩍 조르는데, 난 싫어요. 살아보니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술만 마셨다 하면 완전히 판

사람이 되거든요. 밖에서 여자들하고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구. 모르죠 뭐. 오로라 도로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스트립클럽이 널렸는데 거기서 노는 건지…… 어차피 내가 신경 쓸 일은 아니지만, 그러다 괜히 몸쓸 병이라도 옮으면 나만 손해잖아요, 안 그래요?”

존에게서 성병이 옮을까 봐 걱정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이었다. 스트립클럽에 가 본 적은 없지만 남자들이 춤을 추는 스트립퍼에게 지폐를 뿌린단지, 스트립퍼가 거의 알몸인 채로 남자의 무릎에 앉아서 춤을 추기도 하는 곳이란 것쯤은 알고 있었다. 그녀의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 위로 존의 얼굴이 오버랩 되었고 그래서 나는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었다. 드러내놓고 호기심을 보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녀와 똑같이 무심한 얼굴을 가장할 수도 없어서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멍청한 표정을 지었다.

“가끔 우리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 들리지 않아요?”

“네?”

“밤중에 무슨 소리 들리지 않나구요. 저번에 매니저가 와서 주의를 주고 갔어요. 사람들이 계속 전화를 한대요, 시끄럽다구. 이웃에게 계속 피해를 주면 임대 규정에 의해 퇴거해야 한다고 경고를 하더라구요. 여기서 잘 안 들리나 보죠?”

“……”

“존이 술주정하는 거예요. 내가 방금 얘기했죠? 그 남자 술만 마시면 이상해진다구. 술 취하면 눈에 띄는 대로 집어 던지는 바람에 깨질만한 건 이제 다 깨졌어요. 손찌검 안 하는 거 보면 신통하다니까요.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도 사실은 쫓겨난 거나 다름없어요. 옆에 살던 사람들이 매니저에게 얼마나 전화를 해뒀던지 나중에는 매니저가 사정을 하더라구요, 제발 나가 달라구. 가을까지는 여기서 눌러있고 싶은데…… 어차피

그때쯤이면 엘에이로 떠나야 하거든요.”

그녀는 식탁 위에 놓인 책상달력을 쳐다보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가 말한 여기라는 곳이 그녀에게 같이 살자고 조르는 술버릇 나쁜 존이 있는 218호인지, 아니면 지금 그녀가 앉아 있는 식탁 앞인지 나는 잠시 궁금해졌다. 그녀는 가을까지 그렇게 내게 계속 수다를 늘어놓고 싶은 얼굴을 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신이 쏟아놓고 있는 말의 홍수를 명청하게 흘려보내고 있는 내 얼굴을 보며 가을까지 머무르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깨달은 걸까.

“점심 잘 먹고 가요. 내가 너무 실례를 했나 봐요?”

“아니에요, 덕분에 저도 맛있게 먹었어요.”

그녀가 가고 나자 나는 삼시간에 피곤이 몰려와 침대에 누웠다. 그녀가 버리고 간 말더미에 짓눌려 체했는지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했다.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 만큼 막역한 사이도 아닌 사람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솔직해질 수 있는지 나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다. 하긴 그녀에게 나는 철저한 타인이었기에, 즉 마음만 먹으면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채 지나쳐 버릴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인지도 모른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열흘만에 다시 218호 여자를 보게된 것이다.

### 당신을 가정폭력법에 의거해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황! 딸깍! 218호 여자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는지 문 닫는 소리가 들려왔다. 오후 여섯시가 넘었지만 창문으로는 여전히 뜨거운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가 빨간 포드를 몰고 다니며, 나만큼이나 패럴렐 파킹이 서툰다는 사실을 나는 오늘 처음 알았다. 기말시험 준비 때문에 지난 일주일 내내 강의노트를 들고 끙끙거렸던 나는 그동안 218호 여자에 관한 생각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녀의 바람둥이 남편 존에 대한

궁금증도, 가을이면 나온다는 그녀의 영주권도, 시험에 대한 긴장으로 잔뜩 부풀어 있는 내 머리 틈을 비집고 들어올 수는 없었다.

주방벽 너머로 물소리가 들리고 그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어제로 모든 시험이 끝나고 육 주간의 방학이 시작되었다. 테이크아웃으로 일찌감치 저녁을 때운 나는 유명작가가 삼 년만에 내놓았다는 소설을 들고 소파에 길게 누웠다.

218호에서 문 닫는 소리가 다시 들리고 곧이어 텔레비전 소리와 함께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름이 존이라는 218호 여자의 남편이 들어온 것이다. 218호 여자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들리지 않았다.

윗층 누군가가 화장실로 걸어가고, 문밖에서는 열쇠뭉치가 절거덕거리는 소리가 났다. 218호에서 켜놓은 텔레비전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왕왕거리고 무언가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자주 들렸지만 이제 내막을 알기에 예전처럼 신경이 쓰이지 않았다. 그리고 한 시간 아니 두 시간쯤 지났을까? 소설 속 주인공이 연인에게 독설을 퍼붓는 장면이 흠뻑 빠져있던 나는 익숙한 소음들 사이로 들리는 낮선 목소리에 스프링처럼 발딱 상체를 일으켰다.

“시애틀 폴리스! 오픈 더 도어!”

경찰이라구? 무슨 일이야? 나는 재빨리 현관문 앞으로 다가가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짙은 검색 경찰복을 입은 두 남자가 218호 문 앞에서 있었다. 테이저가 매달려 있는 허리춤에 한 손을 올려놓고 여차하면 전기충격을 가할 만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까닭 없이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다.

복도에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 서너명이 나와 있었다. 그들처럼 복도로 나가서 대놓고 구경하기에는 나는 소심했다. 그렇다고 궁금증이 없는 건 아니었기에 보조열쇠 체인을 걸어둔 채 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218호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쾅쾅! 쾅쾅!

“시애틀 폴리스!”

얇아하던 노크 소리가 거칠게 바뀌었다.

“도대체 누구야?”

벌컥 문이 열린다 싶더니 218호 남자의 예의 그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들렸다. 텔레비전 소리도 성난 벌떼처럼 따라 나왔다.

“시애틀 경찰입니다. 여기 사십니까?”

“일하는 게 뭐요?”

술기운이 묻어있는 남자의 목소리는 경찰의 방문이 마뜩잖은지 한껏 비틀려 있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존. 존 후리맨.”

“저 사람이 당신의 아내입니까?”

“그렇소.”

218호 여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구경꾼이 늘어났는지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가 잠깐 들렸다.

“아주머니, 티브이를 꺼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키가 작은 대신 어깨가 다부진 경찰이 218호 여자에게 말했다. 공손하고 정중한 목소리였지만, 허리춤에 있는 테이저에 손을 올려놓고 있는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인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다.

복도는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누군가 두어번 마른기침을 했을 뿐, 사람들은 218호 남자와 경찰이 나누는 얘기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침 삼키는 소리도 내지 않았다.

“이웃에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싸웠습니까?”

“천만에! 내가 왜 아내와 싸운단 말이요?”

존의 말을 받아 적고 있는 경찰의 각진 어깨는 존의 대답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절차상 물어본 것에 불과했는지 각진 어깨의 관심은 곧 218호 여자에게로 향했다.

“아주머니, 잠깐 복도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영어를 할 줄 아십니까?”

그녀의 모습이 곧 눈에 들어왔다. 각진 어깨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녀의 영어가 형편없는 건 아니었다.

고무밴드로 엉성하게 머리를 묶은 그녀는 레깅스에 양말을 신고 있었다.

“남편하고 싸우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남편이 당신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까?”

“아니요.”

“밀었다든지 뺨을 때렸다든지 했으면 폭력을 쓴 겁니다.”

“…… 아니요.”

미리 준비라도 해놓은 듯 판에 박힌 목소리로 물어오는 경찰에게 그녀는 아니요 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남편이 때리지 않았다고 말할 때에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그 어떤 김새도 없었다.

그녀의 대답이 만족스럽지 않았는지 각진 어깨는 상체를 기울여 218호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뭐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저 파편들은 뭐니까? 당신이 부순 겁니까?”

218호 안쪽을 기웃거리던 각진 어깨가 존에게 물었다. 아마도 218호 여자가 말한 대로 술버릇 나쁜 존이 또 뭔가를 집어던져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모양이다.

“그래, 내가 그랬소.”

“왜 그랬습니까?”

“왜냐구? 저년이 내 속을 뒤집는 바람에 열이 뻥쳐서 그랬소, 왜? 이제 됐소?”

“진정하세요. 우린 당신을 가정폭력법에 의거해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알아들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단단히 화가 나 있던 218호 남자는 가정폭력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다는 소리에 순한 고양이처럼 가지런히 두손을 모았다.

“존, 아내와 싸우다가 테이블을 부수고 그러다가 핏김에 당신의 아내를 때렸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당신 남편의 말이 사실입니까?”

“네.”

어느새 술기운이 싹 가신 음성으로 손까지 내저으며 허둥대는 존의 곁에서 그녀는 침착하게 서 있었다.

“당신들 말을 믿기로 하죠. 존, 이제 그만 진정하고 잠을 자는 게 좋을 것 같군요. 더 이상 소란을 피웠다가는 당신을 데리고 가야 할 지도 모르니까요.”

“아, 물론이죠. 나도 지금 막 자려던 참입니다.”

“아주머니, 존하고 아무 문제도 없는 거죠?”

“네.”

218호 여자에게 다짐을 한 번 더 받은 경찰은 할 일을 다 했다는 듯 손에 들고 있던 수첩을 주머니에 넣었다. 존은 무엇이 고마운지 경찰에게 땀큐, 하면서 악수를 청했다. 경찰이 떠나고 복도를 향해 열려 있던 문들

이 하나, 둘, 닫혔다. 나도 문을 닫았다.

술버릇 나쁘다던 존은 기어이 한밤중에 경찰의 방문을 받았다. 매니저에게 전화를 해댄다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경찰에 신고를 한 모양이었다.

이곳은 그랬다. 상호 이해가 어긋날 경우 당사자들끼리 서로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기 싸움을 하든지, 그러다가 감정이 격해지면 쌍욕을 날리며 먹살을 틀어쥐고 힘 싸움을 한차례 한 뒤에 해결을 보는 우리 식 방법보다는, 제삼자가 나서서 중재해 주는 쪽을 선호했다. 자신의 권리와 재산은 철저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논리에는 예외가 없었다. 설혹 그것이 같은 건물 안에서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고 있는 이웃이라 할지라도. 이곳에 유난히 변호사가 많은 이유가 그래서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건 이곳 사람들 얘기다. 218호 여자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존은 그렇게 화가 났던 건지, 남편이 폭력을 썼냐는 질문에 왜 218호 여자는 잠깐이나마 머뭇거렸는지, 나는 그런 것들이 궁금했다.

텔레비전 소리도, 존의 우렁우렁한 목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경찰의 충고대로 존은 잠자리에 들었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는 건성으로 책을 펼쳐놓은 채 갑자기 찾아온 고요가 낯설어서 자꾸만 주방벽으로 귀를 모았다. 한밤중에 갑자기 218호 여자가 문을 두드리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뜬금없는 걱정에 나는 가까운 경찰서 전화번호를 찾아 포스트잇에 적어서 냉장고에 붙였다.

### 아직은 여름이다.

경찰이 다녀가고 이주일쯤 지난 뒤에 218호 여자와 존은 짐을 꾸려 떠났다. 그녀가 떠나던 날, 나는 창문 앞에 서서 박스를 옮기고 있는 218호 여자와 존을 지켜보았다. 아쉬움도 후련함도 아닌 묘한 감정이 울컥, 치밀었다. 트렁크 문을 닫고 차에 오르기 전에 그녀가 고개를 들어 아파트

를 올려다보는 순간 나는 엉겁결에 뒷걸음질을 했다. 쫓겨나듯이 떠나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는 것을 그녀가 알게 하고 싶지 않았다.

구월이다. 이제 여름이 다 끝났다고 하는데 믿기지 않는다. 어제만 해도 여전히 기세당당한 여름이 화씨 90°의 뜨거운 입김을 하루종일 불었고 새들은 그늘에서 나오지 않았다. 텔레비전 뉴스를 본 사람들은 이게 다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한마디씩 했다.

더위라면 질색이기에 여름이 지나간다고 하니 어쨌든 반가운 일이다. 더운 것도 더운 거지만 여름과 관련해 그다지 좋은 기억이 없다. 여름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소동이 벌어졌던 적이 여러 번 있었기에 여름이면 누구나 좋아한다는 물놀이도 시큰둥하다. 찻집장에서 해고된 날, 여름비를 쫓따 맞으며 청승을 떨다가 개도 안 걸리는 여름 감기를 호되게 앓은 기억도 있으니 여름이 좋을 리가 없다. 세 줄의 한국말로 나를 키운 한국의 모든 것을 안다고 믿었던 제이슨과 끝내 헤어진 것도 여름이었다. 김밥과 떡볶이를 들고 나를 찾아왔던 218호 여자도 여름에 떠났다.

여름은 짧을수록 좋다.

## 나는 이 땅의 식물이고 싶다

류일복 (중국)

와르릉와르릉, 나를 흔들어 깨우는 요란한 소리에 눈을 떴다. 엇그저께 들던 새소리 따위는 분명 아니었다. 창을 열었다. 네모나게 녹색 바다가 짙은 창으로 더 커진 그 소리는 곧장 내게 달려들었다. 나무숲 사이로 한 사람이 논두렁을 타고 나오면서 예초기를 휘둘러대고 있는 것이 한눈에도 채색 빛깔처럼 선명하게 투영되어왔다. 머리에는 차양 넓은 누런 밀짚모를 쓰고 위에는 회색 반팔 티를 입었으며 무릎다리까지 차오르는 빨간 장화를 신은 왜소한 체구의 아저씨였다.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7시도 채 되지 않은 아침 식전 시간대였다.

조용한 곳을 찾아오느라고 찾아왔는데 여기도 그렇고 그런 곳인가 보다고 곰투덜을 했다. 낮에는 새들이 간단없이 재깁히고 밤에는 개구리가 목쉬도록 극성스러운 건 생똥맞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일부였다. 그러나 인위적인 사람이 만들어내는 소리는 시끌시끌하고 사람 마음을 요상하게 하는 데가 있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언제부터 내겐 부정적이었나 보다. 나는 사람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 때문에 면역력이 뚝러버린 병충이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보니 요양병원 앞게

울을 건너면 바로 무논이 펼쳐졌다.

이내 논은 아침잠만 설쳐놓고 한낮엔 고요했다. 강렬한 낮볕을 피해 저녁나절에야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서 물 조절도 하고 농약도 분사하고 비료도 뿌리고 하는 것이었다. 내가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보다 노출된 실외에서 일하는 그들은 정반대인 일본새였다.

햇살이 뒷산 꼭대기에 올라가 커다란 그늘을 지울 무렵 나는 산책을 나섰다. 얼마 못 가서 길에는 길을 잘못 들어선 지렁이의 사체가 이따금 나왔다. 개미들이 새까맣게 둘러싸고 영차영차 죽은 지렁이한테 매달려 길 밖으로 옮겨내려는 모양이었다. 드디어 기적처럼 지렁이가 움직이고 개미들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수많은 발로 자맥질하듯 발발 기었다. 자기 몸통보다 몇 곱절일 지렁이를 업고 한 해 농사를 치러낼 대단한 모험여행일 것이겠지만 그것은 영구차를 호송하는 듯 장엄해 보여 나는 외면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길가에 무더기로 만개한 하얀 일당귀꽃이 보였다. 일당귀 꽃잎과 뿌리는 약용가치로 다양하게 쓰인다는 들은귀가 있는지라 나는 꽃잎을 채취해서 잘근잘근 씹어 보았다. 조금 달착지근하고 싱그러운 풋내가 입 안 가득 진동했다. 계속 앞으로 직진하자 눈 옆에는 그리 크지 않은 금실 좋은 부부나무라 일컫는 자귀나무가 가지를 요리조리 뺀 사이로 꽃들이 제철을 맞아 활짝 피었다. 하얀 아래쪽으로부터 반쯤 위로 나누어진 분홍 색깔의 꽃잎은 그림을 그리려고 색을 먹인 화필의 털뭉치처럼 다보록이 모여 있다가도 바람이 불 때마다 부챗살처럼 펼쳐져 한들한들 부채질해주는 듯했다. 자귀나무도 약재로 다양하게 쓰인다고 하는데 나는 언제부터 뭘 눈에 뭐가 보이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종작없이 입귀를 찔룩이고 말았다.

별로 높지 않은 산마루가 보이고 길은 s자형으로 에움길이 나오더니 거

기까지 논벌의 행진은 끝났다. 꽤 먼 길을 왔고 몸에 무리다 싶어 돌아섰는데 딱 정면의 산비탈에서 누런 밀짚모에 회색 티의 아저씨가 엎드려 일하고 있는 밭이 보였다. 어디서 보던 분이라는 느낌에 다가가며 머리 회전을 시켜보니 아저씨라고 하기에는 늙숙해 보이는 아침 식전에 보았던 분이었다.

고개인사를 드렸다. 아저씨는 병그레 웃으면서 들깨를 파종할 밭에 거름을 내는 중이라고 했다. 사람을 훈훈하게 다독이는 선한 미소였다.

거시기에서 오셨어라? 그가 아리송한 물음을 던졌다.

거시기? 그게 뭐죠? 나는 머리를 갸우뚱했다.

그는 논벌위로 산기슭에 덩그마니 앉아있는 요양병원 건물 쪽을 턱으로 가리켜 보였다. 나는 바로 그 아랫마을인 방앗골에 살아라. 그제야 나는 머리를 끄덕였다. 내가 하얀 자외선 차단크림을 두텁게 바르고 앞차양이 긴 모자를 꼭 눌러썼는데도 농사꾼의 눈치는 빨랐다.

워매, 젊은 사람이 어찌당가라? 그는 망중한으로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강마르고 초췌해 보이는 내 얼굴이 아마도 맘에 걸리는 모양이었다. 많이 좋아했습니다. 나는 그런 표정들이 싫어서 잘 대답을 안 하는 편인데 오늘따라 무엇에 홀린 듯 깜빡 넘어가고 말았다. 그 얼굴 전체로 넘쳐흐르는 선한 미소 때문이었을까? 우리는 아리송한 문답을 주고받았고 그는 거기까지 더 이상 말을 주문하지 않고 일에 빠져들었다. 퇴비라고 쓴 비닐 자루의 불룩한 중간 부분을 삼으로 꼭 찌르자 대뜸 터지면서 약간 구터분한 냄새가 퍼지고 남청빛 퇴비 가루가 새어 나왔다. 그는 삼으로 그것을 푹푹 떠서 웅덩이처럼 검누런 밭에 여기저기 힘껏 흩뿌렸다.

아저씨가 하는 양을 한참이나 지켜보다가 내가 말을 붙였다. 부지런한 것 같습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 살아. 그는 다시 웃음을 병그레 입가에 머금었다. 할미꽃이 병그는 것 같았다. 연세가 생각보다 많았다. 77

세, 강건했다. 노인이라고 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정정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리자 고령, 여기는 공기도 좋제, 이 나이 먹도록 지금도 아픈 데 없이 일도 팡팡 할 수가 있어 좋아라 하고 신바람 나서 대답했다. 그는 말을 다 해놓고 저 혼자 좋아한 것이 맞는 상황이나는 듯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나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려고 또 뵈겠다고 인사를 드리고 총총히 물러났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자기 마을에 대한 낯선 손님의 방문에 튀김옷을 입혀주려는 본색임을 탁본해냈다. 그 푹푹한 날 것 같은 웃음 하나로 나는 그가 어제 본 이웃같이 그림 그려졌다. 바로 그는 내 뒤통수에 대고 그림을 민게 하는 인사치레를 덤으로 얹어주었기 때문이다. 이쪽으로 잘 나왔어라. 몸조리 잘해서 꼭 자기 생활로 복귀했어라. 흠바람을 먹고 잘 숙성된 듯 털털한 탁성이었다.

도시는 진즉에 시작되었을 무더위가 이 초록색 숲정이에도 헤집고 다니기 시작했다. 신선한 공기를 찾아 열어놓은 창으로 많은 벌레가 기어들어왔다. 발이 여러 개 달린 놈도 있고 머리에 긴 촉수를 단 놈도 있었고 날개가 달린 녀석도 있었다. 밤에 자다가도 몸을 깨물거나 다리에서부터 팬티로 파고들어서 화닥닥 자리를 차고 일어나기도 했다. 그런데 그 다리 긴 방아깨비는 모기장 작은 구멍을 어떻게 뚫고 들어왔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어릴 때 들이나 산길에서 자주 만나던 녀석으로 녀석의 긴 집게발을 활용해 손등에 붙인 채 뒤집어가며 그네를 태우거나 물구나무를 세워 장난쳤었다. 손가락으로 다리를 집어 녀석을 들어 올리자 방아 쪼듯 머리를 까닥거리면서 다리와 함께 꼭 잡고 살을 물어뜯는 것이 전에 하던 귀여운 짓하고 똑같았다. 하여간에 여러 불청객 때문에 다시 두벌잠에 들어도 내겐 성가시지 않고 하나도 징그럽지 않았다. 차라리 소중해지는 것이 별종맛았다. 전에처럼 종이나 장갑을 이용해 꼭 눌러 죽이지 않고 그냥 사부랑 살짝 밖으로 놓아주었다.

조금 어두운 뭉게구름이 오전까지 푸르던 하늘을 말아버린 날씨였다. 비를 머금은 구름으로 때아니게 시원했다. 이번엔 점심 녀에 길을 나갔고 새로운 산책로를 선택했다. 이 시각 도시는 안 봐도 뻔했다. 올여름 따라 열대야가 장기화 된다는 보도가 텔레비전을 통해 장황하게 전해지고 있었다. 조금 가파른 양지쪽에 버려진 지 얼마 안 되는 듯 쑥대가 나기 시작하고 황폐화된 손바닥만큼의 땀기밭이 보였다. 인적이 드물기까지 해서 조금 쓸쓸했다. 이내 그 밭 주인이 되고 싶은 듯 의연하게 빨간 개나리와 노랑 달맞이꽃이 밭머리에 떨기떨기 피어나 잠식시켜주는 것이 눈에 안겨 와 마음이 새뜻해졌다. 치렁치렁 외태머리를 땀아 늘어 놓은 것처럼 밤에만 핀다는 달맞이꽃의 연초록빛 잎들이 열(列)을 지어 줄기 양 옆으로 앙금앙금 노랑꽃 아래까지 뻗어 올라갔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노라니 밭 변두리였음 직한 곳에서도 여기저기 빨간 유실수를 옹기종기 매단 딸기가 수두룩했다. 딸기밭에 가끔 뱀이 나온다는 소리를 들어 알고 있지만 조심히 다가가 한 개 따먹어보니 달디 달아서 계속해서 따먹었다. 이 딸기들이, 이 천연적인 것들을 그대로 품고 싶어 나는 아쉽지 않을 때까지 붙어 서서 오물거렸다.

그리 멀지 않은 실개천 너머에 다시 깔끔하게 정리된 논과 밭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곧 사람을 만날 것 같은 정서에 나는 흥그려웠다. 아니나 다를까. 사람을 만났지만 맹랑했다. 신출귀몰하듯 어제 아침나절에 만났던 곳 하고는 반대 방향인 밭에서 하필이면 또 그 밀짚모 아저씨를 만난 것이 아닌가. 밭머리 길 어귀에 세워져 있는 하늘색 소형 트럭을 보아서 야 의문이 풀렸다. 그는 차로 움직이는 현대식 농부였다. 시골에 사람들이 적다는 건 세상에 기정사실화 되었지만, 사람들이 쉬는 건지 그가 부지런한 건지 여하튼 피하고 싶지 않는 강렬함이 나를 이끌었다. 아저씨가 일하는 곳에는 도로 너머 다리를 건너야 했다. 그 밑으로 흐르는 실

개천은 물을 될수록 저장해서 논에 대주고 있어 흐름이 늦춰지면서 네가 래 수초가 한가득 득세하고 있었다. 넓은 콘크리트 다리 한쪽 편에 밀려난 조선 시대 돌다리가 고풍스럽게 놓여있어 나는 조심조심 그 위로 건너보았다. 푸르텡텡한 녹태를 뒤집어쓴 너비와 길이, 두께가 각 1, 2, 0.3미터 좌우 되는 커다랗고 너부죽한 자연 판석들을 비롯해 돌기둥으로 받쳐져 있는 엄청난 바윗돌까지, 하나도 아니고 13개를, 장비도 마땅치 않았을 그때 상황에서 무슨 껌냥으로 운반해 돌다리를 조성했는지 옛 농부들의 슬기를 재어보는 대목이었다.

대안에 닿은 후 구면인 것처럼 나는 말을 걸었다. 비가 올 것 같은데요. 비가 오기 전에 할 일들을 언능 해놓고 들어 가야제. 곧장 돌아오는 말 맛이 풋풋하게 느껴져 나는 역시 그냥 지나쳐가는 건 아니었구나 하는 마음이 다분했다. 밀짚모 아저씨는 옷나무 주위에 심어놓은 고사리가 다 쇠어서 못 먹으니 밭을 갈아엎고 2모작으로 고구마를 심어볼 요량이었다. 어제 방앗골에 산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던 차라 어떻게 다른 마을 쪽 밭까지 부칠 수 있냐고 물었다. 그는 또 때 묻지 않은 미소를 벉글 벉글 입가에 지어냈다.

사람들이 안 부치려고 해서 내가 임대해부렸어. 여그 말고도 저 짝도 밭이 많으께로. 이렇게 많은 논과 밭들을 부치느라고 힘이 안 드세요? 기양 어렵지 않음만치만 부치는 것이제. 그는 활짝 웃었다. 와, 나는 깜짝 놀랐다. 지금은 부인하고 들어서 2만 평에 달하는 밭과 약재 농장을 경영하고 논 9천 평 이상을 다루고 있는 알부자였다. 그 연세에, 체격에. 나는 다시금 그를 돌아보았다. 허리가 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눈총기가 좋고 얼굴색도 불그죽죽한 것이 건강미가 넘쳤다. 게다가 훌쩍 넘어갈 것 같은 할미꽃 미소가 언제나 질 줄 모르는 얼굴의 아저씨였다.

나는 이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서성거렸다. 마치도 그의 건강 비

결을 캐물어 볼 듯이. 그이도 금번에는 일에 쫓기지 않는지 여유롭게 다리 위에 다리를 드리우고 앉아 한동안 쉬었다. 나도 그 옆에 퍼더버리고 앉노라니 실개천에서 판석을 뚫고 상서로운 기운이 엉덩이를 찌르고 차오르는 듯 했다.

그 가식 없고 살가운 웃음이 좋다고 나는 솔직히 말씀을 드렸다. 아뵘싸, 그는 오히려 그 넉넉한 웃음 때문에 몇 번 당해부렸어 하고 웃었다. 귀가 널려서 남의 말을 잘 믿는 것이 화가 되었다고 했다. 들을수록 이야기 보따리를 꿇맛 좋게 술술 풀어나가는 재주도 있는 아저씨였다. 나는 원체 고향을 일찍 떠나갔고 25여 년 전인가 광주에서 과자 공장도 해보고 철공소도 해보았어라. 과자 공장은 잘 되는 듯 한계 외상놀음에, 철공소는 공부도 퇴깁이 꼬랑지만큼 한계로 현대사회에서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써 감싸하다 보니께 남들한테 싸목싸목 다 떼어부렸어라. 사업을 징허게 이끌어 갈수 없도록 말아먹으께로 내버려뒤틀고, 고나마 고향에 땅을 임대만 하고 팔지 않았던 것이 있었제. 금까 고향에 다시 행차할 수 있었던 게라. 처음에는 농사일을 별반 해보지 않아서 고생을 쟈가 빠지도록 겁나게 했어라. 그때 여그 시골도 예전 같지 않으께로 고도시 다 도시로 들어가 불고 우리 네 외에 2가구만 이곳에 남았어라. 그것도 지금 나이맨치로 두 노인 내외가 사셨는디 그분들한테 가서 품앗이를 하면서 농사일을 배웠어라. 후제 밭과 논을 쪼까 사들임스롱 오늘에 이르렀어라.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도 가득할 원망이나 증오 대신 너무 담담한 혹은 간주곡처럼 살짝 웃음도 곁들인 모습이어서 그의 뒹뒹이가 아니라면 차라리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정도였다. 그래도 운이 좋았고 그렇다고 노력을 안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사람이 착하게 살고 부지런하면 꼭 그만큼 따라오게 되어있다고 했다. 자기를 버리지 않은 귀향만이 살길이었다는 것을 깨도한 듯한 귀감에서는 결국 미련조차 둘 것 없다는 듯 속 한번 후

련하게 선들바람 같은 웃음을 내뿜었다.

나는 오래도록 사그라지지 않는 웃음주머니가 된 얼굴을 바라보았다. 가만 보니 눈도, 코도, 입도, 볼에도 미소가 출렁이는 것이 그는 태어나서부터 웃는 부처상이었는지 모른다는 상상력이 동원돼서 나도 몰래 감염되어 킁킁거리고 말았다. 어제오늘 세 번씩이나 만난 저 타오르는 황혼의 어르신. 우여곡절 많은 인생고를 겪고서도 초연하게 웃음꽃을 피우면서 살아갈 수 있다니. 이야기 나누는 동안 그는 기어이 내게로 와서 웃음이 되었다. 나도 오랜만에 얼굴을 펴고 따라 웃는다는 것임에 느껴왔다. 웃으면 있던 병도 떨어진다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었다. 나의 현실은 웃음 같은 긍정적인 것들을 깡그리 도난당한 지도 한참 되어서 메마르다 못해 짱짱 갈라터지는 가슴 속에 어떻게 웃음샘이 줄줄 흘러나와 적시고 있는지에 스스로도 찌릿했다. 온통 흙 때 묻은 작업복 차림인데도 때를 타지 않는 건 그의 웃음이었다. 나는 더 그의 일손에 방해되지 않으려고 헤어졌지만 맘은 어느덧 그의 웃음을 통째로 소장하고 있었다. 이까짓 것이 뭐라고….

포장도로가 된 마을 입구까지 왔을 때 국지성 호우가 한바탕 콘크리트 바닥을 들쭉들쭉하기 시작했다. 마침 마을 정자가 보여서 그리로 비를 피했다. 비가 그치기를 기다려 앉아서 우썩우썩 자라는 연두색 논들을 이윽고 바라보고 있으려니 힘든 모내기를 하고 나서 정자에 앉아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말미를 얻었을 마을 농사꾼들이 따사로운 한 줌 햇살처럼 뇌리에 비쳤다. 드디어 하늘은 비거스름이로 개서 비가 오지 않을 땐 모르겠던 길바닥이 후끈후끈한 지열이 쭉쭉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다. 하얀 시루떡을 찌고 있는 가마솥 뚜껑을 열자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김처럼 신비롭게도 안개가 만들어져서 길바닥을 이리저리 굽닐었다. 나는 그 하얀 물안개들을 헤쳐 나가면서 걷는 신선이 된 기분으로 몸이 가뜩해졌다.

통통통 통통통 가락 맞은 경운기 소리가 귓전으로 맴돌아 아침잠을 설쳤다. 또 그 아저씨가 싶어 나는 신을 찾아 신고 논틀길로 나갔다. 다른 두 사람이었다. 누런 병거지를 쓴, 이쪽 사람들과는 좀 젊어 보이는 사람 옆에서 얼룩덜룩한 긴 수건을 머리에 덮어쓴 아내인 듯한, 한국 여자라 보이지 않는 여성이 수격수격 일을 거들고 있었다. 나는 내친걸음에 맑은 아침 공기도 마실 겸 그쪽으로 슬슬 다가갔다. 마침 동력 분무기를 등에 메고 한차레 분사를 마쳤는지 그가 논두렁으로 올라섰다. 농사꾼답게 얼굴이 거뭇게 그을렸고 서글서글한 눈매가 인상적이었다. 나보다 서넛 이상인 지천명을 웃돌 것으로 보이는 농부였다. 여성이 그를 도와서 배합된 알갱이 비료를 하얀 분무기통 덮개를 따고 쏟아 부었다. 그 째를 빌어 말을 걸어보기로 했다.

제가 아는 분인가 했더니 아니네요. 누구를 그러지요? 내 귓가에는 이명처럼 때 묻지 않은 너털웃음이 꺾꺾 금방이라도 쏟아지는 듯했다. 웃음이 멋진 아저씨지요. 나는 저도 몰래 중얼거리듯 말했다. 밀짚모자도 쓰고 다녀요. 아, 우리 윗마을 방앗골 김 이장님을 그러시는 것 같군요. 이장님? 네, 이장님이세요. 가장 나이 드신 이장님이지만 정말 나이대접을 받을만한 분이세요. 나는 귀가 솔깃해 맞장구를 쳤다. 네, 맞네요, 너무 좋은 분이더군요. 그는 할 이야기가 많다는 듯 논두렁에 아예 눌러 앉았다. 나는 예의 삼아 말을 건넸다. 일하는데 제가 눈치 없지요? 아, 괜찮습니다. 저도 좀 쉬려고 하던 참이었어요. 그러곤 계속 말을 이어갔다.

김 이장님 같은 분은 정말 농촌서 드물지요. 한마을에 사는 것이 아니어도 논이 아래위에 대인 이웃이고 저의 아버지와 생전에 가깝게 지내서 많이 도움을 받아요. 제가 초보 농사꾼이라. 그러세요? 네, 저는 워낙 도시에서 직장생활 했는데요. 아버지가 2년 전에 돌아가셔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가업을 이어나가야 해서 고향으로 부득불 내려왔어요. 베트남 농

사꾼 출신인 아내도 동의해서 농사일을 시작하긴 했는데 워낙 서투르다 보니 이장님께서 여러모로 걱정이 많아요. 그러시군요. 나는 머리를 끄덕였다. 그이는 지도자 자격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생각을 들려다보듯 병거지가 다시 말을 이었다.

저뿐만 아니에요. 혼자서는 못 사는 법이라면서 이장님이 귀농할 때는 다 떠나가고 2가구뿐이던 마을에 사유지를 싼 가격으로 되팔아가면서 다른 집들도 소개해 들여서 현재 13호로 불렸고 다시 예전처럼 살기 좋은 마을 숲으로 돌려놓는 게 꿈이라네요. 지난해도 이장 선거에서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다시 김 이장님이 이장으로 선출되기도 했지요.

이곳 사람들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하고도 반기고 스스럼없이 이야기를 꺼내주는 게 특징이었다. 구질구질하게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다가가 굳이 중요하지 않았다. 다만 자기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어디까지도 친절할 것 같았다. 그러면 세상은 모든 것이 톱니바퀴가 맞물려 평화롭게 돌아간다는 것을 이곳 농부들이 먼저 알아버린 듯싶었다. 자연 친화적인 환경과 대치되면서도 대치되지 않는 건 그리운 사람과의 대화 하나 뿐이 아닐까 하는 절실함이 들었다. 그만큼 서로 이웃 마을의 사정도 손금 보듯 줄줄이 꿰고 있었다.

이 인근 여러 동네에서 50 안팎인 사람마저 안 많다고 들었는데요? 그는 머리를 끄덕였다. 그래요, 제가 제일 젊은 축이죠. 형씨는 도시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는데 다시 도시로 들어갈 생각은 없나요? 글썄요, 영원한 것은 없나 봐요. 직장보다 자유롭긴 하지만 워낙 농사일이란 것이 고되고 돈이 안 돼서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다시 결정할 거예요. 그러나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노라면 무리는 없다는 것을 김 이장님의 내력에서 귀감, 축적하고 있으니 일단 해보는 데까지 덤벼보는 거지

요. 논은 얼마 안 되고 해서 올해부터 고기소도 사육을 시작했어요. 나는 병거지가 귀농한 것이 어떤 자부심처럼 들렸다. 성공을 미리 축원하듯 벼 이삭이 곧 썰 것 같은 그가 일하던 논밭을 바라보았다.

오늘 무슨 약을 치는가요? 그는 낮은 톤으로 설명하듯 말했다. 아, 이 건 약이 아니고요. 벼의 밥을 주는 거예요. 벼도 벼의 밥을 먹고 우리는 또 쌀을 먹고 살죠. 벼를 잘 자라게 하는 복합비료인 거죠.

범이 자기 흉을 보면 온다더니만 그때 먼발치에서 밖에 트럭이 달려오는 것이 보이더니 길옆에서 멈춰서고 밀짚모가 내려섰다. 나와 병거지, 그의 베트남 아내도 거의 동시에 밀짚모에게 인사를 드렸다. 어찌 쓰까이, 오늘은 술참게 텡다구 하딩마. 밀짚모 아저씨가 금시라도 가을무를 한입 가득 베문 웃음을 쾌청한 공기에 걸걸하게 실어 보낼 듯 인사를 대체했다. 얼굴이 많이 좋아졌당께로. 그가 환히 웃으면서 나를 보고 하는 소리였다. 덕분입니다. 나도 웃음으로 화답했다. 웃을수록 엔도르핀이 팍팍 솟고 무색해진 검은 독소가 피부의 땀구멍에서 비죽비죽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젊은 농사꾼도 틈에 끼어들었다. 제가 그동안 이장님의 도움이 많았다고 자랑하던 중이예요. 자랑은 무슨? 밀짚모 이장은 오히려 병거지를 칭찬했다. 이씨는 영판 오진 효자잉게라. 그제야 나는 병거지가 성이 이씨인 줄을 알았다. 해마다 마을 효자비도 돌보는가 하면 길에서 마을 어른들을 보문 척척 차에 태워서 면 소재지나 시내까지 모셔다드린 당께로. 그약꼬 이씨는 허벌나게 우리 농촌 마을의 미래인데 잘 안착하도록 어찌 안 돕것는가? 우리 자식들도 다 시골서 안 산다꼬 멀리 떠났응께, 이씨가 낫제.

분위기는 자랑찬치처럼 무르익었다. 한마디도 설익은 공치사로 느껴지지 않았다. 한 분은 가장 나이 드신 이장이었고 한 분은 가장 젊은 농사꾼이라 그들 둘로서도 농촌은 얼마든지 이끌어가도록 사기 충천해 보였

다. 또 이들이 함께 서 있게 한 논벌이야말로 될성부른 농촌의 미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제오늘도 논은 영원한 농촌의 주제였고 올해의 밭농사로는 아로니아가 새로운 효자 작물로 떠오르고 있었다.

나이 든 농사꾼이 나이 젊은 농사꾼에게 말해주었다. 쪼까 있으면 이삭이 팠 긴데 도열병 약과 벼잎을 갇아먹고 사는 멸구류 따위의 해충을 방제하는 살초제를 분사할 때는 비례를 잘 맞춰야 쓰것으니 신중해야 할 것이랑께. 그때 나도 약을 칠거이니 같이 해야 쓰것어라. 네. 젊은 농사꾼이 고맙다면서 머리를 주억거렸다.

논벌에는 안개가 잠포록하니 내려앉았고 민들레 하얀 홀씨가 내려앉은 듯 거미줄이 군데군데 쳐져 있었다. 거미줄이 깔따구, 멸구 같은 곤충들을 잡아준다고 하면서 이장님은 병충해하고는 관련 없다고 이야기해주었다. 곧바로 동산으로 일출이 발강게 드러나고 하늘의 은총처럼 돋을별이 포근하게 무논까지 내려오자 논벌 위 거미줄도 하나둘 철수해 어부의 그물처럼 걷어졌다.

젊은 농사꾼이 다시 무거운 동력 분무기를 어깨에 메고 논에 나갔다. 우르릉 굉음을 내면서 토색 검은색 알갱이들이 앞다투어 힘차게 분무기에서 튀어 나갔다. 저만치 무논에서 긴 부리 백로 두 마리가 놀란 듯 짹짹 지어 푸드덕 눈을 박차고 하늘을 날아올랐다.

나는 밀짚모 이장님과 작별을 고하고 흐뭇이 다시 산책로에 올라섰다. 어쩐지 그이가 퇴비를 내던 깨밭이 궁금해져서 그리로 발길을 옮겼다. 옛그제 본 것 같은데 싹누렇게 땅만 흰하던 밭이 푸른 들쭉잎들로 일제히 무릎을 넘어서 짹 찼다. 밤새 달맞이꽃이 피던 것처럼 논도 몰라보게 푸른빛이 짙어갔다가 다시 연해지기 시작했으니 곧 농부들의 기쁨도 누렇게 익어갈 기분 좋은 예감이었다. 경기장 관객들이 즐거운 파도타기를 하듯 층층이 바람에 누웠다 일어설 때마다 우썩우썩 키가 크는 듯한 잎줄

기의 곡선이었다.

하늘은 청청 높아지는 반면에 알락달락한 잠자리들이 헬리콥터처럼 낮게 비행해 내 어깨에 내려앉기도 했다. 어디선가 가을 냄새가 났다. 아니 산에도 논에도 밭에도 숲에도 사람에도 가을 냄새가 다다르고 있었다. 벌써 논두렁 풀을 베던 소리들도 두 번 들려온 것 같다. 이제 한 번만 더 매주면 해건이바람 밑에서 한해 농사의 수확을 점쳐볼 수 있다고 하던 이장님의 고단함을 녹여내는, 막걸리 한잔한 듯 걸판진 목소리가 내 달려오는 상 싶었다. 그만큼 예초기로 한 해 여러 번을 베도록 풀의 생장도 그악스러웠다. 아스팔트 길의 갈라진 틈새로도 풀들이 살겠다고 파랑게 밀고 오르는 생명력은 더욱 기막혔다. 그럴수록 내 걸음은 기운이 차곡해 갔고 나는 듯이 더 빨라졌다. 천연의 자연과 대화할수록 곧 그것들은 나의 온몸과의 대화가 되었다. 끈끈한 왕버드나무 수액처럼 말라비틀어지던 피부에 촉촉이 윤택을 낼수록 자신심이 새로이 악을 쓰고 완만하게 돌아났다.

병거지 이씨가 추석이면 아버지 묘소와 함께 돌본다던 마을 입구에 세워져 있는 “효자전주이공기적비”에서 잠깐 머물렀다. 기적비에는 공은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였는데 부친이 득병하여 위독하자 대소변을 짊어 맛을 봄으로써 약을 지어드렸고 엄동설한에는 잉어 먹기를 위하여 큰 강에 나가 얼음을 깨고 잉어잡기를 계속했더니 잉어가 감동되어 스스로 뛰어나와 잡히더라는 기록이 돋을새김 되었다. 마침맞게 머리를 쳐들어 보니 이공이 부친상을 치르고 6년간이나 시묘를 했다는 잉어등산이 어렵듯이 동녘 하늘 아래 메이고 있었다.

일매진 논벌은 족히 6~7킬로미터는 피꼬리봉을 중심으로 산맥 아래 아늑한 분지처럼 차도와 같이 나란히 기다랗게 드러누웠다. 그 시내로

소통시키는 유일한 포장도로는 갈래갈래 뻗어 나간 가지 같은 잣길로 골짜기들에 진을 치고 있는 4개 마을들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었다. 실개천이 흐르는 마을 주위마다 논 몇 마지가 둘러싸였고 논이 없는 평퍼짐한 산언덕에는 밭들이 고랑을 차고 나갔다. 밭을 일굴 수 없는 완만한 산자락에는 매실이나 밤, 감 같은 과원이 줄레줄레 산허리까지 쫓아 올라갔다. 연둣없이 왕조시대 죽이고 싶지만 죽일 수 없는 죄인들을 마지못해 귀양을 보내는 험한 이 땅에서 숨어 다니면서도 척박한 유배지를 기름진 옥토로 만들었을 선조들의 숨결이 훗훗하게 느껴지는 접점이었다. 좋은 땅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는 옛 조상들의 격언들이 반추되었다.

나는 이번엔 마을로 들어가고 싶어졌다. 애초엔 내 계산속에는 사람들을 만날 타산이 없었는데 그 부지런하고 때 묻지 않은 미소가 눈부신 아저씨를 만나면서 사람에 대한 경계가 암 덩어리처럼 줄어들었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죄라 하는 철두철미한 나의 자의식이 흔들린 꼴이었다. 마을 모두 어르신들을 만났다. 여기서는 가뭄에 콩 나듯 만나던 사람만 반복해서 만나 만사시름 털고 그들과 이말 저말 마주이야기들을 나누었다. 도시에서 직장생활이 주 이야기라면, 이들에겐 주업인 논과 밭 이야기가 전부였다. 하지만 오래된 고향의 잔영처럼 전혀 낯선 감이 없이 푸근했고 정겨웠으며 내 가슴에 내내 꽃혀서는 언제나 뽕주리감처럼 보족한 의미로 오롯했다.

첫 번째 조금 비탈진 언덕에서 애호박을 따는 얼굴이 거무튀튀한 예순 훌쩍 넘는 아저씨를 만났다. 호박들은 왜 간짓대를 세워주지 않을까요 하고 인사치레 삼아 건네자 호박은 심어놓으면 지그들이 알아서 크게, 하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대답해주었다. 호박은 저래 보여도 그 어떤 폭우나 풍랑에도 끄떡없을 정도로 자기 나름대로 사는 방식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나의 손을 꼬잡아 당겼다. 그가 커다란 부채갈

이 넓적한 호박잎을 들쳐 보이고 세 갈래로 뻗기 시작한 줄기마디를 살짝 드려 보이자 그 밑에서 땅에 박은 하얀 뿌리가 보였다. 가장 끝머리 쪽에 있는 호박잎도 들쳐 보이자 요람 속에 숨을 쉴새 고르면서 자고 있는 아기처럼 싱싱한 털복숭이 애호박이 나타났다. 그 밑에서도 갓 난 뿌리 하나가 땅을 박아나가고 있었다. 호박 하나에서도 대물림하듯 원줄기에서 넝쿨이 갈래갈래 뻗어 나가면서 수많은 뿌리를 새로 박고 땅에서 영양분을 섭취하며 자자손손을 낳아 키우듯 의기양양하게 열매를 맺으면서 영역을 거방지게 넓혀가는 것이었다. 그런 호박도 강적을 만날 때가 있다고 했다. 바로 새삼 같은 풀이었다. 새삼은 호박과 반대로 뿌리가 없이 그물망처럼 넝쿨손을 다치는 대로 뻗는다는 것이었다. 톱날같이 생긴 줄기로 마구 뻗처럼 칭칭 감아서는 흡혈귀마냥 피를 빨아먹듯 영양분을 흡입하고 살아 남의 불행으로 자기 행복을 바뀌오는 아주 영악한 독종이었다. 사람에게 유익한 호박이든 해로운 새삼이든 나에겐 다 부질없는 식물이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질기게 살아남는 자기만의 방식 때문에 나는 한없이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 같아 그만 입을 다물고 말았다.

두 번째 마을에서는 한창 잎이 큰 뽕나무에서 오디를 따는 이모님을 만났다. 어디서 오셨어라? 하고 묻기에 엉겁결에 경상북도에서 왔다고 대답하니 먼 곳에서 오셨는데 어여, 맛 좀 보시라. 겁나게 맛있당께. 하며 내 손을 다짜고짜 잡아끈다. 아기 어르듯 조심스레 따 먹으면서 이모님과 한담을 두런두런 주머니 받거니 했다. 오돌토돌하게 돌기된 오디는 검고 토실토실한 애벌레처럼 손바닥을 간질였다. 5년산 오디나무였는데 당도 높아 맛이 일품이다. 맛깔나게 실컷 입질했다 싶어 손바닥 같은 오디 나무 잎을 들치고 나오는데 내 입가가 먹물에 보보한 듯하다며 주름진 이모님은 훌쩍한 입을 호호거렸다. 그이의 안내에 따라 마을 구경을 하는데 울타리도 없는 새빨간 빛깔의 탐스러운 보리수 열매가 나 봐주시오

하듯 내 팔소매를 건드렸다. 군침이 꿀꺽 올라와서 손을 내밀다 그만 움츠리고 말았다. 짜는 우리 꺼 아니제라. 이모님의 한마디가 뒤통수에 꺾딱지처럼 들러붙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니 동네의 많은 집마다 울타리가 없었다. 흙 울타리가 있는 자두, 감, 석류, 사과 같은 녀석이라야 가지 휘게 돌담을 건너왔다. 거의 울타리가 없이 사는 마을에서 나는 금시 내가 가엾어진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배불렀는데도 속보이게 게걸거리는 건 영락없이 손님인 나뿐이었다.

산모퉁이에 가로막혀 끊어질 것 같으면서도 용케도 길은 나타났고 그곳에서도 어김없이 세 번째 농부를 만났다. 밭에서 2모작을 내신다며 비닐을 걷는 고희의 이모님은 허리가 많이 굽은 데다 머리도 호호백발이었다. 이 한적한 시골에 가끔 고시생들도 찾아든다는 정보도 입수했던 터라 고시 공부하러 왔다고 나를 짜깁기했더니 목청도 카랑카랑한 밀양 김씨 이모님은 다짜고짜 칭송맞게 질렸다. 거시기 뭐더라. 사법 고시오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다 하등마는, 큰 사람 되실랑가 하는 것은 좋은디, 나이도 목였을 만큼 목였을 긴데 처자식들은 어찌구, 이 먼 곳까지 징헌 공부고라? 철부지 자식에게 무작위로 내지르는 이모님의 잠언이듯 나는 대답이 궁색해졌다. 괜히 내 몸의 이상 때문에 생말을 지어냈다가 혼쫓만 났다. 내게 가족은 어떤 것이던가.

이모님은 내 상처 따위는 살필 요량 없이 생급스레 자기 이야기부터 늘어놓았다. 우리 애기 셋이 다 대학 나왔는디 거시기 뭐더라, 둘째는 미국 하, 하, 무슨 댐지 잘 생각 안 나는디 어쨌든 질 높은 대학 나왔다요. 그래서 내가 거들었다. 하버드대학일걸요. 맞다요. 그이는 내리사랑에 대한 긍지감이 만면에 가득했다. 이모님은 일찍 너울도 못 쓰고 시집와서 시부모님 모시고 술고래인 남편을 만나 온갖 고생을 했단다. 뒷간의 똥물도 통으로 퍼담아 지고 4~5리 길을 걸어 밭머리에 썩혔다가 거름으로 내주

는 일도 혼자 하셨다고 했다. 고진감래라고 딸들을 공부시킨 보람이 있는데도 일 안 하면 몸이 쭈셔 한시라도 가만있지 못한다고 했다. 그제야 이모님의 쓴소리의 근원이 내 마음에 암전하게 자리 잡아갔다. 마침 처자식 귀한 줄 알고 어여 귀가하라고 또 재촉해서 나는 귀찮아서라도 얼른 그 자리를 떠야 했다. 그러나 마음은 이모님께 동조하고 있었다. 그래요, 저도 그러고 싶당게요. 건강한 육신도, 평범한 가족으로도 안둔하고 싶었던 소망을 행색이 볼품없는 안노인이 시름털털하게 절여주어서 언젠가 맛이 들 것만 같은 내실 있는 결과물에 나는 담백하게 사로잡혔다.

네 번째 마을 안쪽에는 외딴집이 한 채 있었다. 패널건축으로 된 새로 지은 집같이 뜰에는 잔디가 깔끔하게 깔려 있는 가운데 창고 옆 대나무로 만든 평상에는 두 내외분이 애기배추를 다듬고 앉아서 바람을 쐐다.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인사를 건넸더니 커피도 얻어먹고 6.25 전쟁 때의 마을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두 분 다 60여 년 전의 기억이 생생한 그 당시의 목격자들이었다. 아홉 살 때 아랫마을에서 살았던 아내 분은 인민군 차림을 한 군인들이 총부리를 겨누고 마을 사람들을 전부 불러 모았다고 했다. 눈치 빠른 이장님이 앞장서 태극기를 쳐들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동네 사람들도 따라 불러서 겨우 참상을 모면했다. 그러나 남편 분이 살던 마을에서는 군인들이 풀잎 모자를 쓴 인민군 차림을 한 줄 모르고 인민군 만세 한마디를 외쳤다가 그 자리에서 3~40여 명이 전부 총알받이가 되었다고 했다. 당시 12살 난 그는 뒷간에 들어갔다가 겁나서 나오지도 못하고 문틈으로 내다보는 것으로 목숨을 부지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 4개 마을 사람들이 빨치산을 따라 더러 입산하면서 서로를 의심하고 울타리를 높이는 등 흥흥한 세월이 되었다. 결국 주변 마을까지 빨치산들의 활동무대로 삼는다는 미명하에 모두 불을 질러 집들이 전소되고 초토화되어 누구라 할 것 없이 근 2~3년 동안 방랑 생활

을 해야 했다. 집과 가족을 잃은 남편 분은 이웃의 중매로 그때의 상흔에 공감하는 동정심 많은 아내 분을 만나서 새 가족을 이루게 되었다. 생과사의 나들목에서 피땀으로 빚은 행복은 부부애가 해냈다. 그 후 두 분은 아들딸 넷을 낳아 시집장가 보내는 한편 광주에 가서 건축업에 매진했으며 만년을 고향에서 보내려고 지난해 새집을 짓고 들어왔다고 했다.

6.25 때는 서로를 경계하고 더 높은 담장을 세웠을 그들의 마당 너른 집도 울타리가 없었다. 마당가에는 파란 잎 가장자리가 하얀, 잎이 꽃처럼 보이는 고결한 설악초 외에 조림 수목들을 울긋불긋 앙증맞게 기르고 있었고 텃밭에는 수줍은 듯 짙은 남색의 도라지꽃 같은 약초들을 재배하고 있었다. 현대식 가전제품이 알맞게 배열된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안팎살림 모든 게 없는 것이 없는 통 털어 내가 꿈꾸던 도화원 생활을 자귀나무꽃 같은 그들 부부가 현재 누리고 있었다. 4개 마을에서 만나본 평균 연령대는 70세 이상이었고 남의나이를 사는 분도 적지 않았다. 저마다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두꺼운 책으로 쓸 분량이라고 말씀들 하면서도 똑같이 지난한 세월에 대해 자조적이거나 한탄과 후회가 없었고 지금은 많이 살기 좋아졌다고만 했다. 그렇다고 해서 다가오는 내일에 대해 아쉬워하지도 않았다. 그저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그들 앞에서 감히 하찮은 숨통이라고 깔값 먼 나 스스로가 얼마나 하릴없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인가를 절감하게 되는 시점이었다.

가구 수랏야 총망라해서 80호에도 못 미치는 마을들은 이미 전원생활을 하고 있거나 연세가 많아 논과 밭을 다룰 수 없어 내놓은 집들이 태반이었다. 어지간한 도시 직장인의 한 달 월급이면 논 10마지기 다루는 1년 수입과 맞먹는다고 하니 안타까운 계산속이 아닐 수 없었다. 전에는 학교도 있고 식당과 슈퍼도 있었지만 명징하던 애 웅알이가 사라지고 시골벽적하던 젊은이들이 다 떠나가면서 부득불 문을 닫아진 짹짹해진

진풍경이었다. 그것도 오래전 일이 되었다고 했다. 오래되는 것들과 사라지는 것들은 어찌 그뿐이겠는가. 마을들에 빈 집터와 폐가들도 가끔 보여 우리 연변 고향 농촌과 다를 바 없었다. 어떤 공터에는 국가 소유지라는 팻말이 언감생심 범접하지 말라는 듯 말뚝 깊숙이 박혀 있었다. 이곳 몇십 리 인근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사 가는 가구들의 집과 터전을 개인 매매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국가가 매입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나는 마을을 걸칠 때마다 뒷산을 타고 내려오는 바람살을 걸러주었을 바람벽같이 촘촘히 도열해 있는 역센 대나무군락들과 마을과 연륜을 대대손손 공조해왔을, 울퉁불퉁 옹이가 상처처럼 박힌 노거수 느티나무들에서 시원하게 땀을 들였다. 나를 위한 피톤치드가 시골 곳곳에 누적되어서 아름답기로 겨안아 가기만을 기다리는 듯 은혜로운 것에 내가 갇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다. 내 몸은 나무숲에서 자유자재로 뛰어노는 앙증맞은 청설모처럼 토실토실 살이 오르고 조금씩 바깥으로 몸 깊이 달라붙었던 병균들이 끄집어 걸러 나가는 느낌에 살맛 나는데 어쩐지 마음은 차츰 돌팔이 원예사로서의 막중한 설계를 떠안은 듯 그리 짐스럽고 새침해졌다.

나는 303호 버스를 타려고 요양병원 정류장에 나와 있다. 중학교 입학 을 앞둔 아들 녀석이 여름방학을 빌어 오늘 아빠 보러 인천공항으로 입국한다. 짜아식, 그래도 다 컸다고 혼자 비행기를 타고. 그것보단 당당하게 아들 녀석을 맞을 수 있는 내 체면과 빨리도 회복된 몸에 대한 기쁨이었다. 서울보다 먼저 지금까지 있어 본 적 없는 경이의 생명력을 체화한 이 땅을 아들과 여행하는 대로 곧 제 생활권으로 복귀할 타산이었다.

간이 나를 괴롭게 했던 시간은 그리 오래지 않았다. 한때 간이 콩알만

하게 했던 나는 간암 2기였다. 큰 병원에 가서 재검사해보니 간 기능이 정상 수치를 회복하고 있었고 이대로 쪽 나간다면 다시 재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교수의 설명도 가쁘하게 듣고 왔다.

나는 중국에서 제 노릇 못하는 백수로 살다가 아내와 이혼하고 난 후 한국으로 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험한 일을 견디면서 닥치는 대로 해나갔다. 일보다 더 힘든 것은 그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멸시와 차별이었다. 일을 마치고 귀가하면 열패감에 술을 마셨다. 어중이 떠중이들과 어우렁터우렁 먹고 마시고 나서 간 빼먹고 등 쳐먹는 사람들 이라는데 실망한 건 나중의 일이었다. 그걸 또 혼자 삭이려고 마실 때도 적지 않았고 아비 없는 불쌍한 아들 녀석과 막연한 집 생각에 쓸쓸해져서 이래저래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이 아주 고질이 되었다. 취하지 않고 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세상이었다. 술이 술을 청해 매일 미친 듯이 술을 마셨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와 한국 소주는 술이 아닌 듯 아예 중국 슈퍼에 가서 독한 배갈을 사다가 마셨다. 아무런 연고도 없고 그 누가 들여다보아 주지도 않는 곳에서 신세타령을 하다가 결국 간이 나를 불쌍하게 할 줄은 몰랐다. 술이 이젠 간을 마셨고 내가 나를 파괴했다. 결국 나는 간이 처절히 쫓아갔고 납산만 한 배를 끌고 큰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배에 찬 밑도 끝도 없는 물을 뽑아내고 간 절제술을 받았다. 담당 교수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지만, 몸조리도 아주 중요하다고 신신당부했다. 충분한 휴식과 피로회복 운동, 간 건강 회복에 좋은 맑은 공기 마시기 등을 알려 주었다. 그럼에도 절대 금물인 술 생각이 또 다른 재발의 제목처럼 식겁하게 다가왔다. 간에 기별도 없이 매일 마시던 냄새를 못 맡으니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다. 입술을 피나게 깨물고 머리를 주먹으로 쥐어박을 때뿐 간이 타기만 했다. 다시 물이 새듯 술 생각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엔 차라리 술을 진탕 마시고 자살할

까도 생각해봤다. 그러면 간이 통곡할 것 같았다. 더 이상 술을 끊지 않으면 다시 벼랑 끝으로 몰릴 절박한 상황이었다. 나는 내 고향이 아닌 이 땅에서 지지리도 공상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는 없었다. 나는 50도 안 되는 황금기였다. 강산도 바뀐다는 10여 년 세월 동안 한국에서 죽을 등살 등 일하고 나서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거면 돈을 벌어서 뭐 하나 하는 처절한 생각이 들었다. 돈을 다 써버리고 죽든지 살든지 그래야만 결과는 원 없을 것 같았다.

나는 가장 좋다는 요양병원을 찾아보았고 술을 완전히 끊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다. 그러다 전라남도 화순과 담양 어귀에 끼어있는 깊고 한적한 시골 요양병원에 눈길을 돌리게 되었다. 자연 친화적인 치료법을 결부해 간암 환자가 호전되었다는 기사가 마음에 끌렸다. 도시에 없는 쪽쪽 뻗은 대나무 숲과 시골 정취가 물씬 묻어나는 요양병원 배경 사진을 컴퓨터 홈페이지로 들여다보면서 연락을 취했다. 술을 마셔서 좋을 것이 없는 줄 알면서도 마시게 되는 알코올 중독의 마법을 제거하는 과정 자체가 혹독한 형벌을 내리는 의지의 실험이니, 그 버틸 수 있는 최후의 방책인 의지에 도움 주는 회복으로부터 시도될 것이라는 보호사의 보태지 않는 넉넉한 상담을 통해 나는 이튿날로 길을 조였다.

요양병원에 짐을 부려놓자마자 나는 의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곧바로 참여했고 우선 발맘발맘 걷기 운동부터 시작했다. 새삼 같은 독소를 악착같이 싸워 뿌리 뽑아볼 작심이었다. 이 하찮은 풀도 자기 삶을 지키는 질긴 길이 있는데 나라고 못 살아보겠나 하는 요령이 필연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이었다. 술이 생각날 때마다 숲길이자 마을 길을 걷고 또 걷고 무진장 걸었다. 모든 것이 다 짜 맞춰져 있는 듯 시골길에는 나의 술기를 유혹하고 유발하는 식당과 슈퍼마저 없었다. 요양보호사의 지도에 따라 약재를 깃들인 식이요법에 새알뽑재기만큼의 희망을 엮고 술에 대

한 간절한 잔재를 감냥감냥 발효시켜나갔다. 꼭 이겨야겠다는 단심가가 드디어 나를 이 땅의 일초일목과 사람에까지도 악착스레 융화되게 했다. 어쩌다 보니 경북사람 티를 내었지만 나는 이곳에 와서 협동이란 권리를 덤으로 얻었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도 권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도시와 다른 사람들에게서 싱그러운 향기가 풀 자라듯이 났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끈끈한 식물처럼 짱짱하고 장수하나 보다. 김 이장님부터 봐도 그랬다. 사람이 웃고 사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내 몸이 대뜸 알고 반응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웃을수록 간이 좋아죽겠다는 듯 뭉어지는 신선함이었다. 눅눅하고 기름진 땅에서 내뿜는 공기를 한입 또 한입 가득 삼킬수록 나의 딱딱하고 굳어버린 간은 말랑말랑하고도 부드럽게 마사지를 받는 듯한 감격의 씨앗에 부풀었다. 나는 그 정벌의 노정을 알기 위하여 5개월 동안 정해진 한 정점에서 어느 정점까지 걸어 나가던 데로부터 호박잎처럼 영역을 넓혀 해남 땅끝 농촌 마을까지 발품을 들였다. 그 길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을 만났다. 도시에서 짜증났던 사람들이 시골이 서서히 좋아지게 만드는, 술 세계와 판이한 살맛 나게 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강력한 주술에 나는 걸려 있었다.

요양병원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손을 위로 뻗어 벗나무의 버찌를 따 먹었는데 벌써 열매는 다 떨어지고 그 아래로는 꼬리를 짓는 듯 허벅지를 간질이는 강아지풀과 겨꾸내기로 키 견주는 코스모스 코스모스꽃들이 산들바람에 하늘거리는 시야가 풍요로웠다. 지는 것은 그뿐이 아니었다. 시간이 조금씩 다를 뿐 모든 철다툼의 꽃도 화려함의 한철, 그해의 것은 그해에 지게 되어있다. 그 계절에 순응하고 융화를 받아들이면 내년에 또 더 예쁘고 더 많은 꽃으로 피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일 것이었다. 더 욕심을 내고 많이 가지려고 질서를 가로지르고 궤도를 이탈하는 그때부터 욕탈이 다가오는 불가항력적인 원리를 물리칠 수 없음임을.

내가 도시에서 벗어날수록 시골로의 길을 단축시켜내는 소통버스에 오 불꼬불 들척대면서 들어서던 때가 엇그제같이 아쉽다. 전라도는 언젠가 한 번 가보고 싶은 땅이었다.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한국 전역을 안 가본 데가 없었다. 그 와중 전라도만은 적당한 직장도 없고 인연이 닿지 않아 시종 갈 기회가 없었다. 내가 아는 전라도는 백제가 신라에 통합되고 그 결정판의 싸움에서 유명한 연개소문 장군의 아까운 최후를 읽은 역사의 정도에서부터 대통령 직선제로도 경상도와 전라도의 지지율에서 빛나는 각진 차이로 매우기 어려운 갈등의 골을 가늠해보는 정도까지였다.

버스가 정류장에 와 멈추었으므로 나는 오르면서 순간적으로 피꼬리봉을 쳐다보았다. 소소리 높은 산봉에는 6.25 암야의 밤이면 “빨치산”들이 지핀 모닥불이 반히 쳐다보였다는 그 험악한 곳에 아직도 어릴 적 두만강 건너에서 보았던 군인들이 숨어있는 듯 착각되었다. 내 배꼽 떨어진 벽지마을에서 강 하나를 건너면 바로 닿는 저 대안은 어떨까, 그 땅에서 뭘 놀 것이 있을까 궁금한 나머지 한번은 아이들과 헤엄쳐 건너갔다. 어디선가 난데없이 아래위 연녹색 복장을 한 군인이 긴 장총을 둘러메고 나타나서 호령했다. 야야, 돌아가, 아새끼들이 겁도 없이. 그냥 한번 어떤 땅인가 와봤습다. 땅이야 다 똑같은 땅이지비 다를 게 있겠냐. 그러나 섬기는 조국이 다르지 않느냐. 맘대로 건너오면 안 된다카이. 얼씨덩 돌아가라. 죽어 자빠지는 수도 있으니. 그가 근엄한 얼굴로 쫓았기에 우리는 다시 두만강 물살을 헤가르며 돌아왔다. 그때 우리는 나라가 다르지만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그 군인 아저씨에 하나도 간이 서늘해 나지 않았다. 그런데 6.25 전쟁 때 내가 서 있는 이 땅에 내가 먹고 자는 이 땅에서 좌우익의 다툼에 많은 무고하고 선량한 주민들만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고장이라고 듣는 순간에 간이 쓰라렸다. 이 땅도 똑같은 땅, 한나라 분단의 비극도 서러운데 아직도 수시로 위협을 받고 있는 동족상잔은 더

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되었다.

나를 실은 버스가 다른 세계로 향하듯 정든 마을을 등지기 시작했다. 범죄가 없는 마을로 물갈이해내기까지, 살기 좋은 오늘만 화제 삼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필마단창 마을 숲으로 되살리려고 애쓰고 있는 건 밀짚모 이장님이었다. 청년 일자리를 향한 젊은 부부 귀농을 장려하고 그들 속에서 보시시 나비잠에서 웃는, 깨물어주고 싶은 새 생명의 표정이 이 땅에서 행복한 기적이 일어남은 한낱의 꿈일까? 밀짚모 이장님의 말마따나 이씨가 마지막 농사를 짓는 잔여 세대가 아니라 이 농촌 마을의 재구성의 미래가 되어야 할 것이었다. 적어도 그 먼 훗날에도 저 아름다운 효자비를 기리고 조상들의 산소의 풀을 베어줄 이가 걱정되는 땅이 고심되지 않을 것이어야 하지 않는가?

나는 식물이 되어 이 땅에 남겨지고 싶다. 논에 가서 찰랑찰랑 벼가 되고 싶고 밭에 가서 알콩달콩 콩이 되고 싶고 뜰에 가서 송이송이 꽃이 되고 싶다. 풀이든 나무든 식물이라면 뭐든지 천년만년 질기게 살아남아서 아름다운 이 강산의 표식이 되고 싶다. 사노라면 그 언젠가는 똑같은 사람들이 하나의 땅의 주인으로 회귀하는 원점의 그 날을 맞아 실질적으로 이 땅이 변영하는, 다시없는 복락을 누리는 그때 나는 현대판 산증인이지 않을까?

## 가 작

# 응급약

지병림 (카타르)

항공사에 입사한 건 순전히 엄마 때문이었다. 유치원 다니던 나를 두고 떠나버린 엄마를 되돌리려면 꼭 항공사에 입사해야 했다. 고모들에 따르면 엄마는 지구 반대편으로 떠나 전혀 다른 삶을 아무지게 일궈냈다. 새 남자를 만나 보란 듯이 팔자를 고쳤다고 했다. 그런 소리를 늘어놓는 고모들은 하나같이 엄마를 양큼한 불여우에 빗댔고, 자식새끼 핑개치고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겠다는 심산을 드러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우리가 오손도손 살던 붉은 기와집에 엄마를 데려다 놓으리라 다짐해왔다. 엄마가 나를 그렇게 쉽게 버릴 사람이 아니라는 건 자식인 내가 장담할 수 있었다. 승무원이 되어 지구 반대편을 내 집 앞마당처럼 드나들게만 되면 반드시 엄마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직업 군인이었던 아버지는 엄마가 떠난 후 새 아내를 맞으려고 노력했지만 누구와도 성사되지 않았다. 특하면 전처와 형실머리나 비교당하면서 순종적인 아내상을 강요받는 오묘한 상황을 아무도 견뎌내지 못했다. 아버지와 같은 처지의 여자들과는 꼭 각자의 자식들 문제가 화근이 되

었다. 전처소생인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도 굳이 본인이 낳은 자식을 아버지가 기꺼이 거둬주길 희망했다. 여자들은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제 자식을 향한 강한 모성애를 드러내서 아버지를 질리게 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는 엄마 역시 비록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나 가슴 깊은 속에서 나를 키우고 있을 거라는 믿음을 굳혔다.

환갑을 한참이나 넘긴 아버지의 곁을 지키는 것은 전역한 아버지의 옛 동료에게서 분양받은 셰퍼드 한 마리뿐이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고마움을 모르고 개 밥그릇 한 번 깨끗이 닦아주지 않는다. 나머지 외항사로 취업하여 집을 떠나게 되면서 아버지는 손수 자신의 식사를 챙기는 신세가 되었다. 초로의 아버지는 홀로 남겨졌다. 언젠가부터 그래도 네 엄마가 미인상에 키도 큰 데다 가방끈도 제법 길었다며 그리워했다. 아버지는 결국 엄마에게 졌다. 그것이 아버지의 운명이라고 단정 짓자 안쓰럽게 느껴졌다. 안타깝게도 엄마가 언젠가 손발이 닳도록 빌며 돌아올 거란 상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더없이 가엾고 불쌍했다. 엄마는 한 번도 우리를 찾지 않았다. 나는 고모 손을 잡고 초등학교 입학식에 참석했고, 소풍이나 야유회 때 김밥도 제대로 못 챙겨 다니는 천덕꾸러기로 자랐다. 서른이 넘도록 엄마의 그림자는 먼발치에서조차 구경하지 못했다.

고모들은 쉬쉬했지만 나는 엄마의 행방을 스스로 수소문해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수백 명의 '이숙희'를 페이스북에서 찾아 일일이 확인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앓은 자리에서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일이었다. 더욱이 엄마는 타인의 귀감으로 성장한 인물이 아닌가. 엄마는 뉴질랜드에서도 꽤 저명한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었다. 선불리 확신할 수 없을 만큼 엄마는 반듯하게 살고 있었다. '수잔'이라는 영문 이름에 외국

인 남편의 성까지 쓰고 있었지만 미들네임에 선명하게 박혀있는 '숙희'로 엄마란 걸 확신했다. 심리상담에 관한 블로그까지 운영하고 있었는데, 주로 이민가정의 사춘기 청소년이나 입양아, 혼혈아동들의 정체성을 다루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다. 강의를 하거나 듬직한 남편의 팔에 감겨 혼혈 여자아이들의 어깨를 어루만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 엄마였다.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자니 점처럼 작게 소멸하는 내 모습이 보였다. 너무 행복하고 안정되어 보여서 이제 와서 굳이 엄마 앞에 나타나는 평생의 계획이 부끄러울 정도였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엄마의 블로그에 올라오는 글들을 읽고 똑같은 사진을 수십 번도 더 들여다보면서 엄마를 느꼈다. 기필코 저 노린내 나는 코쟁이들 틈에서 엄마를 빼내와 우리의 삶을 완성하는 것 외에 행복해질 방도가 달리 없었다.

비행을 하면서 수중에 돈이 모이기 시작했다. 아버지 앞으로 떨어지는 자그마한 연금에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가장 만족스러웠다. 아버지마저 날 버렸더라면 지금의 난 없었을 것이다. 홀로 나를 키우면서 아직도 떠난 엄마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제 와 생각해보니 순정이지 미련이나 집착이 아니었다. 첫 월급으로 아버지의 잠옷을 사드리고, 남은 돈으로 엄마를 만나는 날 입을 각테일 원피스와 구두를 장만했다. 절대로 만만해 보여선 안 된다. 이제 어엿한 숙녀가 되었으니 어른스럽게 엄마를 만나 용건을 전달할 생각이었다. 신파극에서처럼 과갓값이나 쥐어 돌려보내지 않도록 반듯하게 차려입고 갈 것이다. 시간이 더해갈수록 점점 두려워지는 것은 엄마가 날 잊어버릴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든 정해진 약속이든 꼭 만나야 한다. 기내 화장실 문 앞에서 두리번거리는 동양 아줌마나 비즈니스 클래스에 앉아 나를 호출하는 우아한 중년의 사모님들 틈에서 나는 늘 엄마를 찾아 헤맸다.

- 엄마? 저 윤이예요.-

누군가의 장난처럼 엄마의 블로그에 쪽지를 남겼다. 내 이름을 기억한다면 짧은 물음에도 답을 주리라 믿고 한없이 기다렸다. 무려 달포가 지나야 답장이 돌아왔다.

-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면, 한국에 단 한 명밖에 없는데, 설마!-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엄마는 열심히 살아왔다고 변명했다. 엄마의 사회적 성공과 안정된 가정은 모두 나를 위해서란 말처럼 들렸다. 그 안으로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는 나를 향해 엄마는 이기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엄마가 내게 답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자식을 돌이나 새로 낳아 키우면서 번듯한 가정을 꾸렸든 말든 엄마만 빼내오면 모두 거품처럼 사라질 현실이라고 믿었다. 엄마, 전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의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나는 애써 덤덤하게 말했다. 많이 컸겠구나! 너무 보고 싶어요. 마침내 용건을 털어놓자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마침내 엄마를 만나러 뉴질랜드로 가는 비행이 있는 날이다. 밤새 가슴이 뛰며 한숨도 못 잤다. 마침내 함지박만 한 배를 앞세우며 들어서는 임산부를 시작으로 탑승이 시작되었다. 7개월쯤 됐다고 전했다. 승객의 팔을 양손으로 부축하여 자리로 안내했다. 비행기는 점프하듯 이륙하여 마침내 정상 궤도에 진입했다. 낮아진 기압으로 금세 허기를 느낀 승객들은 출출한 속을 달래기 위해 마실 음료와 주전부리를 찾아냈다. 식사가 시작되자 기내는 입을 오물거리며 바삐 음식물을 삼키는 소리로 가득하다. 주스와 물을 더 달라는 사람들이 기다리다 못해 스스로 카트를 향해 손을 뻗었다. 서비스를 끝내고, 기내 조명을 소등했다. 불이 꺼지기 무섭

게 승객들은 마법에 걸리듯 일제히 고개를 떨군다. 영화를 보다 창밖의 별을 감상하다 결국 고단해져 잠이 든다.

조종실에 앉아 내내 정면을 향해 앉은 조종사들의 식사를 챙긴다. 화장실을 가는 일 외에 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그들은 앉아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먹거나 매뉴얼을 뒤적거리며 오로지 두뇌만 움직였다. 점점 살이 불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체구가 작은 조종사를 보면 무언가 결핍되어 보일 정도였다. 조종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린다. 조종석 뒷좌석에 앉아 정면에 훤히 드러난 달을 바라본다. 이 설렘을 누구 한 사람에게 털어놓고 싶었다. 같은 회사에 근무하지만 이 비행 이후 언제 볼지 모를 사람들이었으므로 나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다. 오کل랜드에 도착하면 뭘 하실 거예요? 기장은 고개를 끄덕이다 쇼핑몰에 들러 미리 봐 둔 카메라를 한 대 고를 생각이라고 했다. 부기장은 이혼하고 전처 손에 맡긴 아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갈 계획이라고 서슴없이 말했다. 이혼한 전처가 재혼을 하면서 이제 새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된 아들을 돌연 빼앗긴 기분이 드는지 부기장은 아들을 만날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어조로 말했다. 나도 오کل랜드에 있는 가족을 만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기장이 관심을 보이며 고개를 좌측으로 살짝 돌려 내 얼굴을 들여다봤다. 오کل랜드에 엄마가 있어요. 그 말을 하는 내 어깨에 살포시 바람이 실렸다. 오کل랜드의 하늘은 그림처럼 파랗게 물들어 솜사탕 같은 구름을 쉽 없이 토해놓을 것이다. 그 하늘 아래 엄마가 서 있겠지? 엄마가 정말 나와 줄까? 호텔 로비에 슈트 케이스를 끌고 들어서는 순간 엄마가 나를 단번에 알아볼까? 달려가 얼싸안고 반겨야 할까. 아니면 45도 각도로 깎듯하게 인사를 올려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자존심을 차릴 생각을 하는 건 사실 엄마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었다. 어떤 분일지, 어떻게 변했을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었다. 화장실에 홀로 들어서자 눈시울이 붉어졌다. 집을 나서기 전 카톡 제목을 12, 13, 14 오클랜드로 바꿔놓았다. 엄마가 이걸 본다면, 먼저 말을 걸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엄마니까.... 엄마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아니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아니면 아무런 문자도 없이, 약속한 내용 그대로 호텔 로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비즈니스, 이코노미 할 것 없이 만석이었다. 처자식을 비롯한 아이들의 부모들은 이코노미석에 남겨둔 채 홀로 비즈니스석을 꿰찬 중년 신사 하나가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두 시간 간격으로 일반석의 아이들을 차례대로 불러들여 두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자도록 하는 것이었다. 가족이 돌아가며 승객의 좌석을 이용하는 동안 남자는 곁을 지키고 서 있다. 흔히 있는 일이었으므로 이런 부류의 승객에 대처하는 방법도 알고 있었다. 일단은 정중한 자세로 제안을 하나 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승객들을 불편하게 하느니 남은 가족이 머물고 있는 일반석으로 가시라고 말이다. 그러자 남자는 정색을 했다. 문득 아버지가 떠올랐다. 아버지는 하나 남은 달걀을 껌싸게 젓가락으로 집어 올려 한입에 삼키곤 했다. 날달걀에 참기름과 깨소금을 두른 찻잔을 엄마가 내오면 식사를 마친 아버지가 꿀꺽 삼켰다. 집을 나서면서 군화가 광이 나도록 닦여있질 않으면 군화발로 발길질을 했다. 엄마는 늘 쥐죽은 듯 구석으로 몸을 숨겼지만, 결국 울분을 참지 못하고 달려 나와 아버지에게 말대답을 했다.

정색을 하는 승객에게 다시 다가섰다. 만만하게 보이는 순간 이런 일은 14시간 내내 되풀이될 것이다. 승무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기내질서를 어지럽히면 공항 경찰을 호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승객은 허허 웃으며 물이나 한잔 그것도 얼음을 가득 넣어서 가져오라고 명령

했다. 승객이 새를 쫓듯 휘이휘이 팔을 휘젓자 부인과 아이들이 군말 없이 그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들은 거역할 수 없는 삶의 원칙에 익숙하게 순응하는 모습이었다. 반항이나 거역이라곤 없는 삶이었다. 얼음물을 정반에 담아 대령하자 자녀들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고 없었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했어도 엄마에게 고통은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엄마는 너무 푹푹해서 탈이었다. 나는 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남자 승객의 접힌 뺨살에 잠시 시선을 두었다.

아버지는 한참 부족한 여자를 만났어야 했다. 공연히 욕심을 부려 유학 준비에 앞길이 창창하던 엄마를 탐했다. 엄마처럼 잘난 여자한테 하루 세끼 밥상을 제때 차려라. 매일 저녁 가계부 검사를 맡아라. 살림이나 해라. 등등의 제약을 두었다. 아버지한테는 부대 인근의 '황금 다방' 미스 리 정도가 알맞았다. 군화로 발길질을 하고, 국이나 나물이 싱겁다고 밥상머리에서 머리를 쥐어박아도 결국엔 배운 것 없이 박복한 팔자려니 하고 삭히며 살아줄 여자를 만났어야 했다. 엄마는 대학 졸업 후 준비하던 미국 유학을 결혼과 함께 반납했다. 콩나물국이 팔팔 끓는 부엌에서 아침마다 칼자루에 힘을 실어 포기김치를 썰던 엄마. 잘룩한 허리 위로 봉오리처럼 뿔뿔히 올림머리를 가우똥하며 간을 보던 엄마. 엄마가 빠져나간 텅 빈 부엌엔 먼지가 쌓이고, 늘 윤이 나던 식기와 유리그릇들에 물때가 쌓일 때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자기 배 아파 낳은 새끼 버리고 집 나간 게 무슨 에미니? 됐다. 그만 잊어라. 아버지의 등 너머로 긴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면 한사코 미련 섞인 꾸밈이 들렸다. 뛰어 봤자 벼룩이지. 어디 돌아오기만 해봐라. 다신 도망 못 가게 다리를 꼬꽂 묶어 버릴 테닷!

모름지기 나만큼은 좋은 배필을 만나야 한다고 아버지는 강조했다. 그

리하여 마련된 맞선자리는 인천비행으로 서울에 체류하는 동안 아주 갑작스럽게 이뤄졌다. 딱히 마음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군말 없이 따르는 것도 자식 된 도리라고 생각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아버지만 좋다면 이왕이면 좋게 생각하며 만나볼까 싶기도 했다.

공항 인근에 위치한 아울렛 1층 퓨전 중식당에서 아버지가 내놓은 남자를 만나기로 했다. 전직 대학교수를 아버지로 둔 남자는 사 남매 중 막내였다. 혼자 힘으로 나이 서른일곱에 40평대 아파트를 두 채나 돌릴 만큼 재테크에 능한 자라고 했다. 소규모지만 네댓 명의 직원을 둔 중소기업의 대표로 인물도 제법 준수한 편이었다. 부족한 점은 되도록 가능성으로 봐달라는 당부도 잇따랐다. 중매자로부터 건네받은 남자의 사진을 요리조리 훑어본다. 하관이 고요하게 빠진 남자의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우울한 빛이 감돌았다. 딱히 흠잡을 만한 곳이라곤 없었지만 그렇다고 끌리는 타입도 아니었다. 결정적으로 체구도 작아 보였다.

대충 짐작은 했지만 막상 약속 장소에 들어서는 남자를 보자 여린 한숨이 먼저 새어 나왔다. 밑단을 접은 바지 아래 양말도 없이 구두에 끼워 넣은 남자의 발목 때문에 단신이 더욱 도드라졌다. 하이힐 위로 길게 늘어진 내 종아리를 보고 남자도 적잖이 놀라는 눈치다. 긴 비행을 마친 터라 밤새 부은 발이 구두 안에서 아프게 걸돌았다. 냉큼 일어나 남자를 맞을까 하다가 나는 앉은 채로 자리를 권해버렸다. 친근만근 눈꺼풀이 무겁게 늘어지면서 텅 빈 위장이 쉬지 않고 부대꼈다.

남자는 막 휴가 나온 일병처럼 각뚝하게 인사를 건넸다. 자리에 앉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뜨거운 차가 먼저 나왔다. 그가 먼저 잔을 건네주길 기대하고 있는데 때마침 전화벨이 울렸다. 남자의 전화였다. 그는 눈짓으로 양해를 구한 연후에 고개를 주억거리며 기어이 그 전화를 받았다.

“네. 얼른 받으세요.”

사슴처럼 초롱초롱 눈망울에 동그랗게 힘을 주자 남자가 얇은 미소를 지었다. 남자의 전화는 생각보다 길어졌다. 지난달 실적이며 미수금 완납에 관한 이야기가 전개되었다. 오천팔백 얼마쯤... 남자가 액수를 거론하며 왼손바닥을 펼쳐 수화기를 살짝 가렸다. 졸졸졸... 남자의 통화내용을 벽처럼 세워놓고 나는 스스로 차를 따라 마셨다. 남자의 잔까지 마저 채운 연후에 나도 스마트 폰을 꺼낸다. SNS 즐겨찾기에서 슬그머니 남자를 떨궈 버린다. 남자의 통화가 점점 길어지는 사이 전채요리가 나왔고, 나는 젓가락을 힘주어 세우고 보란 듯이 음식을 마구 집어 먹기 시작했다. 젓가락 사이로 멍텅 멍텅 흘러가는 의미 없는 시간을 생각하자 견잡을 수 없는 피곤이 밀물처럼 몰려왔다. 밀린 잠이나 잤으면 딱 좋을 시간에 이런 무례를 당하고 있는 이유도 모르겠다. 남자도 딱히 마음이 있어서 나온 건 아닐지 모른다. 밥이라도 먹여 보내는 걸로 소개해 주신 분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뿐인 것이다. 마침내 통화를 끝낸 남자는 미안한 듯 빙그레 웃는다. 남자는 무슨 이야기든 내가 먼저 털어놓길 바라는 눈치다.

“진상 승객 만나면 어때요? 꽤 힘드실 것 같아요.”

통화를 마친 남자가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남자가 겨우 한 마디 끌어올린 모양이다.

“글쎄요. 그런대로 할 만해요.”

나는 시큰둥하게 내뱉는다. 제 까짓게 ‘비행’에 대해 뭘 안다고, 초면에 덮어놓고 동정부터 하려는 자세가 심히 마땅찮다.

“통계에 따르면, 항공 승무원의 감정 노동도가 가장 높지 않습니까? 가끔 뉴스에서도 기내에서 민폐 끼치는 못된 사람들 얘기 종종 올라올 때마다 승무원들 보면 안쓰러워요. 대한민국에서나 인기 직종이지 미국이나 유럽에선 3D 업종이잖아요.”

초반에 기선 제압을 하겠다는 심리인지 모르겠으나 나는 그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진 않을 것이다.

“뭘, 그런가 봐요.”

발끈하지 않고 순순히 남자의 말에 수긍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흔해빠진 공항 인근의 퓨전 중식당에서 탕수육과 자장면을 먹어 주고 있는 이유로 나를 만만하게 보고 있다면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다. 아까부터 발바닥이 저렸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나는 구두코 위로 밤새 퐁퐁 부은 발을 함부로 꺼내놓고 반쯤 눈을 감았다.

“저, 혹시 기분 상하셨나요? 그랬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피식! 나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 나왔다. 내심 비웃음으로 비쳤길 바라면서 나는 빈 찻잔을 탁하고 내려놨다.

“비행기 자주 타세요?”

“아, 그게…. 최근에 사업 확장하느라 바빠서 자주 못 다닙니다. 여름 휴가 활용해서 동남아에 스쿠버 다이빙하러 가는 정도입니다.”

“어느 기종 타 보셨어요?”

그런 걸 알 턱이 없을 남자의 얼굴이 늦가을 젖은 낙엽처럼 누렇게 뜨기 시작했다.

“저를 무슨 버스 안내양 보듯 하시길래, 출장을 자주 다니시는 본인 줄 알았어요.”

“버스 안내양요? 아유, 오해십니다. 사실, 저 외항사 승무원은 정말이지 처음입니다.”

남자가 익히 섭렵하지 못했던 세상이 궁금해서 나왔다는 말로 들렸다.

“국내 항공사만 죽 이용하셨나 봐요.”

“아, 그게…. 국내 항공사 승무원들과는 몇 차례….”

남자는 쓰고 뜨거운 중국차를 두 손으로 공손하게 쥐고 후후 불며 키

득거리기까지 한다.

“사실 우리 형수도 승무원이었어요.”

이런 멘트 날리면서 우리 세계에 대해서 아는 척하는 남자가 제일 싫다.

“처음엔 착했대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 살림도 못 하고, 씹씹이가 너무 헤프더래요.”

“지금은…?”

“이혼했죠….”

남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나 역시 명심하란 말로 들렸다.

“그런 분일수록 마음이 넓은 남자를 만나셨어야 해요.”

“우리 형도 꽤 촉망받는 대기업 연구원이었습니다.”

“어디, 삼성이요?”

남자가 알 거 없다는 듯 말을 아끼더니 차를 한 모금 쪽 들이켰다.

“전 여자친구도 승무원 지망생이었어요. 아무리 말려도 하겠다고 하길래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는데, 결국 헤어졌어요.”

승무원과 사석에서 만난 일이 별로 없는 모양이다. 맞선을 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매우 신기해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굳이 아닌 척하려고 애쓰고 있다.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앞뒤도 없다. 항공 업계와 관련된 사사로운 인연을 총동원하여 어떻게든 한 수 위에 서 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자못 궁금했다. 가부장적인 데다 여자를 우습게 알았다. 욱! 하는 성질까지 있다면 아뿔싸! 아버지와 판박이었다.

“막내라면서요?”

어색한 침묵을 깨고 나온 신상에 관한 질문이었다.

“네! 그래도 어머님은 제가 모실 겁니다.”

“아, 네에…?”

부연 설명을 기대하자, 남자가 공격적이면서도 단호하게 말을 이어 나갔다.

“형님들이 모두 외국에 계셔서요.”

“효자로군요.”

“막내로 자라셨으면, 귀엽 많이 받으셨겠어요.”

“사고뭉치였죠. 어머니가 뒷수습 많이 해주셨어요.”

“네에.”

“언제 한국에 들어오세요?”

“글쎄요.”

“결혼하셔야죠.”

“그것도 인연이 돼야죠.”

초장부터 대화가 걸돌고 있는데 결혼이라는 화두를 당당히 꺼내 드니 당황스러웠다. 나는 급격히 나른해졌다. 이대로 픽 베개에 이마를 묻고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지금 이 순간의 곤욕이 꿈처럼 사라질 거란 기대만이 한 자락 희망이었다.

“그게 항상 딜레마예요.”

“마음에 듭니다.”

상하좌우로 어긋적거리던 어금니가 멈춰 섰다. 앞으로 반쯤 잘라 먹던 덤섬을 앞접시 위로 도로 내려놓았다.

“저 어때요?”

남자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봤다. 어디에서 나오는 자신감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종업원이 계산서를 남자 앞으로 들이밀고는 획 지나갔다. 홀 안의 테이블이 모두 차고, 대기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 테면테면 걸돌던 대화를 종료할 시기였다. 남자는 피해 의식이 있어 보였다. 내 마음을 읽었는지 남자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성급하게 한 마디 쏘았다.

“제 여자답습니다.”

나는 입술 꼬리를 한쪽만 치켜세우며 피식 웃었다.

“일어날까요?”

웃음으로 답을 대신하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핫김에 계산서로 내가 먼저 손을 뺀지라 질세라 남자가 냉큼 가로챈다. 남자는 지나가던 종업원을 불러 세운 다음 신경질적으로 신용카드를 내민다. 밥값 정도야 얼마든지 낼 용의가 있으니 제발 나서지 좀 말란 소리쯤으로 들렸다. 굳이 숙소까지 바래다주겠다는 남자를 뿌리치고 나는 택시를 잡아탔다. 그런데도 남자는 막무가내였다. 손목을 가로채 비틀더니 길을 막았다. 이 건 예의가 아니죠! 한사코 뜰어말리는 남자의 얼굴은 필사적이었다. 그럴수록 한시라도 바삐 남자에게서 벗어나야 했다. 대낮에 만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자 남자는 갑자기 보란 듯이 버럭했다.

“지금 내 차가 고물이다. 이겁니까?”

남자의 바닥이 흰히 드러났다. 나 원 참... 헛웃음과 함께 참았던 분노가 눈물이 되어 치솟았다.

며칠 후 중매인은 남자의 배웅을 고사한 저의가 무엇인지 따지고 들었다. 남자가 한 소리 퍼부은 게 분명하다. 뒤끝 있는 놈이었다. 안 타길 백 번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이 됴됨이로 따져야지 차종을 갖고 판단하는 버르장머리를 어디서 배웠냐는 설교까지 잇따랐다. 남자가 뭐라고 나를 싸잡아 자신의 퇴짜를 합리화시켰는지 알만했다. 늘 그런 식으로 합리화시켜왔으니 그 나이가 되도록 모난 데가 많은 것이다. 부잣집 막내 도련님 답지 않은 면모였다. 숨이불처럼 폭신한 남자였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성한 곳이 없는 내 날개를 충분히 보듬어 줄 남자였다면 지금쯤 내 삶에도 봄바람이 불었을지 모른다. 그런데 남자는 어떻게든 내 기

를 누르지 못해 안달이었다.

보름쯤 후 남자에게서 다짜고짜 전화가 날아들었다. 시차를 무시한 채 서울에서 달려든 전화는 새벽녘 단잠을 산산이 부수어 놓았다. 영겁결에 받은 수화기를 열자 남자의 한 맺힌 고함이 터져 나왔다.

“외제 차로 바꿨습니다.”

역시나 차종 때문에 내게 퇴짜를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잠자코 다음 말을 기다렸다.

“외제 차도 성에 안 차시나 보죠?”

그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매섭게 쏘아붙였다.

“저는…. 그쪽에게 생각이 없어요…”

한동안 침묵이 흐른 연후에, 전화가 푹 끊겼다. 아마도 그쪽 배터리가 떨어졌기 때문일 거라 생각하며 다시 베개에 얼굴을 묻고 자던 잠을 재촉했다. 아침부터 장거리 비행이 있었다.

그러나 남자는 지독할 정도로 집요했다.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인 것 같았다. 철저한 냉대와 멸시에도 불구하고, 보름쯤 후 다시 기별이 왔다. 첫 만남에서의 어설픈 말실수와 경솔함이 있었다면 너그러운 용서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장문의 사과문이었다. 공연히 전화벨이 울리다가 받으려는 찰나 저절로 멈추곤 했다. 보나 마나 그 어설픈 남자였다. 딱 한 번 떠밀리다시피 나와 마지못해 식사만 한데다 이미 매물차게 선을 그었음에도 남자는 막무가내였다. 날이면 날마다 문안 인사를 남기더니, 구경 명절엔 아버지가 홀로 계신 집으로 갈비와 사과, 배를 한 상자씩 보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 집 청소와 부엌일을 거들게 했다. 그 청년, 사람이 시원시원하니, 제법 듬직하더라. 그만하

면 됐다.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줘라. 이것도 다 인연이 되니까 생기는 일이다. 아버지는 한결같이 남자를 감싸고 돌았다.

남자의 아버지는 스스로 목을 뗐다고 했다. 사건이 있던 날, 집 안에 있던 식구라곤 남자뿐이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누나와 형들은 유력한 용의자로 남자를 지목했다. 아버지가 스스로 목을 뗐 사람이 아니라는 게 형제들이 남자를 의심한 이유였다. 형들처럼 공부를 잘하지도 못 했고, 걸핏하면 동네 건달들과 시비나 붙는 남자는 자라는 내내 집안의 우환이었다. 아버지는 그런 남자를 투명한간 대하듯 해왔다고 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아버지에게 손찌검을 당하는 어머니를 떼어내려고 득달같이 달려들 때만 아버지는 남자의 이름을 불러주었다. 민재! 이 망할 놈의 자식! 하지만 남자는 하늘에 맹세코 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이거나 반항한 일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발견 당시, 남자의 아버지는 대통령 전선에 목이 감겨 있었지만 누나와 형들은 남자가 아버지를 목 졸라 살해한 연후에 전선에 감아 허공에 매달아 완전 범죄를 꿈꾸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형들은 아버지의 폭언과 거침없는 발길질을 견디다 못한 남자가 아버지를 들이받아 가슴을 쥐어뜯을 듯이 달려들었던 걸 여러 번 목격한 일이 있다고도 경찰에 진술했다. 아무도 남자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가족들은 남자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라며 남자가 법정소송을 준비하는 사이 남자의 유산을 모두 빼돌렸다. 남자 모르게 아버지가 미리 작성한 유언장에 따른 이행이었다고 형들은 조목조목 설명을 늘어놓았다.

남자의 아버지는 밖에서는 점잖은 대학교수 행세를 하며 술한 논문과 책을 즐기치게 써냈지만, 집에서는 걸핏하면 어머니를 두들겨 팬 난봉꾼

이었다. 물론 증매자에게서 익히 들어본 적 없는 사항들이었다. 조교를 성추행한 사건으로 고소되어 몇 번이나 재판에 회부된 적도 있다고 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죽음을 두고 그를 의심했던 건 형들과 누나라고 누누이 강조했다. 형들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에게 그런 짓을 저지를 놨은 평생을 아버지 눈 밖에 나돌던 남자밖에 없다고 했다. 질식사한 아버지의 목을 조른 것은 인간의 손이 아니라 전선이였다는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그는 모든 혐의로부터 풀려났다. 망자는 스스로 전선을 목을 땀던 것이지 누군가 목을 졸라 죽인 연후에 전선을 감아 공중에 매단 것이 아니었다는 부검의의 소견으로 그는 7년 만에야 무죄를 입증받았다. 이후 그는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믿어준 노모를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과 인연을 끊게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곤 8년째 파킨슨병에 시달리는 노모의 병시중뿐이었다. 그의 세상에선 걸핏하면 송사가 붙었다.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되면 기물이 파손되곤 했다.

그런 말을 하는 남자가 무척 낯설고 버겁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통과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긴 터널이 찾아오는 법이다. 술이라도 한잔 하는 날에는 늘 억울한 누명을 허공에 하소연했다. 걸핏하면 따귀를 갈기고 주먹을 날리던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자신이 아니라는 한결같은 주장을 7년간 되풀이해야 했다. 패륜아로 자신을 내몰았던 누나와 형들에 대한 분노 때문에 소송에서 이긴 지금도 수면제와 정신과 치료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다는 말을 거침없이 토해냈다. 익히 들어본 적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를 만나기 전까지 그가 겪어낸 세상이라니... 나를 향해 들이댔던 자존심과 거북했던 자신감들이 모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가림막에 불과했음이 안타까웠다. 가엾은 우리 딸... 처음으로 나를 부르던 엄마도 이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가엾은 우리 민재씨... 남자는 외톨이었다. 상관없었다. 인간이라는 바닥은 누구나 똑같다. 전화선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진 연후에 나도 마찬가지로 털어냈다. 부모님은 여섯 살 때 이혼하셨고, 지구 반대편에 사는 엄마는 뉴질랜드 남자와 재혼해 나를 조금이라도 닮았을지 모를 혼혈 여동생이 둘이나 있다고 말해줬다. 자주 만나진 못 하지만 SNS로 엄마가 새 가정을 이뤄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고통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도 엄마가 나 같은 딸을 하루빨리 잊어버릴 만큼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남자에게 그 말을 모두 털어놓고 나니, 두 눈이 퐁퐁 부었다. 전화기를 쥐고 있던 팔과 손목과 귓볼도 모두 함께 울었다. 눈물이 콧물과 뒤범벅이 되어 턱 끝에 대롱대롱 매달렸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 등장했던 남자들에게 결코 털어놓지 못한 이야기였다. 남자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난감해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그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다면 어떻게든 나를 위로해주려고 애썼다. 긴 침묵이 이어진 연후 남자가 나지막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사는 게 쉽지만 해서야 진짜가 아니에요. 복선도 깔고, 고비도 넘겨야 재미를 보는 법이랍니다. 윤이씨, 어머님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의 긴 호흡이 지긋이 어미를 종결하자 전율하던 심장이 젖은 모래처럼 후드득 쏟아졌다.

서비스를 마치고 4시간 정도 쉴 수 있었다. 나는 갈아입을 옷가지를 챙겨 병커로 내려서는 난간을 잡고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몸을 들여놓는다. 고단한 몸을 떨구자 이내 멎었던 근육의 긴장이 일제히 풀어졌다. 이렇게 병커에 누워 낮은 천장과 맞닿을 때면 관 안에 갇힌 기분이 다. 살아내고 있지만 결국엔 죽음을 향해 쉽 없이 나아갈 뿐이란 걸 생각하면 시간이 없었다. 차오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퐁퐁 숨겨두었던 남자를 떠올렸다. 엄마를 만나러 간다고 전하자 남자는 진심으로 축하해줬

다. 마침, 아버지가 계시는 기와집 마당에도 감이 열렸다. 네 엄마가 너 가졌을 때, 주렁주렁 열린 감을 한 소쿠리 가득 따는 꿈을 꿨다잖니? 아버지는 감나무 사진을 보내오면서 태연하게 엄마 이야길 꺼냈다. 추궁하듯 결혼을 재촉하던 아버지는 막상 남자에 대해서 고백하자 탐탁잖게 반응했다.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별반 다르지 않을 남자의 성품을 전해 들은 아버지는 좋다 싫다 말이 없었다. 물론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로 지인 형제들과 파킨슨병에 시달리는 노파의 존재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달가워하지 않는 건 이제 남의 집 식구가 될 딸이 서운하기 때문이라고 나는 마음대로 생각해버렸다. 어차피 인간이란 바닥은 다 똑같으니까. 아버지도 속절없이 홀로 남게 될 삶이 아쉬울 뿐이라고 이해했다. 아버지가 보내준 감나무 사진을 남자에게 보여주자 남자의 프로필 사진이 금세 교체되었다. 어머님을 만나면 꼭 물어보세요. 윤이씨 가지셨을 때 어떤 태몽을 꾸셨는지. 자세히 들려달라고 조르세요. 병커에 모로 누워 남자와 나누던 카톡 문자를 끌어올린다. 민재! 강. 민. 재... 잠결에 아니 꿈결에 나는 남자의 이름을 한 음절씩 소리내본다.

꿈속에서 나는 엄마의 손에 이끌려 어느 대학 강의실 한 칸에 앉아 인형 놀이를 하고 있다. 교수가 강의에 집중하며 끊임없이 펜대를 움직여 노트 필기를 하는 엄마 곁에서 얌전히 앉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미미인형의 옷을 갈아입히고 머리를 땀았다. 쉬는 시간에 간간이 환타나 젤리를 사 주러 엄마는 나를 데리고 지하 매점으로 갔다. 엄마와 함께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동기들이 웃으며 다가와 내 머리를 어루만지거나 사탕을 건네주기도 했다. 착하네, 엄마 공부한다고 울지도 않고 얌전하게 잘 있네. 식탁에 앉아 논문을 뒤적이며 타이핑을 하고, 프린트를 해서 다시 읽어보며 엄마가 밥을 지새우고 있으면, 군화를 신은 아버지가 건빵과 별

사탕을 잔뜩 들고 나타났다.

“책에서 손 떼랬잖아?”

“당신이 이럴 때마다 숨이 막혀.”

타자기를 두드리던 엄마는 가만히 아버지를 노려본다. 아버지는 선너 옷을 감춰놓고 전전긍긍하는 나무꾼 같았다. 엄마가 펼쳐놓은 논문집과 컴퓨터를 마구잡이 트렁크에 담아 벽장에 숨겼다. 그때였다. 찰싹! 엄마의 올림머리가 풀어헤쳐 지면서 결국 볼을 쥐고 앉아 어깨를 들썩거리기 시작했다. 여자아이의 울음이 절규가 되어 집안 가득 울려 퍼졌다.

엄마의 들썩이는 어깨를 보자 번쩍 눈이 떠졌다. 서둘러 계단을 밟고 올라가 문을 열고 객실로 올라왔다. 뜻밖에도 기내 바닥에 임신한 지 7개월 된 승객이 배를 움켜쥐고 쓰러져 있다. 모든 승객이 잠들었기 때문에 아무도 여자의 고통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 나는 여자의 허리를 얼른 일으켰다. 몸의 방향을 비틀 때마다 배 속의 아이가 따라 움직인다고 했다. 너무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처음엔 비즈니스 좌석 업그레이드를 노리고 연극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었다. 멀쩡하더니 날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런데 고개를 치켜든 여자의 콧잔등 밑으로 새어 나온 피를 보자 갑자기 현기증이 몰려왔다. 비행기에서 아이를 낳지 말란 법도 없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응급처치 상자와 더운물 그리고 담요를 가져다 여자의 주위에 늘어놓았다. 여자는 순순히 산소마스크를 쓰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륙 후 여섯 시간이 넘도록 아무것도 먹지를 못 했다고 했다. 빈속이 부대길 법도 했다. 물을 한 모금 겨우 마시는 등 마는 등 한다. 과일 좀 가져다줬는데도 먹는 등 마는 등 여자는 만사가 다 귀찮다는 듯 손을 놓고 있다. 의사에게 호출전화를 넣었다. 기계를 작동시키고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수화기 저편에서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침착한 목소리로 산모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29살의 아랍계 뉴질랜드 여성, 동행하는 가족이나 친구는 없다. 4년 전 한 차례 출산 경험이 있고, 이번이 두 번째 임신이며 현재 28주를 조금 넘어선 상황이다. 아이가 나오려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고 전하자 지속적인 산소 공급과 함께 아티반(Atavin)을 투여하란 처방이 나왔다. 아티반, 몸 부림치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일종의 신경안정제다. 나는 여자에게 다가가 의사의 처방에 관해 설명하고 약을 건네며 이에 동의하는지 물었다. 곁에 있는 주니어 승무원이 증인이 돼 주었다. 여자는 고통이 심한지 고개를 끄덕이며 알약을 꿀꺽 삼켰다. 봉긋이 솟은 배 위에 양손을 올려놓고 스마트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해 둔 어린아이의 사진을 보고 있다. 사진 속 아이에게 시선을 줄 때마다 고름 같은 눈물을 한 움큼씩 짜냈다. 눈물을 훔칠 때마다 콧잔등 밑을 스친 휴지에 피가 흥건히 묻어나왔다. 얼음주머니를 여자의 콧잔등 위에 올리고 고개를 비스듬히 앞으로 숙였다.

“우리 아들이 보고 싶어요.”

여자의 말이 떨어지자 폭포수 같은 울음이 배웅하듯 따라나섰다.

“아들은 지금 어디 있나요?”

말이라도 시켜야 여자가 의식을 놓지 않을 것 같았다.

“뉴질랜드요.”

여자는 스마트폰을 열어 아들의 사진을 내게 보여주었다. 기껏해야 서너살 됐을 남자아이가 귀엽게 웃고 있었다. 여자는 화면에 드러난 아이의 눈, 코, 입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어루만져본다.

“이제 곧 뉴질랜드에 도착하면 보실 텐데요.”

진정을 시킨다고 한 말이었거늘, 여자의 울음이 더욱 거세졌다.

“전남편이 만나게 해주질 않아요.”

그러면서 여자는 사진첩 속의 다른 사진도 보여주었다.

활짝 웃고 있는 여자를 감싸고 있는 옛된 남성이 두 번째 남편이라고 했다. 배 속의 아이는 재혼으로 얻은 아이였다. 이 정도의 사연을 꺼낼 정도의 의식이면, 아직 산고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는 없었다. 출산이 임박했는지 다시 물었다. 여자는 그건 아니라며 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앉은 자세에서 좌우로 배를 움직이면 몹시 아프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자는 또 눈물을 짜냈다.

“둘째가 생긴 걸 안 다음부터 전남편이 돌변했어요. 이제 겨우 4살 난 아이한테 출국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이젠 아들을 듣지도 보지도 만지지도 못 하게 해요! 무능력에 외도에 학대를 일삼으며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든 건 모두 그 인간 때문이에요. 내가 낳은 내 자식을 왜 볼 수가 없나요?”

갑자기 여자가 눈물을 쏟았다. 여자가 고개를 모로 틀면서 젖은 짚단처럼 쓰러졌다. 나는 어깨를 흔들며 여자의 이름을 크게 불렀다.

“윤아!”

시장 골목에서 내 손을 놓친 엄마는 절규하듯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서너 명의 어른의 어깨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정확히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엄마, 나 여기 있어요! 라고 답을 했지만 엄마는 쉽게 알아듣지 못했다. 윤아! 윤아! 엄마는 목청껏 내 이름을 불렀다. 나를 잃어버리면 세상이 다 끝나기라도 할 듯 절박한 떨림이었다. 겨우 어른의 다리 사이를 비집고 나가 엄마의 왼쪽 다리를 감듯이 잡았다. 다리에 매달려 웃는 나를 발견한 엄마는 왜 자꾸 말썽이냐며 엉덩이를 찰싹찰싹 내리쳤다. 시장이 다 떠나가도록 나는 목 놓아 울었다.

비행기 문에 머리를 묻은 채 쓰러진 여자를 바닥에 눕힌다. 자세가 바뀌면서 아이가 움직였는지 여자는 얼굴을 찡그리며 눈을 떴다. 나는 여

자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불렀다. 원망과 불안과 그리고 체념이 뒤섞인 얼굴로 여자는 나를 바라봤다. 물에 젖은 여자의 눈동자가 바람 앞의 촛불처럼 흔들렸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누구도 잘못되면 안 된다. 아이도 산모도 모두 무사해야 한다. 산소마스크를 씌우며 여자의 어깨를 흔들었다. 여자의 눈가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툭 떨어졌다. 맥박과 호흡은 정상이었다. 의사의 지시대로 아티반(Atavin) 한 알이 추가로 투여됐다. 여자는 약을 삼키고 그대로 바닥에 누워 잠들었다. 여자가 잠든 동안 4백여 명의 점심식사가 시작됐다. 잠든 여자의 호흡 사이로 마시고, 씹으며, 삼키는 소리가 끊임없이 반복됐다.

서비스를 마치고 여자에게 달려갔다. 여자는 비행기 문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내가 언제 기절했냐는 듯 태연하게 앉아 있었다. 괜찮으세요? 여자가 미소를 짓길래 나도 따라 웃었다. 두 번째 서비스도 끝난 데다 착륙을 위한 강하가 시작되기까지 이제 겨우 한 시간 남짓했다. 여자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한 채 아들의 사진을 슬픈 얼굴로 들여다보고 있었다. 멀쩡하다가도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던 손끝 위로 뜨거운 이슬이 툭툭 맺혔다. 우린 모두 무사했다. 배 속의 아이도, 전 남편이 만나지 못하게 한 그녀의 아들도 괜찮았다. 올 일은 없었다. 다만 목덜미가 뼈근했다. 어깻죽지가 고무처럼 딱딱하게 굳어 들어갔다. 오른손을 뺀어 왼쪽 어깻죽지를 주무르며 여자에게 물었다.

“자리로 안내해드릴까요? 일어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자는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여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길게 누워 자던 승객은 냉큼 일어났다. 마침내 여자를 좌석에 앉힌다. 여자는 떠나려는 나를 불러 세워 선반에 있는 핸드백을 꺼내 달라고 한다. 여자는 핸드백에서 화장품 파우치를 꺼내 엉망이 된 화장을 고치

기 시작한다. 파운데이션을 쿠션에 찍어 능숙한 솜씨로 얼굴 골고루 퍼 발랐다. 립 라이너를 그리고 붉은색 립스틱을 덧발랐다. 마스크라를 덧칠하느라 눈꺼풀을 반쯤 내려뜨리며 고도로 집중할 때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다. 모두 신경안정제의 힘이었다. 이제 여자의 고통은 말끔히 흘러갔다. 여자는 덧난 상처는 거짓말처럼 재생되고 있다. 달수를 채운 아이가 태어나면 4살 난 아들 같은 것 까맣게 잊고 잘만 살 것 같은 얼굴이다. 여자의 고통을 가장한 연기에 한바탕 속은 기분까지 들었다.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졌다. 엄마를 만나는 일을 더는 지체해선 안 된다. 이대로 감당할만한 고통이 지나치면 엄마도 나를 영영 잊을 것이다. 나를 잊기 위해 더 열심히 책을 읽고, 논문을 쓰며 기회가 닿을 때마다 복사꽃처럼 환하게 웃을 것이다. 곱게 분을 바른 얼굴에 짙은 립스틱을 바르고 더욱 깨끗하게 걸음을 걸을지 모른다. 툭툭이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면서 용케도 내가 없는 삶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아! 한시라도 지체해선 안 된다. 나는 임신부가 앉은 좌석을 재걸음으로 지나면서 더욱 분주히 몸을 놀린다. 창문 가리개를 서둘러 올리고, 승객들에게 안전띠를 매라고 소리치며 하늘 위를 달린다. 두 발이 툭툭 붓고 짓물러도 멈추지 않는다.

엄마는 약속한 시각에 호텔 로비에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체념하고 배정받은 방으로 올라갔다. 유니폼을 갈아입고, 부은 발에서 땀으로 찌든 압박스타킹을 벗겨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냉큼 일어나 수화기를 집어 들자 고운 중년 여자의 목소리가 내 이름을 불렀다.

“우리 윤이, 잘 도착했구나. 차가 막혀서 좀 늦었다.”

엄마였다. 나는 준비한 원피스에 샌들을 받혀 신고 부스스한 얼굴에 비비 크림과 립글로스를 덧바르고 다시 내려갈 채비를 서둘렀다. 엄마는

호텔 로비 한 칸의 소파에 선글라스를 끼고 앉아 있었다. 엄마와 나 사이의 공백이 되어버린 세월이 무상하게도 거짓말처럼 젊고 우아했다. 큰 언니나 막내 이모라고 해도 될만한 용모를 간직하고 있었다. 나를 버리고 떠난 엄마는 돈 많고 우아한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의 포스를 풍기고 있었다. 엄마를 따라 주차장에 이르자 열대여섯쯤 돼 보이는 소녀 둘이 엄마를 향해 달려왔다. 그리고는 익숙하게 엄마의 팔짱을 양쪽으로 꿰쳤다. 엄마는 뉴질랜드 남편 사이에서 낳은 두 딸들에게 나를 이모라고 소개했다. 아이들은 내 존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다.

“많이 컸구나. 길에서 보면 못 알아보겠다.”

엄마는 글라디올러스처럼 생기롭게 웃으며 말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곱게 늙을 수 있는지 정말이지 궁금했다. 마음고생이라곤 단 하루도 해 본 적 없는 사람 같았다.

“오클랜드 비행, 자주 오니?”

“앞으로 종종 나올 거예요.”

“다음에 오면 엄마랑 쇼핑도 좀 하자. 괜찮은 가방이랑 옷이랑 몇 벌 사 줄게.”

근사한 레스토랑에 나를 데리고 간 엄마는 샐러드 접시를 내 앞으로 밀어주었다. 그것도 모자라 익숙한 손길로 포크와 나이프를 딸각거리며 새우 껍질을 벗겨 내 입에 넣어주려고까지 했다.

“그러지 마세요. 제가 뭐 어린 앤가요?”

극구 사양하다 나는 결국 포크로 엄마의 새우를 받았다. 엄마는 자꾸 엄마 접시에 있는 고기와 해산물을 내 접시 위로 나르며 소스 더 줄까? 느끼하지 않아? 라고 물으며 테이블 한 칸에 있는 드레싱을 권했다. 두 아이들이 익숙한 칼질로 음식을 먹다가 엄마에게 물을 달라, 화장실에 가고 싶다 등등의 요청을 하면 엄마는 웃는 얼굴로 소녀들의 얼굴을 마

주했다. 엄마는 오랜만에 만난 친인척의 일원처럼 나를 다정하고 깍듯하게 대했다. 나를 잊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마에게 내가 중요한 사람 같진 않았다. 이제 엄마라면... 더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엄마, 행복해...?

엄마가 발라준 새우를 먹다 말고 나는 물었다.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다. 이러려고 엄마를 보러온 게 아니었는데, 내 마음을 나도 잘 모르겠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할 말은 해야 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 엄마를 붙들었다. 엄마가 떠나고 난 이후로,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엄마가 쓰던 화장대도 그대로 있고, 엄마가 즐겨 쓰던 향수와 머리핀도 모두 제자리에 있어요. 이제 엄마만... 엄마만 돌아오면... 흐흐. 오클랜드의 하늘은 높고 푸르렀다. 한낮의 기온이 짹짹해서 선글라스 너머로 열게 비치는 눈동자가 별처럼 반짝거렸다. 엄마는 새우를 마저 손질해서 내 접시 위로 날라주는 일을 천천히 마무리하고 조용히 답을 했다.

“때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이 덜 고통스러운 법이란단다. 넌 고통이 뭔지 모르지? 죽지 못해 달아나고 싶게 만드는 고통을 너는 아직 모르지... 얘야, 인생을 바꾸려고 너무 애쓰지 말아라... 나는 그러저럭 괜찮단다. 그러니까 너도 꼭 보란 듯이 잘 살렴... 알았지?”

우리에게 돌아올 생각 따윈 눈곱만큼도 없어 보였다. 엄마가 현재의 삶을 악착같이 지키고 싶어 하는 줄 알았다면 공연히 엄마 앞에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무사한 엄마가 제 발로 찾아와 무릎 꿇고 용서를

별 것이라 믿고 있다니. 엄마는 아버지를 포함한 모든 한국 남자를 구세대 유물로 취급하면서 우월감을 드러냈다. 똑 부러진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다가도 '우리'는 '너희 한국'과는 달라서... 라는 말로 종종 나를 별나라로 데려다 놓곤 했다. 엄마는 이미 나를 버린 지 오래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엄마는 능숙한 운전 솜씨로 차를 몰며 오클랜드 다운타운 사이를 가로질렀다. 호텔에 이르러 내가 조수석 문을 열자, 엄마는 또 보자며 아쉬운 듯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나는 다시는 엄마를 볼 수 없을 것 같다. 지금 엄마에겐 내가 필요하지 않다. 엄마에게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저렇게 능청을 떨며 먼 친인척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30년 전의 나를 기억의 저장창고에서 꺼내 드는 일은 괴로운 고문이거나 자학일 것이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머리가 새하얗게 세었거나 그래서 새 남편이 더는 사랑해주지 않길 기대했던 내 자신이 한심하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엄마를 데려올 구실이라곤 단 하나도 찾을 수 없다. 숙소로 돌아온 나는 그대로 침대에 쓰러져 한 시간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있는 힘을 다해 울었다. 괴성을 지르며 악을 쓰며 울어도 눈물이 한밤중까지 멈추질 않았다.

한밤중에 요기가 느껴져 잠에서 깼다. 뚱뚱 부은 눈가가 별정계 부어 있었다. 찬물을 팔팔 틀어 북북 세수를 한 다음 정신을 차리자 남자의 영상 전화가 요란하게 울려댔다. 전화를 받으려면 이 뚱뚱 부은 얼굴을 보여줘야 했는데, 이 초라한 꼴을 보여줄 자신이 없다. 엄마를 데려올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았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 수신 거부 버튼을 누르자 기다렸다는 듯이 문자가 날아들었다.

-어머님은 잘 만났어요? 궁금해서 문자 남겨요. 어머님과 재회한 순간

이 생애 다시 없을 환희의 순간이었길 바래요.-

-네, 잘 만나고 숙소로 돌아왔어요. 엄마는 아직도 젊고 예쁘세요. 저보다 더 행복해 보여서 앞으로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음 달에 서울에 들어가면 민재씨 어머님 목욕을 같이 시켜드릴까 해요. 간병인 아주머니 대신 제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민재씨 어머님께 잘할게요.-

차오르는 눈물을 닦으며 발신 버튼을 누르자 화장실로 향하던 다리에 힘이 쭉 풀렸다. 바닥에 주저앉아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는 광경을 지켜보자 세상엔 인력으로 어찌할 바가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는 데 생각이 모아졌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나는 오랫동안 달을 바라보았다. 해가 떠난 자리를 달이 메꾸고 있었다. 심연과도 같은 검은 우주는 빛을 잃었지만 쏟아지는 별들로 부활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달을 향해 물었다. 아, 정말 엄마를 되돌릴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달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의 마지막 음성이 귓전을 맴돌았다. 애야, 인생을 바꾸려고 너무 애쓰지 말아라... 엄마는 나를 원하지 않는다. 왕자의 심장에 칼을 꽂을 수 없었던 인어공주가 거품이 되어 사라졌듯이 엄마의 심장에 칼을 꽂지 못한 나는 바람이 되어 하늘로 숨어든다. 비행기가 고도를 높이는 사이 엔진 소리가 회오리처럼 몰아친다. 인살라! 어찌면 엄마 말이 정당일지 모른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이 훨씬 덜 고통스러울지 모른다. 쏟아지는 별 사이에 가로등처럼 우뚝 선 달을 바라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반드시 당도해야 할 최종목적지가 있다고 달은 말하고 있었다.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집어 넣자 어제 임신부가 먹다 남긴 신경안정제가 잡혔다. 나는 마른 입술을 열어 알약을 통째로 삼켰다. 비행기가 고도를 높여 상승한다.

# 체험 수기

대상	전설처럼 살다 가신 할머니	박영희 (중국)
우수상	함께 걷기 에메랄드 섬의 옥돌 정착기	박성일 (호주) 임세진 (아일랜드)
가작	케세라세라 · 희망은 늘 과제와 함께 적도의 땅 말레이시아에서 날개를 퍼다 굴 캐는 여자	이홍매 (중국, 일본 거주) 김희정 (말레이시아) 오진영 (뉴질랜드)

## 전설처럼 살다 가신 할머니

박영희 (중국)

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지난 세기 60년대로 지금과는 달리 생활 형편이 께지게 가난하던 시절이었다. 그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월급을 타서는 전부 할머니에게 맡겼다. 할머니는 음식 솜씨가 뛰어나셨는데 마치고 마술사처럼 늘 맛있고 색다른 음식을 만들어 내곤 하셨다. 손뿔들을 돌려 두부, 노란콩쌀죽, 녹두지짐을 만드느라 하면 겨울에는 엿을 달이고 순대를 만들고 또 시루떡, 증편, 오그랑죽 등은 할머니의 손에서 엿같이 빙빙 돌아 가면서 것처럼 손쉽게 만들어질 수가 없었다. 식구가 단출했지만 친척들이 설 사이 없이 드나드는 통에 우리집 밥상은 한 끼도 조용할 사이 없었다. 할머니는 꼭 여유 있게 만들어서는 먼저 가까운 이웃에 일일이 돌렸고 겨울이면 얼려두었다가 다시 찌서는 밥상 위에 내놓곤 하셨다. 매년 할머니의 손끝에서 탄생한 맛깔스러운 음식의 깜짝쇼가 있을 때마다 기쁨의 함성과 함께 온 집안 식구들의 얼굴에는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나곤 하였다.

그때 중국 동북 지역의 겨울은 왜 그렇게 매서웠던지. 사람마다 두꺼운 솜바지와 솜저고리에 솜신까지 신고도 뻗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를 막

을 수 없어 덜덜 떨었다. 추운 새벽이면 따뜻한 이불 속에서 항상 불을 켜고 바느질하는 할머니를 볼 수 있었다. 때론 철없는 내가 불빛이 시끄러워 시계를 쳐다보면 바늘이 새벽 두세 시를 가리켰다. 할머니의 매일 일과는 이렇게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다. 겨울마다 이맘때면 할머니는 싸늘한 새벽 공기를 무릅쓰고 집의 모든 이부자리와 솜바지, 저고리를 다시 한번 깨끗이 씻어 한 땀 한 땀 손바느질로 수선해 놓으셨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온돌 구들에 차려 놓은 김이 몰몰 피어오르는 아침밥을 볼 수 있었다.

그때는 집집이 온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수돗물을 길어서 먹을 때였다. 우리 집에는 아주 큰 지독으로 된 물항아리가 있었는데 큰 물통으로 13통이 들어갈 수 있었다. 아침 설거지가 끝나고 집을 말끔히 거둔 후면 할머니는 물을 머리에 이어서 날랐는데 큰 물독에 넘치면 가마에 넣고, 다음 한 통을 더 길어 물독 위에 올려놓고야 그만두셨다. 할머니는 매번 물을 길어 올 때는 독 밑을 말끔히 긁을 내어 씻었고 또 이렇게 하루 건너 물을 길었는데 그 어떤 일을 하나 아무리 힘들어도 깔끔하면서도 단숨에 끝을 보지 않으면 그만두지 않는 맺고 끊는 성미였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어린 시절을 추억하노라면 옛집에서 티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고 또 닦아 항상 새로 기름칠한 듯 반들반들 윤나는 노란 장판과 원목 가구들, 그리고 알뜰한 저녁 밥상을 차려 놓고 전등불을 환히 밝히고 바느질하면서 식구들을 기다리던 할머니의 옆모습이 그림처럼 떠오른다. 할머니가 계셨기에 나의 어린 시절은 어머니, 아버지가 바빠 보내면서 집에 계시지 않은 수많은 썰렁하고 가슴 저린 고독한 나날도 행복으로 메울 수 있었다.

1969년 5월 30일, 아버지와 어머니가 의사인 우리 집은 “의료공작의 중점을 농촌에 두어야 한다”라는 나라의 지시와 정부의 안배에 따라 편

벽한 시골에 내려가 자리 잡게 되었다.

그때 이미 80세에 가까웠던 할머니는 농촌 마을에 오시자 마치 몇십 년간 떠났던 고향마을에 다시 돌아온 듯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셨다. 할머니는 이른 새벽부터 집 앞에 분배받은 기름진 300여 제곱미터 남짓한 자류지와 집 뒤에 있는 여러 가지 풀로 덮여 있는 대면적의 가파른 산등성이를 돌고 돌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며칠 밤을 쉬지 않고 뒤척이며 어떻게 그 땅을 충분히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 즐거운 고민을 하셨다.

우리가 이사하였을 때 자류지에는 이미 담배모가 옮겨졌을 때였다. 할머니와 나는 먼저 밭 변두리에 해바라기씨와 강낭콩씨를 심고 이어 뒷산에는 호박씨를 박았다. 가을이 되자 원래부터 기름진 담배밭 변두리의 해바라기는 키를 넘게 자랐고 줄기가 어른들의 팔뚝만큼 실했으며 씨가 들어앉은 이삭은 크기가 어른들의 팔로도 안을 수 없게 컸는데 직경이 모두 50센티미터 넘었다. 그런데 씨가 막 영글어 가고 있을 때 하루에 몇 번씩 난데없는 참새 떼들이 새까맣게 덮쳐드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허수아비를 세우고 줄을 길게 늘어 거기에 방울을 달았다. 새 떼가 오면 할머니는 줄을 흔들면서 “휘이, 휘이-”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새 떼를 쫓곤 하였다. 도시에서 자란 나에게 이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하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뒤에 있었다. 가을이 되어 해바라기씨를 털어보니 큰 마대로 두 자루나 되었다. 할머니는 또 병아리 50마리를 키우고 강아지 두 마리도 사다 놓으셨다.

가을이 되니 할머니는 일찌감치 다음 해의 계획을 세우기에 바쁘셨다. 할머니는 앞마당 가까운 곳에 채소 심을 곳을 내놓고 전부 찰수수를 심었다. 100% 한전 지대인 그곳에서 기장쌀, 차좁쌀은 있지만 찰수수는 드물었다. 기름진 자류지에 심은 찰수수는 매일같이 우쭉우쭉 탐스럽게 잘 자랐다. 가을이 되어 할머니는 남의 손을 빌지 않고 혼자 힘으로

찰수수를 세 마대 거둬들였다.

나날이 많아지는 닭무리에서 수탉은 잡아먹고 암탉으로는 병아리를 깨워 알담인 암탉만 50여 마리로 부쩍 늘어났다. 할머니는 매일 달걀 한 광주리씩 주워 담았다. 그런데 닭이 곳곳에 널려 말뚝을 부리는 까닭에 채소밭 변두리에 울타리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할머니는 남새를 일 년에 세 차례 심었는데 초봄에는 시금치, 햇배추, 파를 심고 다음은 그 자리에 고추, 가지, 토마토, 오이 모를 내고 끝으로 갖, 영채와 같은 늦가을 남새 씨를 뿌렸다.

그때는 도시나 농촌이나 막심한 식량난을 겪을 때였는지라 한전 지대인 이곳 대다수 집에서는 무를 채로 썰어 놓고 그 위에 좁쌀을 조금 넣어 무밥을 해서 끼니를 때웠다. 지금은 무료 영양밥을 짓기도 하지만 그때는 굶주린 배를 채우는 수단이었다.

우리 집은 도시 호적이기에 식량은 집과 4~5리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공사마을(향)의 식량 공급소에 가서 인구 당으로 배당되는 쌀을 사 와야 했다. 그나마 입쌀은 몇 근 되지 않고 모두 옥수수가루와 같은 잡곡뿐이었다. 그러니 할머니가 지은 농사가 얼마나 큰 보탬이 됐는지 모른다.

할머니는 마치 실 줄 모르는 기계와 같았다. 지금이나 그때나 내가 감탄하고 신기해한 것은 이 모든 일을 할머니는 마치 평범한 매일의 일과로 해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나 할머니는 눈에 띄게 힘겨워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조용히 하나하나 진행해 나갔다.

1971년도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나라와 정부의 지시에 따라 도시로부터 ‘5.7’ 하향 간부들이 연이어 농촌으로 와 자리 잡았는데 그중 한 집은 우리 집과 비교적 가까운 곳에 여섯 식구의 이삿짐을 부리고 자리 잡았다. 그런데 집 온돌의 구들돌을 잘못 놓아서인지 불을 때면 아궁이로

부터 연기가 곧장나왔다. 그 추운 겨울 사람들을 불러와 서너 번이나 고쳤으나 매번 마찬가지로였다. 이 소식을 들은 할머니가 말없이 가서 일하는 것을 지켜 보시더니 참지 못하고 두 손을 걷고 나섰다. 부뚜막과 온돌 고래를 조금 드려 놓고 이겨 놓은 흙을 척척 바르더니 20여 분 후 손을 씻고 불을 지피게 하였다. 그러자 불길이 활활 타올랐다.

농촌에 내려간 후 명절을 쇠면서 처음으로 개를 잡을 때였다. 그때 농촌에서 자란 사촌 오빠들도 있고 친척들도 몇 명 있었지만, 할머니를 빼고는 누구도 개를 잡아 본 경험이 없었다. 먼 옛날 생계를 위해 육개장집을 경영한 적 있는 할머니는 자신이 나서면 젊은이들이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손을 흔들면서 돌아앉았다. 그런데 이튿날 개잡이에 나선 두 오빠가 개를 놓고 어정쩡 주춤거리자 결국 할머니가 나서야 했다. 모두들 할머니의 그 칼 쓰는 솜씨에 놀라움과 감탄을 감추지 못하였다.

해방 전 할아버지 사 형제는 전부 항일 운동에 참여하였는데 혁명의 저조기에 토벌대의 대도살을 피해 소련으로 떠났다. 둘째인 우리 할아버지도 형님을 따라 소련에 가셨고, 얼마 후 사 형제가 전부 소련에 모여서 활동하였다. 집에는 노인과 여자들뿐이었다. 집은 가난에 쪼들려 가고 본래 3대가 모여 살던 대가족은 할 수 없이 분가를 하게 되었다. 그때 할머니는 삼 남매, 즉 나의 큰아버지(8살), 고모(4살), 둘째 큰아버지(2살)을 데리고 나오게 되었다. 셋째인 아버지는 출생 전이었다.

할머니는 그때 생활의 쪼들림보다 아버지 없이 자라는 애들이 마음에 걸려 안절부절못하였다. 할머니는 소련으로 할아버지를 찾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비용을 마련하려고 할머니는 장사를 시작하였다. 할머니는 이를 악물고 돈을 꾸어 먼저 떡장사, 두부 장사를 하였는데 주로 머리에 이고 여러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팔았고 그 후에는 작은 가게를 얻어 국밥집을 차렸다. 붙임성이 좋고 음식 솜씨가 좋아 장사가 아주 잘 되었는데

데 주위의 장사꾼들이 손님을 싹 쓸어간다고 질투할 지경이었다. 그렇게 2년간 애써 모은 돈으로 소련으로 떠날 준비를 하였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변경은 항상 봉쇄가 엄밀하지만, 당시는 국세가 긴장하였으므로 비상상태였다. 소련 쪽은 더욱 감시가 철저했다. 붙잡히면 큰일이었다. 세 아이를 데리고 농촌 아낙네가 큰 보따리를 이고 지고 남편 찾아 비밀리에 변경을 넘는다는 것은 모험에 모험을 더한 엄청난 일이었다. 들리는 소문마다 더욱 무시무시하였다. 그러나 할머니의 결심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변경을 넘으려면 든든한 길잡이가 있어야 했다. 변경에 밀수쟁이들이 들락날락하기에 길잡이꾼들도 많았고 사기꾼들도 많았다. 강을 건너고 밀림을 지나야 하는데 나쁜 길잡이를 만나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라고 한다. 밀수꾼들은 위험에 처하면 날 살려라 하고 혼자 뺑소니를 치는데 상대방을 전혀 책임지지 않는다. 할머니는 믿음직하고 길이 익숙한 사람을 하나 물색하였다. 그런데 할머니의 사정을 알고는 두 손을 마구 흔들면서 거절하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할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이 내는 몇 배의 돈을 내걸고 사정하여 끝내 대답을 얻었다. 할머니는 짐 세 개를 만들어 하나는 당신의 머리에 이고 하나는 등에 지고 다른 하나는 큰아들의 등에 지우고 그다음 작은아들의 손을 잡고 캄캄한 밤에 쥐도 새도 모르게 천 리 타향 길에 올랐다. 그런대로 길잡이 덕분에 변경은 무사히 넘었고 다만 보따리 하나만 물 건널 때 물살에 밀려 떠내려갔다. 물을 건너 둔덕까지 오르고 보니 푸르푸레한 새벽빛에 저 멀리 낮선 마을이 보였고 길잡이는 여기서 돈을 가지고 급히 자리를 떴다.

더욱 어려운 고비는 그다음부터였다. 소련말 한마디 모르고 돈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당장 어린 자식들에게 끼니를 먹여야 하였고 손에는 할아버지 거처의 주소가 적혀 있는 종이쪽지를 달랑 하나 쥐고 얼마를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를 길을 이제부터 떠나야 했다.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감시가 엄한 당시 소비에트 구역인 이 마을을 어떻게 무사통과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마을까지 가는 길은 무인지경이었다.

갑자기 저 멀리에서 말 타고 팔에 붉은 완장을 두르고 카빈총을 어깨에 멘 순찰대가 마을을 돌고 있는 것이 보였다. 길에 나서기만 하면 붙잡힐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할머니는 잠시 숨어서 관찰해 보다가 순찰대가 사라지기를 기다려 애들을 이끌고 마을로 향해 반달음 쳤다. 마을에 도착하여 골목 하나를 빠져 막 큰길로 가로지르려 하는데 마을 어귀에 또다시 순찰대가 나타났다. 다급한 할머니는 다시 골목길에 들어서서 이쪽저쪽 살피면서 마땅한 피할 곳을 찾았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할머니는 어느 집 담장 안의 뒷마당에 널린 빨래 속에 흰 조선족 옷이 걸려 있는 것을 얼핏 보았다. 할머니는 조금도 주저 없이 짐들을 그 집 담장 뒤에 넘겨 놓았다. 다음 애들을 데리고 사립문을 떼고 들어섰다. 집 안에 들어선 할머니는 다짜고짜 녀죽 옆드려 “사람 살려 주소서.” 하며 두 손을 비비면서 사정하였다. 마침 아침을 먹으려고 밥상에 마주 앉았던 주인들은 갑자기 들이닥친 일에 너무 놀라 엉거주춤 일어섰다. 생각대로 그 집의 주인아주머니는 조선족이었다.

할머니의 자초지종을 들은 그들은 불청객을 맞아들였다. 선량한 그 집 아주머니는 애들에게 아침밥을 먹인 후 남편과 한참 의논한 끝에 마을의 제일 큰 분이며 당위원장인 사람을 찾기로 하였다. 오후가 되어서 당 위원장이라 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섰다. 그분은 할머니를 보고 당장 애들을 데리고 돌아가라는 것이었다. 혼자도 아니고 여자가 아이 셋을 데리고 그 먼 길을 찾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에서였다. 할머니는 돌아가면 봉변을 당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니 어른, 아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죽어도 이 길을 가야 한다고 또 갈 수 있다고 제발 도와 달라고 손시

능을 해가면서 빌고 또 빌었다. 아주머니도 옆에서 통역해주면서 사정하였다. 드디어 주인집 아주머니가 보증 서고 붉은 도장이 찍혀 있는 소개장을 떼어 주었다. 지금은 돈만 있으면 어디도 갈 수 있지만 그때는 소개장이 돈보다 힘을 쓸 때였다. 할머니는 그 붉은 도장이 찍혀 있는 한 장의 소개장을 가지고 소련말 한마디도 모르면서 기차 타고, 배 타고, 걷기도 하면서 천신만고 끝에 15일 후에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다.

나는 어릴 때 늘 할머니의 팔베개를 베고 소련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였다. 그 많은 이야기도 이젠 거의 기억에서 어렴풋이 사라져 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어제 일처럼 잊히지 않는 것은 그때 할머니가 기억하고 있는 소련말을 몇 마디씩 섞어 가면서 흥분에 겨워 말씀하던 할머니의 그 모습과 할머니가 소련에 방금 도착하여 있는 몇 가지 일들이다.

할머니는 난생처음으로 소련에서 그렇게 큰 배를 보고 또 배를 타고 하룻밤 하룻낮을 달렸다. 할머니는 애들이 뱃멀미하던 일, 큰 선창 안이 우글거리는 사람 천지여서 발 옮겨 디딜 곳도 없는데 어린 고모가 열이 나면서 앓던 일, 큰 배가 위험지대를 지날 때 키 크고 코가 높은 선원들이 삼각기를 들고 낮이 백지장처럼 되어 알아듣지 못할 큰 소리로 선창 안의 사람들을 지휘하여 꼼짝 움직이지 못하게 전부 누워 있게 하여 할머니가 “아차” 가슴이 철렁했고 이 낮모를 타항에서 애들과 함께 이젠 죽겠구나 하고 두 손에 땀을 쥐고 긴장해 하던 일, 그리고 기선에서 내려 짐꾼이라고 당시 그곳에서 흔히 보는 쪽지계쟁이를 불렀는데 말 모르는 농촌 아낙네이고 애들이 팔려 있는 것을 보고는 업신여겨 앞에서 짐을 지고는 따라 오라고 하면서 자기는 반달음의 줄행랑을 놓는 것을 큰 소리로 호통치면서 멀리까지 따라가 겨우 따라잡고 짐을 빼앗아 내던 일, 온갖 고생 끝에 할아버지가 계신 집을 찾아가니 할아버지는 그때 집에

계시지 않고 할머니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 온 동네 남녀노소가 집 앞마당과 울타리 밑에 둘러서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상봉을 지켜보려고 떠나지 않고 기다리던 일...

그 후에 안 일이었지만 이와 같이 이국땅으로 고생하며 남편을 찾아간 여자들은 처음 만날 때 남편과 대판 싸움부터 한다고 한다. 통신이 끊기어 사람을 통해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시기여서, 이런 경우 남편들은 여자가 찾아오는 것을 미리 알 수 없었다. 그날 마침 할아버지는 외출하여 집에 없었고 할머니는 주인집의 도움으로 빈 집안을 거두고 쌀독을 찾아 점심밥을 짓고 있었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애들을 거느리고 중국에서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놀란 표정 그대로 집에 들어선 할아버지가 애들을 데리고 이 먼 길 어떻게 왔는가 하는 말에 할머니는 마치 마실 갔다 돌아온 남편 대하듯이 평소와 같은 담담한 표정으로 맞이하면서 “애들에게 아비 찾아 주려고 고생 찾아 이곳까지 왔다”라고 하였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너나없이 박수를 치며 소련말로 “대단하다”, “좋다” 하고 탄성을 질렀다고 한다. 할머니는 그 후 소련에서 7년을 보냈고, 그때 아버지와 막내 삼촌이 소련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5살 되던 해에 온 집 식구가 다시 천신만고를 겪으면서 중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집을 나간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고 ‘사람 기다리기가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고통을 조금이나마 잊게 해주는 것이 ‘일’이라고 자주 말씀하곤 하셨다.

할머니는 일생 기다림에 지친 분이시다. 젊었을 때는 집을 떠나 소련에 간 할아버지를 기다려야 했고, 항일 전쟁 때에는 담가대로 전선에 나간 큰아버지를 기다려야 하였고, 또 의용군으로 나갔다가 학질에 걸려 시체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다시 돌아온 둘째 큰아버지를 기다려야 했으며, 해방 전쟁 때에는 형제 중 셋째인 아버지가 부대의 탄급 군의로 비밀리에 부대와 함께 대이동한 후 소식이 끊겼다가 나중에 구사일생으로 돌아오게 된 기나긴 3년간을 피눈물로 기다려야 했다. 그때 집에는 병으로 움직이기 어려워하는 할아버지와 심각한 골 결핵으로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형제 중 넷째이며 막내 삼촌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뿐인 딸(나의 고모)이 5살짜리 어린애를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고, 할머니의 맏며느리(나의 큰어머니)가 4살과 6살짜리 오누이를 두고 세상을 떠났으니 이 어린 것들은 할머니에게 맡겨졌다. 그 후 시름시름 앓던 삼촌도 20살의 젊은 나이에 끝내 할머니의 품에서 눈을 감았다. 그러나 할머니는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을 도려내는 큰 아픔 앞에서 울음소리 한 번 시원히 내지 못했고 몸이 아파도 앓아누울 수 조차 없었다. 자식들이 남겨 놓은 어린 것들을 보살피며 울음을 씹어 삼켜야 했고 빗발치는 총탄 속을 누비며 전쟁의 죽음의 변두리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삼 형제를 생각해서 마음껏 통곡할 수 없었다. 매번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밀려올 때마다 할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호미를 찾아 들고 정신없이 밭으로 달렸다고 한다. 오직 그곳만이 할머니가 마음껏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곳이었고 정신없이 일로 몸을 혹사하여야만 그 기나긴 밤을 보낼 수 있었다. 그때 할머니는 밤과 낮이 따로 없었다고 한다. 잠깐 눈을 붙였다가도 깨어나면 다시 잠들 수 없었고 그러면 당연히 밭으로 향하였다. 달빛을 빌어 정신없이 김매고 있으면 먼동이 흰히 밝아오고, 이때면 다시 집으로 향하였다. 그때 할머니는 가정의 유일한 노동력이었다. 할머니는 그 후 여러 가지 자그마한 일로 속을 태우는 사람을 보면 늘 위안해주며 이렇게 말하곤 하셨다. “나는 죽은 아들을 옆에 놓고도 밥 한 끼 굶지 않았소. 산 사람은 역시 살아야 하고 애들 입에 거미줄을 치게 할 수는 없었소.”

할머니는 한 가난한 가정의 넷째로 태어나 8살에 박씨 가문의 둘째 며느리로 시집을 오셨다. 시집을 때 할머니는 이미 가사일은 물론 베로 옷을 짜고 바느질하는 등 일에 능숙했다. 어릴 때부터 일로 잔뼈가 굵은 할머니는 시집은 후 수많은 같은세대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대가족의 크고작은 가정일을 책임졌다. 하루 세끼 밥을 하여서는 두 끼 음식은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산골짜기의 밭으로 이어 날라야 했고 틈만 있으면 베틀에 올라 앉아 베를 짜고 밤늦게까지 손바느질을 해야 했고 밥알 같은 어린 자식들을 거느려야 했다.

그때는 전쟁과 약탈, 빈곤과 전염병이 쌍으로 성행하던 시기라 사람들이 숨도 크게 쉴 수 없는 고난의 연대, 동란의 시대였다. 추위와 굶주림 망국노의 슬픔에 마을의 젊은이들이 항일에 떨쳐나서기 시작했다. 집에는 항일하는 사람들이 들락거렸고 집의 뒷방 칸은 젊은이들이 모이는 아지트였다. 천성이 지혜롭고 숨씨 빠른 할머니는 비밀리에 항일하는 할아버지와 형제들의 밥을 나르는 일을 하였다. 때때로 토벌을 피해 산골짜기에 숨어 있는 친인척들을 위해 산을 넘어 밥을 나르고 소식을 전하는 일도 했다. 밤길에 산골짜기를 톱아 오르면서 풀 덩굴에 굽히고 넘어져서 상처투성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먼 옛날, 할머니의 시아버님(나의 증조부)은 28세의 노총각으로 혈혈단신 압록강을 건너 살길을 찾아 중국으로 오는 이민의 물결을 따라 훈춘의 한 편벽한 마을에 정착하셨다. 전염병과 식량난으로 혈육을 전부 잃고 홀로 된 시아버지는 가족애와 일숨씨로 인근에 소문이 있었다. 부지런하고 인품 좋은 시아버지는 빈털털이 소작농으로 일하시면서 돈을 모아 장가들어 아들 사 형제를 보게 되었다. 시아버지는 뼈 빠지게 일하면서 아들들을 출세시키려고 이를 악물고 맏아들을 서당에 보내어 공부를 시켰다. 형의 영향으로 아래 형제들이 모두 글 읽기를 즐겼다. 후에는 하

나들 집을 떠나 항일의 길에 들어섰고 그 후에는 유명한 항일 투사로 성장하였다. 그렇게 되자 집에는 여자들만 남게 되어 생활이 더욱 궁핍하였다. 생활의 중압감은 항상 할머니의 두 어깨를 짓눌렀다.

그 후 불행하게 중국의 최고 사관학교인 황포군관학교에서 교도관으로 있던 만시형이 유명한 광주봉기에서 부대를 영솔하여 포위를 돌파하다가 장렬히 희생되었다(연변 역사박물관에 모셔진 영웅). 온 가정의 정신적 기둥이 무너지고 수시로 들이닥치는 토벌대의 수색 위험이 뒤따랐다. 항상 위험을 피해 철없는 어린아이들을 업고 이끌고 부모들을 부축하면서 이사를 밥 먹듯 해야 했다. 할머니의 만동서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눈물로 세월을 보낼 때 할머니가 항상 옆에서 함께 울고 두 손을 잡고 위안해주었다. 그때 가정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가름한 체격에 강단 있고 날래었으며 언제나 부지런하고 깔끔하였다. 또 놀라운 기억력과 뛰어난 지혜를 가진 분이셨다. 고령이 되었어도 낮잠을 자는 것을 보지 못했고 일을 찾아 두 손이 쉴 사이 없었다. 동네방네 시집가는 새색시 이부자리를 장수 할머니가 꾸미면 복이 온다고 모셔 가면 한 숨씨 하였고, 갓난아기 출생 때 장수 할머니의 속옷이 필요하다는 부탁에 만면에 웃음 짓고 흰 속옷들을 내놓으셨다.

90세가 넘어서도 흰머리가 별로 없는 새까만 머리를 한 오리의 흐트러짐도 없이 반듯이 빗어 넘기고 흰 부드러운 전으로 된 머릿수건을 쓰고 다녔으며 그 당시에 주위 사람들에게서 볼 수 없는 옛날에 짚다는 베옷을 즐겨 입으셨고 흰 속옷들을 의연히 풀을 먹여 다듬질하여 입으셨다.

개혁 개방 후, 민속박물관과 역사박물관에서 종종 할머니를 찾아와 과거 역사에 대한 인터뷰를 하였다.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은 90여세의 고령에 이른 할머니의 기억력과 말재주였다. 녹음기 앞에서 할머니는 두 시간 동안 잠깐 쉽도 없이 청산유수의 말솜씨와 또렷한 정신력으로

로 녹음을 하였다.

그 후 나도 녹음테이프의 복사본을 들어봤는데 유머까지 섞어 가면서 옛일들을 재미있고 실감나게 이야기하셨기에 함께 듣는 사람들의 감탄과 웃음을 자아냈다.

나는 대학을 다닐 때 할머니 인터뷰 현장에 두 번 동참했다. 할머니는 그때의 산골짜기의 이름, 그 연대와 그 시대의 큰 사건인 토벌대의 대소탕 같은 것을 이야기하였다. 취재하러 온 손님은 역사 기록과 할머니의 말씀을 대조해 보면서 이야기를 유도했는데 연신 혀를 끝끝 차면서 박수 갈채를 보냈다. 그들이 보아도 할머니의 인생은 곧 하나의 민족 역사였던 것이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1주년이 되는 날, 저녁 추모회에서 내가 할머니에 대해 추억하면서 “우리 할머니는 위대한 할머니시고, 영웅 할머니십니다.”라고 했더니 바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오랜 침묵 끝에 어른 한 분이 나를 보고 한마디 하셨다. “너의 할머니는 우리 남자들도 인정하는 여호걸이셨다.” 사람들은 저마다 침묵 속에서 할머니에게서 받은 사랑을 되새기며 저쪽 하늘나라에서 부디 영화와 행복을 누리시기를 묵묵히 빌었다.

우수상

## 함께 걷기

박성일 (호주)

“지금 가지지 못했다면, 지금 내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방송을 마친 후 한인 학생회가 주최한 ‘청춘 콘서트’에 출연하기 위해 급히 짐을 챙겼다. 준비한 강연 내용을 다시 읽고 학생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정리하며 서둘러 기차에 몸을 실었다.

“지금 호주에서의 제 모습은 이민을 준비하며 계획했던 그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준비한 계획들은 사실 이민을 온 후 뜻대로 이뤄지지 않았 습니다.”

준비된 첫 문장은 문자 그대로 사실이었다. 30대 후반 이민을 결정할 때만 해도 나의 소박한 꿈은 “외국에 살며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작은 카페의 주인장”이었다.

한국에서 10년간 모아둔 돈들이, 이민 정착 자금으로 여겼던 4억 원의 돈이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질 줄은 한국을 떠날 당시에는 미처 알지 못했다.

강연에 온 학생들의 눈이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청춘 콘서트에

온 학생들에게 소개된 내 모습은 무척이나 화려해 보일 것이 분명했다.

“이민 2세대이거나, 호주에서 좋은 대학을 나온 엘리트인 줄 알았어요.”

이 같은 학생들의 선입관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호주 공영 방송국의 프로듀서로서, 영사관이 주최하는 멘토 세미나에 4년째 멘토로 활동하고 있고, 대학생들을 위한 ‘청춘 콘서트’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으니 말이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내가 꿈꿔 보지도 못했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걸요.”

호주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며 유학 생활을 펼치는 대학생들에게 과연 내가 해 줄 수 있는 말은 무엇이 있을까?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한마디는 “절망의 순간이 끝이 아니라는 것, 희망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 노력할 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이었다.

호주에서 힘들 때마다 나를 붙들어 준 한 직장 상사의 격려가 있었다.

“지금 가지지 못한 거로 속상해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이 무엇인가를 가지지 못했다면, 그것은 지금 당장 당신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사랑받는 남편, 존경받는 아버지

어린 시절 초등학교를 6번이나 옮겨 다닐 만큼 나는 이곳저곳에서 떠돌이 생활을 많이 했다. 아버지가 직업 군인이냐는 질문도 많이 들었지만, 아버지는 사업을 하는 평범한 소시민이었다. 손대는 일마다 도통 운이 따르지 않았던 아버지는 서울과 충주를 옮겨가며 사업을 벌이셨지만 별이는 늘 신통치 않았다.

연이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더 이상 가족의 힘을 의지할 수 없었을 때,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직장을 다니며 모아둔 1천만

원을 들고 사글세로 신혼 생활을 시작했다.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나의 어릴 적 꿈은 “사랑받는 남편,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었다.

“아내와 자식을 고생시키지 않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소박한 꿈” 그것은 내가 꼭 이루고 싶은 평생의 작은 소망이었다.

방송국 프로듀서를 거쳐 대기업 홍보실에 이르기까지 십 년 이상을 한국에서 일하며 열심히 돈을 모았다. 맞벌이에 나선 아내 역시 쉴 틈 없이 일하며 함께 돈을 모았다.

아이를 가졌을 때와 일산에 분양받은 25평 아파트의 대출금을 모두 갚았을 때의 기쁨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첫 주택의 대출금을 모두 갚아본 경험 때문이었을까? “여기에서 조금 더 무리해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순서가 아니었을까 싶다.

25평 아파트를 4억 원에 팔고, 8억 원을 주고 45평 아파트를 새로 샀다. 은행에서 4억 원을 대출받았지만, 대출 비율이 아파트 가격의 50% 라면 ‘한번 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아내는 결혼 후 한 번도 자신의 돈으로 화장품을 사 본 적이 없었다. 처가댁을 갈 때마다 장모님이 산 유명 브랜드 화장품의 샘플을 한 보따리 챙겨오던 아내였다. 알뜰한 아내와 성실한 남편이 만들어 가는 도전이 아름답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새집을 산 지 얼마 되지 않아 행복한 가정을 담보로 한 이 막연한 ‘신화 만들기’ 수업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가 깨달아졌다.

새벽 5시에 집을 나서고 자정이 되어야 다시 얼굴을 맞대는 맞벌이 부부. 주말도 없이 일만 하던 우리를 위해 앞집 할머니가 딸을 맡아 주셨고,

당연히 우리 소득의 상당 부분은 아이 양육비로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부모가 모두 바쁘니 아이 역시 영어 유치원, 발레, 수영, 피아노로 빽빽한 일정을 소화해야 했다.

빼곡한 개인 교습들로 바쁜 일과를 마친 아이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앞집 할머니 집으로 향했고, 저녁을 먹고는 그곳에서 잠을 청하곤 했다. 자정 전이라도 퇴근하는 날에는 잠든 아이를 찾으러 할머니 집에 갈 수 있었지만, 많은 경우 “오늘도 아이를 재워달라”라는 부탁을 서슴지 않던 일상이었다.

당연히 부부의 대화는 즐겁고, 아이 얼굴 한번 보는 것조차 힘겨운 ‘고단한 서울의 삶’이 이어졌다.

어릴 적 꿈 “사랑받는 남편, 존경받는 아버지”는 먼 나라 이야기일까?

언제나 되뇌던 마법과 같은 주문 “내 가족이 살아갈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해. 한 푼이라도 젊을 때 더 모아야 해.”

하지만 악착같이 달려온 나의 달음질로 인해, 나의 오랜 꿈은 오히려 우리 가족에게서 더욱 멀어져만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 꽃들에게 희망을

그러던 어느 날 책장에 꽂혀있던 한 권의 어른 동화 “꽃들에게 희망을”이 아내와 나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미국의 동화 작가 트리나 폴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은 애벌레 기둥에 올라서기 위한 애벌레들의 치열한 경쟁을 묘사하며 물질문명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어디를 향하는지도 모른 채 다른 애벌레들의 뒤를 쫓고 있는 호랑나비 애벌레는 다른 애벌레들을 밟고 꼭대기를 향해 달려가지만, 자신이 달려간 기둥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게 된다.

가족을 위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가족을 뒤로한 채 알 수 없는 또 다른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내 모습을 본 순간, 돌아서야 한다는 내면의 외침이 들리기 시작했다.

“여보, 우리 저기 가서 살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었다. 호주 여행 다큐멘터리를 함께 보던 아내가 꺼낸 이 한마디에 이미 나도 한마음이었다.

이민 이야기를 꺼낸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아내와 나는 이민 준비를 시작했다.

10년이 넘는 직장 경력 덕택에 호주 기술 이민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영어 성적만 있다면 영주권에 도전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하지만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며 영어 성적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어 공부만 하다 자칫 도전도 못 해보고 지쳐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 아내에게 거침없는 제안을 했다.

“기술 승인은 받았으니 무조건 호주로 갑시다. 2년 안에 영어 성적(아이엘츠 7.0)을 받으면 된다고 하니 내가 그곳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영어 점수를 받을게요.”

그리고 정확히 한 달 안에 회사에 사표를 내고 호주로 모든 짐을 부쳤다.

아직 영주권이 나온 것은 아니니 일단은 학생 비자를 받고 호주로 향했다.

이런 상황에서 몇 개월 전 8억 원에 산 아파트는 당장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아파트를 산 몇 달 전에 비해 이미 가격이 조금 내려가 있었고, 집을 팔아 그 돈을 모두 호주로 가져간다면 영주권이 나오기도 전에 있는 돈

을 다 써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들었기 때문이다.

“호주에서 영주권을 받으면 그때 집을 팔면 돼요. 전세금은 어차피 되 돌려 줘야 하는 돈이니 비싸게 놓을 이유도 없어요. 1억 원에 전세를 놓고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돈으로 버텨보죠. 지금은 부동산 시세도 안 좋잖아요? 영주권을 받고 집을 팔 때가 되면 집값이 다시 오를 거예요.”

8억짜리 아파트를 1억 원에 전세로 내놓으니 일주일 만에 바로 아파트가 나갔다. 그리고 2009년 5월 1일 아내와 딸과 함께 호주 멜버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멜버른으로 향하던 그 날 나의 이민 계획은 “호주에서 2년 안에 영어 성적을 받고, 영주권을 받고, 한국에 있는 집을 팔고, 그 돈을 가져와 호주에서 작은 카페를 연다. 그리고 가족들과 오손도손 행복하게 산다”였다.

### 예상치 못했던 미지의 세계

인천 공항을 떠난 지 11시간이 지난 후 한국과는 지구 반대쪽에 위치한 남반구 도시 멜버른에 도착했다.

비행기에서 내려 첫발을 내디딘 멜버른 공항에는 상상치도 못했던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까? 태양이 작열하는 해양 도로와 야자수를 꿈꿔온 나였지만, 우리 가족이 대면한 멜버른은 매서운 겨울 도시의 모습 그뿐이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영어 성적을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도, 외국에서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도 내가 느꼈던 스산함에 한몫을 했던 것 같다.

편하게 영어 공부만 할 수 있는 처지는 못 됐기에 한국 사장님이 운영하는 식당에 나가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며 호주 생활을 시작했다. 새벽 3시까지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했지만 피곤한 기색은 내지 못했다.

문제는 주어진 시간이었다. 2년 안에 영어 성적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가족이 선택한 일생일대의 모험은 자칫 큰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갈수록 재정적인 압박이 커져만 갔다. 처음 통장에는 전세금으로 받은 1억 원이 있었지만, 호주에 와 있는 2년 동안 매달 200만 원의 돈이 은행 대출 이자로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2년 동안 은행 대출 이자로 나간 돈이 6천만 원에 달하니, 나머지 4천만 원으로 딸과 내 학비, 생활비를 감당해야만 했다.

비록 힘들고 지친 일상이었지만 가족과 함께 호주에서 꾸려 갈 작은 카페에 대한 소망은 나를 더욱 강하게 이끌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영주권을 받으면 집을 팔고 그 돈을 가져와서 작은 카페를 할 수 있어. 그 카페에서 나는 빵을 굽고 아내는 커피를 내리고...”

그리고 10번이 넘는 영어 시험 후 2년이 조금 안 된 마지막 시험에서 드디어 원하던 영어 성적이 나왔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우리 가족은 그토록 원하던 호주 영주권을 손에 쥐게 되었다.

### 결핍은 실패가 아닌 축복이다.

하지만 호주 영주권이 나오면 모든 고민이 해결될 것이라는 나의 기대감은 몇 주가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영주권을 받으면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그 돈으로 호주에서 작은 식당을 차리겠다던 소박했던 나의 꿈도 사라지고 말았다.

아내와 딸을 멜버른에 남겨두고 아파트를 팔기 위해 홀로 한국으로 갔을 때, 8억 원에 샀던 아파트 가격이 5억 원까지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호주에 와서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아파트 시세를 종종 확인했지만, 매달 내려가는 집값을 보고 있는 것이 두려워 어느 순간부터는 인터넷을 멀리해 온 것이 화근이었다. 영어 공부에 집중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동안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다.

반토막 난 아파트를 팔기 위해 홀로 고국에 돌아온 초라한 40대 가장의 모습은 영화와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었던 바로 그 장면 그대로였다.

문제는 5억 원에 집을 내놓아도 아파트가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당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가난한 부모에게 손 벌릴 처지도 못 뵈고, 더 이상 대출 이자를 낼 여력도 없으니 흥물을 끼고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처지였다.

폭락한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 집을 사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침 일찍 부동산에 나가 사장님이 건네주는 커피 한 잔을 마시고 2시간을 앉아 있었다. 그러다 시내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다녀오는 것이 하루 일과의 전부였다.

매일매일 버스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울어야 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는 데...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작은 욕심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2년 안에 영어 성적을 받아야 한다는 절박함보다 빨리 집을 팔고 아내와 딸이 있는 호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절박함이 더욱 크게 느껴졌다.

그렇게 모든 문이 닫힌 상황에서 아내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서울에 있는 전화번호 하나를 알려주며 윤 선생님께서 빨리 전화를 걸어 보라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우리의 딱한 사정을 전해 들은 호주 한인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한국에 있는 남편에게 우리 집 구매를 부탁하신 것이었다.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병원으로 찾아갔다. 처음 보는 초췌한 40대 가장을 반갑게 맞이해 주신 윤 선생님의 온화한 표정을 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그 집은 저희가 사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호주로 돌아가셔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집을 되팔아 이득을 보게 되면 제가 그때 박 선생님에게 더 값아 드리겠습니다.”

윤 선생님은 내가 부동산에 내놓았던 시세보다 오히려 500만 원을 올려주시며, 호주로 돌아가는 여비에 보태 쓰라고 말씀하셨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윤 선생님은 이 아파트를 되파시며 손해를 보셨다고 한다. 아파트 가격이 그 후에도 계속해서 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분은 우리 부부에게 그런 이야기조차 하지 않으셨다.

비록 호주에서 정착하는 데 사용하려던 거금은 잃었지만, 평생 잊지 못할 은인을 얻게 됐다.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결핍은 실패가 아닌 축복”이다.

### 한국에서 하던 일, 호주에서도 할 수 있을까?

가까스로 집을 팔고 호주로 돌아왔지만, 고민은 계속됐다. 영주권은 받았지만 이제 호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고민거리였다.

집을 판 5억 원으로 은행 대출 4억 원을 갚고, 전세금 1억 원을 돌려주고 나니 통장 잔고는 제로가 됐다.

40대 초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무일푼으로 인생을 다시 설계해야 했다.

사실 이민 계획을 세울 때부터 나는 단 한 번도 호주 직장에 취업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한국에서 나의 강점이라면 방송국 프로듀

서와 기업체 홍보실을 거치며 익힌 ‘글발과 말발’이 아닌가?

한국 직장에서 깔고앉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나의 날 선 검은 영어권 국가에 오는 순간 가장 큰 약점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다.

“기획, 홍보, 소통 업무를 내가 어떻게 영어로 할 수 있겠어?”

처음 이민을 준비할 때 아내를 “호주에 이민 가면 그곳에서 현지 직장을 알아보는 건 어때요?”라고 제안했지만 나는 오히려 화를 내며 단호히 거절한 바 있다.

하지만 작은 카페를 열겠다던 나의 꿈이 아파트 가격 폭락과 함께 물거품이 된 이상 다른 선택은 불가능해졌다. 한 푼의 사업 자금도 없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호주 직장을 얻는 것, 호주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멜버른에 위치한 ‘복스힐 공립 기술대학(TAFE)’을 알게 됐다. 이 대학은 외국에서 직장 경험이 있는 이민자들이 호주 현지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4개월 프로그램으로 이력서 작성법을 알려주고, 모의로 면접 연습을 시키고, 마지막 4주 동안 호주 회사에서의 업무 실습 기회를 제공했다.

내가 업무 실습을 나간 곳은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던 ‘복스힐 공립 기술대학’의 마케팅 부서였다.

나를 맞아 준 마케팅 디렉터 제니는 너무나 친절했다. 하지만 처음 본 학생에게 그리 큰 관심은 없는 눈치였다.

“4주 동안 무슨 일을 시켜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곳에서 해보고 싶은 일이 있나요?”

첫 미팅에서 디렉터가 던진 한마디에 나는 서슴없이 답했다.

“한국에서 방송, 홍보, 마케팅 업무를 십여 년 했습니다. 제게 책상 하

나와 학생들 자료만 주신다면 홍보 마케팅 기획서를 하나 작성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십 년 동안의 각 과별 학생 등록 현황과 이들의 출신 국가를 담은 자료를 제게 주실 수 있을까요?”

다소 당돌할 수 있는 나의 제안에 디렉터는 ‘좋다’라고 답했다. 4주 후면 떠날 귀찮은 학생에게 회사 업무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디렉터 입장에서 이 일이 훨씬 더 수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도움의 손길, 천사의 손길

4주간의 업무 실습 기회!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실력을 보여준다면 혹시 아는가? 혹시 모를 취업의 기회가 올 수도...”

하지만 업무 실습 첫날 직원들에게 들은 이야기는 나의 사기를 꺾어 놓기에 충분했다.

공립 기술대학인 이 학교는 정부의 지원금이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었다. 그런데 정부에서 공립대학의 지원금을 올해부터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1,200명에 달하는 현재 교직원 수를 800명으로 구조 조정하고, 향후 몇 년 동안 신규 채용은 없다는 총장의 발표가 뒤따랐다.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말했다.

“그래, 그냥 최선을 다하자. 이곳에서 취업이 안 된다 해도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면 다른 직장을 구할 때 큰 힘이 될 거야.”

더 큰 어려움을 이겨냈기에, 다시금 마음을 잡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았다.

그리고 주어진 4주 동안 전교생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출신 국가별로 등록 현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출신 국가별로 유학생들이 어떤 학과를 선택했는지? 전공별로 어느 정도 비율로 영주권을 획득했는지?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의 경우 출신 국가의 직업 분포는 어떤지? 현재 코스를 마친 후 학사, 석사, 박사 등 다음 코스로 연결되는 비율은 어떤지?”

그리고 분석한 데이터를 모아 100페이지에 달하는 영문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저녁에는 호주인 친구를 찾아다니며 내가 작성한 영어 보고서를 읽고 수정해 달라고 부탁했다.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었지만, 업무 실습을 나온 40대의 아저씨는 그렇게 며칠 밤을 새우며 보고서를 완성했다.

작성한 보고서를 디렉터의 손에 넘기고 회사 문을 나서며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 취업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요. 많은 분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제 부족한 영어 실력을 덮어 주시기 위해 함께 밤을 새워 주셨죠. 호주 회사에서 일해 본 지난 4주간의 기억은 평생 잊지 못할 행복한 추억이 될 것 같아요.”

### 문이 닫혀야 또 다른 문이 열린다.

4주간의 업무 실습을 마친 다음 날 디렉터에게서 연락이 왔다.

“실습으로 2주 동안 추가로 일해 보면 어떨까요?”

제니 디렉터는 내가 만든 100페이지 보고서를 이번에는 20페이지 내외의 발표 자료로 요약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 내용을 발표해 달라고 부탁했다.

2주 동안 다시 회사에 나갈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흥분이 되어 바로 “좋다”라고 답했다.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고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한국에서 내

가 가장 자신 있어 하던 일이 아닌가?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에서야 발표 자료가 미비해도 소위 ‘말발’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영어로 말하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굳이 영어로 설명하지 않아도 스크린만 보고 알 수 있는 직관적인 발표 자료가 필요했다.

‘영어로 발표를 해야 해. 말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발표 자료를 만들어야 해.’

스스로에게 내린 가장 큰 숙제였고, 준비 기간 동안 도표, 그래픽 작업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약속된 2주의 시간이 되었을 때 디렉터는 각 부서의 책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긴 설명이 없음에도 발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

“분명히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신규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모든 문이 닫힌 것 같았지만 발표를 마친 다음 날 디렉터는 나에게 3개월 비정규직 계약서를 내밀었다.

“총장님이 말하더군요. 자기는 평생 이런 보고서를 받아 본 적이 없다고요. 우리 학교가 정규 직원을 뽑을 형편은 안 되기 때문에, 당신에게 비정규직(캐주얼)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다. 하지만 한국에서 버스 뒷자리에 앉아 흘렸던 그 절망의 눈물과는 분명히 다른 눈물이었다.

3개월 동안의 비정규직 계약을 마친 후에는 4개월 연장 계약서를 받았고, 다시 6개월 연장 계약, 또다시 1년 연장 계약을 이어가며 복스힐 공립 기술대학에서의 2년 직장 생활을 행복하게 마칠 수 있었다.

### 내가 살아온 삶은 여전히 호주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있다.

영어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경력이 호주에서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걱정은 분명히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부족한 영어 실력을 메울 수 있는 다른 능력들을 내 스스로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어 실력 부족이 내 장점을 가릴 것”이라는 이 같은 걱정이 내게서 완전히 사라진 데는 다음 직장에서 만난 프랭크 총장님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

복스힐 공립 기술대학에서 더 이상 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다음 직장을 찾던 중, 멜버른 대학교의 기숙사 대학 중 한 곳인 위트리 대학에서 마케팅 업무를 겸할 ‘지역 관계 매니저’를 채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매니저에 지원한 후 면접 날짜가 잡혔고 면접 자리에서 총장님을 직접 만나게 됐다.

“당신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면접에서 만난 프랭크 총장님의 이 같은 질문에 나는 고민의 여지도 없이 대답했다. 마케팅 매니저에 지원한 나의 약점이라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영어 소통 부족이 아니겠는가? 면접을 하며 내 영어 실력을 이미 간파했을 테니 숨길 일도 아니었다.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담당할 매니저를 찾고 계신 거로 압니다. 저는 호주에 이민 온 지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영어 소통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기획력이 뛰어납니다. 해당 분야에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영어도 곧 향상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영어가 부족하지만 다른 장점이 많습니다.”

이 말에 프랭크 총장님은 의아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기획력과 다른 장점이 많다면 영어 좀 못하는 게 왜 단점인지 저는 잘

모르겠군요. 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호주에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영어 실력이 부족한 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이곳은 호주 대학입니다. 박 선생님 빼고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호주 사람입니다. 영어를 당연히 잘하죠. 박 선생님이 기획력이 뛰어나고 다른 장점이 많다면 나는 당신을 고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모든 호주 직원들이 당신의 부족한 영어를 도와줄 겁니다.”

돌이켜보면 면접에서 이뤄진 대화치고는 매우 당황스러운 내용이다. 내가 생각했던 ‘영어 실력 부족’이 나의 최대 단점이 아니라고 말해준 호주 대학의 총장님.

프랭크 총장님은 나를 매니저로 뽑아 주셨고, 그곳에서 일하는 2년 동안 내가 작성한 영어 기사와 잡지 기고 글을 직접 수정해 주셨으며, 충고와 조언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다.

그리고, 호주에서 직장 경력 4년 차가 되어갈 즈음 이번에는 호주의 공영방송국인 SBS의 한국어 방송 프로듀서로 채용이 됐다.

한국에서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프로듀서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먼 훗날 호주로 이민을 와 이곳에서 방송 일을 계속하게 될 줄은 상상치도 못했다.

### 함께 걷기

청춘 콘서트를 마칠 때 한 학생이 질문을 던졌다.

“호주에서의 생활이 생각보다 순탄치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힘든 순간 선생님을 지켜 준 힘은 무엇인가요?”

나를 지켜준 힘...

돌이켜보면 호주에서 우리 가족을 지켜준 힘은 “함께 걸어온 내 주변

의 수많은 사람”이었다.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기사를 작성할 때마다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되뇌곤 한다.

“삶이 무너졌다 느껴질 때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 집을 사 준 윤 선생님 부부, 100페이지가 넘는 영어 기획서를 꼼꼼하게 읽어가며 오탈자를 모두 고쳐준 사랑하는 친구, 나의 재능을 발견하고 호주에서 첫 직장을 갖게 해 준 제니 디렉터, 보스가 아닌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던 프랭크 총장님. 그리고 하나하나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내 곁의 소중한 사람들”

오늘 청년들을 만나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들 소중한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내가 일어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당신 곁의 소중한 사람들과의 인연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함께 걷고 있는 당신 곁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장 큰 힘입니다.”

## 에메랄드 섬의 옥돌 정착기

임세진 (아일랜드)

비행기에서 처음 내려다본, 바다 위의 섬 아일랜드는 신기한 녹색 에메랄드빛을 자랑하며 불안했던 나의 마음을 기대 반 설렘 반으로 바꿔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렘도 잠시 더블린 공항에 처음 내린 나를 맞이한 것은 폭풍에 가까울 정도로 세찬 바람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로서는 머리카락을 흩뜨리며 눈을 못 뜨게 불어대는 아일랜드의 세찬 바람에 익숙해지기까지 이후에도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던 듯합니다. 한국도 아일랜드도 아닌 제3국에서 아일랜드인인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함께 정착하기로 한 아일랜드에서의 삶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아일랜드를 Hibernia라고 불렀다지요. 어원을 찾아보니 이 뜻은 ‘겨울의 땅(Land of Winter)’ 이랍니다. 따뜻한 지중해의 날씨에 익숙한 로마인들이 아일랜드에 처음 도착해 매서운 바람에 놀라 그렇게 불렀을 법도 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1년 내내 비바람이 일상인 이곳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전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정착과 동시에 곧 차가운 바닷바람의 향연쯤은 아무 것도 아닌 진짜 제 마음의 겨울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아일랜드인과의 결혼으로 이주한 외국인에게 아일랜드 정부는 당시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거주권만을 발급했습니다. 그래서 노동 허가증이 없는 제가 아일랜드에서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한 신흥 생활이라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 일자리를 찾아다니는 것이 일상이 되었지만, 노동 허가증이 없는 사람을 써주는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슈퍼마켓이든 편의점이든 나를 써주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성실하게 일하고 싶는데, “노동 허가증은 있나요?”의 첫 번째 질문에서 막혀버리는 저는 매일 허탕을 치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 절박하게 다녔습니다. 지금도 더블린 곳곳을 다닐 때마다 일 구하러 무작정 문을 두드리고 다녔던 회사가 종종 보이곤 해 새삼 감회가 새로울 때가 많습니다.

노동 허가증도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그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절박하고 절실하게 일자리를 찾으려 다녔는지 가끔 생각해 봅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 형제와 떨어져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을 떠나 난생처음 접해보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을 때, 저에게 일의 의미는 곧 제대로 된 정착의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일을 통해 그 사회에 소속되는 안정감과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 그 사회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럴 길은 전혀 보이지 않으니 마음은 점점 더 갑갑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의 외국인에게는 일정 기간(당시 3년)이 지나야만 노동 허가증을 발급하는 아일랜드 정부를 원망해 보기도 하고, 중요한 현지 규정 같은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지 않고 아일랜드에 정착을 결정한 저를 원망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낯선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불안감으로 어둡게 내려앉기 시작한 마음은 저를 점점 더 힘

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전혀 신경 쓰이지 않거나 그냥 웃어넘길 일들도 당시의 저는 참으로 민감하고 무섭도록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고 나올 때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슈퍼마켓에 개인 장바구니를 가져가야 하지만, 간혹 장바구니를 잊고 간 손님이 계산대 점원에게 부탁하면 종이봉투를 내어 주던 것을 종종 보곤 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급히 시장에 가느라 장바구니를 미처 챙기지 못해 저도 처음으로 다른 아일랜드인이 하는 것처럼 계산대 점원에게 종이봉투를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다른 아일랜드인에게 종이봉투를 친절하게 내주었던 것과 달리 점원은 규정상 종이봉투는 생필품 이외의 특정한 품목을 구매한 고객에게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점원이 원래 칼같이 규정대로 따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제가 뜨내기 외국인으로 보이기에 다른 아일랜드 고객들을 대하는 것과 달리 차별하며 딱 잘라 거절한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사소한 일이 왜 그렇게 서러웠던 걸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만 주던데 왜 나만 차별하느냐 차마 따지지도 못하고, 민망한 마음에 쇼핑한 물건들을 양손으로 주섬주섬 담아, 두 팔에 꾸역꾸역 겨우 끌어안고 집으로 돌아와, 분한 마음에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그런가 하면 이방인에 대한 아일랜드인의 친절도 곱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으니 분명 그때는 제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행객들에게 친절하기로 소문난 아일랜드인들은 길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외국인들을 보면, 묻지 않아도 어디를 찾고 있는지 먼저 물

어보고 도움을 줍니다. 그날도 일자리를 찾아 헤매다 집에 가는 버스를 잘못 타서 어둑어둑해져 가는 시내에서 방황하고 있을 무렵 친절하 아일랜드인 부부가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셨습니다. 길 안내를 받아 무사히 집에 돌아왔는데, 왜 감사한 마음보다는 '내가 그렇게 멍청하고 불쌍해 보이는 걸까?' 하는 자괴감이 먼저 들었던 걸까요. 나는 이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부유하는 잉여 인간이라는 그런 마음이 저를 선한 도움에 대한 고마움조차 순수하게 느끼지 못하는 자존감 낮은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겨울을 한동안 지내면서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계속 노력했던 나날들이 결실을 보았던지, 회사가 보증해주는 조건으로 노동허가증을 받고 드디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일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IT 계열 기업의 한국어 지원 콜센터 업무였습니다. 콜센터 일은 3D 업종 중에 하나라고 하지요. 감정 노동에 시달리는 참 힘든 직업이라고요. 그런데 저는 살면서 그때처럼 신나고 재미있게 일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도 일해서 드디어 월급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자체가 어찌나 그렇게 감격스럽고 감사했던지요. 매일 듣는 것은 고객의 불평이었지만, 그 불평조차도 외로운 이민 생활에서는 한국어로 같이 소통하는 즐거움으로 들렸으니 말이죠. 신기한 것은 그렇게 재미있게 일을 하다 보니 참으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더군요. 회사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콜센터를 찾는 고객분들은 사실 불평 자체보다는 개선을 바라고, 그리고 개선을 통해 회사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 싶은 고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고객의 불평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공통적인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들을 정리하여 개선책을 마련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러한 저의

계획을 상사와 의논하고, 적극적인 제 열정을 높게 평가받았던 덕분인지 서비스 개선 특별 프로젝트에도 함께 참여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당시 저는 프로젝트 일 자체가 너무 재미있어 한국식으로 집에도 일을 싸 들고 가서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열정 페이에 기댄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후 단기간에 서비스 개선이 눈에 띄게 이루어지고, 제가 담당하는 지역의 고객들의 불만 접수는 푹 떨어지고, 실적은 올라가자 참으로 놀라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회사에서는 입사 6개월의 저를 아시아 지역 담당 세일즈 부서장으로 파격 승진시키고, 그해의 최고 공로상까지 부여했습니다. 제 열정 페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은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유럽 시장에 처음 들어가는 장벽은 참 높았는데, 한국인의 열혈 정신이 통했는지 장벽을 뚫고 들어간 이후 일하기는 오히려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일하는 것도 재미있고 보람되었지만, 지금도 제가 첫 번째 직장에서 기억에 가장 남는 것은 유엔 런치(UN-United Nation-Lunch)라고 부르는 매 금요일의 점심시간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인지라 참으로 다양한 국적의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끼리 금요일에는 자기 나라 음식으로 점심을 조금 넉넉하게 준비해 와서 뷔페식으로 나누는 점심이었습니다. 우리끼리는 유엔 런치라 부르며, 음식 문화를 통해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없는 솜씨에 김밥이나 잡채를 만들어가 신기하고 맛있는 한국 음식을 자랑하곤 했었지요. 일과 관련한 다른 어떤 성취보다도 그때의 그 기억은 지금도 저를 저절로 미소 짓게 하는 따뜻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인종과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어떤 특정 국가나 민족의 특징보다는 서로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 모든 인간은 기쁘고 즐거워하고 때로는 화내고 질투하고 그러면서도 서로 협동하고 도와서 더 나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공통된 인류라는 배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회사에서 저는 대부분이 저보다 훨씬 어린 20대 초반의 젊고 파릇파릇한 동료들과 일했었는데요,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진 밀레니엄 세대의 직원들과 매일 소통하며, 고객의 불만을 접수하는 최전선에서부터 업무를 배웠던지라 이때의 경험과 인맥들이 이후 커리어에도 귀중한 자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몇 년 후 회사가 아시아 비즈니스를 홍콩으로 옮길 결정을 했을 때, 또다시 길거리로 나와 막막해지기 전에 좀 더 큰 회사로 스카우트 될 수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다고 생각했기에 항상 더 열심히 달리려고 노력했고, 힘들게 얻은 직장이었기에 일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바탕이 되어 함께 일했던 몇몇 동료들의 지혜를 모아 드디어 제 비즈니스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밀리는 아시아 시장의 고객들만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보고 싶다는 제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회사의 CEO가 되어 구상해 온 비즈니스를 좀 더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되면서, 모든 긍정 에너지를 쏟아내며 즐겁게 일하고 삶을 즐기는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네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후에도 문득문득 이방인의 서러움이나 차별이 완전히 사라졌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차별이라는 것을 인종이나 성별 등 본인의 능력 외적인 요인 때문에 같은 잣대로 공평하게 평가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길거리를 다닐 때, “Hey Chinese!” 혹은 “니하오!”라고 소리치는 식의 동양인을 비하하는 인종차별은 오히려 아

주 애교(?)에 가까운 수준의 차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경찰을 불러 혐오 범죄로 신고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은 공통적으로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도움을 주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양인에게는 측은지심이 있고, 서양인에게는 그리스도교의 정신이 있어서인지 말이지요. 그렇지만 본인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거나 하는 경우가 되면 상황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서장으로 회사에서 유례없는 단기간의 초고속 승진을 했을 때, 비즈니스를 키워 내실 있는 사업체를 이끌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로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가장 큰 비즈니스 스쿨에서 객원 교수로 강의하게 되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준 동료들이 있었던가 하면, “저 아시아 여자가 할 정도면 정말 쉬운 일이거나 일할 사람이 없었나 보군.”이라며 비아냥거리던 사람들도 꽤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친하다고 생각했던 일부 동료들이 그런 속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좀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차별에서 비롯된 수군거림에서 마냥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요즘은 제가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러한 상황들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좁은 세계에서 경험한 동양인에 대한 편협한 이미지를 제가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수군거릴 여지가 없을 정도로 더 월등한 실력으로 앞서가야겠다 라고 나를 더 채찍질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 자신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동양인들에 대한 인식을 차츰 바꿀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함께 하면서 말이죠.

지난 10여 년이 넘는 시간을 돌아보면 버티기 힘든 순간들도 많았

고, 한고비 한고비가 아슬아슬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 저를 그럼에도 버틸 수 있게 해준 가장 큰 힘은 생각해 보면 가족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변함없이 격려와 기도로 저를 위로해 준 가족과 친구들은 고국에 두고 온 저의 가장 귀중한 재산입니다. 비바람의 나라에 계획도 없이 정착하게 된 것은 아일랜드인인 남편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이곳에서 버틸 수 있었던 힘도 가족의 힘입니다. 남편은 무뚝뚝하고 살가운 표현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현재까지 제 일과 생활을 묵묵히 도와주는 가장 큰 협조자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했을 때, 문득 내 앞에 가로막힌 장벽을 마주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 사회에서 딱 여기까지야’라는 생각과 함께요. 이곳 어느 조직이나 사회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동양인에 대한 대나무 장벽(Bamboo Ceiling)과 제 성별에 따른 유리천장(Glass Ceiling)의 이중 장벽에 어느 순간 가로막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무척 절망한 저에게 남편은 “You are a strong person with great talent. I do believe that you can break the bamboo ceiling to take the bamboo stick as a trophy. With the bamboo stick, you will break the glass ceiling!”이라고 진지한 눈빛으로 말하더군요. 그냥 저를 격려해 주려고 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나무 장벽을 부수어 얻은 장대를 가지고 유리 천장도 깨뜨릴 수 있을 거라는 남편의 말은 지금도 제가 이중 장벽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장대로 유리를 깨는 강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남편의 격려를 통해 장벽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는 항상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양인 여성이라는 저의 특징이 장벽이 아닌 나의 성장을 도와주는 특별한 디딤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어도 거의

못 하고 한국 음식도 잘 먹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아이들의 한글학교나 한인 행사에 가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오랜 시간을 함께해주는 남편은 아일랜드 생활에서 가장 고마운 친구입니다.

그런가 하면 귀여운 제 아들들에게서도 참 많은 힘을 얻습니다. 엄마에게 한국어를 하면 엄마가 좋아하는 것을 알고 “엄마, 김밥 만들어 주세요!” 하는 애교나 제가 힘들어 보일 때는 한국말로 “엄마, 힘내요!” 하는 첫째 아들은 한국에서 타 본 SRT와 높은 빌딩들을 기억하며 한국을 무척 자랑스러워합니다. 저는 알아듣지 못하는 아일랜드 고유어 게이리어를 학교에서 배워 와서 “엄마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할 때가 있는가 하면, 태극기와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을 자랑스레 제 반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꼬마 한국 알리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형을 따라서 “엄마 보보” 하면서 제 지친 하루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막내아들 역시 저를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토요일 아침이면 GAA(Gaelic Athletic Association)에서 한바탕 게이일 풋볼을 하고 돌아와 피곤해도, 오후에는 힘차게 한글학교에 다니는 저의 든든한 지원군들입니다. 게이일 풋볼을 좋아하고, 한국의 태권도도 신나게 배우는 이 아이들이 저는 한국인의 근면 성실, 아일랜드인의 유머와 감성, 그리고 양국 국민이 모두 가지고 있는 끈기와 열정을 고루 가지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나갔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 제 어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 가정과 일에서 항상 성실하고 따뜻한 사랑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민 생활의 비바람 속에서도 저를 계속 지탱하게 해주는 또 다른 원천으로 작지만 강하고 따뜻한 교민 사회의 힘을 빼놓을 수 없겠

습니다. 아일랜드는 다른 유럽 국가나 북미 국가 대비 한국인 이민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글학교도 가장 최근에 세워진 곳 중의 하나이고요. 하지만 부족한 것들을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함께 채워가며, 일귀가는 따뜻한 마음 하나만은 최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인들이 모인 교민 사회는 좁은 테두리에서 갈등이 생기고, 각종 소문의 근거지란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경험은 한글학교를 비롯하여 규모는 작지만 따뜻한 이곳 한인 사회가 우리 옛 공동체 두레나 품앗이와 같이 서로서로 돕고 나누는 정신이 더 강한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서 저는 외국에서 만나 함께한 우리 교민들과 동포들의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고, 한국과 아일랜드에 함께 이바지할 수 있는 더 큰 공동체의 힘과 기운을 얻습니다.

한국을 떠나 이민 생활에 정착하게 된 지 어언 10여 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때로는 나도 한국에 살면 서러움 없이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막연한 생각들로 현지 사회에서 간혹 느끼게 되는 이런저런 불만을 애써 삭혀보려고 하던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는 ‘내가 사는 곳이 어디이든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주인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한국인이 되려고 합니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간직하고, 이 정체성을 통해 내가 속한 사회에서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이바지를 하고 싶은 꿈을 쫓습니다.

아일랜드에 온 이후, 외국인들이 조금은 더 북적대는 시내 가까이에 살다가 2~3년 전 동양인은 찾아보기 힘든 지금의 더블린 교외 주택가로

새로이 이사했을 때는 마치 아일랜드에 처음 왔던 기억이 떠올릴 만큼 다시 낯설어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는 곳에서 주인이 되기로 한 이상 저는 더 이상 저만의 어두운 동굴과 겨울의 시간에 갇혀 지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 새마을 운동처럼 매월 첫째 일요일 아침에 동네 주민들이 함께 마을을 청소하는 날에는 누구보다도 먼저 나가서 동네 청소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주민센터 기금 모금을 위한 케이크 세일즈를 하는 날에는 투박한 아일랜드 역양의 영어를 아직 잘 못 알아들어도 함께 가서 세일즈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음력설이 다가오면, 아일랜드에 모인 중국인들이 ‘Chinese New Year’라고 곳곳에 빨간 플래카드를 도배하는 바람에 마치 모든 동양인은 중국인일 줄 오해하게 만드는 상황이 계속되기도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냥 혼자 기분 나빠하기보다는 한국의 약과를 들고 가 나누면서 “Happy Lunar New Year!”라고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을 비롯 많은 아시아인들이 음력설을 즐긴다고 “Lunar New Year!”를 강조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동네 사람들은 이제는 조금씩 “Chinese New Year” 대신 “Happy Lunar New Year!”라고 인사를 하게 된 것 같네요!

제 소녀 시절 꿈이 한때는 외교관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한국을 알리고, 국가 간에 교류할 수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참 멋있어 보였거든요. 제 직업 자체는 외교관은 아니지만 나는 내가 민간 외교관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아직은 생소한 이곳 아일랜드인들에게 ‘저 사람은 한국인인데 참 멋있고, 성실한 믿음이 가는 사람이야. 한국인들은 그런 사람들인가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면 참으로 가슴 뿌듯한 일입니다. 제가 이곳 사람들에게 그런 인상을 주는 사람이 된다면 민간 외교관

의 자격이 충분하겠지요? 오늘도 저는 이러한 민간 외교관이 되어 아이들의 학교와 유치원, 제 일터와 지역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한국인의 성실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힘차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글을 쓰는 동안 더블린 공항에 처음 내렸던 순간부터 이어진 이민 초창기의 시간을 떠올리게 되었고, 한동안 어둡고 캄캄한 동굴과도 같았던 이민 초기의 기억을 되살려보는 계기가 되었네요. 흥겨운 아이리시 댄스와 친근한 아이리시 펍 문화마저도 나 혼자만을 소외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그 시간들 말이죠.

그래도 매 순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기에 별다른 후회는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정착 초기의 시간을 조금은 덜 힘들게 보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라는 토양에서 태어나 20대 중반까지 살아왔던 저는 저라는 나무를 뿌리째 갑자기 뽑아와 이곳 아일랜드에 억지로 옮겨 심고 성급하게 뿌리를 내리려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나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서, 새로운 곳에 적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었다면 같은 시간을 훨씬 덜 힘들게 보낼 수 있었을 것이란 생각을 해 봅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 돌아보니 매 순간 감사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도움들이 항상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더 애정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을씨년스러운 비바람의 나라로만 생각했던 아일랜드의 진정한 가치는 흥겨운 댄스나 흑맥주 기네스의 아이리시 펍 문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차가운 바다 폭풍이 불기에 독특한 위스키 향의 아이리시 커피와 따뜻하고 부드러운 아이리시 밀크티의 위로가 간절해지는 낭만적인 곳입니다. 한국에는 아일랜드의 버스킹 음악이 유명하지만, 따뜻한 벽난로가 있는 아늑한 아이리시 티 룸(Tea Room)에서는 독특한 음식의 클래식 악기 비올라 선율이

더 잘 어울리고, 그 안에서 상상력 넘치는 많은 이야기들이 밤새도록 오고 갑니다. 아일랜드는 이렇게 깊은 사색과 성찰이 풍부할 수 있는 곳이기엔 제임스 조이스,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오스카 와일드, 조지 버나드 쇼, 사무엘 베케트, 셰이머스 히니 등 일일이 손꼽기 힘든 세계적 대문호들을 길러내는 토양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나 요즘은 진짜 출세했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출세의 의미는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출세(出世)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세상으로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저에게는 새로운 나라에 도착해서 그 낯설음과 받아들여지지 못한 환경 속에서 웅크리고 나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 꼭꼭 숨어 지내는 심경으로 살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상으로 나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활력을 주려고 노력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눈빛 하나, 말 한마디에도 민감했던 시절이 있었기에 ‘출세’한 저는 조심스러운 배려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0여 년 전 이곳 에메랄드 섬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야말로 계획 없이 굴러온 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에메랄드 섬보다도 더 빛나는 보석이 되기 위해 하루하루 나의 삶을 갈고 닦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민자의 삶을 고유의 환경에서 자란 나무를 새로운 토양에 이식해 뿌리 내려 재생하는 과정에 비유하곤 합니다. 하지만 전 다른 토양에서 오랜 시간 자란 나무를 억지로 옮겨 심어 낯선 곳에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을 알기에 이 비유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신

에 이민자들 각자가 새로운 나라에서 자신만의 개성을 가지고 빛나는 특별한 보석들이 될 수 있다면, 정착 과정은 새로운 나라에 자신의 다양성을 더하고, 서로 간의 이해와 조화를 통해 아름다운 모자이크와 같은 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2의 고국에서 억지로 뿌리 내린 나무보다는 모자이크 그림을 빛내는 하나의 보석으로 기여하고 싶습니다.

경상북도 작은 산골 마을 청송에서 성장하시고 상경하여 서울에서 일가를 이루신 제 아버지께서, 당신의 딸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빛나는 존재가 되라고 저에게 지어주신 이름은 세진(世璉)입니다. 세상 세(世)의 옥돌 진(璉)입니다. 제 이름처럼 그래서 저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왔고, 이곳 에메랄드 섬에서 더욱 빛나는 옥돌이 되기 위해 오늘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매일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하루를 내달으니 한때는 제 마음마저 웅크리고 닫고 싶게 만들었던 더블린의 차가운 바람마저 싱그럽고 활기차게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고 하지요. 이 싱그럽고 활기찬 바람이 모든 재외동포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민족 재외동포 여러분 모두가 각자 살고 있는 곳에서, 가장 빛나는 특별한 보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케세라세라·희망은 늘 과제와 함께

이홍매 (중국, 일본 거주)

“엄마 층계가 이제 마지막이야.”

내 발이 다음 계단에 닿기 3초쯤 전에 귀땀해주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 왔다. 헛발을 디뎌 넘어질까 봐 걱정하는 것이 틀림없다. 언제부터 인지 반보쯤 뒤에서 늘 이것저것 살피는 듯한 아들과의 동행이 늘었다. 물론 타박도 늘었다.

“방금 그 발음은 좀 이상하네...”

“엄마 무거운 건 택배로 해요...”

그러다가 간혹 하는 “어머니 밥 주쇼.”라는 우리 연변 말을 들을 때면 어릴 적, 그 뉘앙스와 변함없는 것에 웃음이 나오기도 한다. 내가 한국말을 하면 일본어로 대답하는 아들이다. 가끔 하는 한국말 속에 중국어가 섞여도 아무런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아들은 일본인들 속에서 제2, 제3 외국어로 한국어와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이제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다. 지난

일들이 꿈이나 싶게 이젠 엄마의 심리 상담가 역할도 하는 아들이다.

1990년대 초, 결혼한 지 1년 만에 시어머니께 임신 소식을 알렸더니 “너희들은 딸을 낳아야 좋단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지만 반대로 ‘아들이면 안 되나?’라는 걱정도 생겼다. 결국, 사내아이가 태어났고, 시어머니는 아들일 경우에는 집안사람이 아닌 남에게 이름을 지어 받아야 된다는 사주풀이를 받아 가지고 오셨다. 아들을 낳은 즐거움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들을 낳으면 한 소리 할 수 있다는 세상 편견 속에서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기도 했다. 하여 수없이 부탁을 받고 남들한테 이름을 지어 주시는 우리말연구자이신 외할아버지를 뒤로 하고 한국어와는 인연이 거의 없는 아빠 회사의 사장님이 소곤(曠坤)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다. ‘넓은 땅 위에서 울부짖다’라는 큰 뜻이 담긴 이름이었다.

유치원에 다니면서 우리말 동요를 짹짹 외우기 시작했던 해인 1996년에 일본으로 유학 온 아빠를 따라 일본에 오게 된 곤(애명)이다. 도착한 지 하루 만에 아파트 아랫집 여자애와 친해진 곤이는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데도 깔깔 웃어대며 같이 눈사람을 만들기도 했고, 숨바꼭질을 하며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것 같았다. 겨울방학이 지나고 동네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기 시작하자 유치원에 보내 달라고 매일같이 떼를 썼다. 귀가 어리바리해지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전혀 자리 잡지 못하는 엄마와는 달리 곤이는 잘 정착하고 있었던 것이다.

8, 90년대 중국 동북의 아이들은 영하 25도를 넘는 한겨울에는 호랑탄자의 세례를 받으면서 컸다. 그래서 혼수함에는 호랑탄자가 1순위로

들어가 있었다. 적어도 2, 3킬로쯤 되는 탄자에 이미 두터운 옷을 입힌 애기를 들쳐 싸서 업고 밖에서 이동을 해야 했다. 집집마다 엄마와 아이가 물오리마냥 땀을 줄줄 흘렸지만 딱히 다른 방한 대책이 없었다. 역효과로 아이는 자주 감기에 걸리고 엄마는 어깨가 물러나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렇게 키운 곤이를 영하 5도의 날씨에 맨다리에 짧은 바지를 입힌 채 겨울 코트 하나만 걸쳐 유치원 버스에 태워 보낸 첫날, 나는 하루 종일 속이 탔다.

남편이 일본 유학을 떠난 뒤 2년을 고민한 끝에 일본에서 같이 사는 것으로 결정했다. 아이가 아빠를 찾기 시작했고 나 역시 부부가 떨어져 사는 게 버겁게 느껴졌었다. 아이를 함께 키워야겠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일본 땅에 발을 내디뎠던 나는 앞으로 몇 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리지도 않았다. 마치 가는 곳이 천국인 것처럼…. 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질 것처럼 겁 없이 바다를 건넜다.

곤이는 제일 추운 2월에 맨다리로 유치원복을 입어야 하고 때로는 말라붙은 눈물 자국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한번도 유치원에 안 간다고 떼를 쓴 적이 없었다. 그동안 살던 곳과는 환경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다르고, 언어도 달랐지만 당황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갓 익히기 시작한 ‘집안 말’이 불쑥불쑥 튀어 나오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바로 일본어로 바꾸어 말하고 반년이 지나자 일본어가 자연스럽게 자리잡았다.

만 5세 전후에 완성된다는 기본적인 언어발달능력, 일본에 온 지 불과 다섯 달 만에 거침없이 대화하는 아들을 보면서 놀랐다. 다섯 살 아들에겐 모국어였던 한국어가 일본어로 대체되는 그 시기를 지켜보면서 인위

적인 환경에 지배받는 언어 적응의 과정이 아이들에겐 생각보다 너무 간단함을 느꼈다. 다행히 여러 해 동안 한국 케이블 TV를 설치한 덕에 아들에겐 한국말이 생소하지 않았다. 중국인이 왜 비싼 돈을 주면서 한국 방송을 보는지, 왜 고추장, 김치를 아무 거리낌 없이 매일 먹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질 여지도 없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의 운명적인 공존 속에서 살게 된 아들이었다.

곤이가 초등학교 3학년쯤 되었을 때였다. 어느 날, 남편의 지인이 국적을 바꿨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옆에서 듣고 있던 곤이가 국적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 왔다. 곤이의 입에서 그런 질문이 나오리라 예상 못했던 나는 아홉 살 아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적당한 말을 찾지 못한 채 한동안 복잡한 생각은 쉬 가라앉지 않았다. 초등학생 아들에게 국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앞으로 곤이한테 국적은 어떤 의미로 존재하게 될까?

그러던 어느 날, 아이를 이끌고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았다. 넓게 확 트인 하늘을 바라보며 해야 할 이야기인 것 같았다.

“조선이라는 나라 알고 있지?”

“응?”

“우리가 살았던 연변과 가까운 나라…”

1930년 초봄, 첫돌이 지난 큰고모를 업고 이불 한 채와 쪽바지를 차고 두만강을 건너온 나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야기를 나는 흑백영화 속의 어둡고 칙칙한 화면처럼 떠올리며 어린 곤이에게 들려줬다. 차디찬

얼음구멍에 빠진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뿌려 주는 현 이불과 막대기의 힘을 빌어 겨우 얼어붙은 강 위로 올라왔다는 우리 조상의 눈물겨운 두만강 옛이야기가 어린 곤이에게 그렇게 전해졌다.

힘겹게 건너와 발붙인 첫 정착지가 길림성의 훈춘이었고 외할아버지가 거기서 태어났다는 이야기. 광복이 된 후, 술 공장에 나가게 된 외할아버지의 아빠, 그리고 떡 장사로 시장 바닥을 누벼야 했던 외할아버지의 엄마는 여섯 자식을 굶기지 않으려고 고달픈 삶을 살았다는 옛이야기를 해줬다.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지만 또릿또릿한 곤이의 눈동자에 뭔가를 전달해 줘야 할 것 같은 사명감 같은 것이 솟구치는 것 같았다. 그렇게 곤이는 광복이라는 말을 처음 접했다. 곤이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큰 힘을 가진 분이 대학교수인 외할아버지였다. 그런데 그런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남들이 먹다 버린 과일을 주워 먹기도 했었다는 말에 아이가 영영 울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옛이야기는 그만 멈출 수밖에 없었다.

“외할아버지 국적은 뭐예요?”

중단된 이야기 속에서 뭔가를 느꼈던 걸까? 곤이가 당돌하게 물었다.

“중국”

“난 외할아버지랑 같은 걸로 할래요.”

어린 아들 곤이에게 국적은 그런 것으로 이해되었다. ‘한국’은 뭐고 중국 사람인데 왜 한국말을 하게 되었을까에 대해 어린 곤이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을까. 그것에 대해 한 번도 확인한 적은 없지만 국적은 할아버지와 같은 것이어야 하고 가족은 다른 국적일 수 없다는 그 기특하고

예쁜 주장은 그 후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변함이 없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살면서 이방인으로서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고 지냈다. 다만 어릴 때부터 익혀 왔던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에 집착했던 것 같다. 순리대로 살자는 생각이 되려 '산에 가면 산 노래, 들에 가면 들 노래'에 맞추기 위한 모질음이었을지도 모른다. 밖에서 이런저런 일로 신경 쓰다 집에선 한국어로 식구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면 마음이 후련해지곤 했다. 일본어로 대답하곤 하는 곤이도 외할아버지와 통화할 때면 평소 들었던 엄마 아빠의 대화를 되새기며 한국어로 대화하려 했다. 사실 요즘과는 달리 그때는 일본 사람들 귀에 중국어나 한국어나 다 일본어가 아닌 외국어로 들릴 뿐 명확하게 중국어와 한국어가 구별되진 않았다. 우리 식구끼리 한국어로 대화해도 그들은 우리가 중국어로 대화하는 줄 안다. 구태여 중국 사람인 우리가 왜 한국말을 하는지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때에는 중국이 다민족 국가라는 자체도 잘 알지 못하는 일본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중국 사람은 수많은 외국인 중의 한 부류로 인식될 뿐이었다. 한편 당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에 남겨졌던 잔류 고아들에 대한 조사와 귀환 사업이 한창이었다. 패전 후 중국에 남겨진 일본인 자식들을 키워준 중국인들에 대해 일본인들은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 알팍한 삶의 지혜라 할까 우리는 중국에서 온 조선족이라는 한층 복잡한 설명을 아예 하지 않은 채, 순수 중국인 신분으로 당분간 살았다.

곤이가 중학교를 졸업하던 날 담임 선생님께서 “소곤이가 앞으로 중국, 한국, 일본을 넘나들며 활약할 수 있는 방면으로 나가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나는 내심 깜짝 놀랐다. 마치 호주머니 깊숙한

곳에 숨겨 둔 채 아직 세상에 공개하지 못한, 대대로 내려온 가보의 존재를 들킨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할까…. 후에 안 일이지만 아들 곤이는 친한 친구들한테 자기는 중국 사람이지만 조상은 한국 사람이라고 ‘출생의 비밀’을 말해 왔다고 한다. 담임 선생님께 두만강 옛이야기에 흥미를 느끼더라는 말도 그때 들었다. 이름처럼 당당한 아이로 크게 키워야겠다는 목표만을 세우고 조선족이라는 면이 도대체 아이한테 도움이 되겠냐를 두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늘 고민하고 있었던 나는 아들 앞에서 부끄러웠다. 일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왜 내 뿌리를 두고 주춤했을까….

나는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태어났다.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따뜻한 온돌의 푸근함을 작은 몸으로 느끼며 자랐다. 생의 첫마디가 “엄마”였고 맛을 알기 시작해서부터는 물에 씻은 김치 조각이 없으면 밥을 먹지 않았다 한다. 한복에 대한 애착이 대단했던 엄마는 명절 때면 늘 하얀 저고리에 까만색 치마를 입으셨다. 그 모습이 너무 예뻐졌다. 어린 시절 엄마가 나에게 지어 줄 색동저고릿감을 사 오셨는데 초등학교이었던 오빠가 군공 메달을 만든다고 엄마 몰래 저고릿감을 가위로 베어낸 탓에 엄청 혼났던 기억이 즐겁게 머릿속에 남아 있다. 왜일까,라는 의문을 가져본 적도 없었고, 지구상 모든 사람들이 나와 비슷하게 사는 줄로만 알았다. 내 아들 곤이처럼 국적에 대한 설명도 부모님께 들은 적이 없었고 국적이란 개념을 어른이 다 된 후에야 알게 되었다. 중국어와 한국어를 섞어 쓰다가 부모님의 주장으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한국어를 중심으로 쓰게 되었고, 결국 한국어를 활용하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다. 중국에 살면서 중국어보다 한국어가 더 편하고 더 능한 아이러니 속에서 나는 연변이라는 작은 울타리를 세상의 전부라고 착각하며 살아 왔다.

90년대 초, 생애 첫 외국행으로 한국에 가 봤을 때의 놀라움은 상상보다 컸다. 또 다른 맛의 김치와 비빔밥을 알았고 내가 몸 담고 살았던 정통의 깊이가 아직 많이 부족함을 느꼈다. 그 동안 귀로만 들었던 ‘족보’라는 실제 존재에 놀랐고, ‘전주 이씨’라는 정체성 외에도 갈래갈래 뻗어져 있는 뿌리의 관계성에 생소함을 느꼈다. 피를 나눈 사이, 같은 문화로 살아가는 사이, 끈끈한 정을 이어가는 사이가 커다란 강과 같은 간격을 가지고 있음에 슬펐다. 갑자기 중국 사람이면서 진정한 중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인이면서 제대로 된 한국인이 아닌 것 같은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럼 대체 나는 누구일까? 일개 민족의 문화인으로 산다고 자부했던 자신이 여태 몸에 배어있던 당당함에 주저하게 되는 걸 어쩔 수 없었다. 내가 보는 세상이 다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느끼며 새로운 무언가를 갈망하게 되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내각이 내린 “유학생 10만 명 계획”의 물결을 타고 남편이 일본으로 유학 온 지 2년 만에 아이를 데리고 나는 일본 땅을 밟았다. 솔직히 남편이 유학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면 아름다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고, 나 역시 그동안의 실적들의 혜택을 받으며 편안히 살 수 있었다. ‘그대료가 좋았을까?’ 요즘 늘 하는 생각이지만 아들의 장래를 위해 무언가 변화를 꾀하고 싶었다. 적어도 나보다 나은 인생을 살게 해주고 싶었다.

우리에게 새로운 장소는 갓 네 살을 넘긴 곤이한테는 첫 시작이 되겠지. 두 가지 이상의 정체성이 환영 받는 요즘과는 달리 복잡한 해석이 되려 의문을 일으켰던 그때에는 되도록이면 담백한 관계 속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었다. 우선은 어느 하나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인간 관계를 완벽

하게 구축시켜 주고 싶었다. 적어도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문학 전공자라 하지만 중국문화와 한국문학의 중심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는 변두리에 머물러 있는 나처럼, 밑바닥에 흐르는 민족적인 문화적 소양에 부족함을 느끼는 오늘의 나처럼 키우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 10년을 거의 열은 막을 치고 살았다. 겉과 속의 비율을 날마다 피부로 느끼면서 자식의 앞날에 필요한 것만 보면서 선택의 삶을 살았던 것이다. 애써 노력하는 삶이었다.

그런 엄마를 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 바보였던 곤이는 축구대 대장을 연임하였고, 늘 선두에서 뭔가를 하는 아이였다. 중학생 때는 선거로 1년간 학교학생회 회장직을 맡았고 엄마의 소원대로 명문고에 입학했다. 이어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는 드문 명문대 대학생이 된 곤이는 여기저기 칭하는데도 많았다. 우리가 사는 시교육청에서 지역 내 중학교 축구대 코치를 해달라는 부탁이 왔고 성인절기념대회에서 신성인대표발언을 해달라는 청탁도 들어 왔다. 일개 외국인이 몇백 명에 달하는 신성인을 대표하여 무대에 올라 대표 발언을 한 것은 여태 없었던 전례라고 한다. 축하하러 온 시 의원들을 향하여 “일본이 정말로 이대로 괜찮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져서 의원들의 눈총을 받았고 “당신은 동일본대지진 현장에 가 보았습니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2011년 대지진 피해 상황을 가서 본대로 설명했었다. 장내를 메우는 박수 소리가 곤이에 대한 인정이고 기대인 것 같아서 감격한 나머지 나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아들 곤이의 성장을 위해 힘써 준 주위의 일본인들에게 감사했고, 무엇보다 내 마음 속의 모든 걱정을 가서 주듯이 무사히 자라준 당찬 곤이가 자랑스러웠다. 그때만큼은 내가 이방

인이라는, 그것도 약간은 복합적인 이방인이라는 생각을 잊을 수 있었다.

일본에서 사는 우리에게 국적은 자주 거론되는 문제는 아니었다. 같은 동양인이라는 점과 언어 구조적으로 발음이 일본어와 비슷하여 우리가 하는 일본어가 일본 사람들에게 본능적인 거부감을 주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때로는 동질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문화적인 접근이 의외로 많아 일본 사람으로 오해받기 일쑤이다. 참의원 선거 때 자민당에 한 표 넣어 달라고 선거 활동 중에 부탁하러 온 일본인 지인도 있었다. 한 표 넣어드리고 싶은데 일본 국적이 아니어서 미안하다고 했더니 “아 참! 그렇지” 하면서 쑥스럽게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에서 20여 년을 살면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변해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느끼기도 하였다.

아들 곤이가 절실하게 국적에 대해 재확인한 것이 대학교 2학년 때와 3학년 때였다. 베이징 대학에 교환 학생을 뽑는다는 소식에 신청을 했지만 국적이 중국이어서 유학생이 될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실감을 한 것이다. 대학교 3학년 때, 영국 유학 수속을 밟으면서 또 한 번 절실히 느꼈다. 출생증명서를 중국에 가서 직접 떼어 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초등학교 때 채 듣지 못했던 국적에 대한 엄마의 설명을 그렇게 성인이 된 후에야 피부로 이해하게 된 것이다. 행정적이고 경제적인 것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이주가 어린 아들의 장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될까를 늘 걱정하면서 우리는 조심스러운 이방인의 삶을 살았다. 드디어 아들의 취직을 앞둔 대학교 3학년 때, 가족회의가 열렸다.

여러 선배들의 경험담을 들은 아빠가 본격적으로 아들 곤이의 국적 문제에 대해 고민한 끝에 결론을 내렸다. 희망하는 회사에 취직하는 데 국

적이 문제가 되면 안 되지 않은가. 이미 성인이 되었으니 부모와 상관없이 국적을 바꾸는 것을 제안했다. 나는 대뜸 그렇게 하자고 했다. 같은 출발선에서 같은 과정을 거쳐 온 아들이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손해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였다. 일본의 국민선거에 한 표를 행사하게 하고 싶어서도 아니고 앞으로 사는 데 편리한 점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도 아니었다. 다만 아들의 장래에 보이지 않는 차별로 인한 좌절을 없애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20여 년 전, 갓 일본에 왔을 때의 복잡했던 마음이 잠시 되살아나기도 했다. 어릴 적, 책 속에서 읽었던 일본이라는 땅에서, 영화 속에서만 보았던 잔인한 일본인들의 후손들과 같이,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살고 있는 자신을 두고 ‘과연 내가 이대로 일본에서 살아도 괜찮을까?’라는 고민을 한동안 했었다. 그러던 내가 아들 곤이의 장래를 두고 하는 생각은 지극히 엄마로서, 사적인 고민인 것 같았다.

“국적 때문에 나 같은 인재를 안 뽑으면 자기네가 손해지...” 예상하긴 했지만 우스개로 넘겨 버리는 곤이가 안타깝기도 했다. 어린애도 아닌 아들을 다그칠 수도 없었다.

드디어 취직 준비와 함께 매일매일 긴장의 시간들이 흘렀다. 본인은 물론이고 부모인 우리도 함께 세상의 평가를 받는 순간인 것만 같았다. 하지만 면접관과의 예측할 수 없는 신경전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당사자들 간의 전쟁 같아 보였다. 하여 부모인 우리가 곤이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 명문대가 아니면 원서조차 낼 수 없다는 대기업들에 일단 참가 자격을 갖춘 곤이는 기업설명회에 다니느라 아침부터 저녁 늦게

까지 발품을 팔았다. 매일 기진맥진해서 집에 들어서는 얼굴 표정에서 그 날 있었던 일을 짐작하곤 했다. 중국에서 자란 우리 부부는 국가의 혜택을 받으며 대학을 마친 터라, 치열한 취업 활동의 고달픔과 냉혹한 현실에 대한 조인과 충고를 해 줄 수도 없었다. 그저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긴 채, 좋은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석 달이란 시간이 지났다.

또 한 번 무사히 고비를 넘겼다. 내가 생각한 것만큼 꽉 막힌 세상은 아니었다. 가슴 졸이며 조심조심 살아 온 나에게 보란 듯이 아들 곤이는 답해 주었다. 수많은 취업 면접에서 곤이는 자기의 복잡한 정체성을 오히려 '나만의 독특성'으로 내세워 어필했다고 한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자란 조선족입니다. 제일 잘하는 언어가 일본어이고, 그다음은 영어, 한국어, 중국어입니다. 앞으로 저와 깊은 인연을 가진 일본, 중국, 한국, 영국 이 네 나라에 은공을 갚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복잡한 정체성의 문제가 면접관들에게 의문에서 흥미로 바뀌어졌으며, 질문의 요소로도 되었다고 한다. 면접에서 질문을 받는 것만큼 흥분되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다른 경쟁자들보다 독특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선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요즘엔 지난 일을 즐겁게 추억하기도 한다.

곤이는 이미 직장 생활 5년 차에 들어섰다. 또 다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는 시기도 지났고 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는 현실을 충실히 살고 있다. 이미 안정을 찾은 듯 하지만 책임이라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있는 사회적인 어른이 된 것 같아서 나는 여태 짊어지고 살았던 부모로서의 걱정과 불안에서 해방된 것 같다.

부질없는 걱정이었다. 아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서 내려다 보고 있었고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다. 부모 세대가 무수한 가시밭길을 헤치며 걸어 온 현실에 뚝뚝하게 서서 길게 뻗어 있는 평탄한 길에 대한 안일한 적응을 초월하여, 잠재된 가능성과 필연성에 되레 주어진 환경을 이용하고 귀속시키려는 새로운 창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청출어람, 쪽빛보다 더 푸른 다음 세대에 맡기는 마음이 어찌면 이렇게 즐거울 수가...

시어머님이 곤이의 근성을 살리려 사주를 받아 오신 것이 틀림없다. 약한 부모 맘 때문에 흔들리는 삶을 살지 않도록 말이다.

다만 현실은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급히 잡히는 해외 출장이 비자의 제한성에 아우성을 치는 경우에 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깊고 소중한 인연이 있는 네 나라에 마음 바쳐 일하려는 젊은 청춘은 그 국한성과 제한성을 어디까지 견뎌 낼 수 있을까.

삶은 희망이며 과제임이 틀림없다.

# 적도의 땅 말레이시아에서 날개를 펴다

김희정 (말레이시아)

## 1. 새로운 삶을 향하여

“어머니, 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로 곧 가신다니요? 너무 서운하네요.” 아파트 단지 내를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찬희 태권도 사범님이 건네시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네~에?” “찬희가 말레이시아로 떠난다고 말하더라고요.” “아,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우리 큰아들이 유치원 선생님, 태권도 사범님 그리고 친구들한테 모두 소문을 내버린 것이다.

말레이시아에서 새로운 삶은 어떻게 하고 고민하던 중에 여행 차 대만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여행을 2주 동안 갔다 왔었는데 찬희는 말레이시아가 마음에 꼭 들었었나 보다. 한국에 오자마자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고 돌아다니고 있으니 말이다.

새로운 땅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서 망설이던 중이었는데 아들 녀석의 결단이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다.

난 한국에서 중고등 학생 국어 교사를 하면서 한국 교육에 많이 지쳐

있기도 했고, 우리 아이들을 좀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부시키고 싶었던 터라 외국으로 나갈 계획을 시작했었다.

캥거루가 뛰어다니는 나라 호주는 어떨까?

영어 발음은 미국이지~ America Dream

캐나다는?

많은 생각이 들었고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를 찾아보았지만, 결론은 NO... 왜냐하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더 넓은 세계로 향하는 건 좋은데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너무 힘들 것 같고 아이들과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이 나라들은 탈락시켰다.

눈을 한 단계 낮춰서 동남아시아는 어떨까?

필리핀은 너무 위험해서 안 될 것 같고, 싱가포르의 비싼 물가와 한국보다 더 심한 교육 스트레스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 탈락시켰다.

진짜 어디로 가야 하지? 매일 저녁 남편과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던 중에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말레이시아 소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다.

우리 둘 다 동시에 외쳤다.

“여기다!”

2007년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말레이시아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대형 서점에 가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책은 한두 권에 불과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나라에 대한 궁극적인 호기심이 더 발동했고 매력적인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물가 수준은 한국의 3분의 1 수준이고 국민들이 말레이어, 영어, 중국어, 그리고 타밀어 등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좋았던 점은 안전한 치안과 국제학교 학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저렴하면서도 좋은 환경이라는 점이였다.

말레이시아로 확실하게 결정을 내린 후부터 모든 절차가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살고 있던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기 무섭게 하루도 안 돼 계약이 돼버렸고, 해외 포장이사도 척척 진행되었고 여름에 답사 겸 여행 갔을 때 만났던 한국 분의 도움으로 KL에서 살 만한 집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불과 2~3개월 만에 모든 준비가 끝나버린 것이다.

다행히 양가 부모님들도 크게 반대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축복해주셔서 2007년 11월, 기쁜 마음으로 말레이시아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하지만 비행기 안에서 만감이 교차하여 와락 눈물이 쏟아졌다.

정말 잘 결정한 것일까? 잘 해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지만, 우리의 최대 무기인 무한 긍정과 강한 믿음으로 이겨 낼 수 있으리란 확신으로 잠깐 약해졌던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

여행 목적으로 도착했던 말레이시아의 냄새와 살기 위해 도착했던 냄새는 사뭇 달랐다.

이제 시작이다.

Are you ready? Yes, we are ready.

진짜 준비됐다.

## 2.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가자

도착했다는 설렘도 잠시 첫날부터 모든 일이 우리에게겐 어려움으로 다가왔다. 무엇보다 언어가 안되니깐 정말 쉬운 일이 하나도 없었다.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지?’라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른다.

그렇게 한국에서 영어 학원을 다녔어도 막상 실전에선 말이 안 나오고 간단한 의사소통도 힘든 우리의 상황에 화도 많이 났다.

말레이시아 공항에 도착했을 때 쿠알라룸푸르에서 홈스테이하시는 분

이 우리 가족을 배려러 나오셨다. 한 2주 정도는 홈스테이하면서 집을 계약할 계획이었지만 이미 배로 보낸 이삿짐이 우리보다 일주일이나 먼저 도착해 있다는 소식을 받았기에 더 마음이 조급해졌다. 늦은 밤에 숙소에 도착해서 대충 짐 정리를 한 후에 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았다.

이제 시작인데 어떻게 해야 하지? 막연한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하지만 옆에서 새근새근 예쁘게 자고 있는 아이들을 보니깐 뭘지 모를 힘, 아니 책임감이 솟아나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빠, 엄마를 따라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잘 키워야지….

걱정 없이 티 없이 예쁘게 말이다.

다행히 며칠 후에 집 계약을 했고 서둘러서 이사를 할 수 있었다. 한인 교회에 등록하여 한인들의 도움으로 찬희 학교 입학, 가디언 비자 그리고 자동차 구매까지 감사하게도 잘 해결되었다.

우리 남편은 한국에서 증시 만평 웹툰작가, 온라인 마케터 그리고 웹사이트 디자이너로서의 일을 겸하고 있어서 경제적인 고정 수입이 한국에서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생활이 많이 힘들지는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 종종 빠져있곤 했다.

너무 서두르지 말자고 서로에게 다짐했다.

그래도 우린 감사하게도 한국 일을 꾸준히 할 수 있지 않은가?

이것만이라도 우리에게 큰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감사하고 감사하자.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도전해보자.

다 사람 사는 곳인데 뭐 얼마나 특별하겠어?

마음속으로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보았다. 할 수 있다고 별거 아니라고….

### 3. 스리가든 스쿨 1학년 G반 첫째아들 전찬희

대부분의 한국 부모님들은 국제학교에 아이들을 입학시킨다.

심사숙고 끝에 국제학교가 아닌 현지 사립학교인 스리가든 스쿨을 선택했다. 스리가든은 말레이시아에서 명문 학교로 등록금이 국제학교보다 조금은 비싼 편이지만 대부분의 수업을 영어로 하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매우 잘 가르친다는 주변 분들의 조언에 힘을 입어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우리 부부의 교육 철학은 어릴 적에는 공부보다는 뛰어노는 놀이 수업과 체험 학습 위주의 수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놀게 했고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특별히 영어 수업은 한 적이 없었고 한글은 내가 가르쳐서 쉬운 한글책을 읽을 수 있었다.

영어는 알파벳만 아는 정도여서 말도 못 하고, 읽지도 못하며, 쓰는 건 꿈도 못 꾸는 그런 상황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초등학교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천만다행인 것은 스리가든 1학년 선생님들은 아주 친절하게 처음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주셨다. 특별히 찬희 담임인 나단 선생님은 영어 과목을 담당하셔서 찬희를 더욱 잘 챙겨주셨다.

찬희가 영어를 전혀 못 했기 때문에 친구들과 어떻게 소통할까 참 고민이 많이 됐다. 매일 6시에 일어나서 찬희를 준비시키고 아침 먹여서 7시 30분까지 학교에 데려다줘야 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다. 출근 시간에는 정말 많은 오토바이 속을 뚫고 운전을 해야 해서 정말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다.

거기다가 교통 체증이 얼마나 심한지 학교까지 보통 20분 거리인데 한 시간 가까이 걸렸다.

찬희는 아빠와 엄마가 아침 출근 지옥에서 끙끙거리고 있을 때 뒷좌석에서 회장님처럼 세상모르고 꿀잠을 자고 있었다.

학교에 도착하면 눈을 비비고 자기 몸보다 더 큰 책가방을 질질 끌며 교실로 향하는 뒷모습을 바라봤을 때 참 안쓰러웠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 하고 싶은 말도 못 하고 친구들 말을 못 알아들이니까 눈치껏 행동해야 하니 얼마나 긴장될까...

마음이 많이 아팠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교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차에 태워서 집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항상 오늘 어땠냐고 물어봤고 찬희는 항상 정말 재미있다고 말했다. 진짜 그런 줄 알았다.

나중에 시어머니한테 들은 얘기가.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싶은데 아이들이 어디론가 가버려서 친구들 못 찾고 혼자서 뛰어다니기도 하고, 혼자 그림도 그렸다고... 엄마가 학교 끝나면 항상 재밌었냐고 물어봤는데 엄마 걱정할까 봐 그냥 정말 재밌었다고 얘기했다고...

그 말을 듣고 정말 많이 울었다. 도리어 엄마 걱정까지 하고 있었다니 말이다. 말이 안 통하니 친구들 얘기하는 걸 못 알아듣고 잘 따라 하지 못하니깐 아이들이 놀이에서 찬희를 제외하고 자기들끼리 놀러 가버렸었나보다.

그땐 참 많이 슬펐고 속상했지만, 다행히 시간이 흐르고 찬희가 잘 적응해가기 시작했다.

일본 친구하고 영국,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재밌게 놀기 시작했고, 나 또한 그 아이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놀 수 있도록 맛있는 간식과 놀이 프로그램을 준비해놓았다.

그래서인지 찬희의 학교생활이 차츰 행복해지기 시작했다.

주말에는 친구들 생일 파티에도 초대받아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재밌게 놀았다. 비록 유창하게 영어로 표현하는 건 아직은 힘들지만 그래도 아이들만의 통함이 있나 보다.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깔깔거리고 웃으며

함께 뛰어노는 걸 보면 말이다.

찬희가 잘 헤쳐나가리라 믿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기로 했다. 매일 격려해주면서 힘이 되어 주어야겠다는 생각만 들었다.

#### 4. 말레이시아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기

스리가든에서 우리 찬희의 학생 비자를 만들어주면 그 학생 비자와 필요한 많은 양의 서류들을 가지고 말레이시아 이민국에 가서 가디언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다. 말레이시아의 이민국은 정말 너무 힘든 곳이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정말 느리고 행정처리를 한 번에 깔끔하게 끝낸 적이 없어서 1년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민국을 서너 번 방문해야만 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것도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비자 때문에 고생을 했다.

문득 한국에 살았을 때 아프리카 남자와 국제결혼을 한 친구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다. 그 친구의 남편이 매년 비자 때문에 한국 이민국에 가는데 참 힘들고 기분이 안 좋다는 얘기를 했었다. 무엇보다 국적이 아프리카라서 그런지 무시하는 행동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서 온다고 했다. 그럴 때마다 남편한테 많이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했었다.

그땐 그 얘기에 크게 공감하지 못했었다.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이젠 알겠다. 친구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백배 공감이 되었다.

만약 영어든 말레이어든 유창하게 했다면 그렇게 많이 힘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때론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실수해서 심사에서 탈락된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언어의 벽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일도 더 힘들게 진행되었던 일들이 많았던 것 같다.

외국에서 살면 영어도 빨리 늘고 잘 할거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우리의 영어 실력은 하나도 향상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의 작은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과만 소통하고 살았기 때문이다. 처음 살기 시작했을 때는 빨리 언어를 배워야지 했다. 둘째 준희가 어려서 어떻게 영어 학원을 다니나… 애가 조금 크면 해야지 하고 영어 공부 못 하는 이유를 합리화하곤 했다.

남편도 한국 쪽 일을 하다 보니 별로 영어가 필요치 않았던 것도 있었고 이렇게 계속 미루다 보니 현실에 서서히 안주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어쩌다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상담하거나 관공서에 가야 할 때는 영어 잘하시는 분들께 부탁해서 함께 가곤 했었는데 참 지금 생각해보면 한심한 삶을 살았던 것 같다.

이러려고 한국에서 나온 건 아닌데….

한국에서 나름 진취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살았다고 자부했었는데, 여기서 왜 이렇게 살고 있지?라는 반문이 시작됐다.

좀 바뀌고 싶었다. 그리고 이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답답했다. 정말 많이~

#### 5. 또 하나의 시작

어느 날 찬희가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가져왔다. 사전을 동원해서 찬찬히 읽어보니 말레이시아 정부가 과학과 수학을 영어로 수업했는데 이 수업을 말레이어로 수업한다는 정책으로 바뀌서 말레이시아 현지 학교의 말레이어 수업 비중을 높이겠다는 내용이었다.

찬희 학교는 현지 사립학교였지만 영어 비중이 높은 학교였기 때문에 다른 일반 국제학교보다 더 끌림이 있어서 이 학교를 선택했었는데 말레이어 비중이 높아진다고 하니 이 학교를 계속 보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다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다.

이번에는 생각보다 쉽게 결정이 내려졌다.

남편과 매일 얘기하면서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의 삶에 회의감을 많이 느꼈기 때문이었다. 우리의 새로운 결정은 말레이시아의 말라카로 이사를 하는 것이었다. 한인교회 부목사님 가정이 말라카라는 지역에 한인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으로 말라카에 이사할 수 있었다. 말라카는 한국의 경주와 같은 역사 도시이고 말레이시아의 첫 수도였던 유서 깊은 곳이었다. 물가도 쿠알라룸푸르보다 훨씬 저렴해서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좁은 집과 매우 가까운 국제학교는 정말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었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일본, 한국, 필리핀 등 정말 우리가 원했던 인터내셔널 학교여서 대만족이었다.

찬희도 입학하자마자 개교기념일 학교 행사인 '나이팅게일'이라는 뮤지컬에 합류하게 되면서 찬희의 영어 실력이 일취월장했다.

찬희의 역할은 비록 작았지만, 친구들과 함께 매일 연습하면서 다른 친구들의 노래와 대사까지도 외울 정도로 열심히 하는 모습에 정말 놀랐다. 학생들은 물론이고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들까지 모두 뮤지컬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뮤지컬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주인공이든 주인공이 아니든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연기하던지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감동을 하였다.

참 이곳으로 이사하기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감사했다.

아이들이 행복해했고 우린 더욱 행복했다.

말라카 생활은 정말 외국 생활 같았다.

주말에는 찬희 외국 친구들 생일 파티에 함께 초대를 받아서 그들과 포

틀럭 파티(Pot-luck party)를 하면서 새로운 외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비록 영어가 많이 부족했지만 준비해간 한국 음식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행히 한국 음식을 처음 먹어보는 친구들도 내가 준비해간 김치, 부침개, 잡채 등 다양한 음식을 먹어보면서 맛있다고 감탄했고 정말 순식간에 접시가 비워졌다.

찬희는 말라카의 새로운 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한국에서 첫 돌잔치를 마치자마자 엄마 아빠를 따라서 온 둘째 준희도 자연스럽게 영어 유치원부터 차근차근 형보다 훨씬 적응을 잘해나갔고 유치원 재롱잔치에서 지휘자로 또 백마 탄 왕자님으로 모든 주인공은 도맡아서 할 정도로 푹푹하게 생활했다.

감사한 일들만 넘쳐나서 행복했다.

## 6. 다시 돌아가야 하나?

5년 정도 정말 평화롭게 외국 생활을 만끽하면서 때론 골프도 치면서 여유롭게 말라카 생활을 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영어는 향상되고 있었지만 우리의 영어 실력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말라카에 와서도 한인교회를 다녔고 쿠알라룸푸르에서 살았을 때처럼 한국 사람들하고만 만나고 있었으니 말이다.

우리 가정에 급박한 변화가 생겨버렸다.

남편의 한국 쪽 일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한국 쪽 수입원이 줄어들다 보니 어려움이 밀려왔다.

2011년 7월, 정말 모든 한국의 수입이 끊어났다.

이럴 수도 있나 싶을 정도로...

참 힘든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신기한 일을 경험했다.

2011년 4월에 한인교회에서 피오만 아일랜드라는 아름다운 섬으로 여행을 갔었다. 그때가 바로 저가 항공사에서 한국 첫 취항 기념으로 엄청나게 싸게 가격을 홍보한 것이었다.

피오만에서 우리 가족 한국행 왕복 비행기표를 살 수 있었다. 그때는 우리의 암흑 같은 미래에 대해선 까마득히 모르고 정말 싸게 비행기표를 산 것에 대해서만 기뻐했었으니깐...

그래서 우리 가족은 그 비행기표로 8월에 한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

참 우연인지 아니면 필연인지...

한국에서 우린 또다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식은땀이 흘러내릴 정도로 참 막막했다.

한국에서 다시 살아야 하나 아니면 말레이시아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나...

심사숙고 끝에 우린 말레이시아로 다시 향하기로 했다. 힘들어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부딪혀보자는 마음으로 말이다.

## 7. 터닝 포인트

이제부터 진짜 외국 생활이 시작됐고 우리 가족에겐 많은 변화가 필요했다.

어떻게 여기서 먹고 살아야 할 것인가? 아이들을 잘 키워내야 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참 생각이 많았다.

남편과 의논 끝에 말라카에 IT회사를 오픈하기로 했다.

한국의 IT기술은 말레이시아보다 앞서있고 남편의 경력이 밑거름되어서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함께 다니면서 사무실을 직접 알아보았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셀프 인테리어를 했다.

페인트도 다시 칠하고 멋지게 벽화도 그리고 사무실의 모습이 멋지게 갖춰지기 시작했다. 회사 개업식 때는 쿠알라룸푸르와 말라카의 지인들이 많이 오셔서 축복해주시고 격려해주셨다.

비자도 가디언 비자에서 사업 비자(워킹 퍼밋)로 바꿨다.

회사가 말라카에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쿠알라룸푸르를 두 번 이상 다녔고 미팅을 위해 싱가포르에도 정말 수시로 가서 고객을 만났다.

참 열심히 동분서주하는 남편을 돕기 위해 말레이시아에서 전업주부였던 나도 함께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도왔다.

하지만 처음 수개월 동안 아무런 성과가 없었고 몇 달 동안 수입이 없다 보니 지치고 힘들었다. 솔직히 그때 정말 포기하고 한국으로 들어가고 싶었던 마음이 여러 번 들었다. 하지만 한국에 들어간다고 해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라서 더 열심히 뛰어보자는 마음을 더 강하게 다잡았다.

열심히 노력했기에 하나하나씩 계약이 성사되었다.

처음에는 한국 업체들 위주로 계약이 성사되었다가 사업을 시작한 지 일 년이 넘은 후에 말레이시아에서의 큰 대형 병원의 모바일 앱과 병원 홍보 동영상 및 캐릭터 디자인 등 다양한 일들을 맡아서 진행했고 현지 회사들의 웹사이트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회사의 인지도가 조금씩 알려지게 되었다.

남편이 워킹 퍼밋으로 바꾸면서 우리 아이들도 현지 홈스쿨 학교로 옮길 수 있게 되었다. 이 학교의 수업 방식은 자율주도 학습 방식이기 때문에 적응 기간이 좀 힘들지만,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매우 높아서 졸업

생들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다.

예전부터 이 학교에 보내고 싶었지만 가디언 비자로는 우리 아이들을 입학 시킬 수 없었다. 다행히 이번 기회에 아이들 학교를 옮길 수 있었고 학비도 국제학교보다 훨씬 저렴해서 우리에게 큰 이득이었다.

매일매일 감사하며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항상 한인교회만 고집했고 한인들만 만나왔던 우리 가족은 큰 결단을 내렸다. 한인교회를 나와서 현지 로컬 영어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옮기게 되었다. 목사님 설교를 하나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성도님들과 소통하기조차 매우 힘들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정말 친절한 현지 교회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서 한 발짝 한 발짝 진짜 말레이시아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언제까지 말레이시아의 작은 한국에서 살 거냐’고 항상 반문했던 터라 이번 도전은 우리에게 물리칠 수 없었던 큰 숙제였던 것 같다.

교회를 다녀오면 두통이 너무 심해서 집에 오자마자 한두 시간씩 누워 있어야만 했다. 남편도 마찬가지로였다.

그래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현지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수요일이나 금요일에는 성경 공부와 그룹 모임에도 참석하면서 그들과 어우러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우리에게 더 친절하게 잘 대해주었던 것 같다.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조금씩 그들과 소통하는 것이 즐거워지기 시작했고 서로의 집을 왕래하면서 각자의 나라의 음식도 함께 나누고 김치 담그는 것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다양한 문화 교류를 통해서 정말 힘든 것까지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모른다.

말레이시아에서 5년을 살면서도 영어를 한마디도 못 했던 우리들의 영어가 조금씩 조금씩 향상되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 느낄 수 있었다.

## 8. 꿈틀거리는 꿈을 발견하다.

나는 한국에서 국어 선생님이었고, 학생들과 함께할 때 큰 행복을 느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다.

말레이시아에 살면서 내 삶의 행복이었던 것을 잠시 잊고 살았었다.

언제부터인지 다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곤 했다.

하지만 접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없었으니깐... 여긴 한국이 아니니깐...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 스스로 반문하고 ‘그렇지, 난 못해.’

스스로 대답해버리고 달아버렸었다.

우연히 대학교수인 한 친구가 나에게 제안을 했다.

“한나(현지 영어 이름), 우리 대학에서 한국어 교수 채용하는데 이력서 한번 내봐. 너 잘할 것 같은데... 도전해 봐. 내가 담당자 연락처 줄게.”

정말 뭘 뜻이 기뻐다. 하지만 무서웠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과 갈등 끝에 한 번 도전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력서와 졸업증명서 등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대학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연락이 없었다. 그럼 그렇지... 나 같은 아줌마가 뭘 할 수 있겠어. 많이 슬펐고 자신감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내가 더 노력해서 당당하게 시작해보겠다는 강한 의지가 생겼다. 그래서 더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고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수업 강의를 들으면서 꾸준히 공부한 결과 한국어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고 남편의 응원에 힘입어 회사의 미팅 룸에서 저녁 시간

에 한국어 수업을 열었다. 특별히 광고는 하지 않았고 그냥 소셜페이지를 만들었다.

정말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다.

처음엔 10명이 모였다. 그다음 달은 20명, 그다음 달은 30명이 되었다.

이럴 수가 있을까?

더군다나 그들이 내 한국어 수업을 너무나 좋아하지 않는가?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다. 정말 최선을 다했고 그들과 즐기며 재미있는 한국어 수업을 하기 위해 노력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된다.

그렇게 4개월이 흐르고 정말 뜻밖의 메일을 받게 되었다.

이력서를 보냈던 대학에서 파트 타임으로 한 학기 강의를 맡아주지 않겠느냐는 제안이었다. 바로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보내자마자 인터뷰 미팅 날짜를 잡게 되었다.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오싹할 정도로 흥분된다.

한국의 KPOP과 드라마를 좋아하는 많은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해서 인지 한 클래스에 60명씩 3 클래스의 수업에서 180명을 가르쳤다.

한 학기를 멋지게 최선을 다해서 마칠 수 있게 되었고, 정말 감사하게도 교수 평가제에서 거의 만점을 받았다.

행복한 마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쳤고 학생들 또한 정말 행복한 미소를 띠며 날 바라봤다. 그 큰 에너지를 받아서인지 하나도 힘들지 않았고 오히려 매 순간순간 힘이 났다.

대학 측에서도 학생들 반응과 내 수업에 관해 여러 가지를 고려했는지 한 학기 수업을 더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내 나라 내 땅이 아닌 타국에서 인정받은 느낌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으랴... 진짜 행복했다. 날아갈 듯이~

두 학기를 무사히 잘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남편 회사에서 한국어를 꾸준히 가르쳤고 일주일에 한 번은 대학의 한국문화동아리 학

생들의 요청으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기초 과정과 중급반인 한국어 능력시험(TOPIK) 대비반을 오픈해서 가르쳤다.

나의 삶은 180도로 바뀌고 있었다. 찬희 엄마에서 한나 선생님이로 말이다.

그리고 대학 측으로부터 또다시 믿기지 않는 소식을 받게 되었다.

정식 한국어 교수로 채용하고 싶다고 말이다.

정식 채용 인터뷰 때는 희망 급여와 직원 복리 등도 꼼꼼히 체크해서 더 자신감 있게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여유까지 생겼다.

감사하게도 현재까지 이 대학교에서 정식 한국어 교수로 재직 중이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 수업을 하고 있고, 특별히 주말에는 대학생 사물놀이팀을 결성하여 한 달에 두 번씩 한국의 전통 사물놀이를 가르치고 있다. 또한 내가 가르친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합격해서 한국어 자격증까지 취득해서 정말 큰 성취감을 느꼈다.

다양한 한국 문화 행사를 진행했고 특별히 작년에는 한국 KPOP팀을 우리 대학으로 초대해서 멋지고 화려하게 KPOP콘서트를 했고 내가 직접 가르친 현지 대학생 사물놀이팀도 KPOP 콘서트 오프닝 공연 때 숨씨를 발휘할 수 있었다.

한국의 위상이 점점 높아짐으로 인해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음에 자부심을 느끼며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베스트프렌드인 우리 남편은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었다. 그림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지만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살았었다. 하지만 그는 사업을 하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틈틈이 그림을 그렸기에 지금은 세계 유네스코에 등록된 말라카의 정코스트리트에서 그의 벽화를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말라카의 대형

## 굴 캐는 여자

오진영 (뉴질랜드)

병원인 오리엔탈 병원 로비에는 그의 대형 작품이 다섯 점이나 걸려 있다. 각 그림마다 Korean artist Peter Chun 전성규라는 사인이 새겨져 있다. 많은 병원 방문객들이 그곳에서 사진을 찍고 있고, 그 장소는 제법 유명해지고 있다. 때론 내 친구들이 남편 그림 앞에서 사진을 찍고 나한테 인증사진을 보내면서 드디어 너의 남편 그림 봤다고 하며 메시지를 보내곤 한다. 말레이시아에서 예술의 꿈을 이룬 우리 남편이 정말 자랑스럽다.

아이들도 정말 바르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큰아들 찬희는 작년에 영국의 중고등과정(IGCSE)을 좋은 성적으로 통과해서 현재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대학에 그래픽디자인과에 입학했다.

말레이시아 대학의 가장 큰 장점인 트위닝 프로그램으로 공부하고 있어서 3년은 말레이시아에서 1년은 해당 트위닝과 연계된 영국에 있는 대학에서 마치게 될 것이고 졸업장도 그 영국의 대학에서 받게 된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우리 귀염둥이 막내 준희는 홈스쿨 인터내셔널 스쿨에서 Year 8, 한국으로 치면, 중2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한국보다 1년이 빠른 과정으로 공부하고 있고, 형처럼 IGCSE 시험을 치르고 트위닝 프로그램으로 미국에서 멀티미디어를 공부하고 싶어 한다.

아이들이 한국에서 살았다면 이렇게 꿈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본다. 말레이시아에서 지낸 지 벌써 12년이 되었다. 희로 애락과 수많은 좌절로 울기도 많이 울었다.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있었기에 함께 꿈을 꿀 수 있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이 질문한다. 왜 말레이시아에 왔냐고 그리고 말레이시아 어떠냐고….

그럼 난 대답한다. 운명처럼 말레이시아에 오게 됐고 우리의 제2의 고향이라고… 앞으로 찬란하게 더 빛날 우리의 미래를 기대해본다.

“할머니. 학교에 다녀올게요.”

“아니지. 할머니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해 봐.”

벌써 꿈무늬를 반쯤 뒤로 뺀 아이는 시키는 대로 다시 지껄이고는 뒤도 안 보고 달아난다. 그나마 인사를 하고 나서는 것만도 다행이니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할머니의 말을 따라주는 것만으로도 성공이잖은가. 그 애는 무슨 인연으로 나를 만나 맘고생을 하는지? 마트에 갈 때마다 손에 들려주는 과자 봉지에 현혹이 되어 아이는 내 말을 곧잘 들어주는 편이었다. 망아지처럼 날뛰는 여덟 살 사내아이는 그렇게 조금씩 가정교육에 길들어 갔다.

“할머니가 계셔서 아이가 많이 차분해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집에 심방을 오신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칭찬했다. 애 엄마도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아이가 변해가는 모습에 좋아했다.

어린 게 남의 나라에 와서 기죽지 않고 “왓쥬네임”(What is your name?)

을 외치며 학교에서 아이들을 귀찮게 따라다닌다고 했다. 영어가 쑥쑥 늘어간다고 좋아서 아이 바보가 된 엄마. 오십에 얻은 외동 늦둥이라 어리광을 맘껏 키워 온 것이었다. 남 보기에는 강철같이 강한 여자였지만 아이에게는 언제나 솜사탕처럼 부드러웠다.

한국에서 남편과 이혼을 했다고 들었다. 기분 전환을 하려고 어느 단체를 따라왔다가 무작정 눌러앉은 모양이었다. 그녀다운 용기일까? 무모한 행동은 그게 끝이 아니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어느 날 한국으로 날아가 아들까지 데려왔다. 겁이 없는 사람일까? 배짱이 좋은 걸까? 대단한 여자였다.

여기는 남의 나라가 아닌가. 내가 살고 싶다고 그냥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다. 결국, 출국 명령을 받아 돌아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지만 아이는 남의 집에 맡겨놓고 나갔다. 어떻게든 다시 들어 오겠다는 뜻이었다.

몇 달 만에 다시 이 땅에 발을 들였다. 어떤 방법으로 들어왔는지는 그녀만의 비밀이었다. 원래 성(姓)에서 스펠링이 바뀐 다른 성을 쓴다고들 말했다. 남의 입을 통해 들은 말이라 확신하기는 힘들다. 남의 비밀을 물어보고 싶지도 않았다.

아이와 함께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며 집시처럼 떠돌이 생활을 했다. 그 소문을 들은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찾아오셨다. 모자를 돕기로 나선 목사님. 좋은 은인을 만난 것이었다. 가톨릭 신자로 마리아라는 영세명까지 있었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목사님을 따랐다. 열심히 교회 일을 도왔고 성도들도 그녀를 따뜻하게 보살폈다. 살아갈 의지가 생겼다.

목사님이 보증을 서 임시 비자도 받으니 조금은 편하게 살 수가 있었다. 몸을 사리지 않고 일도 잘해 찾는 사람도 많아졌다. 그럭저럭 안정이 된 상태였다. 생활은 남자같이 거칠어도 속은 인정 많고 따뜻한 여자임

을 한 지붕 밑에 살면서 알았다.

“우리 할머니 최고로 예쁘게 해 드려야지.”

성당에서 영세를 받던 날 그녀는 그리 호들갑을 떨며 내 머리 손질을 해 주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살게 된 인연으로 아이에게는 엄한 할머니가 되어야 했다. 아이는 엄함 속에 사랑이 있다는 걸 눈치로 알아버렸다. 나날이 괜찮은 녀석으로 달라졌다. 한술밥은 안 먹어도 가족처럼 정이 들어갔다.

그 개구쟁이가 이제는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단다. 그들은 지금 학교 가까운 지역(터니든)으로 내려가 살고 있다. 하루하루가 행복할 것이다. 모자의 금의환향할 날이 머지않아서 기대가 크다.

그녀와 달리 딸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쥐고 당당하게 사는 나. 그녀와 인연을 맺게 된 사연은 이러했다. 참 오랜 세월을 혼자서만 살아온 사람이었다. 남의 나라에 와서 처음으로 아이들 가족과 들쭉이며 사는 게 불편했다. 무엇보다 이민 초기에 정착하기 힘들어하는 딸과 사위를 지켜보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다. 삶의 질을 높여 살고 싶단나. 안정된 직장을 땀 개치고 와서 겨우 남의 가게에 허드렛일을 나간다는 사위가 민망하고 안 쓰러웠다.

알량한 자존심 때문인 줄 알지만 견디기 힘들었다. 일 년 남짓. 백기를 들고 자유로운 삶을 택했다. 말도 안 되고 문화도 다른 여기에서 혼자 사는 건 안 된다고 부정하는 아이들을 뿌리쳤다.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엄마를 내쫓은 딸이라고 했단다. 자식이 좋아할 리가 없는 에미였다.

남의 말 좋아하는 건 이민 사회가 더한 것 같았지만 무슨 상관이란. 지금은 일찍이 잘했다며 내 선견지명을 칭찬한다.

첫 번째 인연이 이 집이었다. 우리는 궁합이 잘 맞았는지 사이좋은 고

부처럼 때로는 모녀같이 구순하게 지냈다.

그녀의 직업은 미용사였다. 돈이 없던 그녀는 작은 셋집에서 간판도 달지 못한 미용실을 하고 있었다. 십수 년을 해왔다는 경력이 입소문을 탔는지 그런대로 손님들이 찾아와 생활을 꾸려가고 있었다. 호탕한 성격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 한 몫을 더 했다.

가진 것은 없어도 손이 큰 여자였다. 손님들에게 베푸는 게 몸에 익숙했다. 바쁜 와중에도 점심때가 되면 국수도 말아내고 감자도 삶아 대접했다. 호박이나 옥수수도 찌서 같이 먹고 수다 판을 펼치며 녀살도 좋았다. 너그러운 사람을 따르는 것은 인지상정 아닌가. 좁은 집안이 여자들 웃음소리로 가득 차곤 했다.

만만한 사이의 단골이 오면 춤을 가르친다고 머리에 책을 이고 꼳꼳한 자세로 스텝을 밟았다. 제법 놀아본 몸짓이었는데 그 재롱이 밍지 않았다. 여자들이 그를 흥내 내고 따라다니며 깔깔거렸다. 잠깐이라도 세상 근심을 잊도록 해주는 그녀만의 특기였다.

쌀쌀한 겨울날에는 벽난로에 별절게 불을 피워 손님들을 오래 잡아두었다. 틈만 생기면 어디서 주워왔는지 뒷마당에 모아놓은 빨감들이 제 몫을 톡톡히 했다. 가난한 티를 안 내고 억척으로 부티를 내는 대단한 여인.

내 친구들이 오는 날이면 어르신들 특별 대우가 대단했다. 딸 노릇을 곧잘 해 주었다. 우리는 잘 지내는 한 지붕 두 가족이었다.

하루 일이 끝나고 어둠이 내리면 그녀의 가슴 속에는 밤보다 더 까만 두려움이 덮쳤다. 낮의 활기는 생판 다른 사람의 것처럼 기가 죽어 흐느적거린다.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이 무섭게 목을 조여오기 때문이었다.

“저는 언제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또 그때가 되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비자 만료일이 코앞에 왔다

는 한탄이었다. 맥을 놓고 주저앉아 녀두리를 지꼈었다. 서글픈 노래를 입속으로 흥얼거리기도 했다. 보기에 딱했지만 딱히 위로할 말이 없었다.

남의 나라에서 영주권도 없이 살아가려니 얼마나 애간장이 탈런지 짐작이 되었다. 매번 목사님을 괴롭혀 드려야만 사는 자기 인생이 괴로웠다. 어떡하면 홀로 설 수 있을까? 더 고생하지 말고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싶은데 참아야 했다.

그런 날은 잠도 못 자고 설쳤다는 게 불을 보듯 뻔했다. 아침이 밝아와서 밖을 내다보면 그녀의 차는 자리에 없었다. 그가 간 곳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굴을 따러 바닷가에 가 있을 것이다.

스트레스가 억척을 키운 것인가. 거친 굴을 미친 듯이 잘도 따다. 페트병에는 깬 굴이 가득 찼다. 배낭에는 껍질 채로 한나절 수확이 만만찮았다. 속상할 때 달려나갈 수 있는 바닷가가 멀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굴만 따려고 바닷가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년의 신세가 왜 이 모양인지 한탄도 하고요. 소리쳐 울기도 해요.”

태즈메이니아 파도에 그리움을 띄우다 보면 하염없이 눈물이 나온단다. 못 견디게 설움이 복받치면 인기척 없는 걸끄러운 굴 밭에 아무렇게나 주저앉아 소리쳐 울기도 했다. 한바탕 응어리를 풀어내면 얼마간은 견딜만하다고 했다. 딱하고 측은했지만 들어주는 일 말고는 별 방법이 없으니 안타까웠다.

집 안 가득 바다 냄새를 풍기며 굴을 깬다. 언제 울고 팔자타령을 했냐는 듯 숨씨가 날렵하고 천연덕스럽다. 달래줄 사람이 없는 자기 처지를 반전의 비결로 버텼다. 어디서 생긴 인내심일까?

굴은 고급 식품이다. 비싼 해산물이란 건 알고 있었지만 이 나라에서는 특히 더 귀하고 비쌌다. 쉽게 사 먹기가 어려웠다. 방금 깬 싱싱한 굴을 병에 담아 싸게 파니까 주문이 늘 밀려있었다.

어려서 바다 근처에 살았던 덕을 톡톡히 보았다. 굴을 까는 기술이 장난이 아니었다. 미용실에 손님이 없을 때는 바닷가로 달려나갔다. 그 수입이 더 짭짤했다. 그러나 단속에 걸리지 않아야 하는 위험 부담이 늘 있어서 기다리는 사람도 애가 탔다.

‘바다의 우유’라는 굴을 좋아해서 입덧을 했을 때도 얼큰한 어리굴젓으로 속을 가라 앉혔다. 이 나라에 와서 그녀 덕에 물리도록 먹어본 것도 내게는 잊을 수 없이 좋은 추억이었다.

먹음직스럽게 회무침을 잘 만들었다. 굴 반 채소 반이었다. 커다란 접시에 푸짐하게 담아 나오면 내 입이 마냥 호강스러웠다. 지금도 가끔 입맛을 잃으면 그때의 굴 회무침이 떠오르고 입에 침이 고인다.

밖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비닐봉지에 가득 민들레가 담겨왔다. 깨끗하게 다듬어 소금물에 여러 날 푹 삭힌다. 생선 가게에서 얻어다가 담근 갈치속젓도 참 잘 삭았다. 그 젓으로 민들레 김치를 담그면 맛이 기가 막혔다.

역시 전라도 손맛인 걸 누구도 부인하지 않았다. 그 맛에 이미 길든 교회 분들의 주문에 작은 그릇들이 채워져 갔다. 그녀가 부업으로 하는 또 하나의 숨씨 자랑이기도 했다. 손맛도 특별했지만 교회 분들의 도와주려는 마음이 더 큰 것으로 보였다. 모두가 고마운 분들이었다. 외국에서 아들 하나 잘 키우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살아가는 여인의 처절한 노력을 모른 척하지 않았다.

때로는 남의 집에 반찬을 해 주려고 출장도 다녔다. 아이를 봐주러 다니기도 했고 농장에서 고추도 땀다.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다 해냈다. 언제쯤 그녀가 원하는 남자가 나타날까?

뉴질랜드에 뿌리내려 살려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방법이 최고다. 한국 남자 말고 현지인을 만나고 싶어 했다. 한 번 실패한 결혼

때문이기도 했지만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여기 문화가 적절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었다.

“외로우시면 바닷가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심심하면 내게 하는 우스갯소리였다.

어떤 할머니가 자식을 따라 이민을 왔다. 다들 일하러 나가고 혼자 남으면 외롭기 그지없어 밖으로 뛰쳐나왔다. 말도 할 수 없고 길도 모르니 어디 한 곳 갈 곳이 없었다. 집 가까운 바닷가에 나갔다. 모래밭에 주저앉으니 고향 생각, 친구들 생각에 눈물이 흘렀다. 시퍼런 파도는 성난 듯이 밀려들었다. 갈매기와 벼를 하며 울고 또 울었다.

어느 날이었다. 점잖게 생긴 남자가 손을 내밀어 우는 여인을 일으켰다.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리고 바라봤다. 여태껏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부드러운 웃음과 태도에 그 손을 뿌리칠 수가 없었다. 자석에 이끌리듯 하자는 대로 따라갔다.

그 남자는 얼마 전까지 변호사를 했던 이 나라 신사였다. 늦팔자가 좋았는지 여인은 그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이미 소문이 사방에 돌은 실화라고 했다. 이민 사회에서 누군가가 외로워 지어낸 말이라고 생각했다.

“누가 알아요. 할머니에게도 그런 행운이 있을지.”

“그러는 ○○엄마가 나가봐요. 내 팔자에는 그런 거 없거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깔깔거렸다.

그녀가 뱃사람 샘 할아버지를 처음 알게 된 사연도 바로 그랬다. 아침 일찍 물고기를 잡고 배를 끌어 올리다가 굴을 따던 그녀와 마주쳤다. 샘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그녀의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아들과 함께 자주 바닷가에 간다며 나갔다. 굴 수확이 적은 것에 비해

시간은 많이 길어졌다. 어느 날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며 제 엄마를 찾았다.

“네 엄마가 어딜 갔기에 그리 안 보이는지 모르겠구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아이가 신바람이 났다.

“울 엄마 데이트 갔을 거예요. 아마 쌤 할아버지랑 키스하러 갔을걸요.”

아이의 주절대는 말에 너무 놀랐다.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너석이 설쳐서 제 엄마 일을 그르칠까 봐 걱정되었다.

“요즘 좋은 일 생겼는데 어찌 되어 가는 거야? 말해 주면 진심으로 축하해 줄게.”

나이가 많은 키위(뉴질랜드 백인) 할아버지라고 했다. 그래서 선뜻 밝히기를 꺼렸던 듯싶었다. 마음이 통하는 친구라도 있으면 털 외로우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아이가 통역사가 되어 그를 데리고 다니는 모양이었다.

어느 날 집에 찾아온 쌤 노인은 뒷마당에 어지럽게 놓인 빨감들을 모아 얌전하게 정리를 해 주고 갔다. 남자의 손길이 금방 티가 나서 고마웠다. 그녀가 많이 의지해도 되겠구나 싶게 푸근한 사람이었다.

바닷가 근처에 살면서 배를 띄워 물고기를 잡는 어부라고 했다. 굴을 따러 나가면 데이트도 하는 모양이었다. 영어를 배우겠다고 부담 없이 집에 데려오기도 하고 같이 밥해 먹고 놀다 가는 날이 많아졌다.

이른 아침에 잡은 물고기 몇 마리를 비닐봉지에 담아 들고 오는 날도 있었다. 그녀가 없으면 높직한 빨랫줄에 걸어놓고 갔다. 포도송이나 과일 몇 개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기도 해서 웃겼다. 야옹이에게 뺨길까 봐 피를 쓰는 모습이 재밌었다. 인정이 많은 할아버지임을 알게 되었다. 의사소통이 잘 되는 아이가 제 엄마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았다.

무슨 뜻인지 어느 날은 예쁜 들꽃을 들고 와 그녀를 기쁘게 했다. 여인의 표정이 날로 밝아졌다. 그동안 메마르게 살아온 여인이었다. 푸근한 남자를 만나서 정이 담뿍 들어가는 표정을 보는 게 좋았다. 그녀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렇게 언제까지 친구만 하기엔 현실이 용납하지 않아 문제였다. 또 비자 만료일이 다가오니 속이 타들어 갔다.

“저 쌤 할아버지와 결혼하고 싶어요. 친정아버지처럼 모시고 살면 되겠죠.”

영주권만 받을 수 있다면 나이 같은 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부인과 이혼한 지 여러 해가 되었다는 할아버지는 재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위아래 층에 따로 산다고 했다. 긴 세월 함께 살던 부부가 남남으로 갈라져서 한 지붕 밑에 살고 있다니. 우리 문화와 달라도 너무 달라 웃음이 절로 났다.

“급한 사람이 먼저 말을 해야지. 잘해 봐요.”

쌤 그는 어떤 생각일까? 궁금했다. 여기 사람들은 정식 결혼보다 동거를 희망하는 편이라고 들었다.

먼저 들어온 불법 이민자들이 더럽혀 놓은 사례들이 많아서 현지 사람들도 이제는 경계가 만만치 않다고 들었다.

그녀는 밤잠을 설치며 고심했다. 쌤이 무슨 맘으로 자기를 가까이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말을 잘 못해서 게도 구력도 다 잃을까 봐 걱정되었다. 다시 혼자가 된다는 것은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영주권만 아니라면 지금처럼 사는 게 너무 좋은데.

그녀의 주차 자리가 텅그러니 비어 있었다. 요즘 단속이 심하다는데 또 굴을 따러 갔구나 하는 마음에 내심 걱정이 되었다. 친정엄마가 딸을 챙기듯이 돌아올 때까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서성댔다.

밖에서 차 소리가 났다.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등 뒤에서 그녀의 목

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저 오늘 죽고 싶어요.”

비통하고 처절한 목소리였다. 방문을 짱 소리 나게 닫고 들어가 버렸다. 따라 들어가 위로할 말을 찾지 못했다.

온종일 두문불출해 미용실 손님들도 돌려보내야만 했다. 작심을 하고 영어가 부족한 부분은 사전을 들춰가며 종이에 적어 그의 집으로 달려갔던 여인. 그가 놀라서 뛰어나왔다. 따뜻한 차 한잔으로 여자를 안심시켰다.

모든 것 다 덮어버리고 그의 품에 덥석 안겨서 넋을 놓고 울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가슴 넓은 아버지 품에서 지칠 대로 지쳐버린 삶을 한껏 응석을 부리고 싶었다. 그럴 수 있는 형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용건을 털어놓았다. 써서 가지고 간 종이쪽지를 펴 보았다. 그녀는 어느새 울고 있었다. 굳어버린 표정으로 그는 말없이 오래 서 있었다. 울고 있는 여인을 일으켜 세우며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가 입을 열 때까지의 시간이 한없이 길었다. “예스”라는 답이 나오기를 맘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나 답은 그 반대였다 “노오.” 대답은 단호했다. 자기는 시한부 삶을 사는 처지라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녀는 괜찮다고 애원을 했다. 이성을 잃고 몸부림치듯 매달려 보았다는 여인.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 같은 게 치밀었다. 한국에 가서 살면 될 걸 왜 그리 치사하게 살아야 하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자존심도 없었느냐고 소리치고 싶었다.

그녀가 그 집을 뒤로하고 달려올 때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다. 그냥 정신없이 달렸다. 교통사고라도 나서 죽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다

그 일에서 벗어나기까지 그녀는 맘고생을 많이 했다. 더러운 게 정이라

더니 정 끊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었다. 모처럼 따뜻하게 품어준 시간이 아쉬웠다.

그를 오랫동안 생각하는 것은 감정의 사치일 뿐 빨리 벗어나야만 했다.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가도 다시 태연한 척 살 수밖에 없는 처지가 아닌가. 그의 인생이 참 불쌍했다.

사정을 모르는 아이는 샘 할아버지가 왜 안 오느냐며 날마다 기다렸다. 엄마 보고 같이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자고 보채기도 했다. 적당한 대답을 못 찾아 우물거리는 엄마 대신 옆에서 한마디 거들어주었다.

“할아버지 먼데 여행가셨대. 아주 오래 있다가 오신단다.”

그녀는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와서 더 씩씩한 척 살았다. 조용한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지던 어느 날, 집에 낯선 남자 손님이 생겼다.

어느 일요일, 교회에 갔던 그들 뒤에 낯 모르는 한 남성이 따라왔다. 이란계 키위(뉴질랜드 사람)라고 했다. 한국 여성을 만나려고 많이 찾아다녔단다. 그는 뉴질랜드에 이민 오기 전 이란에 살 때 한국 근로자와 같이 일을 했었다. 가끔 그들 집에 초대를 받아가면 한국 여성들의 남편 섬기는 모습이 너무 좋았단다. 결혼하게 되면 꼭 한국 여성과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한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태극기를 보았다. 반가워서 한달음에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한인교회였다. 목사님을 찾아 자기 마음을 털어냈다. 목사님은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그를 정신병자로 오해하고 돌려보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지치지도 않고 날마다 와서 즐겼다. 목사님이 그의 진심을 알고 거처를 물어 뒷조사를 하기에 이르렀다. 영주권자가 분명하다는 사실까지 확인한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녀의 짝으로 보내셨다고 믿

었다. 그들은 그렇게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다.

“할머니 죄송해요. 함께 살고 싶은데 제임스가 아니라네요.”

그녀가 늘 하던 말이었다. 시집을 가더라도 우리는 헤어지면 안 된다. 맘이 고마워서 대답은 했지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남의 신혼에 무슨 초침맛으로 끼어들까나. 슬며시 자존심이 상했다.

“어이구. 가자고 빌어도 안 갈 거네. 걱정하지 말고 자네나 가서 제발 잘 살아.”

진심이었다. 그들은 멀지 않은 곳에 살림을 차렸다. 우리는 그렇게 이 별의 손을 흔들며 헤어졌다. 순종하는 아내를 원하는 남자. 웬지 불안했다. 그녀의 스타일은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사는 모습도 볼 겸해서 머리 손질을 핑계 삼아 찾아갔다. 집 안이 깔끔하고 신혼집다워 마음이 놓였다. 세 사람이 커피를 마시며 잠깐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여인의 표정이 웬지 모르게 불안해 보였다. 밖에 미용실 손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여자가 바쁘게 자리에서 일어나자 남자의 표정이 금방 일그러졌다.

함께 커피를 마실 시간도 없어 기분이 나쁘다고 하소연하듯 거칠게 말을 했다. ‘큰일이네.’ 걱정이 되었다. 미용실이라고 만들어놓은 모양새가 불쌍사나웠다. 남편이 원하지 않는 일을 혼자서 만들었다는 표시가 뚜렷했다.

집 바깥벽에 어지러운 형겉때기가 열기설기 천막을 대신했다. 포장 안을 들춰보니 하늘에 반사된 거울이 눈을 찔렀다. 그 앞에 덩그러니 의자 하나가 앓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폐허 속 어느 전쟁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미용실 풍경이었다. 멀쩡한 집 외관을 흉하게 만들어 놓은 여인을 좋아할 남자는 없을 것이 뻔했다. 그녀가 포기할 수가 없는 이유는 단 하나. 아들을 위해서 벌어야만 했다.

남편이 아이까지 책임지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결혼을 했어도 절대 행복하지 않은 그녀. 마음이 짠했다. 바람을 타고 안 좋은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남자가 폭력을 써서 도망 다니기가 일쑤라고들 수군거렸다. 순종하는 아내를 원하던 남자였으니 변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린 사람들이 부부의 연을 잘못 맺었다.

그녀의 목적은 여자의 행복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아들 하나 잘 키우는 게 엄마로서 인생 최대의 목적이었을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영주권자. 그것이 전부였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굳건히 자리를 지켜야만 했다.

정말로 견디기 어려울 때는 보호 시설에 요청도 했다. 남편의 폭력을 피해 한 달을 지낼 수 있었다. 그동안에 남자의 자성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사과를 하고 반성하겠다는 각서를 받고서야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그 남자는 정상인이 아니었던 것 같았다. 무슨 지병을 가졌는지 일도 못 하고 환자수당으로만 살아간다고 했다. 그 사실은 솔직하게 털어놔서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렇더라도 같이 놀아만 달라고 보채는 남자를 감당하기에는 현실이 여의치 않았다. 아들의 뒷바라지를 혼자서 책임져야 하는 처지를 이해해 주지 않았다.

남자는 불만을 폭력으로 달랐다. 폭력의 빈도가 잦았다. 하루에도 열두 번씩 도망쳐 나오고 싶었지만 버텨내려고 입술을 깨물었다.(여기서 나가면 이제는 끝이다. 어떻게든 그날까진 참아내자.)

2년이란 세월이 수십 년처럼 길고 지루하게 지나갔다. 그녀가 원하던 영주권을 손에 쥔 날 그녀는 혼자서 바닷가에 나가 평평 울었다고 했다.

인간은 양심의 동물이라는 게 맞는 것 같다. 막상 영주권을 손에 쥐니 남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겼다.(이제부터라도 잘해 주고 잘 살아보자.)

얼마 동안은 조용하게 잘 지냈다. 그것도 잠깐, 남자의 손버릇이 다시

시작되었다. 모자가 다시 보호기관을 찾았다. 그만 살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

어느 날 경찰 보호를 받아 집으로 돌아왔다. 남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짐을 몽땅 꾸러 들고 집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이제 당당한 영주권자다. 쫓겨날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모든 고난에서 해방된 홀가분함에 날개를 단 기분이었다.

어느 날 쇼핑몰 근처에서 우연히 그녀를 만났다. 모녀의 상봉처럼 우리는 뜨겁게 껴안았다.

“할머니.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맛있는 거 해 드릴게요.”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어주었다. 아이가 아프다고 해서 약을 사러 잠깐 나왔다고 했다. 농장에서 고추를 따다가 뛰쳐나왔다는 차림은 옛날이나 다름없었다. 그녀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혼자 웃음이 나왔다.

“○○야. 할머니...”

차에서 내리는 녀석을 보고 깜짝 놀랐다. 여덟 살짜리가 의젓한 고등학생으로 자라 몰라볼 지경이었다. 세월이 참 많이도 흘러갔구나. 아들 잘 키웠다고 이혼한 아이 아버지께서 용돈도 좀 온다고 사랑을 했다. 아이가 곧 대학을 간다고 대견해하기도 했다.

내가 그 집에 가봤으면 더 많이 사랑할 말이 있었을 것만 같았다. 사랑해도 된다. 그렇게 억척스럽게 살아냈으니 원하는 바를 충분히 이룬 것이었다.

# 청소년 글짓기

- 중·고등 부문 -

최우수상	2019년이 1919년에게	홍세훈 (뉴질랜드)
우수상	3.1운동 정신과 일본 속의 나 중국에서 만난 안중근 의사	남명지 (일본) 김정재 (중국)
장려상	우리 집, 24인의 독립 영웅 그 날의 함성을 기억하며 대한민국과 나	백재흠 (카자흐스탄) 유다은 (태국) 정유진 (중국)

## 2019년이 1919년에게

홍세흔 (뉴질랜드)

2019년을 살고 있는 나는, 2001년 12월생으로 뉴질랜드 나이로는 17살, 우리나라 나이로는 19살로 백세시대를 꿈꾸는 소녀이다.

1919년에 살았던 유관순 열사는, 1902년 12월생으로 우리나라 나이로 18살이었고, 다음 해 1920년 9월에 19살의 나이로 순국한 소녀였다.

2019년의 나는, 뉴질랜드로 유학을 와서 학교를 다니며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로 가끔은 힘들어서 짜증을 부리기도 하고, 친구들과 노는 것을 좋아해서 밤새워 놀기도 하며, 나의 발전과 나의 재미와 나의 소원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하는 평범한 소녀이다.

1919년의 유관순 열사는, 서울로 유학해 이화학당에 다니면서 가끔은 뜨개질을 하고, 친구들과 장난을 치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빙니다’를 ‘명태 이름으로 빙니다’라고 해서 시험에서 낙제점을 받기도 하는, 평범하면서도 튼튼하고 영특한 소녀였다.

2019년의 나는, 학교에서 주어진 과제로 인해 글로벌 이슈에 대해 조

사를 하게 되고 글로벌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접하면서 하나가 되고 있는 세계를 위해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고 있는 소녀이다.

1919년의 유관순 열사는, 삼일만세운동이 일어나자 탑골공원에 나가 만세를 부르고, 전국적인 휴교령이 내려져 돌아가게 된 고향에서는 만세운동 소식을 전하고 직접 태극기를 만들어 나눠주면서 연설을 하고 만세운동에 앞장서는 등 직접 실천하는 소녀였다.

2019년의 나는, 고교 졸업을 앞두고 있으며 어떤 대학에 진학하여 어떤 공부를 할까를 고민하고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 해외여행을 계획하며 나의 미래가 빛나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소녀이다.

1919년의 유관순 열사는, 만세운동 중에 부모가 일본 경찰에 의해 살해당하는 경험을 하고 유관순 열사 자신은 체포되어 공주 지방법원에서 5년 형을 구형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옮겨가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도 옥중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며 나라의 독립을 염원하는 소녀였다.

2019년의 나는, 1919년 삼일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삼일운동 100주년 기념사업과 전시회와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독립만세운동 시연 소식을 접하면서 삼일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유관순 열사를 기념하는 영화 ‘항거: 유관순 이야기’를 만나게 되고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에 가슴 먹먹한 경험을 하게 되면서 유관순의 삶에 내 삶을 비추어 보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1919년의 유관순 열사는, 여느 10대와 같이 삶에 대해 고민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는, 평범한 학생으로 살았기에 어떤 하루는 “만세운동을 한 것을 후회한다”며, “정당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알았

다”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한 연약한 소녀였다.

2019년의 나는, 열사와 같이 가끔은 고민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는, 평범한 10대로 살아가며 열사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살면서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 때문에 눈물도 훔치며, 내 탓 남 탓하며 한숨도 자주 쉬는 내 모습을 부끄럽게 생각하게 된 소녀다.

1919년의 유관순 열사는, 동지가 위협에 처했을 때 자신이 대신 나설 수 있는 용감한 성격으로 조선인이 조선인을 핍박하는 억울하고 비겁한 상황에서 “조선인은 일본말을 할 줄 알아도 조선말을 쓴다”며 그릇된 행동을 지적할 수 있는 곧은 소녀이기도 하였다.

2019년의 나는, 친구를 도와주고 격려해 줄 수는 있지만, 내게 보탬이 되는 일이 아니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오지 않는 일에 대해 열사처럼 나설 수 있을까 반성하게 된 소녀다.

1919년의 유관순 열사는, 끔찍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마음만은 자유로움을 간직하고 하나뿐인 목숨을 자신이 바라는 일에 맘껏 쓰겠다고 생각하며 특별 사면으로 형을 반으로 줄여준 일제에 감사하라는 말에도, 일본말로 빌면 고문을 멈추겠다는 말에도, 끝까지 자신은 “죄수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진 소녀이기도 하였다.

2019년의 나는, 육체는 자유로우나 때때로 마음은 자유롭지 못하며, 모범적인 생활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그려놓은 경계선을 두려움 때문에 넘지 않으려 하며, 자신이 없다는 핑계로 새로운 도전을 꺼리는 소극적인 모습을 고쳐 보겠다고 다짐하게 된 소녀다.

1919년의 유관순 열사는, 주위에서 미련하게 “왜 그렇게까지 하나?”는

물음에 “그럼 누가 합니까?”라고 담담하게 대답할 수 있는, 나라를 원망하지 않으며, 자신이 하는 일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소녀이기도 하였다.

2019년의 나는,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이따금 투정 부리고 원망하는 모습에서 남을 돌아보고 남을 먼저 생각해보겠다고 결심하게 된 소녀다.

2019년이 100년 전의 1919년에게,

나라를 잃고 억압받으며 가난하고 힘들었던 그 시절에게,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씩씩하게 목숨을 바쳐 독립운동을 한 유관순 열사에게, 2019년이 1919년과 같은 상황이라면 그때의 열사처럼 할 자신이 없기에, 그때의 열사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을 것이기에, 그때의 열사도 나와 같은 소녀였기에, 그 소녀가 지키려고 한 나라가 발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었기에, 2019년의 소녀는 1919년의 그때 그 소녀에게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고, 많이 감사하다고,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이 마음이 100년의 시간을 거슬러 그 마음에 가닿기를 염원하며, 가만히 진심을 전해본다.

## 3.1운동 정신과 일본 속의 나

남명지 (일본)

나는 한국인 아버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16년 동안 자라왔다. 완전한 한국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동경에 있는 한국학교를 다니면서 한국 문화를 많이 접하고 한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다 보니 한국에 살아 본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사랑하고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다.

한국의 역사를 미디어에서 접할 기회가 없는 환경에서 자란 나는 부끄럽게도 중학생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3.1운동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다. 매년 3월 1일에 학교에서 열리는 행사와 한국 뉴스를 보면서 왜 3.1운동이 일어났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3월 1일에 특별한 의미를 두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민족이 하나 되어 독립만세를 외치다.”

그 궁금함이 생길 무렵 마침 나는 한국사 수업에서 3.1독립운동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제야 근대에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본에 의한 강제 지배는 우리나라 사람

들에게 고통이었으며 국가를 잃었다는 슬픔은 더 큰 고통이자 슬픔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고통과 슬픔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기 위해 온 국민들은 모여서 크고 작은 독립운동을 벌였고 그중에서도 3.1운동은 전국민적인 독립운동의 시발점이다. 유관순 열사는 독립만세를 외쳤다는 이유로 형무소에 갇혔다가 꽃다운 나이에 순국했다고 한다. 당시 나이가 불과 16살. 나와 같은 나이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3.1운동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덕분에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고 우리가 있단다.” 3.1운동을 설명하시던 한국사 선생님의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고 그동안 한국 역사를 몰랐던 부끄러운 나 자신 또한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것도 내가 사랑하는 우리나라의 존재도 3.1운동에서 투쟁하신 조상들의 노고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

고등학교 2학년, 나는 처음으로 일본사 교과서를 접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교과서 속에는 익숙한 단어가 하나 적혀 있었다. 일본 교과서에서 말하는 3.1운동에 관한 내용은 내가 전에 배운 내용과는 너무 다르게 서술되어 있었다. “고종 사망 때문에 일어난 운동”, “일본인 사상자가 생긴 운동”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실제 일본이 자행한 비윤리적인 행동들은 모두 빠져 있었다. 일본 때문에 일어난 독립운동을 모두 한국인의 오해와 돌발적인 행동으로 설명하는 일본을 보며 나는 화가 치솟았다. 그리고 그 당시의 일에 사과조차 하지 않은 일본이 미워 보였다.

그 후에 나는 두 나라의 교과서를 비교하며 읽어보았다. 그 당시 직접 3.1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나는 이 운동의 진실을 알 수 없다.

3.1운동은 March 1st movement 라는 명칭으로 일본과 한국 사람 말고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제 3국에서 본 3.1운동은 어떤 모습일까. 찾아보니 대부분의 웹사이트에서 3.1운동을 한국의 역사 교과서와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 가장 큰 목적이며, 어떤 사이트에서는 피해자 수부터 그 당시의 사진까지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었다. 나는 이것들을 보며 일본이 큰 죄를 지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일본은 이러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저지른 악질적인 행위를 여전히 숨기고 있다. 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운동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일본 사람들이 3.1운동에 대해 배운 주관적인 입장에 늘 숨겨져 있는 자신의 나라에서 저지른 행위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일본과 한국, 두 나라가 3.1운동의 정확한 내용 즉 객관적인 내용을 인정하며 서로에 대한 악감정이 담긴 정보를 고쳐 나가면 객관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악화되어 가고 있는 한일 관계도 조금씩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내 몸에는 두 나라의 피가 섞였다. 한국을 지배한 일본인의 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일본에게 지배를 당한 한국인의 피. 3.1운동이라는 운동을 볼 때마다 마음 한곳이 아파온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3.1운동 때 행한 비윤리적인 행동과 폭력을 인정하기도 전에 많은 시민이 한국 교과서에 실린 3.1운동 설명이 틀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내가 알고 있고 배우고 있는 역사도 중립적이지 않은 감정적일 수도 있다. 요즘 한일 문제를 다룬 뉴스를 보면 서로의 감정만 앞세워 국민들을 자극하는 것 같다. 내 생각엔 이런 감정적인 미디어는 올바른 역사를 알아야 하는 우리 같은 학생들에게 진실은 바로 알지 못하게 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판단할 때는 항상 중립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말씀하셨다. 나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배경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대학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 대해 중립적으로 공부할 생각이다.

그리고 일본이 이 운동에 대해 더 정확하게 알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게, 풀리지 않은 두 나라의 오해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며 각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먼저 실천하려고 한다.

아직은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인 생각이 앞선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중립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기초가 된 3.1운동은 나에게서 한일 역사를 공부하고 실천하려는 마음가짐을 갖게 해주었다. 3.1운동에 목숨을 바친 선조들을 위해서라도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3.1운동의 의미가 왜곡되지 않도록, 사실에 호소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그 바탕 위에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사실을 이어주는 가교가 되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한국인과 일본인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빨리 오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 중국에서 만난 안중근 의사

김정재 (중국)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일본의 폭력적 침략에 항거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을 회복하고 조국의 독립과 평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역사적 사건을 기리기 위해 바로 거사가 일어났던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역에 안중근의사기념관이 개관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중학생이던 2014년 어느 날 한국 뉴스를 통해 들었다.

하얼빈역은 내가 살고 있는 길림성 장춘시에서 가장 빠른 기차를 타고 가면 한 시간 남짓 걸리는 가까운 거리의 도시이다. 하얼빈은 한겨울 빙등제로 유명하지만 나는 중국 땅에서 한국 위인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자랑스러웠고 빨리 가보고 싶은 마음에 하얼빈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하얼빈역은 지어진 지 오래되어 작고 낡아 있었지만, 하얼빈역 정문 왼쪽 편에 중국어로 “安重根义士纪念馆”(안중근의사기념관) 이라고 당당하게 걸려있는 표지판이 무척이나 반가웠다. 기념관 안으로 들어가면 한글로 써 있는 안내문들과 의연한 모습으로 반겨 주시는 듯한 안중근 의사의 흉상을 마주하며, 상기된 마음으로 방명록에 어떤 의미 있는 글을 남길까 고민하며 내 이름 석 자와 간단한 소감을 적었다.

기념관 내부는 크지 않았지만 사진 자료와 안중근 의사가 직접 쓰신 여러 점의 서예작품, 의거 당시를 재현한 자료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장소를 창문 너머로 확인할 수 있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장소였다. 잃어버린 주권과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며 대한독립을 위해 용감히 싸우셨던 자랑스러운 안중근 의사, 지금은 하얼빈역 공사로 조선민족예술관으로 옮겨져 전시 중이라 한다. 다시 그 장소 그대로 복원되어 관람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쟁포로를 대상으로 각종 세균실험과 약물실험을 자행했던 731부대도 둘러보았다.

집으로 돌아온 후 안중근 의사에 대해 찾아보다 서예작품 마다 찍혀 있던 인상적인 손바닥 도장이 안중근 의사가 뜻을 같이하는 동지 11명과 왼손 약지를 끊어 흐르는 피로 태극기에 ‘대한독립’이란 글자를 쓰며 조국을 구하기 위한 맹세를 다짐하고 단지회를 결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짧아진 약지로 손바닥 도장을 찍으며 마음의 의지를 다지셨을 안중근 의사를 생각하며 나도 의로움을 향한 강한 의지를 닦고 싶었다.

한참을 기다린 후 다음 방학을 이용해서 안중근 의사가 수감되고 순국한 장소인 랴오닝성 대련시 뤼순에 있는 일제 시대 때 형무소를 방문했다. 밖은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 때문에 조금만 걸어도 등줄기에 땀이 흐르는 무더운 날씨였지만, 뤼순감옥에 발을 내딛는 순간 바로 한기가 느껴졌다. 시멘트 바닥엔 감옥에서 서럽게 죽어간 죄 없는 죄수들의 한이 서려 있는 것 같아, 감옥 안의 냉기로 온몸이 오싹해졌다. 수색실 고문실 사형실 공장 등을 둘러보고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까지 지냈던 독방과 사형실을 무겁고 숙연한 마음으로 조용히 관람하였다.

그리고 그 주변 어딘가에 묻혀 있을 안중근 의사의 뼈 한 줌이라도 찾아, 내가 어렸을 때 엄마 손을 잡고 나들이 가듯 올라가 보았던 효창공원 양지바른 곳에 자리한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으면 안장하려고 만

들어 놓았다는 안중근 의사의 가묘에 단 한 줌의 뼈 가루라도 물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렸었다.

2019년 올해는 3.1운동이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3.1운동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두 잘 알고 있지만 3.1운동이 일어나기 한 달 전 19019년 2월 1일 있었던 무오독립선언은 모르는 사람이 많을지도 모른다. 나도 이번 행사에 참여하기 전까지 무오독립선언에 대해 잘 몰랐었다. 무오독립선언은 2.8독립선언과 3.1독립선언보다 먼저 있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선언이며, 세계각지의 민족대표 39명이 중국 만주지역에서 선포하였고, 2.8독립선언과 3.1독립선언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2019년 1월 26일 중국 선양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선양협의회 주최로 무오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그 뜻깊은 자리에 무오독립선언서 낭독자 중 한 사람으로 참가하여 당시의 독립 선언문 중 일부를 독립을 바라던 그때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조금은 떨렸지만 최대한 당당하고 큰 소리로 낭독하려 노력했다. 그리고 강연을 들으며 대한독립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의로운 분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희생, 역경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시간이었다.

중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내 한국의 역사에 관하여 정규 수업을 받지 못하였지만, 내가 살고 있는 동북3성 지역은 항일 유적지가 많으며, 상해·항주대한민국 임시 정부 등 중국 곳곳에 우리나라 역사의 자취를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중국 동북 지역은 고구려와 발해의 터전이었던 곳이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유적지에 관한 자료도 찾아보고 직접 체험해 보면서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역사의식도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었다. 그리고 항일 투쟁의 가슴 아팠던 고난의 역사 속에 있어 주셨던 안중근 의사와 이름 모를 의병과 대한민국을 지켜낸 많은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오랜 시간 동안 쓰러지지 않고 피와 땀, 희생으로 우리는 광복을 되찾을 수 있었고 안중근 의사가 그토록 바라던 조국의 독립이 이루어지던 날 “대한독립 만세” 라는 눈물의 함성소리가 안중근 의사가 계신 천국에도 닿아 분명히 덩실덩실 기쁨의 춤을 추며 “대한독립 만세”를 목청껏 외치셨을 것이다. 그러나 안중근 의사 순국 109년이 되는 지금도 유해는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국땅 어두운 지하 그 어느 곳에 있는지조차 모른다. 마지막 유언인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 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라는 마지막 소원이, 독립을 맞이해 편안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와 사명이 아닐까 생각한다.

고난의 역사 속에서 나라를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는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거라 생각한다. 지금은 나의 힘이 미약하여 글로나마 고국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위로해 드리지만 조만간 성인이 되면 글이 아닌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과 항일 유적지의 보존 유지를 위한 실천으로 보탬이 되어 드리고 싶다.

안중근 의사는 우리나라의 독립뿐만 아니라 동양의 평화를 꿈꾸고 계셨던 평화주의자였다. 대한민국은 일본으로부터 독립은 이루었지만, 힘이 없었던 그때 불행하게도 한민족은 둘로 나뉘어, 허리가 잘린 분단국으로 살아가고 있다. 지금 우리의 첫 번째 과제는 평화가 아닌가 생각한다. 남과 북의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통일 그리고 나서 안중근 의사가 꿈꾼 동양의 평화, 세계가 평화로운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

외국에서 오래 살게 되면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이고, 문화와 기술이 발달되었으며, 우리나라가 너무 소중한하다는 것을, 그런 소중한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영원토록 평화롭게 보존, 발전해 갔으면 좋겠다. 그 소중한 역사 속에 존경하는 안중근 의사가 있었다는….

## 우리 집, 24인의 독립 영웅

백재흠 (카자흐스탄)

얼마 전부터 나는 반강제적으로 한국사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여태까지는 굳이 역사를 공부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갔다. 바로 엄마가 나 몰래 ‘2019년 해외 한국사능력검정 특별시험’을 신청한 것이다. 안 그래도 학교에서 보는 시험 때문엔 진이 다 빠지는데 역사 시험까지 준비해야 하는 슬픈 상황에 처하게 됐다. 그런데 이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 참 신기하다. 분명 처음에는 재미가 없었는데, 공부할수록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재미가 의외로 쏠쏠하다.

특히 내가 살고 있는 카자흐스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아주 궁금했다. 카자흐스탄은 과연 우리나라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알고 보면 이곳은 한국에겐 참 아픈 역사가 있는 나라다. ‘고려인’이란 이름에도 그 아픔이 스며들어 있다. 1937년, 스탈린의 한인 강제이주정책으로 중앙아시아로 쫓겨난 우리 민족이 바로 고려인이다.

내 친구 중에서도 고려인이 있다. 걔는 한국어도 할 줄 모르고, 한식을 먹는 것도 아닌데, 꼭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한국인이라 소개한다. 왜 그런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내 몸속에도 한국인의 피가 흐

르거든!” 맞는 말인데,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러시아인처럼 생겨서 믿음은 안 가지만….

얼마 전에 그 친구와 함께 알마티 교육원에서 열리는 3.1절 행사에 간 적이 있다. 올해도 만세삼창과 독립 선언문 낭독, 합창을 비롯한 다양한 공연들이 치뤄졌다. 이런 역사적인 기념일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고려인들이 모이는데, 특히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 드신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많이 오신다. 그들이 이국땅에서 자국의 문화와 언어를 잊지 않고 살아온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간직하고, 노력하며 살아왔는지 느낄 수 있었다.

마침 올해의 행사는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더욱 볼거리가 많았다. 조금 지루하던 1부보다는 2부가 훨씬 알찼다. 그중에서도 하이라이트는 고려극단에서 준비한 흥범도 장군에 관한 연극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흥범도 장군은 항일 투쟁을 한 독립투사다. 그 유명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무찌르면서 독립을 위해 힘썼지만 불행하게도 그는 1937년, 스탈린의 한인 강제이주정책에 의해 크즐오르다로 강제 이주 당했고, 결국 그곳에 묻히게 되었다.

연기하는 배우들이 고려인이라 발음과 억양이 어색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연극을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 아니, 오히려 고려인의 발음과 억양이 더 몰입할 수 있게 도와주지 않았나 싶다. 같이 간 내 친구는 하나도 못 알아들은 것 같았지만, 나는 연극을 보면서 몽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게다가 이게 살면서 처음 본 연극이기도 하다. 나는 연극이 끝나고 한동안 배우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빠져 살았다.

연극을 본 다음 날, 항상 문 앞에 걸려있던 달력이 눈에 들어왔다. 해마다 엄마가 가져오는 달력이다. 고려일보사에서 나눠준다고 한다. 솔직히 색이나 디자인은 조금 촌스럽지만, 오래 보다 보니 나름 괜찮아 보인다.

이 달력에는 특이하게도 항상 똑같은 24명의 사진이 있다. 예전엔 그들에 대해 딱히 궁금하지 않았다. 하지만 역사를 공부하면서부터 호기심이 동했다. 과연 이들은 누굴까?

“Ли Дон Хви(이동휘), Хон Бом До(홍범도), Мин Гын Хо(민궁호), Хван Унден(황운정), Ге Бон У(계봉우) … (이 밖에도 19명의 사진이 걸려있다)”

물론 낯익은 이름도 있었다. 연극에서 보았던 홍범도 장군, 의병장 민궁호, 얼마 전 뉴스에서 본 황운정 지사와 계봉우 지사까지. 하지만 대부분은 내가 모르는 이름들이었다. 그래서 이들의 정체를 한번 밝혀보자고 결심했다.

알고 보니 이들 모두가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로 이주당했던 독립운동가들이었다. 근데 이들의 정보를 찾는 데 의외로 애를 먹었다. 몇몇 독립운동가는 인터넷에 정보가 거의 없었다. 직접 고려일보로 메일을 보내서 알아내기도 했다. 난 내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 제법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큰 오산이었다. 왜 이런 영웅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 그 사실이 안타까웠다.

게다가 달력의 인물 중에는 얼마 전 뉴스에서 본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봉환하다’의 황운정 지사도 있었다. 그는 1919년 3.1운동에 참여한 후, 러시아 지역으로 이주하여 독립투쟁을 이어갔다. 이국땅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그의 투쟁에는 애국심뿐만 아니라 3.1 정신도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우리는 이들로부터 물려받은 자유와 평등, 저항과 단결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난 역사를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 민족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는 끊임없는 저항의 반복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외세의 침략, 지배층의 비리와 착취, 탄압, 이 모든

것에 저항함으로써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거머쥐었다. 벌써 2년이 넘게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촛불시위가 생생하게 기억난다. 한국이 아니라서 TV화면으로밖에 볼 수 없었지만, 저 솔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저항의 촛불을 밝힌다는 것이 굉장히 뿌듯했다.

3.1운동에 관한 글을 읽다 보면, 항상 내 머릿속을 맴도는 생각이 있다. 만약 내가 3.1운동 때 태어났다면, 난 독립 영웅들처럼 할 수 있었을까? 아무리 내 민족 내 나라를 사랑한다고 해도, 저 가혹한 고문과 수많은 회유 속에서 끝까지 내 뜻을 굽히지 않을 수 있을까? 솔직히 난 아직도 그럴 수 있다고 확신하지 못한다.

바로 거기에 3.1운동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보다 먼저 그 일을 해낸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것. 그것이 내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간단하다.

우리도 할 수 있으리라는 것.

## 그 날의 합성을 기억하며

유다은 (태국)

“쨌세, 소지 오와리마시타.” (선생님, 청소 다 끝났습니다.)

“소오? (그래...?) 닷타라 고모도타치니 이에니모뎡데모 이이떼 유노” (그럼 아이들에게 집에 가도 된다고 전해줘라)

“하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쓰.” (네, 감사합니다.)

내 이름은 가네사끼 준데이, 사냥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난 이렇게 선생님께 청소 보고를 마치고 영림이와 함께 손잡고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집에 돌아왔다. 일본어를 제일 잘한 덕분에 반장이 된 나는 이렇게 선생님께 보고를 드리고 나면 참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다.

오스대며 힘껏 대문을 여니 동생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긴 일본도를 차고 있는 일본 순사에게 아버지는 끌려 나오고 있었다. 엄마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었고 으르렁대는 사자 앞의 연약한 사슴처럼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다. 그렇게 아버지는 경찰서로 끌려가셨고, 며칠 뒤에 온몸에 매질을 당해 멍투성이와 피범벅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셨다.

강경에서 제법 크게 농사를 짓고 있던 아버지는 쌀을 공출이라는 명목으로 다 뺏길 수는 없어 조금 따로 숨겨 놓았다가 그게 발각되어 어려움을 당하신 거였다. 누군가가 일본 순사에게 아버지가 숨겨 놓은 사실을 알려주었다며 엄마는 분함에 어쩔 줄 몰라 하셨다.

며칠 동안 끙끙 앓으시던 아버지의 모습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일본말을 잘 하는 게 자랑스럽지 않다. 일본인에게 쌀을 다 빼앗겨 풀죽으로 먹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비행장 건설한다고 숟가락부터 놋그릇, 양철 지붕까지 빼앗아가는 일본 순사의 얼굴은 마치 조그만 거 하나라도 더 찾으려고 눈빛을 번뜩이는 비열한 하이에나 같았다.

왜 이렇게 학교에서 일본말만 해야 하고, 일본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지만, 일본 순사는 어찌나 무서운 저승사자 같은지 울보인 막내마저도 일본 순사 온다는 말에 울음을 딱 그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른들이 라디오 있는 집으로 수군대며 삼삼오오 모였고 일본 천왕의 목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어른들은 만세를 부르며 큰 거리로 뛰쳐나갔으며 나도 덩달아 강경 시내까지 만세를 부르며 같이 행진하였다. 해방이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른들 말씀이 이제 우리나라를 되찾았으니 더 이상 일본 순사를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쌀도 빼앗길 필요도 없다고 하셨다.

내 나이 12살. 그렇게 난 대한민국의 광복을 온몸으로 느끼며 역사의 현장에서 환호성을 지르고 만세를 부르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올해 86살이 되신 외할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다. 외할아버지 또한 일본에 의해 강제로 창씨개명을 해 ‘하리모도 냉고’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셨으며 일본어를 못 하면 관공서 출입도 하지 못해 어른들은 어려움이 참 많았다고 하셨다. 그렇게 일본은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미명 아래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어 가고 있었다.

고향이 강경이신 외할머니는 김구 선생님이 방문하신다는 소식에 직접 태극기를 들고 환영 인사를 하셨다고 한다. 그리고 며칠 뒤 암살당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학교에서 접하고 친구들과 책상을 치며 원통함과 슬픔에 울음을 터트리셨다고 하셨다.

난 평소에도 역사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 전화를 드려 여쭙어본다. 두 분의 이야기보따리는 언제 들어도 재미있고 지루할 틈이 없었다. 마치 한편의 장편 소설을 읽는 것 같았다. 일제 강점기 시대부터 광복, 6.25 전쟁을 거치고 남북의 분단, 그리고 이어지는 할아버지와 리브스토리는 항상 흥미진진했다. 나에게 살아있는 역사와 다름이 없다. 특히 올해는 3.1운동의 10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이기에 일제 강점기 시절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 전화를 건 나에게 들려주신 두 분의 이야기는 직접 겪었다고 하기에는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이어서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멍하게 앉아있었다.

처음에는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 들쭉날쭉했지만 조금 지나지 않아 침착하게 하나씩 기억들을 끄집어내셨다. 두 분은 어린 시절이었지만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셨다.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내 애절함과 비통함으로 점점 더 격앙되고 있었다. 나 역시 두 분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분함과 억울함에는 마음속으로 따라 울고, 기쁨에는 같이 웃었다. 역사에 관해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 하시며 할아버지, 할머니가 머릿속이 하얗게 지워져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기 전에 자주 전화해 달라는 말씀에 죄송함과 감사함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전화를 끊었다.

그렇게 역사의 한복판에 서 계셨던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목소리로만 전해 들어도 나라 잃은 슬픔과 억울하게 당해야만 했던 아픈 기억들, 그리고 나라를 되찾았을 때의 기쁨까지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타임머신을 타고 떠났던 두 분과의 시간여행은 그런 모진 세월을 희망으로 극복해내신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대한 숙연함과 감사함으로 3.1운동을 비롯해 임시 정부 수립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역사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였다. 또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고도 했다. 우리가 정확히 역사를 알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100년 전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일까?

우리나라는 1910년에 일본의 강제적인 한일합방으로 나라를 빼앗긴 지 근 10년이 되던 해였고 세계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해였다.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는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하셨다. 이런 세계열강의 분위기는 일본군의 억압과 핍박에 시달리던 우리 민족에게도 독립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었고 1919년 1월에 급사

하신 고종 황제의 독살설이 퍼지면서 우리 민족의 울분은 극에 달해 있었다.

그해 2월 8일 최팔용, 김도연, 송계백 등 일본 유학생들은 일본의 심장인 동경 YMCA 회관에서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를 일본이 따라 줄 것을 요구하는 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게 된다. 이 사건으로 국내에 있는 33인의 민족 대표들은 최남선이 기초를 작성하고, 한용운 선생님이 추가한 독립 선언서를 제작하고 고종 황제의 장례식 이틀 전인 3월 1일에 3.1운동을 계획한다. 종교계와 학생들로 이루어진 대표들은 탑골공원에서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기로 하였으나 너무나 많은 군중으로 인해 무력 충돌이 일어날까 봐 음식점인 태화관에서 독립 선언문을 낭독한 후 일본 경찰에 자진 신고해 잡혀간다.

한편 탑골공원에서 기다리던 학생들은 민족 대표들이 나타나지 않자 한 학생이 앞에 나서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라는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한다. 낭독이 끝나자마자 우리 민족은 설움과 울분을 되새기며 목이 터져라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쳤고, 억눌려 있던 독립에 대한 열망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3월 1일 7개 도시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3월 중순에는 지방 중소도시로 번지기 시작했고, 4월에는 전국으로, 이어서 만주, 연해주, 미주 등 세계로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 온 나라가 평화로운 시위로 세계만방에 독립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은 3.1운동이 분수령이 되어 3.1운동 전과 후가 다른 양상을 보일 만큼 역사적 의의가 크다.

첫째, 한민족의 의지와 일본의 무자비한 만행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된다.

둘째, 독립운동의 주체가 일반 대중으로 확대되어 국민이 주인이라는 주체사상인 공화주의의 기틀을 잡게 된다.

셋째, 인도 간디의 비폭력주의와 중국의 5.4운동 등 다른 약소국의 독립 의지에도 영향을 끼친다.

넷째, 독립운동에 대한 자신감을 얻은 독립운동가들과 민중들에 의해 국외에서는 다양한 외교적 활동, 무장 투쟁과 더불어 국내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운동이 일어난다.

다섯째, 3.1운동을 계승하기 위해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된다.

여섯째, 무단 정치로만 일관하던 일본의 통치 형태에서 회유와 기만 등으로 완화된 형태의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렇듯 많은 희생과 상처를 딛고 함께 일어난 3.1운동은 남녀노소, 지위,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의 독립에 대한 희망과 열망을 세계 곳곳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어둠 속의 한 줄기 빛과 같은 것이었다.

이제 3.1운동은 100년 전에 있었던 단순한 과거의 역사가 아니다. 제대로 된 지도부 체계 없이 학생, 종교계 인사들이 주축이 되었던 운동이 점차 노동자, 농민으로 확대되어 온 국민이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 하나에 똘똘 뭉친 우리 겨레의 공동체 정신이다. 일본의 무단 정치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며 세계만방에 알린 우리 민족의 숭고한 열이다.

이제 우리는 3.1운동 정신을 계승하여 서로 포용하고 화합하여 선조

들이 피땀과 목숨으로 지켜낸 이 대한민국을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우뚝 세워야 할 것이다.

말로만 외치는 나라 사랑이 아니라 나보다 겨우 2살 많았던 나이로 3.1운동 때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 잡혀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면서도 3.1운동 1주년 만세 시위를 벌이시다 순국하신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난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라고 말씀하신 유관순 열사처럼 정의로운 일 앞에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도 유관순 열사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우리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처럼 평범하시지만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인고의 세월로 나라를 지켜 내신 분들을 위해 나라 사랑을 다짐하며 그분들의 고귀한 정신을 가슴 깊이 새겨본다.

장려상

## 대한민국과 나

정유진 (중국)

나는 자유로운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버린 독립운동가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우리 민족에게 일어난 크나큰 전쟁과 그 안에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조국의 오빠, 언니들이 하신 일들을 배우면서 그분들이 나에게 대한민국이라는 큰 상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분들의 시체는 차디찬 낫선 땅에도 있을 것이고 팔, 다리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몸을 다 찾지 못하고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하니 지금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너무 많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에 대한 나의 생각을 몇 자 적으려 합니다.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환란과 전쟁 속에서 나에게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3.1운동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일본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억눌린 그 1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은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후손들을 위

해 결코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무서워도 맞서 싸우고, 어렵고 힘들어도 후손들을 위해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또한 다른 민족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나는 3.1독립 선언서를 읽고 나서 우리 조상들의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 그리고 후손을 위한 그 뜨거운 사랑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굴하지 않는 그분들의 정신을 알게 되었고 그 마음이 어떠한지 조금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수많은 명언을 찾아보았습니다. 나는 그분들의 명언을 읽으면서 너무 벅차고 가슴이 아파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모두 아는 운동가 안중근 의사,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 손병희 선생, 강우규 의사, 우당 이회영, 유관순 열사 등. 그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명언, 한 번 읽었는데도 또렷이 기억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처음 알게 된 독립운동가들도 있었고, 이름은 알았지만 정확히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몰랐던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 글을 쓰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며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게 되어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용기와 정신과 똑똑함이 우리나라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민족성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한국 사람은 어디에서든 똑똑하다는 말을 듣나 봅니다.

유관순 열사는 그 당시 불과 저보다 몇 살 많은 17살의 어린 나이에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문을 견디며 기나긴 일 년을 버텼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18살 꽃다운 나이에 이런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때 고문을 당하며 말했던 명언이 있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으나 나라를 잃은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한 마디에서 나는 수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유관순 열사의 그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 수많은 고문을 이겨낸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중국 선전에 대한민국사람으로서 멋진 우리나라를 알리고 싶습니다.

내가 우리 대한민국을 알릴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중국 학교 중2 우리 반에는 한국 사람은 나 혼자입니다.

전에 남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지난 학기에 싱가포르로 전학을 갔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으니 갑자기 나 혼자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별로 친한 것도 아니었지만 나와 같은 한국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불편한 말을 들었을 때 나 혼자 그 많은 친구들을 상대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어도 그 친구가 있을 때는 어떤 말해도 눈치를 보지 않았었는데….

서럽고 억울했지만 당당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우리나라에 대해 아는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에 대해 책으로만 봤던 세종대왕

정도가 내 지식의 전부여서 입을 벌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을 때는 억울해서 화장실에서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 아빠랑 많이 대화를 합니다.

아빠는 우리가 이곳에서 살고 있는 건 나라에 애국하는 것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엄마는 열심히 일하고 착하게 사는 것도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동생이 초등 5학년 때 일입니다. 동생은 학교에서 4학년인 남자아이가 복도에서 얼굴을 한 번 쳐다보더니 “너 한국 사람이지? 왜 여기서 공부 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말했답니다. 이 말을 듣고 동생은 태권도로 목 조르기를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 하면 가만 안 둔다고 엉덩이도 한 방 날렸다고 합니다. 동생은 마르고 빨라서 내가 보진 않았지만 그 아이는 아마도 무지 많이 아팠을 거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 어린아이가 뭘 알고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아이는 부모가 하는 말을 들어서이겠지요. 어른들이 더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잘했다 내 동생! 그 후로 동생은 그런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태권도는 우리의 전통 운동이고 나를 방어하는 운동이라고 어머니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4년째 배우고 있습니다.

태권도장에 한동안 태극기가 달려 있지 않았습니니다.

우리나라와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라고 들었습니다.

동생은 국기 경례로 시작하는데 항상 밖을 보았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태권도는 우리나라 운동인데 왜, 왜, 왜?

그래서 우리 가족은 이걸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년을 태권도장에 갈 때마다 태극기를 달아 달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말만 했지만, 갈 때마다 일주일에 세 번씩 우리 가족은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태권도에 태극기가 없다면 그 정신은 뭐 하러 외우냐고 말했습니다.

2018년 10월 너무 행복했습니다.

태권도장 중앙에 태극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일 년 만에 있어야 할 곳에 태극기가 자랑스럽게 달려 있었습니다.

새로 단 거라 깨끗하고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와서 우리 가족은 정말 잘했다고 더 열심히 살자고 말했습니다.

동생이 다니는 태권도장 말고 다른 지점에 있는 태권도장은 지금 현재 2019년 5월인데 아직도 태극기가 달려 있지 않습니다.

승급 시험이 있을 때마다 다른 도장으로 우리 가족 네 명은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인이고 태권도 정신을 말해주고 싶어서입니다.

또한 태극기를 이 도장에도 꼭 달아야 한다고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직까지 태극기를 단 모습은 볼 수는 없지만 언젠가 이루어질 그 날을 위해 동생은 끝까지 태권도를 배울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 부모님은 늘 따라다니실 겁니다.

하루빨리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모습을 이곳에서도 알고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도 저 태극기를 달기 위해 목숨을 버리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태극기가 달렸을 때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지 상상이 됩니다.

그 태극기를 흔들면서 소리치셨을 “만세, 만세, 만세”

얼마나 감격스러우셨을까요? 그 태극기를 보기 위해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무서운 것도 없으셨겠죠!

유관순 언니는 혼자서 그 무서운 일본 아저씨들한테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내가 너무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작은 다툼이 있을 때마다 나한테 피해가 올까 봐 걱정하고 숨죽이며 조용히 지냈던 때가 생각나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누구나 부모가 있고 친구가 있습니다.

유관순 언니도 가족이 있었겠죠? 언니의 엄마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속상했을까요? 나는 조금만 아파도 엄마가 와서 약 발라주고, 조금만 힘들어도 떼쓰고 신경질을 부리곤 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혼자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내 뒤에는 작고 커다란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지금 이 현실에서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런 나를 유관순 언니가 보고 있다면 뭐라 말했을까요?

“유진아! 너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이야. 작은 나라지만 우리는 힘이 있고 깨끗한 정의로운 민족이란다. 어디서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게 나라를 사랑하는 거야.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날 줄은 우리도 잘 모르는 일이야.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을 비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넌 너무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해 줄 것 같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시작한 지 일 년이 되어 갑니다. 한 방에 네 명이 생활합니다. 문화적인 생활 방식과 습관에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참으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면 힘들어서 침대에 이불을 덮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다른 아이들한테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감옥에서의 생활을 배우고 알고 나서는 나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강한 민족입니다. 그 정신은 나에게도 있다고 믿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토 히로부미에게 폭탄이 든 도시락을 던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하얼빈 공원에 묻어 두었다가 나라를 되찾거든 고국으로 옮겨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마땅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을 쓸 것이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이 말씀에서 나는 무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그 명언 속 깊은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지켜나가자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분들의 후손이니 나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늘 생각하면서 기죽지 않겠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 마리아는 아들 안중근 의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에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판마음 먹지 말고 죽으라.” 어느 어머니가 자식에게 죽으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중근 의사는 어머니의 깊은 뜻에 순종하고 결국 나라를 위하여 순국하셨습니다. 여기서 나는 모자기간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시다.

어떻게 저런 말을 쓸 수 있을까요?

‘죽으라...’ 그 말을 쓸 때 몇천 번을 지우고 싶었을까요? 긴 말 없이 그 한 마디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었을까요?

죽으라, 죽으라, 죽으라.

공부가 힘들고 세상 속에 실망이 커질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춘기 때 겪는 아픔과 고통일 줄 압니다. 조 마리아가 자식한테 쓰는 죽으라는 말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과 너무 다르고 생각합니다.

잠시나마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나약한 내가 이런 어리석은 내가 미안하다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엄마에게 조 마리아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조용히 가슴으로 우셨습니다. 자식이 죽을 것을 알면서 죽으라고 한다는 건 부모 가슴에 큰 못을 박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완벽하게 알지 못합니다.

언젠가 어른이 되어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나면 그때 알겠지요?

하지만 뭘지 모르게 무지하게 슬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가 팔을 다쳐서 깁스를 보름 동안 했습니다. 그때 아픔보다 더 아프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나에게는 장난꾸러기 말 안 듣는 잘생긴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안중근 의사와 같은 상황이라서 죽을 거라 생각만해도 정말 미칠 거 같습니다.

매일 싸우고 다투어도 난 내 동생이라 너무 좋고 사랑합니다.

몇 년 전에 올림픽 경기를 할 때였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우리 선수들과 다른 나라 선수들의 시합이 있었습니다.

예능을 보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경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왜 보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한 경기, 한 경기 볼 때마다 지면 같이 슬퍼지고 이기면 같이 환호했습니다.

세상에서 축구 경기가 이처럼 재미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간 옷을 입고 “대한민국 짹짹 짹짹, 짹짹 짹짹...”

한목소리였습니다. 누구 하나 틀리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리치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질러도 질러도 목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기든 지든 눈물이 나왔습니다.

왜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라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왜 눈물이 뜨겁다고 표현하는지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한국에서는 줄임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알지 못하는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가족은 일 년에 한 번 여름 방학에 대략 한 달 정도 한국에서 생활합니다.

외할머니댁은 서울 종로에 있습니다.

그곳 근처 경복궁은 단지 맛있는 음식이 많은 동네 정도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역사박물관에서는 그냥 옛날 물건이구나 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전쟁기념관에선 그냥 영화를 보고 탱크를 구경하고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설명해주는 말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019년 이번 여름 방학에 한국에 가면 이제는 그냥 대충 보지 않겠습니다.

그 소중한 역사와 시간을 잘 듣고 배워서 오겠습니다.

나보다 어린 동생들과 언니, 오빠들에게도 알려주겠습니다.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100일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충무로에 있는 삼성제일병원에서 조금 작은 아기로 태어나서 병원에서 많은 시간을 치료를 받으며 지냈다고 들었습니다.

폐와 눈이 다 완성되기 전에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엄마와 따로 분리되어 입원했다고 합니다.

그런 나를 이렇게 건강하고 예쁘게 만들어준 최고의 병원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학 기술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너무 대단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엄마는 한국에 가면 여러 장소를 네이버로 검색하십니다.

중국에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 한국의 역사적인 장소에 찾아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눈으로 보고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지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작고 인구도 적지만, 세계 큰 나라들이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건 그동안 나라를 사랑하고 아꼈던 많은 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한국 역사를 배우진 않지만 그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죽으면서까지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유관순 언니가 마지막 감옥생활을 했던 서대문 형무소에 갔었습니다. 그날 아침 나와 나보다 두 살 어린 동생은 너무 졸렸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기 싫었습니다. 동생도 안 나간다고 난리를 폈습니다.

엄마는 맛있는 거 사 주신다고 저희를 꼬셨습니다.

광화문 뒤쪽에 조그만 골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금은 초라해 보이는 설렁탕 집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는데도, 오래전부터 먹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동생, 나는 혹시 남길까 봐 설렁탕 두 개만 시켰습니다. 그런데 너무 맛있어서 국물까지 남김없이 먹어

버렸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어린아이들이 너무 잘 먹는다고 칭찬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장사하면서 잘 먹어주는 손님이 제일 예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엌에 가시더니 하나를 새로 시킨 것처럼 서비스로 설렁탕과 밥 한 공기를 들고 와서 다시 주셨습니다.

아! 이게 한국의 정인가 보구나!

우리는 배도 불렀지만, 마음이 더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엄마 손에 끌려서 역지로 서대문 형무소로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그때 난 별로 알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3.1운동에 대해 알아가면서 그 형무소에 있는 고문 기계를 떠올리며 정말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로 고문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인형 형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참 무서웠습니다. 손톱을 뽑고 있는 인형 모형을 볼 때는 동생과 나는 멀리 도망쳤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는 곳은 그냥 나에게겐 하나의 장소로만 생각했습니다.

최고의 고문은 잠을 재우지 않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건 진짜 힘들니다.

감옥을 지나칠 때는 조금 놀랐습니다. 에어컨도 없는 작은 방에 사람들을 가득 집어넣고 씻지도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루에 두 번씩 샤워를 합니다.

냄새가 나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 감옥 안에는 작은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방에 같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더럽고 냄새가 났을까요? 벌레랑 같이 생활하고 누워 지내며 사람이 누워 있을 자리도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놀랐던 건 벽에 있는 손톱자국이었습니다. 독립운동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서 너무 괴로워서 손톱으로 긁었던 자국이라고 들었습니다. 핏자국도 보였습니다.

어떤 기분일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나는 짐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유관순 열사의 손톱자국도 있겠지요!

어떤 곳은 혼자 들어가서 앉지도 못하고 종일 서 있기만 해야 하는 감옥도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한테 혼나서 서서 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 시간도 힘들었는데 몇 날 며칠을 서서 지내는 건 죽는 것보다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유관순 열사의 힘들고 지쳤을 때 하신 말씀 중에 명언이 생각납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이 글을 떠올리면서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다리가 아프고 그 고통이 심했을까요?

감옥 뒤쪽으로 가다 보면 웬지 슬퍼 보이는 커다란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를 지나면 동굴처럼 생긴 곳이 보였습니다. 그곳이 사형장이라고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두려움을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매일 느껴야 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픉니다.

나라를 위해서 고문을 당해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분들을 나는 지금 너무 존경합니다.

그때 살았던 일본 사람들은 참 잔인하다고 생각합니다. 웬지 모르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화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내가 살고 있었다면 나는 아마도 일본 사람들 앞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꺼낼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무서워서 말도 못 할 거 같습니다.

지금 내 주위에 일본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만 그 친구들

을 보면 웬지 모르게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납니다. 마음 같아선 그 일본 친구에게 일본인이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에게 고문당하고 그 무서운 환경에서 살아갔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지금 중학교 2학년까지 중국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몰랐는데 중학교부터는 대한민국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고 한국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중국 친구들이 한국을 나쁘게 이야기할 때면 속이 상하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억울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살았으면 이런 말을 안 들어도 되는데...

하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나는 우리 조상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슴속에 칼을 품은 정신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릴 것입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이름을 들을 때 그 정신에 감탄하게 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한국인의 정신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1919년 중국 상해에서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임시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임시 정부인데 왜 중국 상해에서 만들었을까요?

나는 궁금해서 자료를 한 번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 임시 정부를 상해에 만든 것은 상해가 당시에 일본의 군사력이 미치지 못하는 국제도시였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일본군이 오지 못하는 곳이라 그곳이 최선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슬프고 힘든 일입니까? 내 나라, 내 조국을 두고 다른 곳에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가족을 잃어버린 기분처럼 처참했을 것 같습니다.

모여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으로 죽음을 각오했을 것입니다.

이 전에 우연히 한 영화를 본 기억이 납니다. 제목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한국 사람이면서도 중국어로 말해야 하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도망 다니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나라가 없으면 저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나라가 없으면 비겁하게 살아야 하는구나!

나라가 없으면 모국어라는 것도 없구나!

나라가 없으면 가족도 친구도 보호해 줄 수 없구나!

나라가 없으면 공부라는 것도 할 수 없구나!

나라가 없으면 나란 존재도 없는 거구나!

지금 난 얼마나 행복한지 다시 한번 나라를 사랑하고 목숨을 바치신 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나는 지금 그분들이 임시 정부를 세웠던 중국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 대부분은 한국 사람을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K-POP 영향이 큰 거 같습니다. 우리 학교 친구들도 한국노래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한국노래가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간단한 한국말들은 알아듣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드라마도 많이 보셔서 한국말을 제법 잘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끈기 있고 강인한 정신이 있기 때문에 존중해 주는 건 아

닐까요?

나는 상해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 보려고 하는 생각도 별로 하지 않았습시다. 그러나 지금은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임시 정부 수립한 곳도 가보고 싶고, 나라를 위해 일하시고 목숨을 버리신 분들이 어떤 모습인지도 보고도 싶고 더 많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여기 선전에는 한국 주말학교가 있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6년을 특별한 일 아니면 빠진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 때도 학업적인 문제로 고민하기도 했지만, 한글은 배울 곳이 여기 외엔 없기 때문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칭찬으로 나를 늘 아껴주시는 이주연 선생님이 계신 곳이기도 합니다.

3학년 때 나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랐었습니다. 어려운 중국어와 영어, 학교 공부에 조금씩 재미를 잃어갈 때였습니다. 선생님은 나에게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같은 언어로 칭찬과 공부에 대하여 재미를 알게 해주신 선생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분이 한글학교 중학교 선생님이십니다.

솔직히 중학교는 시간도 없고 중국학교 숙제도 많아서 한글학교는 다니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학비도 안 냈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우선 와서 같이 공부하자고 학비는 나중에 내도 된다고 하루만이라도 수업해보자고 직접 연락을 주셨습니다. 나는 하루만 가보고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중학교에 와서 한국 역사와 한국 사회를 더 많이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만 다닌다는 내 생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내 나라 언어를 공부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나라 역사와 사회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등록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잘 선택했다 생각합니다.

내 평생을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학교 성적과 중국학교 잘 다니는 것만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 부끄럽기 시작했습니다.

안중근이 누구인지 몰랐던 내가 너무 멍청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관순이 17살에 독립운동을 하며 고문도 받으며 감옥살이를 했다는 것을 몰랐던 내가 부끄럽습니다.

나는 3.1독립 선언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어 내려갔습니다.

독립 선언서를 쓰면서 얼마나 간절히 나라를 찾고 싶었을까요?

독립 선언서를 만들고 찍어내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독립 선언서를 돌리면서 가족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 모든 생각을 잊게 만든 것이 조국의 독립을 꿈꾸는 한 가지 마음들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도 모르게 읽으면서 점점 마음이 아프고 찢릿찌릿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독립 선언서를 읽고 있는 그 장면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내 눈에서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한 마디 한 마디에 불같은 정신으로 선언을 하고 있는 독립운동가

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독립 선언서를 읽으면서 쓰여있는 한 글자 글자마다 내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독립 선언서의 내용은 우리가 조선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는 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권리가 있는 그런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민족은 더 높이 자유롭게 발전할 것이며 정당한 권리가 있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학교를 다녀 본 적이 없습니다.

한글은 유치원과 일주일에 토요일 한번 가는 한글학교가 전부입니다.

처음에 글을 시작할 때 쓰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500글자를 넘기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배우고 찾아가면서 하고 싶은 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알아 가는 기쁨도 생겼습니다.

어린 시절 나를 생각하면서 그때는 그랬었지 추억도 떠올렸습니다.

내가 태어났던 내 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대단하고 위대하다는 걸 가슴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작은 땅에서 참 대단한 분들이 많이도 나왔구나!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 국민인 것이 지금 나에게 너무 큰 기쁨입니다.

중국어와 영어 문장은 한글과 달라서 글을 완성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배운 한글이 많이 있음에 나에게 놀라고 또 감격스럽습니다.

부족한 한글을 이어가면서 우리나라 말에는 아름다운 표현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 글을 3주 동안 써 내려 갔습니다.

수십 번 반복해서 읽고 쓰고 지웠습니다.

가족들과 대화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엄마랑 대화하면서 사춘기로 힘들게 했던 부분이 생각나서 죄송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면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낸 거 같아서 저에게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우왕좌왕하면서 글이 쓰인 곳도 많이 있지만, 끝까지 완성되어 정말 뿌듯합니다.

나는 또한 외치고 싶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우리나라, 만세, 만세!”

나는 언제까지 중국에서 생활할지 어찌면 더 먼 나라로 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쓰면서 잊지 말고 살아야 할 태극기를 가슴에 그리면서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소년 글짓기

- 초등 부문 -

최우수상	지구 반대편까지 들리는 평화의 만세 소리	박동하 (뉴질랜드)
우수상	34번째 민족 대표 스코필드 의지로 이어진 과거와 현재	박새미 (캐나다) 이아론 (아르헨티나)
장려상	나의 마음의 멋진 포수 홍범도 장군 한글학교 수업 시간에 배운 역사 이야기 자랑하고 싶은 우리나라	조다윗 (뉴질랜드) 김정현 (호주) 이우주 (독일)

## 지구 반대편까지 들리는 평화의 만세 소리

박동하 (뉴질랜드)

3.1운동이 일어난 지 약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3.1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국은 1910년부터 일본에게 지배 당한 후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모두 일본 사람들이었으며 한국어를 쓰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영화도 모두 일본어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한국 역사를 가르치는 것은 죄가 되었으며 일본은 200,000개가 넘는 조선의 역사적 문서를 태움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모든 기억을 지우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일본에 유학 중이던 조선의 학생들을 시작으로 1919년에 기적으로 3.1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은 조선의 독립을 선포한 후 1,500개가 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은 폭력적으로 3.1운동을 제압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앞으로, 앞으로 전진하였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향한 간절함이 죽음을 막지는 못하였습니다.

만약 3.1운동이 성공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선, 3.1운동이 실패했다면 우리의 자유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치에게 억압받은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겠지요. 기본적인 인권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종교의 자유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의 노역자들은 돈을 받지 않고 강제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선택의 권리도 없이 위안부라는 곳에서 성적인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분들은 아직도 살아서 그때의 일을 기억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영화 보러 가는 것, 공원이나 놀이터에 가는 것들이 불법적인 것들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독립이 된 지금의 대한민국은 자유롭습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같이 외식을 하러 가기도 하고 다른 나라로 여행도 하며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저는 한국이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뉴질랜드에서 살 수 있습니다.

또 3.1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한국 문화가 전반적으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영화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프로그램, 우리가 듣는 음악 등 모두 일본 것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글을 쓰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어는 영원히 사라지고 우리는 일본어로 대화하고 일본어로 책도 읽고 있겠죠. 저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은 대부분 한국 드라마, 예능, 영화 등으로 배운 것입니다. 저는 뉴질랜드 시내에서도 2시간 정도 떨어진 왕가레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통해 본 한국은, 제가 사는 곳과는 조금 다른, 도시적이고 길거리 음식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은, 너무 매력적인 곳 같습니다. 만약에 독립이 실패했다면 우리들은 한국어라는 나라의 고유

한 문화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대한민국 임시 정부 100주년을 기념한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드라마의 대사 중에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우리의 언어이길. 내 자식들이 살아갈 세상은 자유로운 삶의 터전에서 가족 대대로 살아가며 같은 곳에 묻히는 곳이 내 나라 조선이기를...”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독립을 포기한 채로 살았다면 그냥 일본 안에 속해 있는 작은 나라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독립이 실패하지 않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요즘 전 세계의 사람들이 케이팝을 듣고 사랑하는 모습과 맛있는 한국의 음식이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문화가, 그리고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이 뿌듯합니다. 또 세계에서 인정받은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언어인 한국어를 제가 읽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자랑스러워졌습니다. 저는 한글학교를 다니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지만 어쩐지 영어가 저에게는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소중한지 언어내고 지켜낸 것인지를 배우면서 한글을 더 열심히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수상

## 34번째 민족 대표 스코필드

박새미 (캐나다)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그래서 한글학교에서 많이 얘기를 하자 난 3.1운동에 관심이 끌렸다. 3.1운동에는 독립 선언서를 만들고 만세운동을 이끈 33인의 민족 대표가 있다. 하지만 엄마께서 34번째 민족 대표라 불리는 캐나다인 스코필드가 있다고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나는 스코필드와 관련된 다큐멘터리와 신문 기사를 찾아보았고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스코필드는 1889년 영국에서 태어난 캐나다인이다. 가난했던 스코필드는 17살 때 대학교를 가기 위해 혼자 캐나다로 와서 농장에서 일하면서 토론토 대학교를 다녔다. 하지만 힘든 생활과 영양부족으로 소아마비에 걸려 한쪽 팔과 다리가 마비되었다. 그런데도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까지 되고 그다음에 토론토 대학의 교수까지 되었다. 그 후 한국으로 와서 강의하면서 한국말과 문화를 배웠다. 그러다 어느 날 아는 한국 친구가 찾아와 부탁했다. “우리의 독립을 주장하는 독립만세운동을 내일 하는데 와서 사진을 찍어달라.”는 것이었다. 스코필드는 부탁을 들어주었고,

만세운동하는 현장에서 불편한 몸인데도 자전거를 타면서 사진을 찍었다. 또한 더 사진을 잘 찍기 위해 이층집으로 몰래 올라갔다가 일본인 주인에게 두들겨 맞기도 했다. 독립만세운동 하는 증거 사진도 찍었지만 일본 경찰에게 맞고 있는 학생들도 구했다. 또 감옥에 갇혀 고문당하는 학생들을 면담하여 고문을 못 하게 했는데 그때 유관순도 만났다고 한다. 하지만 스코필드는 곧 한국을 도와줬다고 일본에 의해 강제추방 당했다. 스코필드는 캐나다로 돌아와 교수를 하면서도 받은 월급 일부를 독립운동자금으로 쓰라고 보냈다. 나중에 은퇴한 후에는 한국에 다시 와서 고아들을 도와주다가 1970년 한국에서 돌아가셨다.

우리가 지금 보는 대부분의 3.1만세운동의 사진은 스코필드가 찍은 것이라고 한다. 만약 스코필드의 사진이 없었다면 3.1독립만세 운동에 대해 일본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아무도 우리 한국을 믿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스코필드였다면 자기 나라도 아닌데 왜 상관해야 하냐고 생각할 것 같다. 그래서 스코필드 박사님이 더 대단한 것 같다. 만약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안 했다면, '나는 박새미입니다'라는 말 대신에 '와따시와 박새미데쓰' 이럴 것이다. 또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아니라 '도쿄스타일'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세계지도에서는 우리땅에 'Korea'라는 이름대신 'Japan'이 써 있을 것이다. 스코필드는 이런 말도 했다고 한다. "1919년에 만세운동을 했던 사람들에게 고마워해라" 나는 처음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 만난 적도 없는 100년 전 옛날 사람들에게 고마워하라니. 하지만 엄마에게 여쭙보니 그때 독립만세 운동을 위해 많은 사람이 참여했고 희생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라를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이다. 나는 무서웠을 텐데 그 많은 옛날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 싸웠다는 것이 존경스러웠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주신 스코필드 박사님이 고마웠다. 나는 외국에 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공부를 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외국인인 스코필드 박사님도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이렇게 큰일을 했는데 난 한국인이다. 이제부터 나도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이다음에 한국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싶다.

## 의지로 이어진 과거와 현재

이아론 (아르헨티나)

저는 아르헨티나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이 나라에서 의지라는 단어는 흔하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가 하나도 생소하지 않은 것은 어릴 적부터 너무나 자주 들어온 표현이 하나 있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바로 “의지의 한국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의지.

이만큼 한국인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또 있을까요? 단어 하나만으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속에 열정이 샘솟게 만드는 이 단어의 주인공이 저희 한국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3.1운동을 바로 이 의지의 한국인이라는 표현이 아주 예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시절 일본에게 침략당해 받은 압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끔찍했습니다. 우리말이 아닌 일본어를 쓰게 강요받거나, 청년들을 광산으로 강제로 끌고 가거나 심지어는 젊은 여자들을 위안부라며 수발을 들게 하려고 끌고 가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 민족은 독립의 의지를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동포들 중 일부는 중국으로

건너가 일본에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었고, 의병 부대를 만들어 일본군을 사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강철 같은 의지 덕분에 일본의 만행을 세계가 알고, 만민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한국인들의 광복을 향한 몸부림이 이리도 큰 파장을 불러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뜨거운 마음이 불씨가 되어 우리 민족은 독립에 대한 염원이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3.1운동을 배우며 과연 제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렇게까지 끈질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눈앞이 아찔해집니다. 비단 아르헨티노들만 그럴까요? 요즘의 현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느낄 것입니다. 요즘은 기술의 발전으로 점점 간단해지는 일상이 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의지는 전에 비해서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으려 하고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이 글을 쓰는 저도 쉽게 포기하고 노력하지 않는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면에 대해서 반성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때 세워진,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입니다. 비록 ‘임시’ 정부이긴 했지만, 최초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은 독립적인 정부가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그토록 기다리던 독립을 얻게 됩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중국 내부에서 활동하며 광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정부였습니다. 이 정부를 시작으로부터 대한민국은 더욱더 견고한 단합과 체계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전쟁통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름도 없는 저희가 되었을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끝까지 우리 땅을 지켜내었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일어나 이제는 세계 경제를 당당히 이끌어 가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요즘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한국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없죠. 그리고 그들은 모두 입을 맞추어 애기합니다.

“한국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어디를 가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이 단순히 뛰어난 두뇌와 지식수준을 넘어선 한국인의 열정, 끈기, 집념, 의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진 유산을 물려받은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의지의 한국인”을 외치며 어려운 일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쟁취하는 우리가 되길 다짐합니다.

장려상

## 나의 마음의 멋진 포수 홍범도 장군

조다윗 (뉴질랜드)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는 영상을 보면서 저는 그냥 “저 나라 사람들 불쌍하고 가슴 아프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글학교에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에 대해 배우면서 우리 부모님이 태어나신 곳이고, 부모님의 조상들이 우리를 위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켜낸 나라라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깊고 아픈 역사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먼 나라로 느껴졌던 한국이 유관순 열사, 조마리아 여사, 안중근 의사, 홍범도 장군 외에 여러 독립운동가에 대해 배우면서 저의 마음 안에 뭔가 모르는 흥분과 한국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엄마에게 여러 독립운동가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글학교에서 처음 들은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었고, 멋지게 와닿았습니다.

제가 홍범도 장군에 대해 쓰고 싶은 이유는 첫 번째,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산에서 들짐승들을 잡던 포수에서 일본에 맞서 의병으로서 활동을 시작하며 총을 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탕! 탕! 탕! 산속 사

방에 숨어서 적들이 모였을 때, 독립군들이 동시에 공격하던 모습의 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이 긴장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적을 향해 한 발도 놓치지 않는 백발백중 명사수의 모습이 일본 군인들에게는 두려움의 존재로, 날으는 홍범도라고 할 정도로 산에서는 최고의 스나이퍼라고 생각합니다. 봉오동 전투에서는 적을 유인해 일본군이 157명이나 죽고, 200여 명이 상처를 입었으며, 청산리 전투에서는 김좌진 장군을 도와, 많은 일본 군인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저는 남자로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두 번째, 홍범도 장군은 리더로서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누구보다 함께하는 동지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했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나도 나라가 어려워지고 나라를 위해 싸워야 한다면 리더로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홍범도 장군은 한인 강제이주정책에 의해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 후 76세 나이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이주한 한국인들을 위해 끝까지 멋지게 사셨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나 한국어로 말을 하고, 한글을 쓰고 표현하는 것이 아직은 서툰 뉴질랜드에 사는 평범한 소년입니다. 저 또한 뉴질랜드에 살다 보니 한국이 우리나라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운 독립운동가들을 보면서 한국인이라는 것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나도 나라가 어려워지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며 고문을 당해도 끝까지 독립을 지켜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내 가족이, 내 친구들이 죽어간다면 약간은 무섭고 떨리지만 산에서 짐승을 잡던 포수에서 멋진 장군이 된 것처럼, 17살에 독립운동을 했던 유관순 열사처럼, 뉴질랜드에 사는 한 소년이 한국으로 건너가 나에게 맞는 독립운동을 나

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금은 작은 열정이 제 마음에 생긴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9살에 고아가 된 홍범도 장군이지만 그는 포수로서 본인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리더로서의 모습은 정말 멋지고 제 마음 속에 영웅으로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먼 나라가 아닌, 제 마음 속에 나의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저는 총을 들고 싸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걸고 지켜낸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독립이 전 세계에 전해지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을 위해 자랑스럽게 독립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워주셔서 지금의 우리가 있게 지켜주신 많은 독립운동가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 한글학교 수업 시간에 배운 역사 이야기

김정현 (호주)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나라 땅을 빼앗은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한글학교 수업 시간에 그 가슴 아픈 역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지금부터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일본은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를 빼앗았어요. 그때 우리나라의 이름은 ‘대한제국’ 또는 ‘조선’이라고 불렀대요. 선생님이 파워포인트로 사진 한 장을 보여 주셨어요. 경복궁 근정전에 태극기 대신 일본 국기인 일장기가 걸려 있는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어요. 어떤 일본 역사학자들은 1910년 8월 29일을 일본과 대한이 하나로 합쳐진 날이라는 뜻으로 ‘한일합방’이라고 부른대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에 나라를 내주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은 그 날은 나라를 빼앗긴 아주 슬프고 부끄러운 날이기 때문에 ‘경술국치’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더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라의 힘이 약하고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 걱정하고 어

떻게 하면 나라의 힘을 키울 수 있을까 생각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일본 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심지어 나라까지 팔아넘긴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런 사람들을 어려운 말로 ‘친일파’라고 부른대요.

선생님께서 대표적인 친일파 한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이완용이에요. 얼마 전 엄마가 재미있게 보셨던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도 이완용 역할을 한 등장인물이 나와서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고 있어요. 드라마에 나온 이름은 이완용은 아니었지만, 실제 이완용이 그랬던 것처럼 조선 사람이라기보다는 일본 사람 같이 조선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왜 이완용 같은 친일파가 생겼을까요? 아마도 어려운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살기보다는 어려울 때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친일파가 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 역사에는 친일파 같은 부끄러운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참 다행이에요. 많은 사람이 대한의 독립을 위해 싸웠어요. 그중에는 총이나 칼 같은 무기를 들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의사’라고 부른대요. 물론 병 고치는 의사와는 다른 뜻이에요.

우리는 수업시간에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배웠어요. 선생님이 보여 주신 안중근 의사의 사진 중에는 손바닥 도장 사진도 있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손가락이 새끼손가락 길이와 똑같아서 이상했어요. 독립운동을 할 때 함께 싸우는 친구들과 독립에 대한 뜻을 피로 쓴 편지로 남기기 위해 네 번째 손가락 끝을 잘랐기 때문이라고 해요. 우리는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상상하기 싫을 만큼 끔찍하고 무서운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만큼 독립에 대한 의지가 강했구나!’라는 짐작을 할 수 있었어요.

안중근 의사는 만주 하얼빈이라는 곳에서 일본군 대장이었던 이토 히

로부미를 총으로 쏘아 죽였어요. 그 자리에서 붙잡힌 안중근은 러시아 말로 ‘코레아 우라!’라고 외쳤대요. ‘대한 만세!’라는 뜻이에요. 안중근 의사는 일본군 재판에서 사형을 받아서 감옥에서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시신이 어디에 묻혔는지 정확하게 모른대요. 안중근 의사의 시신을 되찾아서 한국 땅에 모셔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삼일운동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삼일운동은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났어요. 올해로 삼일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었어요. 삼일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은 안중근 의사처럼 총이나 칼을 들고 싸우지 않았어요. 대신 가슴 품에 숨겨둔 태극기를 꺼내서 “대한독립 만세!”를 크게 외쳤어요. 어린 학생부터 노인까지 많은 사람들이 삼일운동에 참가했어요.

삼일운동 하면 유관순이 떠올라요. 무기 대신 태극기를 손에 들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열사’라고 부른대요. 한때 유관순을 ‘누나’라고 부르기도 했었는데 열사라고 부르는 게 정확하겠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여학생한테 유관순은 누나가 아니라 언니잖아요. 유관순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배웠지만 올해 삼일절 수업에서는 유관순과 관련된 새로운 노래 한 곡도 배웠어요. 노래 제목은 〈8호 감방의 노래〉예요.

유관순 열사는 삼일운동 후 일본군에 붙잡혀 서대문형무소에 갇혔어요. 그때 다른 여학생들도 함께 서대문형무소에 갇혀 있었는데 소녀들은 감옥에 갇혀서도 대한의 독립을 소망하며 노래를 불렀대요. 그때 유관순과 소녀들이 불렀던 노래 가사에 곡을 새롭게 써서 만든 노래가 〈8호 감방의 노래〉라고 해요.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우리가 배운 노래는 좀 더 쉬운 버전으로 가수 안예은이 부른 노래였어요. 노랫말 중에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 접시 두 개 콩밥 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 피눈물로 기도했네’라는 부분이 있어요. 나라를 빼앗긴 게 얼마나 슬

프고 억울하고 분했으면 피눈물로 기도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열사 외에도 대한 독립을 위해 싸우다가 돌아가신 많은 독립운동가가 있어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만약 그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삼일운동 100주년인 2019년 다시 한 번 독립을 위해 싸우신 분들께 감사드려요.

## 자랑하고 싶은 우리나라

이우주 (독일)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지금부터 정확히 100년 전의 일이다.

1919년 3월 1일, 전국 방방곡곡에서 큰 소리의 외침이 들린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크게 외치고 있다. 나는 고조선이나 조선 시대 그리고 3.1운동, 우리나라 역사에는 늘 관심이 없었다. 자연스럽게 독일에서 태어나고 크면서 1, 2차 세계대전에 대해 알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미디어와 책을 통해 일제 강점기를 배우게 되었다. 나는 점점 대한민국의 역사에 궁금함이 커졌다.

처음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그중 특별히 내 눈에 띈 것이 3.1운동이다. 일본에게 땅을 빼앗겨 식민지가 된 우리나라, 참으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다. 일본 경찰들은 쌀도 다 가져 가고, 이름도 일본식으로 부르게 했다. 착한 사람들은 감옥에 끌려 가게 되었다. 그래서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서 전국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그 힘들이 드디어 3월 1일에 다 모였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목이 터져라 외치고 외쳤다.

“대한독립 만세!”

동네의 모든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았다. 그러면 그럴수록, 일본인들은 설 새 없이 엄한 벌들을 하나, 둘 아니 셀 수 없을 만큼 내렸다. 그리고 괴롭혔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용감하고 힘이 강했다. 물러서지 않고 더 크게 소리 질렀다.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결심하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이 마음으로 독립선언을 했던 말이다. 이런 용감한 결심을 나도 해봤으면 좋겠다. 하지만 못한다. 내 목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그렇다. 아니, 지금은 그런 결심을 할 필요도 없다. 나는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나는 편하니까…. 이 평화를 누가 만들어줬냐고 물으면 대답은 이렇다.

엄마, 아빠도 아닌 나의 자랑스러운 선조다. 나와 그들의 후손을 위해서 끝까지 목숨을 걸고 싸운 나의 선조다! 나의 자랑스러운 선조들이 없었다면 대한민국과 나, 그리고 절대로 끝나지 않을 대한민국의 후손들은 없었을 것이다. 나의 자랑스러운 선조들이 없었다면 일본의 땅은 지금보다 컸을 것이고, 지금 나의 국적도 아마도 일본 사람으로 되었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

어린 나이에 죽게 된 유관순 열사를 생각하면 나는 겁쟁이 같다.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났어도 유관순 열사처럼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할 용기가 없었을 것 같다. 아… 그때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모든 것을 빼앗기고 고통을 받으며 떠돌아다녔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았다. 굶주려 죽어가도 끝까지 독립을 선언하였다.

나는 독일에 살아서 그런지 지금까지 독일 역사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

다. 1, 2차 세계대전 때의 한국은 손톱만큼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때 당시 한국이 어떤 고통을 품고 있었는지 알고 있지 않았다. 이제 3.1운동을 상상하면 일본의 잔인한 행동에 맞서 싸운 용감한 외침이 귀에 울린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독일에 사는 나는 중국 사람이라고 놀림을 많이 당한다. 하지만 나는 이제는 자랑스럽게 “나는 한국 사람이다!”라고 한다.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놀라운 우리의 역사가 머릿속에 떠오른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위에서 태극기들이 바람에 휘날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야만 했는지 이제야 알겠다. 독일 친구들은 한국에 대해 많이 알고 싶어 한다. 그럴 때마다 나는 3.1운동을 제일 먼저 들려준다. 일본에게 잡아 먹힌 한국, 힘을 잃어 가지만 끝까지 희망을 품고 싸운 우리 민족! 친구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눈이 휘둥그레진다. 그리고 또다시 얘기해달라고 한다.

3.1독립운동은 나에게 자랑스러움을 준다. 그 자랑스러움은 내가 독일 사람이 아니라는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킨다. 앞으로 한국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살아가며 대한민국 역사를 꼼꼼히 살피고 사랑하는 이우주가 될 것이다.

## 수상 소감

### 오래된 풍경

심갑섭 (미국)



1983년에 고국을 떠나 미국에 이민을 온 지 벌써 35년째입니다. 2006년 여름, 제가 살고 있는 시애틀에서 발행하는 한인 신문을 보다가 서북미 문인협회라는 단체에서 주최하는 ‘뿌리문학상 신인상 응모’라는 기사에 제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시 열 편을 제출해야 한다는 응모 요건을 보고 그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이후, 새로운 환경과 낯선 언어에 적응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 시 열 편은 제게 너무 많은 분량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가슴은 이미 학창 시절에 공부하던 윤동주, 이육사, 김소월 시인의 주옥같은 시들이 긴 이국의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 년 동안 가까스로 열 편의 시를 쓰고서 그다음 해에 뿌리문학상 신인상에 응모했습니다. 이곳 시애틀의 서북미 문인협회는 2003년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16명의 문인이 모여서 만든 문학단체입니다. 서북미 문인협회는 2004년에 제 1회 뿌리문학상을 주최했고, 저는 2006년에 제 3회 뿌리문학상 신인상을 수상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신인상을 수상한 이후 지금까지 12년 동안 서북미 문인협회 회원으로서 꾸준히 시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매월 월례모임 때마다 회원들은 자작 시와 수필을 가져와서 의견을 나눕니다. 때로는 글이 미비한 부분을 지적당하기도 하고 조언을 주기도 하면서 함께 공부하고 성장해 온 것입니다.

제가 재외동포문학상 시 부문 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더 열심히 정진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하며 모국어를 통한 한국인의 정체성을 더욱 키워나가겠습니다. 또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살아갈 저희의 후

손들에게 모국어를 계승 발전시켜야 할 사명감을 갖고 문학 공부를 해나갈 것입니다. 수상의 영광은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리고 협회를 이끌어오신 서북미 문인협회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이

김여름 (미국)



1994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온 후, 영주권자, 재외동포의 신분으로 바뀌는 25년 동안, 틈틈이 시 쓰기를 하였습니다. 시를 쓰게 된 처음 이유는 어느 순간 영어가 익숙해질 무렵, 모국어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자각이 들어, 모국어의 깊은 감각적인 부분을 잃는다는 것이 마치 부모님의 숨결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는 한인도 없고 시를 배운 적도 없으며 제 주변엔 시인이나 문인이 한 분도 안 계셔 혼자 써 보고 혼자 읽어보는 습작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제 안에는 시적 본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와 함께 저 스스로 제 시의 목적과 기능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시는 한 국가와 국민의 기본 삶의 철학에 영향을 주는 자양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민족국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먼 미래의 후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국민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시를 쓰고자 소망하며, 미국에서 반평생을 살며 세계 거의 모든 민족을 만나서, 그들과 사업적 거래도 하고 사회적 교류를 거하면서, 각 민족마다 고유의 특징이 있다는 것과 그들의 장점과 단점도 또한 피부로 느껴 보았습니다.

결국 강대국이 되는 국가는 보다 높은 단계의 철학적 고찰, 사고력 등의 국민성이 근간에 있다는 것, 그런 국민들의 성향에는 훌륭한 문화, 문학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저의 시 쓰기는 대한민국 국민성의 진취적, 진보적 향상과 또한 동양의 미덕으로 미래 첨단 과학 기계 문명으로 인한 인류의 인간애 상실의 시대에 필요한 작은 완충의 지대를 이루는 것, 그 섬을 향하여 걸어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많은 좋은 작품들 중에서 특별히 제 글을 뽑아주신 심사위원에게 감사드리며 그 인연을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면을 통해 불러보고 싶은 이름들, 김만성 할아버지, 이을레 할머니, 김시창 아버지, 노임순 어머니, 좋은 마음의 꽃씨를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 형제, 자매, 사촌들, 친구, 지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달

장성희 (미국)



‘호떡이 있는 방’을 뽑아주었으면 했습니다. 뽑히지 않은 시어도 딸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호떡이 있는 방**

어제부터 먹고 싶다는 호떡을 구워 주었다. 이건 다 빵이야.  
먹던 호떡의 꼬트머리 한 조각을 접시에 내려놓는다.  
설탕이 없다는 뜻이다.  
이건 다 빵이야?  
아이가 한 말을 따라 하며 웃는다.  
이쁘다.  
TV쇼를 보며 드문드문 크게 웃는 소리를 듣는 것이 나를 즐겁게 한다.  
엄마, Mom, Mother.  
아이가 나를 부를 때 쓰는 단어들.  
나는 이 중에 Mother, 라고 부를 때가 좋다.  
찬미, 딸.  
내가 아이를 부를 때 쓰는 단어들.  
딸은 내가 딸이라고 부를 때가 이름을 부를 때보다 좋단다.  
딸! 하고 부르면 이어서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찬미야! 부르면 안 좋은 얘기가 이어질 경우가 많다나.

나는 왜 딸이 Mother, 라고 부를 때가 좋은 걸까.  
설탕 없는 호떡 맛, Mother.  
꿀맛 빼고 부르는, Mother.  
나는 밥이고 빵이니까.

스물일곱이나 된 딸은 그동안 내가 내미는 시를 싫은 내색 한 번 않고 읽어주었습니다.

My Mother. 딸이 열세 살에 쓴 시를 읽으면 이제 막 봉오리를 열기 시작한 아침 정원에 심긴 장미 내음 향긋합니다. 딸을 쓰며 열망한 것들이 이미 있었던 것임을 압니다. 아이가 있어서 살만합니다. 아이가 달이고 시가 달입니다.

등

리련화 (중국)



찝통 무더위가 한창이었습니다. 문득 오랫동안 잊고 있던 메일을 열어보았습니다. 뜻밖의 수상 소식을 접하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루지 못하는 꿈은 결코 없나 봅니다. 꿈의 언어들 조금씩 차올라 가슴속으로 번지면 눈부신 파도로 부서집니다. 그리고 감사의 순간으로 됩니다.

소중한 기회를 주신 재외동포재단과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길을 잃지 않도록 밝혀주는 북두칠성 나의 스승 김철호 선생님, 반짝반짝 빛나는 나의 별 향의, 따스한 나의 해님 엄마, 이 행성에서 가장 멋진 빈이,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 문우들,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멈추지 않고 쓰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개과천선

최성은 (페루)



재외동포문학 공모전의 당선 소식은 추운 겨울날 봄바람처럼 따스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문득 함께 앉아 두런두런 같이 이야기하며 어린 저에게 많은 것을 설명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던 엄마가 떠오릅니다. 오랫동안 외국에서 살게 될 저의 길에 엄마가 심어주신 작은 씨앗인 한국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문학은 저를 설레게 하고 조금씩 두근거리게 하는 새로운 원동력의 뿌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수많은 가르침과 배움은 때론 저의 무기가 되기도 하며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답답함을 글로 적어 내려가다 보면 외국어로 써 내려간 글보단 한글이 저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해준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 역시 한글은 다르구나! 정말로 섬세하고 아름답구나! 배우길 진짜 잘했어!” 이런 뿌듯함은 아마 한국인이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시를 자주 쓰는데 처음에는 저 자신을 위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위로하거나 칭찬해 주고 아니면 새로운 다짐을 더 굳게 다지려고 썼던 것 같습니다. ‘개과천선’은 가끔 미련해 보이는 저 자신에게 보내는 짧은 반성문입니다. 알고 있는데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들,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지금 소중히 하지 않는 것들... 저의 시를 읽으시는 분들은 제가 느꼈던 안타까운 마음과 잘못된 것을 함께 고치고 깨우칠 수 있게 도와주는 불씨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거나 삶의 방향을 틀 땐 누군가 등을 밀어주며 그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함께 나아가자

고 떨리는 손을 내밀고 그 손을 잡아 주신다면 저의 글은 그 목적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모전이 저에게도 시작이 되며, 천천히 꿈과 목표를 향해 전진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름길이 아닌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가족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과 동생, 부산에 계신 할머니 그리고 저를 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심사위원님들과 재외동포재단에도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개미들의 행진

이신명 (그리스)



어릴 적부터 글 쓰는 것을 좋아했고 또 글재주가 있다는 소리를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가끔 듣곤 했었다. 그러나 정작 글을 써서 공모전에 낸다든가 아니면 공식적으로 발표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재외동포문학상 공모전이 있다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이곳에 글을 보낸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 용기가 필요한 새로운 시도였다. 용기를 냈고 글을 보냈다. 그러나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다. 얼마나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이 많고 글 잘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생각하면서 말이다.

이런 내게 공모전에서 수상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었다.

상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처음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 무척 기쁘고 감사했다. 그러나 이 기쁨에 앞서 공모전 수상 소식은 내게 하나의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기에 더욱 뜻이 깊었다. 이런 감정들은 어릴 적 학교에서 상을 받아들 때, 방안에 그 상장들을 하나하나 걸어놓으며 마치 훈장을 대하듯 하셨던 부모님의 모습에서 느꼈던 감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수상 소식은 낯선 감정이 되어버린 옛 감정들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고, 바쁘다는 핑계로 한 구석에 방치해 버렸던 내 안에 있는 섬세한 감성들을 다시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내 안에 있는 감성들과 자주 만나며 공감하며 고민하며 그것을 글로 옮기고 싶다.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 늦은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자신을 토닥이며 내 안에 있는 작은 가능성에 도전하고 싶다. 그것이 어쩌면 지금까지 외면당했던 나의 감성들에 대한 위로요 답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끝으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재외동포재단에 감사 را 드리며, 졸작을 뽑아주시고 동기 부여 해 주신 재외동포문학상 공모전 심사위원장님과 심사위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아버지와 가자미식해

이은주 (인도네시아)



처음 만났던 인도네시아의 푸른 바다는 마치 지상에 내려와 고인 달빛과 같았다.

나의 팔 길이만큼 아주 낮게 내 머리 위에 내려와 있었던 구름은 언제라도 손을 내밀면 속삭이듯 나의 몸으로 육화(肉化)하여 내 앞에 펼쳐져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아름다움에 푹 빠진 나는 이 모든 것을 글로 다 쓸 수 있다는 뻔뻔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새로운 일들은 적응하기에 많은 시간을 요구했고, 인도네시아 생활과 문화에 익숙해지기까지는 큰 노력이 필요했다. 매일의 고단한 몸은 글쓰기는커녕 일기식 메모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글쓰기의 갈증은 옛사랑의 구애처럼 항상 나의 옷자락을 잡아당겼고, 목마름에 지친 갈등은 사람들 속에서 심한 외톨이로 만들어 버렸다.

*이은주 '적도의 중심에서 글을 쓰다.' 중에서*

이번 재외동포문학상은 항상 글쓰기에 목말라 있던 나에게 시원한 물줄기와도 같은 상이다. 다시 글을 쓰라는 격려의 메시지도 같이 하고 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는,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 그 누군가의 글이 내게 힘이 되고 따뜻한 위로가 되듯 글쓰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말을 걸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글을 쓰고 싶다.

“누군가 언제가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나는 태평양 한가운데 유려(流麗)한

파도 위로 적도의 석양이지는 황홀함을 글로 쓰고 있는 지금. 바로 이 순간이라고.”

뽑아주신 심사위원님들, 늘 옆에서 응원해주는 와담리 문우들과 기쁨을 같이 하고 싶다.

갯빛 대부

정선자 (이집트)



내 나이 20대 중반부터 시를 써왔지만 특별히 시인이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시’란 세상과 나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나의 마음을 나 자신을 위해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재외동포문학상에 응모한 이유는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행복했던 과거의 추억 여행에 관하여 그동안 습작해 놓았던 시와 수필을 책으로 출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만끽했던 우리 가족의 소중한 순간들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책으로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여행 중에 만난 이웃들과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감사와 사랑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참 많이 부족한 저라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이웃들의 친절 속에 묻혀서 지내 온 거 같습니다. 해외에서 산 14년의 세월 속에서 만난 이웃들과 중간중간 한국에서 만난 이웃들, 그리고 일가친척들의 크나큰 친절 속에서 이날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런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모두에 대한 감사함만 남습니다. 내 주변 어디에나 존재하는 일상에서 천사의 마음을 담고 사는 아름다운 영혼을 지닌 지극히 평범한 보통 사람들, 이런 존경하는 이웃들과 내게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이 닦쳤을 때 모든 것을 바쳐서 나를 도왔던 내 생명의 은인인 나의 동생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 큰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내게 삶의 도리를 나눔으로 가르쳐주셨던 이분들이야말로 이 세상을 밝게 비추며 사는 진정한 이 시대의 영웅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보석처럼 빛나게 해주는 아름다운 향기를 날리는 이웃들이 있었기에 이 세상이 더

아름다울 수 있는 거 같습니다. 나 역시도 미약하지만 이러한 삶에 동참하여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완성해 나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끝으로 재외동포문학상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수고해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족한 저의 시를 즐겁게 읽어주시고 채택해주신 심사위원분들께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재외동포들을 위하여 애써주시며 이런 기회를 제공해주신 재외동포재단에도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피란 2012  
신동규 (스웨덴)



아드리아해를 사이에 두고 동서로 마주 보며 기다란 해안선을 자랑하는 크로아티아와 이탈리아 사이를 비집듯 들어온 슬로베니아의 짧은 해안은 양증맞은 도시 피란(Piran)을 안고 있는 피란 반도에서 그 아름다움의 절정을 이룬다.

한여름의 뜨거운 햇볕이 누그러지면 반도에 휘감겨 잔잔해진 바다에 시민들이 몸을 담그고 그 사이에서 떠드는 아이들이 도시에 숨을 불어 넣는다. 휴가를 맞은 관광객은 이 작은 도시의 아름다움에 빠져 시간 개념을 잊어버린다. 바닷물에 몸을 담그고 노는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소리와 올리브나무를 닮은 바다 너머 이탈리아 쪽으로 지는 해가 하늘빛을 주홍으로 바꾸는 공간적인 느낌만 남아있을 뿐이다. 그 느낌은 바다 건너에서 소나무 숲이 보내주는 바람이기도 하고 그 바람에 실려있는 로마 검투사의 절규이기도 하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나는 한낮의 더위가 늘어져 있는 2012년 8월 어느 날의 저녁에 와 있다. 그리스 에게해에 수백 개의 섬을 흩어 놓으며 일어난 발칸반도가 북서쪽으로 달린 끝에 이탈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멈추는 슬로베니아. 64년 만에 런던 올림픽이 다시 열린 2012년 8월, 아드리아해에 담긴 피란의 구시가지 전경을 담은 구글 사진에 끌린 우리는 슬로베니아의 블레드와 피란으로 여행하기로 했다. 블레드엔 산과 호수가 있고 피란엔 바다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하는 여행이어서 좋았다.

당신 시 잘 쓰니까 한 번 내 봐, 하고 창작 의욕을 고무해 준 아내에게 감사한다.

종착역

전엘레나 (카자흐스탄)



우선 재외동포들에게 문학을 통해 마음을 표현 및 공유할 수 있는 창을 만들어 주신 재외동포재단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외동포문학상 응모 서식에 ‘해외 거주 기간’이 있길래 처음에 보고 뭐라고 써야 할지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저는 고려인 3세라 증조할아버지부터 저까지 시대가 한반도를 떠나 중앙아시아에 산 지 155년 이상 지났기 때문입니다.

한국어보다 러시아어가 편한 고려인들은 이주 역사가 깊고 슬프고 외롭지만 이를 문학을 통해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기회가 많지 않아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할머니께서 키워주셔서 저는 뺏속까지 자신을 한국인 (Korean)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종착역’이라는 시를 통해서 고려인들의 아픈 강제 이주 역사 및 모국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내용 중에 ‘어머니’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지만 ‘모국母國’이라는 뜻입니다. 한반도를 떠나 연해주에 갈 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좌절감,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영원히 고국을 볼 수 없게 되어 한으로 남아 영혼이라도 그곳으로 돌아가리라’라고 제 시의 마지막 줄입니다.

가작이라는 큰 상을 주신 재외동포재단에 너무 감사하고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Korean으로 키워주신 할머니께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해

이태경 (카자흐스탄)



제가 사는 곳은 예전 바닷물에 잠겨 있었던 땅입니다. 그래서 흙 속에 남아 있는 염분 때문에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애를 써 가꾸어 보지만, 이내 식물들은 누렇게 말라 죽어 버립니다. 한술 더 거들어 본다면 불어오는 모래바람은 사람의 마음을 황량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찌다 마주치는 초록색의 풀이나 길가에 피어있는 작은 꽃을 마주하기라도 하면 그렇게 대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살겠다고 피었구나!’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저는 웃습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말라버린 내 감성이 깨어난 것일까요?

길고 지루한 겨울이 지나간 어느 날, 3월의 봄이 되었지만, 여전히 황량한 벌판을 바라보며 저는 상상해 봤습니다. 싱싱하고 풍성한 프리지어 꽃다발을 들고 꽃향기를 맡는 제 모습을 말입니다. 기분이 한결 좋아졌습니다.

그 언젠가 그런 적이 있어서였습니다. 그 향기와 상쾌했던 바람을 기억하고 있어서였습니다. 추억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제 소설의 첫 부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담담하게 이별과 사랑 이야기를 써 보고 싶었습니다. 인생에서 이 두 단어를 빼고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수상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기대하지 못한 수상이라 더 기쁩니다.

먼 타국에서 격려와 위로를 얻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재외동포재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날

김미영 (스웨덴)



<좋은 날>이 재외동포문학상 우수상에 당선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날도 어느 날과 다름없이 저녁 무렵에 운동화를 신고 숲으로 산책을 갔었습니다.

호수를 둥그렇게 에워싸고 있는 숲길을 걸으며 기쁨으로 한껏 부풀어서 개암 나무 열매가 익어가는 심심한 빛깔도 새삼 감격스럽게 보이고 쓸쓸한 줄만 알았던 풀벌레 소리에 담긴 생의 악착도 사랑스럽게만 느껴졌습니다.

숲에 서서, 언젠가는 내 소설도 숲과 같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안에 다양한 생명체를 품듯이, 조화롭게 공존하듯이, 계절이 가고 오는 징조를 빠르고 예민하게 전달하듯이, 그리고 늘 변화하듯이.

이 분수에 넘치는 바람에 스스로 민망해질 때 들꽃 무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몇 번이고 그 옆을 지나쳤겠지만, 꿀을 빨기 위해 날아드는 호방벌들을 보고 서야 여태 눈길을 잡아 끌지 못했던 꽃이 거기에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감히 숲과 같기를 바랄 수는 없어도 눈에 띄지 않는 한 부분으로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제 안에 나름대로 들려줄 이야기가 있고 그것을 듣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으로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소설이 쓰고 싶어졌을 때, 내게 소설 쓸 여유가 있을까 라는가, 너무 늦은 시작은 아닐까 라며 주저하는 대신 바로 써 나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날

김미영 (스웨덴)

소설을 쓰는 동안 제가 소설을 쓰기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매일매일 알아가야 했지만 과분한 상을 받은 덕분에 앞으로도 계속 쓰리라 다짐하게 됩니다.

재외동포재단과 심사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조용히 최선을 다해 나를 도와주는 남편 고마워요.

승용아, 네가 있어 나는 따뜻하고 포근하다. 우리 잘 살자.

재용아, 나는 네가 늘 고맙다. 사랑한다.

한국에 계시는 엄마(박옥순 여사)와 나의 가족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서 정말 기뻐요.

맛있는 음식으로 당선을 축하하고 격려해주신 강 권사님, 먼 곳에서 꽃다발을 들고 한 한걸음에 달려 와 주신 김 집사님, 수상 소식을 듣고 제 일인 양 기뻐해 준 문우들, 동네 친구들, 또래 친구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망을 들어주신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이웨이 씩스

정명숙 (캐나다)



섬이었다.

바로 지척에 육지가 있었으며 물길 따라 통통배가 들락거렸고 얇은 바닷물이 끊임없이 해안선을 활았다. 온전한 섬이길 원했으나 온전한 섬이 될 수 없었고, 온전한 섬도 아니면서 여전히 섬이었다.

차라리 망망대해의 섬이 되어보고자 했다.

육지는 사라졌고 거선조차 보이지 않았다. 검은 바다는 섬을 유린하거나 지독한 고요 속에 누워있거나 했다.

애초에 떠난다는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지도 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또 떠날 것이다.

심 없이 활아대는 바닷물의 가벼운 혀와

바람이 날라 대는 냄새와 소리에 지친 누군가는.

모두가 행복하길 바란다.

온전한 섬이고자 하나 온전한 섬이 될 수 없는 섬도.

온전한 섬을 꿈꾸며 망망대해의 섬이 되고자 하는 섬도.

더 이상 망망대해에 홀로 떠 있는 섬이 아님을 일깨워준 재외동포재단과 보잘 것없는 작품을 선정해주신 심사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여름은 짧을수록 좋다

이미화 (미국)



머릿속에서 혼자 놀던 이야기를 글로 옮겨보고 싶어서 컴퓨터를 켜고 문서 파일을 열어 제목을 쓴다. 가슴이 설레이는 순간이다. 어렵게 첫문장을 쓰고 나면 뿌듯해진다. 손가락에 속도가 붙어 서너 페이지를 단숨에 쓰고 나면 그만 우쭐해져서 태어나면서부터 글쟁이였던 것처럼 으쓱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그때부터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맴맴 제자리를 돌고, 다음 문단으로 이어갈 말을 찾기 위해서 마우스와 키보드를 왕복하다 보면 어느새 커서는 글의 첫문장이 시작되는 곳에서 깜빡거리고 있다. 타고난 글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의기소침해진다.

키보드를 두들기면서, 가끔 커서를 노려보기도 하면서 두 계절을 보냈다. 글의 마지막 문장에 마침표를 찍고 나서 한동안 읽지 않았다. 글에 묻어있는 내 흔적이 사라지길 기다렸다. 한참 뒤에 글을 찾아 읽어 보니 여기저기 패이고 흠집 난 문장들이 또렷이 보였다. 통째로 들어내고 덧칠했다가 다시 벗겨내면서 한 계절을 더 보냈다.

혹시나 했다가 아니구나 하고 실망할 즈음 수상 소식을 들었다. 주책맞게 깔깔거리며 좋아했다. 화씨 90도를 넘는 여름이 어서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며 여름은 짧을수록 좋다고 주문을 외웠었다. 여름은 콧방귀도 안 뀌었지만 수상 소식은 그런 여름의 콧대를 납작하게 해줄 만큼 달고 시원했다.

읽을 만 하다고 격려해주신 심사위원께 감사를 드린다. 문득 머릿속에 이야기 하나가 빼꼼 얼굴을 내민다. 다시 키보드를 두들기고 싶은 생각에 마음이 급해진다. 겁도 없이 글을 쓰겠다고 덤비는 걸 보면 아마도 수상 소식에 조금 뻔뻔해진 것 같다.

## 나는 이 땅의 식물이고 싶다

류일복 (중국)



내년이면 꼭 한국 나들이 10년째인데 재외동포문학상을 받게 되어 기쁩니다. 특히나 전 세계 동포들이 우리 말과 글로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모전이기에 어느 상보다도 참 의미 깊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 올 때부터 한국 전역을 누비고 다니고 싶은 것이 소원이었고 지금까지 절반 꿈을 이루었습니다. 한편으로 직장 삼아, 한편으로 여행 삼아 모국의 아름다운 고장들을 속속들이 종횡무진하고 직접 피부로 체감하는 기쁨은 컸습니다. 동으로는 동해바닷가 고성통일전망대, 서로는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꼭짓점 오두산 전망대를 방문할 때는 그리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두만강 건너 나서 자란 마을 맞은편 이북마을을 대할 때와의 또 다른 설렘이더군요.

지지난해 전라남도 담양에서 한 달 정도 체류했던 느낌으로 이 소설을 썼습니다. 한국 농촌 풍경도 내가 나서 자란 연변 풍경과 거의 다를 바 없더군요. 젊은이들이 다 떠나간 농촌을 살맛 나고 생기 나는 마을로 건설하려는 어른들의 노력은 똑같이 아름답고 눈물겹기도 했습니다. 농촌에 사람이 살지 않듯이 인기 없는 농촌 제재는 쓰지 말라는 어떤 작가분을 뿌리치고 이 소설을 완성한 이유는 바로 농촌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뿌리가 가장 깊고 열이 녹녹히 짓든 곳이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한국 땅을 즐거운 여행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 응급약

지병림 (카타르)



떠나기 이전의 삶을 꽤 오랫동안 전생으로 치부하며 살았다. 강한 일사량과 낮은 종교, 문화, 언어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수밖에 없었다. 이전의 가치나 기준은 모두 버리고 새 삶의 잣대에 맞춰 나를 조율해야 했다. 불 위를 걷는 훈련처럼 낮은 삶을 딛고 이따금 추억이 있는 전생으로 돌아가면 늘 공중에 떠 있는 기분이었다. 내가 없는 동안 사라진 존재들과 발생한 존재들을 인지하는 일은 언제나 번뇌를 불러왔다.

아! 나는 어디로 흘러가는가?

어차피 우리가 이끌어 낼 삶의 형식이 ‘방랑’이라는 것을 일찍 알았다면 내 인생은 일찌감치 크게 달라졌을지 모른다. 매일 짐을 꾸려 세상 구석구석을 유랑하는 것이 삶이 되어버린 지금, 끝없는 역마를 거부할 마음이 좀처럼 들지 않는다. 하늘 위를 걸으며 밤을 새고 땅으로 돌아와 기절할 듯 잠들었다가도 벼락을 맞은 듯 일어나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면서도 콧노래를 부르니 나는 설계된 방랑자다.

당선 소식은 이십 년 전 처음 소설을 쓸 때처럼 막다른 골목에서 한 줄기 햇살처럼 찾아왔다. 기나긴 항암치료 끝에 완치판정을 받은 기분이다. 꾸준한 관리와 올바른 삶의 자세가 앞으로의 여정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다. 고향을 떠나 세계로 유랑하는 사람들에게 전생은 탕줄과도 같아 절대로 꿈을

수 없다. 함둘라! 부족한 작품에 오랜 시선을 문으며 다시는 건널 수 없을지 모를 강 위로 나룻배를 띄어주신 재외동포재단과 심사위원 선생님들 그리고 하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절반의 삶을 고된 훈련처럼 끝낸 기분이다. 남은 절반은 더없이 재미있게 살고 싶다.

### 전설처럼 살다 가신 할머니

박영희 (중국)



저의 글이 대상까지 받을 줄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재외동포문학상이니 더욱 영광이고 가슴이 뿌듯합니다.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감사드립니다.

언제인가부터 저는 꼭 할머니에 대해 글을 쓰려고 다짐하였습니다. 아마 그것은 할머니의 팔베개를 베고 누워 할머니의 옛이야기를 듣던 어린 시절부터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의 사랑을 한 몸 듬뿍 받으며 자란 저는 할머니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글로 쓰는 것이 저의 사명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9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지도 어언 20여 년.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번인가 필을 들었다가 놓으면서 짧은 수필은 썼습니다만, 저는 이 글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죄책감마저 들었습니다. 하여 이번 상은 저에게 더 의미 있고 소중합니다.

이젠 저도 60고개에 들어섰지만, 아직도 할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저는 글을 쓰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일생은 말 그대로 힘겹고 눈물겨운 우리 백의민족이 걸어온 발자취입니다.

할머니는 그 시대 여성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평범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할머니는 한 가정의 평범한 가장이고 주부로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가장 평범한 일일지언정, 것처럼 자신의 모든 사랑, 힘과 정열을 다른 사람에게 바치기만

전설처럼 살다 가신 할머니

박영희 (중국)

하였습니다. 할머니의 그 강인한 정신은 아직도 나의 마음속에 살아있으며 지금도 여성의 이상으로 빛을 뿌립니다.

나는 때론 생각합니다. 할머니는 오래오래 사셔서 오늘날의 풍요로운 물질문명과 행복을 누려야 하는데, 지금이라면 이 손녀는 할머니에게 백배 천배로 더 잘 해드릴 수 있는데...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 소재는 아직도 많은데, 응모할 수 있는 글자 수는 제한되어 있어 유감스러웠습니다. 저는 이번 대상의 영예를 할머니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항상 신변에서 저를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지인 여러분들, 그리고 해외동포재단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걷기

박성일 (호주)



8월, 고국은 무더운 여름이지만 제가 사는 호주 멜버른은 추운 겨울입니다.

한국과는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남반구 호주!

호주의 12월 여름 날씨와 한여름의 크리스마스가 아직도 낯선 이민 10년 차이지만 함께 길을 걷는 가족, 친구, 동료들이 있기에 그 길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의 체험 수기 <함께 걷기>의 글쓰기 작업은 호주에서의 지난 10년을 정리하며, 고마운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글을 마무리하며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를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사람이 전부입니다. 당신 곁의 소중한 사람들과의 인연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호주에서 친구를 사귀고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갈 때 새로운 땅에서의 도전도 행복하게 향해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소중한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은 제게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이영주’와 딸 ‘박시은’,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동행자들에게 이상을 바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이민 사회를 가꾸기 위해 더욱 힘찬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 에메랄드 섬의 옥돌 정착기

임세진 (아일랜드)



생각지도 못한 당선 소식에 놀라운 기쁨과 함께, 이런 기회를 마련해주신 재외동포재단과 외교부에 우선 매우 감사드립니다.

몇 주 전, 아일랜드인들의 이민 역사를 담은 'EPIC; The Irish Emigration Museum'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민의 이유는 여러가지였지만, 많은 아일랜드 이민자들의 후손들이 새로 정착한 나라들에서 케네디, 레이건 대통령 등 세계적 지도자들로 성장하고, 예술과 선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낸 역사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전시회를 보면서 전 세계 많은 이민자 중에서도 아이리시의 혈통은 두드러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힘은 문화의 힘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구요. 문학, 음악, 댄스 등을 통한 아일랜드 문화의 힘이 이민 사회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St. Patrick's Day와 핼러윈, 아이리시 펄 문화 등을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일까요. 다른 서구 열강들과 달리 침략의 역사를 가지지 않았기에 더 많은 세계의 친구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작은 섬나라에서 전 세계로 퍼져 가는 아일랜드의 문화를 보며 저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위인 중의 한 분인 김구 선생님의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의 구절들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

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제가 이민 온 초창기까지만 해도 한국을 잘 모르던 아일랜드 사람들도 k-pop, 한글, 한국 음식 등을 통해 이곳 한인 사회에 보다 친근하게 다가오는 요즘의 모습을 보면 김구 선생님의 꿈이 21세기에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 자랑스럽고 뿌듯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21세기에는 평화를 사랑하고,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우리 한민족이 세계의 진정한 리더가 되는 날을 꿈꾸어 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민족 재외동포들의 공통된 소망일 수도 있겠지요?

저의 영원한 고국 대한민국의 평화와 발전을 항상 기원하며, 우리 2세, 3세 아이들이 한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랑스럽고 당당한 세계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재외동포들도 함께 노력하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 삶의 진취적인 여정을 통해 저에게 가장 훌륭한 본보기가 되어주신 아버지, 성실한 노력만이 진정한 성공의 열쇠라고 항상 따뜻하게 가르쳐 주신 어머니께 기쁨과 감사를 함께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 케세라세라·희망은 늘 과제와 함께

이홍매 (중국, 일본 거주)



우선 상을 주신 재외동포재단과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훈민정음>을 연구하셨던 아버지와 조선어문(한글)을 가르치셨던 엄마의 슬하에서 태어나 한글을 익혔습니다. 한국문학을 전공하고 한동안은 한글을 무기로 밥을 먹었던 제가 유학의 불에 이끌려 일본에 온 지 어언 2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한글을 떠나 살았고 글쓰기를 내려놓고 살았습니다. 한 해 두 해 생의 연륜이 짙어 가면서 지난 세월에 대한 연민 비슷한 것이 울컥울컥 솟구쳐 오름을 견잡지 못하는 때가 가끔 생기게 되었습니다. 수다로도 눈물로도 레드와인으로도 거두어들이지 못하는 그것을 글로 쓰기 시작한 것이 겨우 5년이 됩니다. 중국어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닌 한글이어야만 그동안의 세월을 그대로 쏟아부어 내려 놓을 수 있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한글은 그동안 매혹스러운 빛을 잃지 않고 제가 꺼내어 줄 것을 조용히 기다려 준 듯합니다. 모어의 힘은 잠재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별이 되신 부모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방향과 허황과 집착을 집성하여 깨우쳐 우리가 현실의 바닥에 굳건히 서도록, 휘청이는 삶을 살지 않도록, 지구는 쉽 없이 그리고 평온한 회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색깔 있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 아이들이 과제와 모순, 희망을 한 몸에 등지고 살아가는 세상은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한글의 나라에서 주신 상이 저에게는 너무 큼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 적도의 땅 말레이시아에서 날개를 펴다

김희정 (말레이시아)



먼저 좋은 기회를 주신 재외동포재단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말레이시아 한인회에서 연락을 받고 좋은 경험을 쌓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레이시아에서의 생활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12년의 귀한 경험을 다 적기에는 분량이 너무나 많아서 간추리고 간추려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초점을 두고 글을 썼습니다. 평범한 주부에서 대학교수가 되어가는 과정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저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로 인해 삶이 진취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고 언어도 많이 부족해서 좌절도 많이 했었기에 더 자신감이 없었던 저에게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었던 건 남편과 아이들의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말레이시아 땅에서 많은 말레이시아 학생들의 한국어 선생님이로 정말 큰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더 사랑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적도의 땅 말레이시아에서 날개를 펴다

김희정 (말레이시아)

게다가 이번에 재외동포문학상에 수상작으로 당선되어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을 다하고 끊임없이 배우며 멋지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말레이시아 땅에서 한국을 빛내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굴 캐는 여자

오진영 (뉴질랜드)



고국이라면 봄이 한창 무르익어 꽃 잔치가 벌어질 지난 4월. 뉴질랜드는 겨울로 접어드는 마냥 쓸쓸한 계절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디에 살든 바쁘기 마련입니다. 특히 여기는 남의 나라, 낯선 땅에 튼튼한 뿌리내려 살아가야 하는 이민 사회입니다.

주어진 역할이 없어 뒤로 물러나 앉은 늙은이만 창가에 앉아 한가합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을 바라보며 왜 이리 멀리 떠나왔는지 알 수 없는 의문 속에 눈가가 축축해집니다. 겨울나무 낙엽 인생 저물어가는 황혼길. 길섶에 부서져 사라지는 잎새 하나. 그게 바로 나라는 생각이 들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가.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오르는 영상 하나에 한 달을 바쳐보리라 작심을 했습니다.

20여 년 전 2년여를 한 지붕 밑에서 동고동락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황금 같은 인생의 중년을 격랑 속에서 허우적대던 그. 영주권 없이 남의 나라에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를 옆에서 지켜보며 피 마르게 안타깝던 마음을 적어보고 싶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에게는 뼈아픈 세월이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도 않을 테지만 내게는 따뜻한 정서로 추억되는 시절이었습니다. 미용실에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나면 벽난로에 활활 타고 남은 불씨를 끌어내어 고기를 구워 먹던 일. 훌쩍 훌쩍 와인 잔만 기울이면 신세 한탄이 나오던 여인. 늘 씩씩한 척 내색이 없다

가 엄마한테 투정을 부리듯 믿고 의지하는 그 진솔함이 고마웠습니다.

한 편이 더 아쉬운 형편에도 맛있게 굴 회무침을 내놓던 넉넉한 인심. 그가 마치 내 혈육 같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참으로 멋진 낭만의 세월이었네요. 살아온 세월의 무게 때문이겠죠.

이제는 컴퓨터 작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눈도 침침하고요. 허리도 견디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만 주저앉을 것만 같은 나를 든든한 버팀목으로 세워 주시는 고마운 분이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머지않아 아들의 공부를 마치고 금의환향할 여인의 모습이 너무 궁금합니다. 우리는 그때 다시 만나면 거침없이 달려들어 찼한 포옹을 할 것입니다.

그날이 기다려지는군요.

### 2019년이 1919년에게

홍세훈 (뉴질랜드)



제21회 재외동포문학상 청소년 중·고등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 홍세훈입니다. 일단 제 글을 선택해주신 심사위원님들과 재외동포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공모전에 나갈 수 있게 기회를 마련해 주신 노스랜드 임마누엘 한글학교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까이에서 응원해준 가족들, 누구보다, 제 글에 대해 조언과 칭찬을 아끼지 않은 엄마에게 정말 많이 감사합니다.

이번 주제였던 3.1운동에 관련된 글을 쓰면서 많이 배웠고, 느꼈고, 깨달았습니다. 항상 역사에 관심이 많았고 특별히 일제 강점기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였고 또 많이 분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저 그렇게 이와 관련된 뉴스나 영화를 접할 때마다 가끔 씩씩거리고 답답해하기만 하였지, 모든 게 나와 먼 이야기로 느껴졌는지, 나와 상관없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여겼는지, 아니면 이제 와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라 간주하였는지는 몰라도 제 생각은 언제나 그렇게 짧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로 잊고 있었던 우리의 슬픈 역사를 더 깊게 들여다보고 곱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슴 한 켠에 내버려 두었던 감정, 생각을 꺼내 제 글에 담았습니다.

제 글은 1919년의 유관순 열사와 2019년의 제 삶을 맞대어 비추어 본 글입니다. 많은 독립 운동가들 중에서도 유독 유관순 열사가 마음에 와닿았던 이유는 아마 열사가 독립운동을 하고 감옥에서 생활한 나이가 지금의 저와 같은 나

이인 만 17살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든 생각은 단지 ‘대단하다’ 였 습니다. 지금의 제가 그때에 있었다면 두려워서 하지 못했을, 어쩌면 하지 않았 을, 독립운동을 하였고 그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는 수많은 끔찍 하고 수치스러운 고문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상상하기조차 싫습 니다. 그렇게 열사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사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 ‘항거’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열사의 독립 투쟁과 옥중 생활을 담담히 그 려낸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 예상하지 못했던 유관순 열사의 모습을 보 았습니다. 정말로 강하고 용감한 소녀인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 만 그녀가 그저 10 대의 소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히 평범한 소녀는 아니었지만, 한 사람이었기에, 한 소녀였기에, 무너지고 좌 절도 하였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슬픔에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고문을 받으면 서 고통스러워 몸부림치기도 했습니다.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한숨짓기도 했습 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삶을 내려놓 으면서까지 지켜야 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있었기에. 곧 우리나라를 이루고 있 는 문화, 한글, 그리고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싸움이었기에 쉽사리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나라는 유관 순 열사와 같은 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그들의 피와 눈물로 일궈낸 나라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것들을 우리는 감사하게 여기며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 다.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수도,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 만 그저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역사를, 한글을, 우리 문화를. 설령 다른 나 라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한국인이니까요.

다시 한번 재외동포재단에 감사드리고 제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 으로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3.1운동 정신과 일본 속의 나

남명지 (일본)



안녕하세요. <제21회 재외동포문학상>에서 우수상을 받게 된 남명지입니다.

제가 이렇게나 큰 상을 받게 되다니, 너무나도 놀랍고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수상 소식의 기쁨에 앞서 먼저 여러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일본이라는 타국에서 저를 이렇게 건강하게 키워주시고 한국에 관한 문화를 끊임없이 접할 수 있게 해주신 아버지. 그리고 그 옆에서 저의 정체성을 확실 하게 해주신 어머니. 이 두 분 덕분에 저는 한국과 일본을 모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은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꿈을 꾸게 하였고 그 꿈에 대한 표현이 글이 되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한국에서 저를 지켜봐 주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만날 때마다 저를 꼬옥 안아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저에게 마음의 안식처 같은 존재입니다. 가족들 말고도 저를 항상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글을 쓰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저의 꿈과 생각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 졌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마음의 표현을 잘 못 하기 때문에 이 글을 통해 저의 생각을 많은 분께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무척 흥분됩니다.

한일 관계 개선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그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장래는 밝

3.1운동 정신과 일본 속의 나

남명지 (일본)

다고 생각합니다. 그 밝은 미래를 위해서 저는 본분의 학생이라는 입장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저의 글을 읽어주시고 뽑아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에서 만난 안중근 의사

김정재 (중국)



작년 여름 재외동포 모국방문 캠프에서 만났던 친구들과 리더님을 한국에 돌아와 다시 만났고 7박 8일 동안의 즐거웠던 에피소드를 웃고 떠들며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를 지킨 우리 선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에 남겨진 안중근 의사의 자취를 둘러보면서 안중근 의사뿐만 아니라 그 당시 희생한 많은 의병은 지금 제 나이 또래의 젊은 청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여름 작열하는 태양 같은 열정을 품은 그분들처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전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글을 쓰는 동안 저 자신을 성찰하고 감사함을 느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 집, 24인의 독립 영웅

백재흠 (카자흐스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메일을 받았을 때의 그 기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조금 더 잘 쓸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과 수상의 기쁨이 함께 공존합니다. 이제 2019년도 서서히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심 없이 달려왔습니다. 작년에 2019년을 기약하면서 세웠던 목표들을 다 이루진 못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뤘다는 생각에 무척이나 뿌듯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재외동포문학상은 저에게 있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의 생각을 녹여낸 글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즐거웠고, 또 신기했습니다. 이번 도전과 경험이 앞으로의 제 삶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재외동포재단과 항상 응원과 도움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제 글을 뽑아주신 심사위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그 날의 함성을 기억하며

유다은 (태국)



어려서부터 해외에서 자라온 저에게 한국은 여름 휴가의 달콤한 휴식과 같은 곳입니다. 맛있는 음식부터 안전한 밤거리 그리고 세련되고 활기찬 사람들의 모습에 거의 매년 한국을 방문하는 저는 모든 것이 신기했고 항상 바쁘고 즐겁게 지내다 왔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그런 곳이었고 한국말을 곧잘 하는 저는 그것만으로도 한국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00년 전 있었던 우리의 역사는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면서 더욱더 한국을 알게 되었고 한국말을 한다는 것 한 가지만으로는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의 생생한 증언 역시 그분들이 직접 겪었다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슬픈 역사였지만 저도 그분들의 감정을 같이 느꼈고 더 잘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외할머니는 공모전 소식이 궁금하셨는지 엄마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혹시 제가 부담스러워할까 봐 저에게는 직접 못 물어보시고 엄마에게 전화로 소식을 물어보셨던 거였습니다. 외할머니에게 수상 소식을 전해드렸더니 외할머니는 아이처럼 뿔 듯이 기뻐하시며 축하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해주셨습니다. 격동기를 거치면서 모진 시련과 고난을 희생으로 이겨 내신 외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의 인생을 책으로 남기고 싶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미흡하

그 날의 함성을 기억하며

유다운 (태국)

나마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상을 받게 되어 더욱 의미 있는 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외할머니의 더욱더 좋은 이야기 친구가 되어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역사를 더 정확히 공부하고 더 나은 한국이 되도록 힘을 보탬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나

정유진 (중국)



이 글을 쓰기 위해 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하면서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슬픈 역사적인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희생을 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당했을 고통과 그 말 못 할 슬픈 기억이 내 마음속에서 생각날 때마다 나는 가슴이 슬퍼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가져오신 탁상용 달력에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날이 한 달에 하나씩 있었는데, 그날은 한국에서는 쉬는 휴일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있는 중국에서는 대한민국 국가 기념일을 따를 수 없어 몇 월 며칠이 무슨 날인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가끔 저와 동생에게 그날이 왜 공휴일이 되었는지 옛날 역사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인터넷에서 사진을 검색해 보기도 하고, 그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읽어 주시곤 하셨는데, 이런 습관이 아마도 제가 이번 글쓰기 도전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어른이 되면, 나라 사랑하는 작가가 되어 온 세상에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일본은 왜 우리나라 땅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하는지 역사책에도 나와 있는 진실을 왜 모르는지, 제가 아직은 모르는 것이 많지만 이제부터 하나씩 알게 되면 어른이 되어 많은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짓기를 하면서 이렇게 한글을 많이 써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글자를 언제 다 쓰게 될지, 꼭 다 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기도 하였지만, 막상 이렇게 좋은 상을 받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곁에서 저를 다독여 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수상의 기쁨을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구 반대편까지 들리는 평화의 만세 소리

박동하 (뉴질랜드)



재외동포문학상에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솔직히 이 상을 탈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아직도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한글을 가르쳐 주고 글쓰기를 할 수 있게 도와준 선생님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한글학교를 통해 배우지 못했다면 이렇게 글쓰기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한국의 문화를 배우는 것은 너무도 재미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의 문화를 배워서 어디에서든지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 34번째 민족 대표 스코필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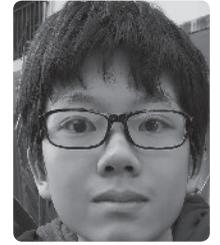
박새미 (캐나다)



먼저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주신 부모님과 토요일 컴머벨리 한글학교 선생님들께 감사하고요. 이렇게 큰 대회에서 제가 우수상을 받았다는 것이 놀라웠고 꿈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살고 있는 한국인으로서 존경하는 스코필드 박사님을 알게 된 것이 기뻐했습니다. 만약 스코필드 박사님을 몰랐다면 이런 영광스러운 상도 못 받고, 그런 위대한 분이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에 계셨다는 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 분에 대한 글을 써서 제가 상을 받았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커서 스코필드 박사님처럼 좋은 일을 많이 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를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어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지로 이어진 과거와 현재

이아론 (아르헨티나)



안녕하세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12살 학생 이아론입니다.

사실 이번에는 전으로부터 다른 문학상에 출전할 생각으로 준비해 왔던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재외동포문학상에 글을 제출할 기회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원래 쓰고 있던 글을 조금 고쳐서 쓸 수 있겠다는 생각에 주제에 맞게 다듬고 자료 추가하여 이렇게 “의지로 이어진 과거와 현재” 라는 글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여 머릿속에 상상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글로 잘 풀어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숙한 제 글을 뽑아주신 심사위원 분들 모두 다시 감사 드리고요, 조금씩 실력을 갈고 닦아 내년에는 좀 더 나은 글을 짓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어쨌던 간에 상을 타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또 책에 나오게 되어서 큰 영광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선자 분들께도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나의 마음의 멋진 포수 홍범도 장군

조다윗 (뉴질랜드)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 Whangarei Primary School에 Y6 조다윗(David Cho)입니다. 먼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태어나서 한국어보다는 영어를 더 편한 언어로 생각하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보다 역사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글학교에서 한글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면서 이런 좋은 기회에 참여해서 상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더 열심히 한글도 배우고 많은 특별활동에 더 잘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받은 상이 한글을 배우고 한국 역사를 배우고 받은 상이기에 제가 받았던 다른 상보다 더 귀하다고 너무 좋아하십니다. 다시 한번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와주신 저희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 한글학교 수업 시간에 배운 역사 이야기

김정현 (호주)



<한글학교 수업 시간에 배운 역사 이야기>라는 글로 재외동포문학상을 받게 돼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생긴 지 100년이 되는 아주 중요한 해라고 합니다. 한글학교에서 이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약 35년 동안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포기하지 않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싸웠습니다. 총, 칼 같은 무기를 손에 들고 목숨을 바치며 싸운 안중근, 윤봉길 같은 의사도 있었고, 유관순 열사처럼 태극기를 손에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한 결과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독립할 수 있었습니다. 광복 74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역사에 대해 배운 것을 쓴 글로 상을 받게 돼 정말 기쁩니다. 저 또한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요즘 한글학교에서 연말에 있을 학예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호 감방의 노래>라는 곡을 연습하고 있는데, 유관순을 비롯한 7명의 젊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서대문 형무소에 갇혔을 때 옥중에서 부른 노래라고 합니다. 노래 가사 중에 “피눈물로 기도했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눈에서 피가 났다는 말인가 싶어서 무서웠는데, 단어에 대한 선생님 설명을 듣고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분했으면 그렇게 노래했을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옥중에서도 목이 터져라 대한독립을 원했던 7명의 젊은 여성들을 기억하겠습니다. 학예회 때 그분들을 기억하며 노래하겠습니다.

## 자랑하고 싶은 우리나라

이우주 (독일)



안녕하세요! 독일 쉘레스비히홀슈타인주의 주도, 킬(Kiel)에서 훔볼트 김나지움(Humboldt Schule)에 다니고 있는, 이우주입니다. 이제 막 6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재외동포문학상에 참가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결과로 심사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귀찮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3.1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글로 이어졌습니다. 오히려 공부로 생각했던 이 글로 상을 받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3.1운동에 대한 감정과 감사는 더욱 커졌습니다. 우리의 열사들이 얼마나 힘들게 피와 땀, 눈물을 흘리면서 싸웠는지, 그들에 비하면 저는 즐병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라도 3.1운동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저도 커서 꼭 한국을 대표하거나, 한국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을 향한 제 사랑의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역사를 더욱더 잘 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이 어느 상황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의 선조들처럼 자랑스럽게 조국을 위해서 싸우는 이우주가 되겠습니다.

기분이 좋아져서 학교에 가서 자랑하면서 다시 한번 3.1운동과 독립운동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겠습니다. 아빠는 요즘 일본과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런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빨리 커서 힘을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1회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작품집  
2019 재외동포 문학의 창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발행일 2019년 10월 00일

디자인 편집 프럼에이  
표지 일러스트 김정태

교정/교열 이경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 재외동포재단

전화 064-786-0200

홈페이지 <http://www.korean.net>

ISBN 979-11-85409-43-6

<비매품>

※ 이 책의 저작권은 재외동포재단에 있으며 이 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시려면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